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기획연구’ 학술회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전편의 종합적 분석과 논평-

- 주최: 동북아역사재단
- 일시: 2020년 12월 10일(목) 10:00~18:00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대회의실

환영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직무대행 조태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사술 연구’ 학술회의를 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학술회의를 마련한 것은 세계사적 시야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인식의 소산이기도 합니다. 근래 우리는 우리도 예상하지 못한 글로벌 한류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문학 한류를 창출하여 세계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인문학 한류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초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자리로 그런 기초작업을 다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귀한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특히 중국사, 한국사, 동양사의 각 분야를 대표하여 국내외 학계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내주신 심재훈 교수님(단국대), 김병준 교수님(서울대) 조성우 교수님(서울대), 정병준 교수님(동국대), 이근명 교수님(한국외대), 윤영인교수님(영산대), 이화승교수님(서울 디지털대) 계승범 교수님(서강대), 김선민 교수님(고려대) 박민수 교수님(이화여대) 홍성화 교수님(부산대) 이준갑 교수님(인하대) 김승욱 교수님(충북대) 박상수교수님(고려대) 채준형 교수님(인천대), 그리고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드리지 못합니다만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구미 지역에서 출판되는 세계 역사 시리즈 중 가장 권위 있는 영문 출판물로서 중국 학계에도 영향력이 매우 큰 『케임브리지 중국사』 가운데 제 2책 육조(六朝, 220-589)편이 얼마 전에 출간되었습니다. 이에 재단은 제 2책 육조편의 한국고대사 관련 내용을 다수 확인하며 한중 관계를 비롯한 동아시아 외교관계 관련 내용이 적지 않게 서술된 점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서구학계의 중국사 연구에 대한 최고 수준을 반영한 대형저작으로 학술성이 높아 세계의 중국사 및 동아시아사 강의에서 교과서 또는 참고자료로 쓰이고 있습니다. 중국내 일부 대학에서도 교재 혹은 참고자료

로 사용하고 있기에 이를 계기로 『케임브리지 중국사』 전편의 한중관계 관련 서술 내용을 포함한 중국사 인식에 대해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공동 연구를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도 비교적 균형잡힌 시각 속에서 기술하고 고대한국사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서구학계의 인식을 반영하기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국학계의 한국사 관련 연구 성과를 거의 참조하지 않고, 오류가 많은 지적이 있는 영문으로 된 한국사 개설서를 인용하는 등 문제점이 지적되는 실정입니다.

재단은 이런 문제점을 고민하면서 이번 학술회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학술회의를 통해 국내 학계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지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향후 오늘 논의된 소중한 의견들이 반영된 단행본이 출간되어 많은 연구자들과 대중들이 구미학계의 중국사와 한국사 인식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캠브리지 한국사 시리즈의 발간에도 일조하여 국제 학계에서 한국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개회사

안녕하십니까?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정책실장 김현숙입니다.

요즘 우리는 전지구적인 코로나19 대유행에 직면하여 전례 없는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는 우리가 세계사적인 시야를 가지고 역사를 이해해야 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미학계의 중국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이라는 글로벌한 주제로 개최하는 뜻깊은 학술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 가운데서도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전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공동연구의 집필진으로 참여해주신 여러 선생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캠브리지 중국사』는 중국 선진시대부터 중화인민공화국사까지 각 시대별로 구미학계의 중국사 연구성과를 반영한 방대한 저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0여 년간 출판되어 온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가 완간을 목전에 앞둔 시점에서 재단은 구미학계의 한국사 주요 내용에 대해 이해하고 서구학계와 중국학계의 역사 인식의 차이를 파악하고자 오늘 학술회의를 열게 되었습니다.

다만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한 책이 경우에 따라 1000쪽이 넘는 방대한 분량입니다. 또한 구미학계의 중국사 및 한국사, 동아시아에 대한 연구 동향과 동시에 중국 및 한국, 일본학계를 이해해야 하기에 짧은 기간에 진행하기 어려운 지난한 작업임에도 이러한 작업에 참여해주신 것은 모두 여러 집필진들의 노고와 열정으로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정이 이렇지 않았다면 미중갈등이 극에 달한 이 시기에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전체를 놓고 훨씬 다양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을 것인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학술회의를 통해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한국사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파악하여 더욱 많은 의미 있는 연구성과들이 나오고 공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향후 『캠브리지 한국사』 시리즈 발간에도 좋은 참고가 되어 국제학계에
서 한국사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길
기원합니다.

귀한 시간을 내어 옥고를 집필해 주신 전문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
며 사회자 발표자 토론자의 노고에 거듭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PROGRAM

구분	시간	내용
개회식	10:00-10:10	환영사 조태영 이사장 직무대행 개회사 김현숙 연구정책 실장
1세션	10:10-11:10	사회: 이성제 한국 고중세사연구소 소장
		『케임브리지 중국사』 특권, 선진사 -심재훈 교수 (단국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1권: 진한사 -김병준 교수(서울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2권: 위진남북조사 -조성우 교수 (서울대)
		토론: 김경호 교수(성균관대), 정면 교수(서강대)
	11:10-11:15	장내 정리 및 휴식
2세션	11:15-12:20	사회: 이정일 한국 고중세사연구소 연구위원
		『케임브리지 중국사』 3권: 수당사-정병준 교수(동국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5-1권: 오대송사- 이근명 교수(한국외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5-2권: 오대송사- 이장욱 연구위원 (재단)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 정복왕조사- 윤영인 교수(영산대)
		토론: 이진한 교수(고려대), 조복현 교수(경희대)
	12:20-13:10	오찬
3세션	13:10-14:10	사회: 박장배 북방사 연구소 소장
		『케임브리지 중국사』 7권: 명사(1)- 이화승 교수 (서울 디지털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8권: 명사(2)- 계승범 교수(서강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9-1권: 청제국사-김선민 교수 (고려대)
		토론: 노기식 명예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조영현 교수(고려대)
	14:10-14:20	장내 정리 및 휴식
4세션	14:20-15:20	사회: 오병수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연구위원
		사회: 오병수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연구위원(4세션) 『케임브리지 중국사』 9-2권: 청제국사-박민수 교수(이화여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10권: 만청사-홍성화 교수(부산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11권: 만청사-이준갑 교수(인하대)
		토론: 노재식 교수(호서대), 손성욱 교수(선문대)
	15:20-15:30	장내 정리 및 휴식
5세션	15:30-16:50	사회: 김정현 국제관계와 역사대화연구소 연구위원
		『케임브리지 중국사』 12권: 중화민국사-김승욱 교수(충북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13권: 중화민국사-박장배 북방사 연구소 소장(재단) 『케임브리지 중국사』 14권: 중화인민공화국사-박상수교수 (고려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중화인민공화국사-채준형 교수(인천대)
		토론: 윤희탁 교수(한경대), 강진아 교수(한양대)
	16:50-17:00	장내 정리 및 휴식

목 차

제 1세션

- 『케임브리지 중국사』 특권, 선진사 11
 - 심재훈 교수(단국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1권: 진한사 23
 - 김병준 교수(서울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2권: 위진남북조사 31
 - 조성우 교수(서울대)

토론: 김경호 교수(성균관대), 정면 교수(서강대)

제 2세션

- 『케임브리지 중국사』 3권: 수당사 45
 - 정병준 교수(동국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5-1권: 오대송사 57
 - 이근명 교수(한국외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5-2권: 오대송사
 - 이장욱 연구위원 (동북아역사재단)
-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 정복왕조사 69
 - 윤영인 교수(영산대)

토론: 이진한 교수(고려대), 조복현 교수(경희대)

제 3세션

- 『케임브리지 중국사』 7권, 명사(1) 85
 - 이화승 교수(서울 디지털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8권: 명사(2) 103
 - 계승범 교수(서강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9-1권: 청제국사 119
 - 김선민 교수(고려대)
- 토론: 노기식 명예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조영헌 교수(고려대)

제 4세션

- 『케임브리지 중국사』 9-2권, 청제국사 133
 - 박민수 교수(이화여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10권 만청사 145
 - 홍성화 교수(부산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11권: 만청사 161
 - 이준갑 교수(인하대)
- 토론: 노재식 교수(호서대), 손정욱 교수(신문대)

제 5세션

- 『케임브리지 중국사』 12권, 중화민국사 175
 - 김승욱 교수(충북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13권 중화민국사(1912-1949) 하권 내용 검토 · 187
 - 박장배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 『케임브리지 중국사』 14권 중화인민공화국사 199
 - 박상수 교수(고려대)
 - 『케임브리지 중국사』 중화인민공화국사 211
 - 채준형 교수(인천대)
- 토론: 윤희탁 교수(한경대), 강진아 교수(한양대)

부 록

중국학계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평가분석

-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대한 학계의 書評 소개 225
 - 조용준 교수 (중국인민대학교 역사학원)

- -「先秦史」 편과 「秦漢史」 편에 대한 書評을 위주로 241
 - 이동훈 연구교수 (고려대 한국사연구소)

- <캠브리지중국사> 중세사파트 한국사 관련 서술과 인식 분석 255
 - 김종건 교수(대구한의대)

- 중국학계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평가 분석 263
 - 명청시대를 중심으로-
 - 손성욱 교수(선문대)

1세션

『케임브리지 중국사』 특권, 선진사

심재훈 교수(단국대)

발 표 『케임브리지 중국사』 1권: 진한사

김병준 교수(서울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2권: 위진남북조사

조성우 교수(서울대)

토
론

김경호 교수(성균관대), 정면 교수(서강대)

『케임브리지 중국고대사』의 의고와 신고

심재훈(단국대)

I. 들어가며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 『진한제국: 221 B.C.-A.D. 220』은 1986년 출간되었다. 총 편집자인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데니스 트위체트(Dennis Twitchett)는 편집자 서문에서 그 시리즈가 진한제국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1920년대 비롯되어 1970년대 이후 홍수처럼 쏟아지는 새로운 고고학 자료에서 찾고 있다.¹⁾ 그러한 새로운 증거들과 전통 문헌을 결합한 보편적으로 수용될만한 논의는 10여 년 이후에나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그 기대에 화답하듯 1994년부터 준비와 집필 과정을 거치며²⁾ 1999년 출간된 『케임브리지 중국고대사』³⁾(이하 『고대사』로 약칭)는 지난 세기 서양 고대중국 연구의 결정체이다. 그럼에도, 페어뱅크와 트위체트가 1986년 기대했던 새로운 고고학 자료와 전통 문헌의 종합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는 의문이다.

선사시대에서 진(秦)의 통일까지를 연대 혹은 주제별로 나누어 서술한 이 방대한 저작에는 서양에서 활동하던 각 분야의 대가 14명이 집필자로 참여했다. 우선 연대기적 서술에서는 선사시대를 제외한 모든 시대(상, 서주, 춘추, 전국)를 역사학과 고고학 분야로 나누어서 지난 세기 중국의 고고학 성과를 반영하며 균형을 이루었다. 선사시대와 상 사이에 언어와 문자를 다룬 장이 삽입되었고, 전국시대 다음에는 각각 고전철학과 자연/신비주의사상, 북방 변경지역을 다룬 세 장이 추가되었으며, 진한제국을 다룬 제1권과의 연결고리로서 선진시대의 유산 부분이 마지막 장을 이루었다.

『고대사』의 편집자인 케임브리지대학의 마이클 로이(Michael Loewe)와 시카고대학의 에드워드 쇼네시(Edward L. Shaughnessy)는 서문에서 이미 10여 년 전 페어뱅크와 트

1) Den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A.D. 22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v.

2) 필자는 1994년 11월 초 시카고 근교의 Starved Rock 주립공원 내의 호텔에서 열린 예비 모임에 참관할 기회를 가졌다. 장광즈와 쉬조원을 제외한 모든 집필자들이 참석했고, 중국에서 李學勤 교수를 모셔서 총평을 들었다. 그 모임에 대해서는 심재훈, 『고대 중국에 빠져 한국사를 바라보다』 (푸른역사, 2016)114-116 참조.

3) Michael Loewe and Edward L. Shaughnessy ed.,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위체트의 우려처럼 당시 구미 학계의 상황을 의식한 듯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새롭게 쏟아져 나오는) 학술적(고고학적) 근거만큼이나 만연하는 현재(중국)의 문화적 국수주의 때문에 신고에 대한 믿음을 언급한 일부 표현들이 과장된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렇지만 (중국학자들의) 이러한 견해가 서양학자들이 신고에 대한 믿음을 반박하기 위해 내놓은 많은 주장보다 더 편견적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고, 각각의 의견에 장단점이 있음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유보에도 불구하고 지난 세대의 고고학적 발견이 고대중국의 전통 문헌 기록을 뒤엎기보다는 오히려 입증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결론을 부정하기는 힘들 것이다(10쪽).

쇼네시의 견해가 반영된 듯한 이 주장은 시카고대학의 중국계 미술사학자인 우홍(Wu Hung)이 1995년 출간한 『고대중국 미술과 건축의 기념비성』⁴⁾에 대한 서양학계의 격한 반론에서 비롯되었다.⁵⁾ 우홍은 물질적인 “기념비”의 내용을 이루는 “기념비성”이라는 개념을 통해 중국 고대 미술사를 하나의 틀로 묶어 선사시대 이래 연속선상에서 체계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에 대한 프린스턴대학의 로버트 베글리(Robert Bagley)와 UCLA의 로타 팔켄하우젠(Lothar von Falkenhausen)의 서평은 신랄했다. 무엇보다 우홍이 선사시대부터 주대(周代)까지 도기와 옥기, 청동기를 연계시키기 위해 그 대상이 되는 시대보다 수 세기 혹은 수십 세기 이후 편찬된 『예기(禮記)』와 『의례(儀禮)』, 『주례(周禮)』의 삼례(三禮) 문헌을 활용한 것을 도저히 수용하기 어려웠다. 베글리는 특히 우홍이 비록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해도 고대 중국을 “문화 국외자”(cultural outsider)가 아닌 “문화 당국자”(cultural insider)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객관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았다.

인종적 편견 운운한 우홍뿐만 아니라 베이징대학의 리링(李零)까지 반론에 가세했다. 쇼네시 역시 1999년 3월 보스턴에서 있었던 아시아학회 소발표회의 토론자로 나와서 베글리의 서평을 거론하며 현재 서방의 고대중국 연구에 노골적인 편견이 있음을 우려한 바 있다. 특히 위의 인용문과 마찬가지로 당시까지 서방의 고대중국 연구가 의고 학풍에 지배받고 있지만, 새로운 전국시대의 출토문헌을 통해 의심 가던 전래문헌에 점차 신빙성이 부여되고 있어서, 이제는 그 학풍을 신중히 재검토할 때가 되었음을 촉구했다.

그렇지만 UCLA의 데이비드 스카버그(David Schaberg)는 『고대사』에 대한 자신의 서평을 통해 베글리의 서평에서 우홍의 반론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어떤 인종적·민족적·정치적 이분법은 전혀 찾을 수 없고, 설사 최악의 경우를 가정해 그렇다고 하더라도 베글리의 정당한 방법론적인 비판이 그 어떤 동기 때문에 거부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반

4) Wu Hung, *Monumentality in Early Chinese Art and Architectur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김병준 옮김, 『순간과 영원: 중국고대의 미술과 건축』 (아카넷, 2001).

5) 이하 우홍의 저서를 둘러싼 논쟁은 심재훈, 「고대중국 이해의 상반된 시각: 의고와 신고 논쟁」, 『역사비평』 65 (2003), 278-284에 상세히 정리되어 있다.

박했다.⁶⁾ 쇼네시가 위의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소발표회의 발표자 중 한 사람이었던 스카버그이기에, 그 발표 이후 나온 이 서평은 쇼네시의 절충적 제안을 거부한 것과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다. 어떤 측면에서 이 서평은 고대중국을 이해하는 방법론의 차이가 이제 국적 차이를 초월한 보편적 선택의 문제로까지 발전하기에 이르렀음을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스카버그가 적절하게 지적했듯이, 『고대사』의 집필자들이 채택한 전래문헌의 이해와 이용방법에서도 통일성을 찾기는 어렵다. 스카버그의 서평과 필자 자신의 『고대사』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필자는 아홉 장의 연대기적 서술에 나타나는 전래문헌의 활용방법 역시 대체로 신고와 의고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II. 신고: 전래문헌의 수용

우선 전래문헌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별다른 고민 없이 이를 토대로 주요 논의를 전개하는 경우로故 장광즈(kwang-chih Chang)가 집필한 「역사시대 전야의 중국」(1장)과 피츠버그대학 쉬조원(Cho-yun Hsu)의 「춘추시대사」(8장)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앞의 서술을 통해서 예상되듯 우홍이 집필한 「전국시대 미술과 건축」(10장)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된다. 마지막으로 전래문헌을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다는 쇼네시의 「서주시대사」(5장) 역시 이러한 경향을 띠고 있다.

장광즈는 고립적으로 발전하던 다양한 지역적 신석기문화들이 서기전 4000년경부터 접촉을 통해 소위 “상호영향권(interaction spheres)”을 형성하고, 룡산(龍山)시대가 시작되는 서기전 3000년까지는 이러한 “상호영향권”이 “중국”이라고 호칭되기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의 단계로 접어든 것으로 파악한다(58~59쪽). 따라서 고대문헌에 나타나는 창조신화가 삼대나 그 이상 즉 구석기시대 후기까지도 소급될 수 있을 것으로 주장하는데, 특히 『세본(世本)』에 언급된 전설상의 영웅과 그들의 영웅적 행위 역시 구석기·신석기인들로부터 전래된 영웅신화의 잔편으로 이해한다(69~70쪽). 이러한 장광즈의 서술은 최근 신석기 후기의 다양한 고고학적 성과를 삼황오제의 전설시대와 대비시켜 이해하려는 중국학계의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쉬조원도 『좌전(左傳)』의 신빙성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거의 전적으로 이를 토대로 춘추시대를 정치사 위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나 『좌전』을 기원전 4세기경까지 구전된 일화나 언설의 모음으로 파악하는 스카버그에게 그 문헌의 내용은 전국시대 중기 일부 집단의 사상가들이 보존가치가 있다고 여긴 역사적 지식일 뿐이다.⁷⁾ 따라서

6) David Schaberg, “Texts and Artifacts: A Review of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Monumenta Serica* 49 (2001), 474.

7) David Schaberg, *A Patterned Past: Form and Thought in Early Chinese Historiography*,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1)의 부록 “Orality and the Origins of the

전국시대 지성사의 일차적 자료인 『좌전』을 춘추시대의 연구에 이용할 때는 신중히 부차적으로 취급해야 한다고 반박한다.⁸⁾

전국시대의 건축과 미술을 산 자(궁전과 도시, 그릇, 장식, 회화, 조각)와 죽은 자(무덤과 부장품)의 관점에서 서술한 우홍 역시 전래문헌이 전국시대 건축과 미술의 해석에 믿을만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종묘와 무덤에서 사용되던 기물을 각각 제기(祭器)와 명기(明器) 나눈 『예기』의 분류를 따르듯이(707-708쪽), 출토 유물의 해석에 문헌에 나타나는 개념과 구분을 이용하면서, 전국시대의 미술에서 이전의 전통과는 다른 일정한 동질적 체계성을 찾을 수 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국시대까지 엄연히 존재했던 것으로 나타나는 지역주의의 양상이나 그 이전의 전통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점을 지적하면서, 스카버그가 이러한 우홍의 체계화를 문헌에서 비롯된 편견으로 의심하는 것은⁹⁾ 베글리나 팔켄하우전의 비판과 일맥상통한다.

마지막으로 쇼네시의 서주사 부분은 위의 세 장과는 달리 서주사의 자료에 대한 진지한 고민에서 출발한다. 쇼네시는 우선 왕의 책명(冊命)이 세 번이나 기록된 것으로 나타나는 서주 후기 송궤(頌簋)라는 청동기 명문의 사례를 통해 당시 기록의 전통에 주목한다. 그는 이러한 책명 기록들이 조정의 문서보관소와 청동기의 주조자인 송(頌)의 집에 보관되었을 것으로 본다. 서주시대 청동기 금문(金文)은 그 문법 구조가 『상서(尙書)』의 일부 편들과 거의 일치하여, 서주시대로 연대가 소급되는 『상서』와 『시경(詩經)』의 적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신빙성을 입증해준다. 쇼네시는 왕의 연설이나 대화를 기록한 『상서』, 그리고 조상의 종묘와 왕실의 향연에서 불린 노래와 시를 적은 『시경』이 청동기 명문의 예와 마찬가지로 원래 왕실의 필사를 통해 문서로 보관되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따라서 고고학 자료 못지않은 가치를 지닌 이러한 문헌자료를 무시하는 역사는 아주 메마른 역사가 될 뿐이라고 주장한다(293-299쪽).

그러므로 쇼네시는 후대의 문헌인 『죽서기년(竹書紀年)』과 『사기』 등을 포함한 전래 문헌과 서주 당대의 청동기 금문, 고고학 자료를 종합하여 선주(先周) 시대에서 서주 멸망까지 연속성을 지니는 이야기식(narrative) 역사 서술을 시도한다. 요컨대 극상(克商) 전 상과 주의 관계, 상 정복의 과정, 주공(周公)과 소공(召公)의 논쟁을 통한 서주 초 통치의 철학적 기반, 서주 초 군사원정과 통치의 공고화 과정, 서주 중기의 군사·관료·토지 제도 개혁, 서주 후기 왕실의 쇠퇴와 세계관의 발전, 서주의 멸망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룬다. 이러한 통시적 서술을 통하여 서주 초의 인물인 주공과 소공의 인격, 정책, 철학 뿐만 아니라 서주의 제도와 예식, 문학 장르의 발전 과정까지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쇼네시의 이러한 접근에 대한 스카버그의 비판은 신랄하다. 그는 무엇보다 서주에 대한 단편적 서술 묶음 이상의 어떤 것을 뒷받침하는 충분한 근거가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

Zuozhuan and Guoyu." pp. 315-24 참고.

8) Schaberg, "Texts and Artifacts," 489-490.

9) Schaberg, "Texts and Artifacts," 494.

이다. 쇼네시가 서주 초기를 서술하면서 주로 의존한 『상서』의 일부 편들이 설사 당시의 실제 대화를 담은 것이라고 해도 서주시대의 문헌은 아주 고립적으로 나타날 뿐이어서 그들이 전래된 구체적 상황이 불명확하다. 『시경』의 시들 역시 쇼네시의 용례와 달리 어떤 체계적 변화를 읽기에는 양적으로 극히 부족하다고 한다. 쇼네시가 주로 이용한 청동기 금문과 문헌자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명백히 다른 목적으로 기술된 이 두 자료에서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렵다. 나아가 금문에 나타나는 군사와 관료, 토지에 관한 기록 역시 어떤 장기적인 역사적 맥락에서 취급되지 않은 것으로, 한 명문 혹은 여러 그룹의 명문들을 통해 제도의 변화를 읽기에는 위험성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본다.

따라서 쇼네시의 서술이 일정 부분 맞을 수도 있지만 틀릴 가능성도 존재한다면, 서주사를 일관성 있게 체계적으로 서술하려는 이러한 시도는 이용 가능한 자료에 불가해한 부담만 지울 뿐이라고 한다. 스카버그가 보기에 서주까지 소급되는 일부 문헌이 존재하더라도, 서주의 연구 상황은 후대보다는 상에 가깝다. 다음 장에서 살펴볼 UC버클리의故 데이비드 키틀리(David N. Keightley)가 집필한 상 시대사는 그가 평가하는 가장 바람직한 모델이다.

III. 의고: 전통적 역사상의 부정

『고대사』에 포함된 시대사 장들과 달리 스카버그가 일관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평가한 고고학 장(3장 상, 6장 서주, 7장 춘추)은 의고 경향을 대표한다. 키틀리의 상 시대사(4장)와 스탠포드대학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Mark Edward Lewis)의 전국 시대사(9장)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쇼네시의 서주사 서술과 비교를 위해 키틀리의 「상: 중국의 첫 번째 역사적 왕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키틀리는 『사기』 「은본기」에 기록된 상의 세계(世系)가 갑골문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듯이 사마천이나 그보다 앞선 시대 문헌의 저자들이 상왕들의 시호와 재위 순서에 대해 비교적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으리라 인정한다. 다만 갑골문에 기록된 많은 사건이나 인물들에 대해서 사마천이나 그 이후의 역사가들이 무지했다는 사실 역시 지적하면서(235쪽) 전래문헌의 역사성을 의심한다. 따라서 문헌에 언급된 상의 역사는 단지 간략히 명시할 뿐, 전적으로 갑골문에 의존해서 상 시대사를 서술한다.

더욱이 절대연대 파악이 어렵고 왕들의 이름이 빠져있는 있는 갑골문의 한계 역시 인정하면서, 키틀리는 갑골문이 뛰어난 자료여도 상 후기의 특징적인 산물로 이를 토대로 쇼네시가 서주사의 서술에서 꺾은 것과 같은 이야기식 역사를 쓸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갑골문에 나타나는 인물이나 사건들을 전래문헌에 대비하여 추론적인 이야기로 꿰어맞추려 하지 않고, 연대기적 서술보다는 주제별 서술을 택한다. 갑골문의 점복과 정인,

연대기, 역법, 상 왕실의 종교, 상 왕조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와 함께 상의 유산 등을 서술하고 있다.

키틀리의 이러한 엄격한 방법론은 『고대사』에서 가장 도발적인 장으로 손꼽히는 베글리의 상 고고학과 짝을 이룬다. 베글리는 기존의 상 고고학에 대한 학계의 이해가 시대착오적인 후대 문헌기록에 토대한 것이라고 포문을 연다. 다시 말해 기존의 기원전 두 번째 천년기 유적들에 대한 연구는 상 중심을 사실로 전제하여 다양한 유적들을 모두 상 문화의 양상으로 이해하면서 통일적이고 거대한 “상문명”의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가 보기에 “상” 혹은 “상 왕조”라는 용어는 단지 안양(安陽, 殷墟)의 갑골문에 나오는 상왕의 일족을 지칭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다. 관례에 따라 이 장의 제목을 「상 고고학」으로 명명하기는 했지만 베글리의 관점에서는 “초기 청동기시대 고고학”이 더 적절한 제목일지도 모른다.

상 후기 안양기 문화보다 이른 전기의 문화를 대표하는 정저우(鄭州) 얼리강기(二里崗期)부터 양쯔강 유역에는 얼리강의 문화와 아주 다른 청동문화가 존재했다. 이미 1970년대에 서양과 일본의 학자들은 이러한 남부 청동문화의 독자적 발전을 주장했지만, 중국 학자들은 그 문화를 전래문헌에 나타나는 형초(荊楚)나 회이(淮夷)와 연관시킬 뿐이었다. 하지만 1986년 쓰촨성(四川省) 쓰싱두이(三星堆) 유적과 1989년 장시성(江西省) 신간(新淦) 유적이 발굴되어 기존에 상으로 일컫던 바로 그 시기에 상의 그것과 다른 문명들이 중원 이외의 지역에도 공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지역적 다원성이 고고학적으로 인정되는 대세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자들은 문헌의 뒷에 걸려서 “중국에서 (다양한) 문명의 발생”이 아닌 “(단일한) 중국문명의 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과거의 관점으로부터 왜곡되지 않은 중국 초기 청동기시대의 신선한 이미지를 찾는 데 실패하고 있다는 것이다(135쪽).¹⁰⁾

베글리가 보기에 주의 극상(克商) 무렵(기원전 11세기) 동부해안에서 쓰촨성 이르는 양쯔강 유역에 상과는 다른 문명화된 집단이 존재했으며, 산시성(陝西省)의 웨이수(渭水) 유역과 북방지역, 산둥(山東)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청동기를 사용하는 복합사회가 있었다. 극상 전야의 문명화된 세계는 방대했고 다양했으며 상호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¹¹⁾

그럼에도 전래문헌에는 단지 상과 주만이 유일하게 문명화된 사회로 묘사되어 있고, 상에서 주로의 통치세력 교체가 가장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어 있다. 베글리는 이러한 도식적인 설명이 서주시대까지 소급되는 『상서』나 『시경』의 일부 편에서 비롯되는 것에 주

10) 베글리의 이러한 이해는 장광즈가 제시한 기원전 3천년까지 다양한 지역적 “상호영향권”의 자극으로 “중국”이라는 실체가 형성되었다는 이론과 확연히 다르다. 장광즈를 포함한 많은 중국학자들이 현재 중국의 정치적 영역에 포함된 모든 다양한 신석기문화를 중국문명의 형성에 기여한 것으로 파악하지만, 베글리가 보기에 紅山이나 良渚文化 같은 독특하고 이질적인 문화를 습관적으로 중국 문명의 조상으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135쪽, 각주 17).

11) 이는 문화적으로 商과 유사한 유적이 발견된 지역을 모두 정치적 상의 영역으로 포함시킬 수는 없고, 상 후기 왕들의 통치영역이 河南省 북부와 동부, 山東省 서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위축되었을 것이라는 키틀리의 추정과도 일치한다(276-277쪽).

목하면서, 상에서 주로의 단선적 역사상은 주의 관점에서 편의적으로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천명을 통해 신성하게 승인된 보편적 통치를 꾀했던 주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자신들 이전에 보편적 통치를 담당하던 세력과의 극적인 투쟁을 묘사할 필요성이 있었고, 그 적절한 대상이 바로 안양의 상왕들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하(夏)의 보편적 통치가 상으로 합법적으로 이전된 선례까지 조작해냄으로써, 주는 보편적인 통치권이 자신들에게 이전되었음을 공인받기에 이른다. 이렇듯 고고학적 양상과 달리 주에 의해 창조된 단선적 역사상이 후대 역사가들에게 상징적인 역사로 각인되었던 것이다.

베글리는 주가 어떻게 역사를 개작했는지 알기 위해 주에 의해 기록된 역사와 고고학적으로 재생된 역사의 차이점을 탐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지만 전통이 믿을 만하고 고고학의 임무는 이러한 전통을 입증하는 데 있다고 믿고 있는 중국학자들이 이러한 차이의 존재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안타까워한다(231쪽). 최상의 역사가는 전래문헌을 이용하면서도 전거가 의심되는 “가공품(artifacts)”으로 조심스럽게 취급해야 한다고 믿는 스카버그에게 베글리의 엄격한 방법론은 중국의 초기 청동기시대 연구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것이었다.¹²⁾

옥스포드대학의 고고미술사학자 제시카 로슨(Jessica Rawson)이 집필한 「서주 고고학」(6장)은 문헌과 출토문헌을 포함한 고고학 자료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 베글리만큼 비판적이지는 않다. 그러나 고고학 자료가 문헌에 결여된 많은 새로운 사실을 전해준다는 점에 대해서는 베글리와 이견이 없어서, 그 역시 자신의 서술에서 거의 전적으로 고고학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다만 로슨이 선주(先周) 시대와 서주 초기, 중기, 후기로 나누어서 당시 중국 각 지역의 중요한 유적지를 망라하여 서술한 이 시대의 모습은 베글리가 그린 바로 전 시대와는 다르게 나타난다. 그는 이러한 다양한 유적지들이 분포된 모든 지역을 주 왕실이 통치했을 것이라는 주장은 비현실적이지만, 이들에게 나타나는 물질적 유사성(특히 청동기)을 통해 최소한 당시 상류층 문화에서 예전에 나타나지 않던 규모의 통일성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그는 주가 “거대한 통일국가”를 이룩했다고 까지 언급한다(353쪽).¹³⁾

로슨이 주장한 또 다른 중요한 핵심은 전래문헌에는 전혀 암시되어 있지 않은 이른바 “의례혁명”(Ritual Revolution)이다. 그는 서주 중후기 공왕(共王) 시기부터 청동예기의 모양이나 문양, 조합 등에 눈에 띄는 큰 변화에 주목하고, 이를 가족 중심의 소규모 제사에서 청중을 상대로 한 대형화된 새로운 제사 형태로의 변화로 이해하면서 “의례혁명”으로 명명하고 있다(433-438쪽). 로슨의 이러한 주장은 쇼네시가 제도적 측면에서 간파한 서주 중기의 “개혁”뿐만 아니라 서주 후기로 연대 추정되는 『시경』 노래들을 통해 읽

12) Schaberg, “Texts and Artifacts,” 475.

13) 로슨이 상정한 동일문화권은 서쪽 陝西省 寶鷄에서 동북쪽 北京까지를 포괄하는 지역으로 대략 동서 1250km, 남북 800km에 이른다. 서주시대에 周의 세력권이 양자강까지 미쳤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쇼네시와 마찬가지로(319쪽), 로슨 역시 현재까지 이용가능한 고고학 자료로 당시 중국 남부와 중원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어렵다고 한다(423-425쪽).

은 제사의식의 변화와도 맥을 같이한다(332-333쪽). 전래문헌의 이용방법에 따른 차이로 인해 스카버그의 비평과 호평을 나누어 가졌지만, 두 학자의 서주시대 서술은 오히려 상호보완적이다.¹⁴⁾

이와 달리 춘추시대 고고학을 다룬 팔켄하우젠의 「청동기시대의 쇠퇴: 물질문화와 사회발전, 770-481 B.C.」는 앞에서 언급되었던 쉬조원의 전래문헌에 의존한 춘추시대사 서술과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전래문헌은 당시 정치사회적 발전에 대해 주 왕실의 쇠퇴에 동반한 지역 정치체의 흥기와 각 정치체 내에서 상쟁하는 혈족으로 정권 이양, 6세기 중반 이후 중앙집권화된 정치구조에 의한 구귀족질서의 대체 등을 언급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근래 중국의 역사학과 고고학자들 역시 문헌에 언급된 각 정치체들의 지역 문화와 상류층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¹⁵⁾

그렇지만 춘추시대의 고고학을 취락과 청동기, 무덤 등 주제별뿐만 아니라 지역별로도 검토한 팔켄하우젠은 춘추시대의 상류층 문화가 서주 후기 “의례개혁”(Ritual Reform)¹⁶⁾ 이래로 동질성이 더 강화되었다고 주장한다. 눈에 띄는 지역성은 단지 양쯔강 유역과 그 남부, 북방 초원 지역, 만주 등 변경지역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이다(450-451쪽). 문헌에 나타나는 춘추시대의 중국이 정치적으로는 분할되었지만, 당시 귀족들은 주의 중심지에서 비롯된 문화적 가치를 공유했고, 사회 조직 역시 동질성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본다(544쪽).

팔켄하우젠은 또한 여러 정치체의 귀족무덤에서 나타나는 청동예기 부장품(특히 정[鼎]의 숫자를 토대로, 이를 문헌에 언급된 주의 열정(列鼎)제도와 비교검토하고 있다. 그는 몇몇 제후와 귀족 무덤의 부장품을 통해 각 지역 나름대로 일정한 규율의 열정제가 있었음을 알 수 있지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춘추시대의 모든 귀족들이 문헌기록과 같이 공통된 규정을 따랐던 같지는 않다고 지적한다(478, 485, 489쪽). 따라서 스카버그는 비록 문헌과 고고학자료 사이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불명확한 점도 있어서 전래문헌을 이용할 때 불명확한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욱이 『공양전(公洋傳)』과 『주례』에는 일정한 규율을 갖춘 열정제가 서주시대에 실시된 것으로 나타나지만, 서주와 춘추시대 고고학 자료는 이러한 열정제가 빨라야 서주 후기 “의례혁명” 이후부터야 나타나 동주시대에 정착된 것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문헌의 열정제는 동주시대의 관례를 도식화한 시대착오적인 기록에 불과할 뿐이다.¹⁷⁾

마지막으로 루이스의 「전국시대 정치사」 역시 스카버그에 의해 문헌 자료를 다루는

14) 한 가지 눈에 띄는 뚜렷한 차이는 先周시대의 인식이다. 쇼네시가 갑골문과 전래문헌을 이용하여 周의 선조가 山西省 서남부에서 陝西省의 岐山 지역으로 이주했다고 추정하는 반면에(303-307쪽), 로슨은 명확한 결론에 대해서는 유보적이지만 고고학 자료를 토대로 陝西省 일대를 주목하고 있다(375-385).

15) 李學勤의 『東周與秦代文明』(北京: 文物出版社, 1984)이 이러한 경향을 선도했다.

16) 팔켄하우젠은 통치 집단이 바뀐 정도는 아니었으므로 로슨이 사용한 “혁명”보다 “개혁”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17) Schaberg, “Texts and Artifacts,” 486.

세련된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루이스는 전국시대의 다양한 문헌자료(출토문헌 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료로 이용할 때 적지 않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다. 첫째, 신뢰할만한 연대기적 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건들의 연대추정이 불가능하다. 둘째, 문헌 대부분이 수사적이거나 철학적인 논의를 담은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많은 역사적 사건을 얘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셋째, 연대가 불명확한 이러한 문헌들에 어떤 독립적 개인보다는 공통된 스승을 추종하는 일정한 집단의 지적인 이해관계가 반영되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재 이용 가능한 전국시대의 문헌 자료는 어떤 세부적인 사항보다는 시대 전체의 큰 윤곽을 파악하는 데 유용할 뿐이라고 믿는다(592-593쪽).

이러한 측면에서 루이스는 통치자 중심의 국가, 전국의 제도, 다국가(multistate) 세계의 형성, 병법, 맹약과 책사, 학자와 국가, 인문지리(Human Geography) 등을 통해 전국시대의 새로운 정치 질서를 단정적 표현을 자제하면서 조심스럽게 서술하고 있다. 루이스의 서술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고대사』와 거의 동시에 출판된 그의 저서를 통해서도 나타나는 전국시대 “저술”을 통한 “권위”의 형성일 것이다.¹⁸⁾ 그는 자신이 전국시대 이해의 핵심으로 파악하는 새로운 제도들이 집합적,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감한 개혁가에 의한 일련의 영웅적 혁신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이러한 원인을 전국시대 새로운 개혁의 주체인 사(士) 계층의 관직 열망과 당시 저술의 권위에서 찾고 있다. 루이스는 또한 당시 사들이 관중(管仲)이나 주공(周公), 여상(呂尙), 이윤(伊尹) 등 재상으로 성공한 인물을 그들의 모델로 설정하면서, 당시까지 전해 내려오던 문헌들도 이들이 지은 것으로 가탁했으리라 추정한다(603-604쪽). 개인의 전기를 제도사의 관점에서 이해한 루이스의 견해 역시 문헌에 대한 맹신에서는 생겨날 수 없는 것이다.¹⁹⁾

IV. 나가며

『고대사』 속에 나타난 신고·의고 경향의 서술들은 자료이용 방법에 큰 차이가 있고,

18) Mark Edward Lewis, *Writing and Authority in Early China* (Albany: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Press, 1999);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지음/최정섭 옮김, 『고대 중국의 글과 권위: 제국으로 가는 글의 여정』 (미토, 2006).

19) 이 글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진의 통일 전 어떤 철학적 저작도 저자가 불명확하거나 주 저작자 사후 수세기 동안 층층이 덧붙여 재구성되었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국시대의 고전철학을 검토한 스탠포드대학故 데이비드 니비슨(David Nivison)의 「고전철학적 저술들」(11장)과 북방민족에 대한 고고학과 문헌기록의 불일치성에 주목한 고등연구원(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니콜라 디 코스모(Nicola Di Cosmo)의 「前 제국시대 중국의 북방변경」(13장) 역시 의고의 장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이다. 시카고대학 도널드 하퍼(Donald Harper)가 집필한 「전국시대 자연철학과 신비주의 사상」(12장)도 馬王堆 帛書 등 출토문헌에 의존하여 고전철학에 가려진 종교 사상의 이면을 추구한 점에서 같은 경향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을 통해 그려진 고대중국의 모습 역시 다르게 나타나는 듯하다. 특히 장광즈의 선사 시대와 이에 연결되는 베글리의 상 고고학은 도저히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괴리가 크다. 장광즈가 전래문헌의 역사상을 등에 업고 신석기시대 이래로 연속성을 띤 하나의 중국문명을 상정한 반면, 전통적 역사상을 송두리째 부인한 베글리는 상 시대까지 중국에서 다양한 문명의 존재를 주장한다.

논리적 완결성을 추구해야 하는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신빙성이 의심되는 후대 문헌에 의존해 반박의 여지를 남긴 장광즈의 서술보다 엄정한 자료이용 방법을 제시한 베글리나 키이틀리의 서술에 더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지만 스카버그의 비판처럼 위에 언급된 신고 경향의 장들에서 나타나는 사료 이용방법을 모두 폄하하기에는 성급한 감이 있다. 자료의 상황이 다른 각 시대의 서술방법에 차이가 인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좌전』의 무비판적 수용을 지적한 쉬조원의 「춘추시대사」 부분에서 스카버그 자신도 인정하듯이 춘추시대사의 거의 유일한 사료인 『좌전』을 배제하고 과연 이 시기의 역사서술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좌전』의 구전적 성격을 주장하는 스카버그와 달리, 최근 히브루대학 유리 피네스(Yuri Pines)는 『좌전』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주요 정치가들의 언설이 춘추시대 조정의 사관들에 의해 간독(簡牘)에 기록된 것들을 토대로 재구성한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언설의 내용도 춘추시대의 지성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어 『좌전』이 당시 지성사의 일차자료로서 손색이 없다는 것이다.²⁰⁾ 거의 전적으로 『좌전』에 의존해 「춘추시대사」를 서술한 쉬조원의 방법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신고의 문제점으로 돌린 스카버그의 비판은 지나쳐 보인다.²¹⁾

우홍의 「전국시대 미술과 건축」에 대한 스카버그의 비판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우홍이 이 장에서 이용한 대부분의 문헌은 연대가 전국시대까지 소급되어 당시의 담론을 담고 있는 것들이다. 따라서 그러한 문헌을 신석기나 상, 서주시대까지 적용한 우홍의 『기념비성』에 대한 팔켄하우젠과 베글리의 비판은 설득력이 있지만, 전국시대 부분에 대한 스카버그의 비판은 재고의 여지가 있다.

특히 쇼네시의 「서주사」에 대한 스카버그의 비판은 서양학자들의 의고에 대한 신념 역시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다. 서주의 연구 상황을 상의 그것과 비슷하게 파악한 그의 견해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 우선 갑골문이 상 후기, 그것도 무정왕(武丁王) 재위기에 편중된 자료인 반면, 금문은 서주 전시기를 포괄한다. 통치자의 기원을 담은 점복기록인 갑골문이 종교적 색채가 짙은 자료라면, 한 개인 혹은 가족의 통치자와 관련된 영광스러운 행위를 기념한 기록인 금문은 더 현세적이다. 더욱이 대부분의 갑골문은 짧막한 단문 형식을 취하고 있어 그 자체에서 어떤 이야기를 발견하기 어렵지만, 상당수 장문의 형태를 띤 금문은 완결성을 갖춘 이야기를 전해준다.²²⁾

20) Yuri Pines, *Foundation of Chunqiu Thought*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2), 1장 "Sources of Chunqiu Thought"(pp. 13-54) 참조.

21) 『左傳』과 출토문헌의 호환성에 대해서는 심재훈, 「출토문헌과 전래문헌의 조화: 子犯編鐘 명문과 『左傳』에 기술된 晉 文公의 霸業」, 『東洋學』 40 (2006), 89-112 참조.

1970년대 이래 명문이 새겨진 청동기가 다수 발굴되면서 서주사 연구는 새로운 단계에 들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당대 자료의 양적 증가는 스카버그의 지적과 달리 서주시대의 군사나 관료, 토지 등 제도의 변화를 읽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 특히 서주 중기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대량의 책명 금문을 통해 서주 통치권의 축소와 관료화를 읽은 쇼네시의 견해는 주목할 가치가 있다.

물론 필자 역시 「서주사」에서 쇼네시가 이용한 문헌이용 방법이 어떤 반박의 여지도 남기지 않을 만큼 완벽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더욱이 갑골문을 통해 입증되는 상 후기 이전의 역사를 전해주는 흠 없는 문헌기록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키틀리의 방법 역시 그 정당성을 부여받기에 충분하다. 마찬가지로 전래문헌의 역사상에 물들지 않은 상·서주·춘추시대 고고학에 대한 장과 전국시대 자료의 신중한 이용사례를 보여준 루이스의 「전국시대 정치사」 역시 중국고대사 서술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신고와 의고 경향으로 각각 분류한 장들에서 상충하는 모습을 찾기 어려운 점도 흥미롭다. 극상 이후 북중국의 상당지역을 장악한 통일적 주의 모습을 그린 「서주사」와 「서주 고고학」은 전래문헌의 이용방법은 달랐지만 상호보완적이다. 각각 분열된 중국과 이전 시대보다 더욱 통일적인 동질적 중국으로의 발전을 서술한 춘추사와 고고학 장은 그 전래문헌 이용방법의 차이점만큼이나 상이한 역사를 그린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오히려 춘추시대를 이들이 묘사한 그대로 정치적으로 분열되었지만 문화적으로는 주(周)의 그것을 추구하며 동질성을 유지했던 시대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더욱 강력한 통치세력의 등장과 함께 새로운 제도를 가능케 한 능력있는 개인의 존재를 부각시킨 「전국시대 정치사」와 새로운 정치세력에 걸맞은 거대한 도시와 건축, 개인의 부각과 함께 나타나는 세속적 사치품의 등장 등을 서술한 「전국시대 건축과 미술」 역시 상호보완적이다.

그러므로 중국과 서방 학자들의 중국고대사 서술에서 어떤 접점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리링의 비판적 전망과 달리²³⁾ 문헌이용 방법에 대한 일관된 원칙 없이 의고·신고 경향으로 각각 서술된 『고대사』의 몇 장에서 오히려 정합의 실마리를 발견하게 됨은 역설적이다. 문헌의 신빙성 여부를 둘러싼 중국과 서양학계의 논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지만,²⁴⁾ 『고대사』는 풍부한 내용과 함께, 그 상반적이면서도 보완적인 논의를 여실히 보

22) 진후소편종(晋侯蘇編鐘)의 355자 명문은 좋은 예가 될 것이다(심재훈, 『중국 고대 지역국가의 발전: 진의 봉건에서 문공의 패업까지』 [일조각, 2018], 222-231).

23) 李零, 「學術“科索沃”-場圍繞巫鴻新作的討論」, 『中國學術』 2 (2000), 202-216

24) 심재훈, 「周代를 읽는 다른 방법: 자료와 체계의 양면성」, 『중국고대사연구』 26 (2011), 219-261 참조. 이러한 논의는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리핑의 책 *Bureaucracy and the State in Early China: Governing the Western Zhou*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8)에 대한 서평에서 팔켄하우젠은 금문 자료 활용과 이론적 한계를 지적하며 혈연적 귀족 중심의 서주 정부에서 리핑이 주장한 관료제 요소를 설정하기는 어렵다고 비평한 바 있다(『浙江大學藝術與考古研究』 第一輯 [2014], 252-277). 리핑 역시 새로운 이론적 토대와 명문 자료를 제시하며 서주 왕들이 혈연 중심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료제를 고안했다고 반박하고 있다(Li Feng, “Method, Logic, and the Debate about Western Zhou Government: A Reply to Lothar

여주었다는 점에서 중국 고대사 연구에 공헌한 바가 크다.

von Falkenhausen.” *Front History China* 12.3 [2017], 485-507).

제국을 바라보는 두 시각 : 『케임브리지 중국사: 1권 진한제국』을 읽고

김병준(서울대)

1. ‘제국’이라는 용어

책 제목을 쓰려다가 문득 부제에 눈길이 갔다. “The Ch'in and Han Empires : 221 B.C.~A.D. 220”. 이걸 번역하면 어떻게 될까? 그냥 무심코 ‘진한사’라고 생각했었는데, 정작 진한 뒤에 empires라는 단어가 있다. ‘제국’! 새삼 진한 왕조를 바라보는 시각에 제국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먼저 누가 진한시기를 제국이라고 부르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외에 얼마 전 출간된 『하버드 중국사』의 부제도 “최초의 중화제국(The Early Chinese Empires)”이라고 되어 있다. 레이 황(Ray Huang)의 『거시 중국사(China: A Macro History)』도 진한 부분의 장 제목을 “최초의 통일제국”라고 했다.¹⁾ 미시간대학출판부에서 나온 창춘슈(Chun-shu Chang)의 책은 아예 책 제목을 “The Rise of the Chinese Empire”라고 했다.²⁾ 일본에서 출간된 개설서도 제국이라는 용어를 썼다. 1997년에 講談社에서 출간된 중국사 시리즈 중 진한사 부분은 西嶋定生이 집필하였는데 그 제목을 『秦漢帝國：中國古代帝國의 興亡』이라고 달았다.³⁾ 그 후 2004년 講談社의 중국사 시리즈는 鶴間和幸이 집필했는데 그 제목은 『시황제의 유산(ファーストエンペラーの遺産)：秦漢帝國』이었다.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중국사 개설서를 시기별로 나눠서 출간하지는 못했지만, 진한시대 전문연구서로서 출간된 이성규 선생의 『중국 고대제국 성립사 연구』에도 고대제국이라 칭했고,⁵⁾ 필자도 「秦漢帝國의 이민족 지배」,⁶⁾ 「秦漢帝國的邊境

1) Ray Huang, *China : A Macro History*, M. E. Sharpe, Inc., 1988 (黃仁宇 저, 홍광훈 홍순도 옮김, 『거시 중국사』, 까치, 1997)

2) Chun-shu Chang, *The Rise of the Chinese Empir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2007.

3) 西嶋定生, 『秦漢帝國』(講談社學術文庫) 講談社, 1997.

4) 鶴間和幸, 『ファーストエンペラーの遺産)：秦漢帝國』, 講談社, 2014. 그밖에 日比野丈夫, 『秦漢帝國』 中国文明の歴史<3> (中公文庫), 中央公論新社, 2004 ; 渡邊義浩, 『漢帝國-400年の興亡』 (中公文庫), 中央公論新社, 2019 ; 松島隆真, 『漢帝國的成立』, 京都大学學術出版會, 2018 등도 모두 제국이라 칭했다.

5) 이성규, 『중국 고대제국 성립사 연구』, 일조각, 1984.

6) 김병준, 「진한제국의 이민족 지배」, 『역사학보』 217, 2013.

」7) 등의 연구논문을 통해 진한시기를 제국으로 규정하였다. 다만 일본이나 한국의 용례는 비교적 최근의 것들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정작 중국에서는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필자가 찾아본 개설서는 모두 『秦漢史』라고 되어 있을 뿐, 진한제국이라고 명명한 것은 없었다.⁸⁾ 그렇다면 이 ‘제국’이라는 개념이 중국과 그 바깥 특히 구미 학계 사이에 존재하는 진한시기 이해의 차이를 찾아낼 수 있는 단서가 되지 않을까?

『케임브리지 중국사 : 진한제국사』에는 전편에 걸쳐 진한 왕조를 제국으로 간주하고 논지를 펴 나갔다. 다만 제국을 별도로 규정하거나 그에 대한 관심을 직접 설명하는 글은 찾지 못했다. 그 대신 『하버드 중국사』의 첫 머리에는 다음과 같은 언급이 있다.

서양인은 항상 중국의 역사를 ‘제국’이라는 개념과 밀접하게 연결하여 생각해 왔다. 중국의 역사가 시작된 후 1천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 제국이 등장했다. 수백 년간 서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싸웠고, 기원전 221년 진이 경쟁국을 멸망시키고 중국을 통일했다. 제국은 군사적 정복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기 진한제국에 의해 중국문화의 근본적인 재구성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중국이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다. 정치제도, 군사제도 뿐만 아니라 학문, 종교, 친족구조, 향촌생활, 도시경관이 모두 재편되었다. 진한제국은 서양의 그리이스와 로마처럼 중국 문명의 “고전” 시기에 해당한다.

이 언급이 곧바로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지만, 서양인이 중국사를 제국이라는 시각에서 보게 된다는 점, 그리고 그 첫 번째 제국으로서 진한시기를 이해하고 있다는 점은 공통된 것이라고 보아도 좋다. 자연히 첫 번째 제국인만큼 그것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또 광활한 영토에 걸친 제국을 어떻게 유지했는지, 그리고 이 첫 번째 제국의 유산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기 마련이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국은 중국의 皇帝가 다스리는 나라라는 뜻이 아니다. 사료 용어로 쓰인 것이 아니라 분석 개념이다. 따라서 서구에서 정립한 분석개념으로서 제국의 의미를 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1)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제국은 특정한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해서 실행하는 공식적이고 직접적이며 권위주의적인 지배를 말한다. (2)군사적 우세를 통해 영토를 확장하고 그곳에서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였다. (3)제국은 명령하 다라는 imperare라는 말에서 기원했기 때문에 제국은 최고 지배자가 명령하고 그 명령이 통용되는 영토를 뜻했다. 즉 광대한 영토 내에 최고 지배자의 명령이 전달되고 그 명령이 실행되는 곳을 말한다. (4)군사 행동 외에 본보기를 제시하거나 설득하는 등 소프트 파워(soft power)가 동원되기도 했다.⁹⁾

7) 金秉駿, 「秦漢帝國的邊境」, 『河南師範大學學報』 2016-9.

8) 林劍鳴, 『秦漢史』, 上海人民出版社, 2019 등.

9) 티머시 H. 파슨스, 장문석 옮김, 『제국의 지배』, 까치, 2012. 한편 渡邊信一郎, 『中國古代の財政と國家』, 東京, 汲古書院, 2010는 帝國을 “그 중심부부터 주변으로, 나아가서는 그 외부 諸地域까지 일관된 보편적 원리를 갖고, 중심으로부터 주변을 향해 무한히 확장하는 가능성과 외부 諸地域에 대한 군사적 확장 경향을 가진 廣領域國家”라고 정의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 진한제국』의 목차를 보면 이러한 관심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1장 <진국과 진제국>에서는 기원전 9세기까지 올라가는 초기 진국부터 그 발전 양상을 통해 제국이 어떤 기반 위에서 가능했는지, 또 진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제국을 유지하기 위한 기제는 어떤 것이었는지가 서술되어 있다. 2장에서 5장까지도 마찬가지로 한제국의 성립에서 몰락에 이르기까지의 정치적 과정을 추적했다. 우선 수백 년 이상 상이한 습속과 정치체 하에서 타자라고 해야 할 집단들을 통일된 하나의 정치체 안에 복속시켰던 진한제국은 다른 인간 집단에 대한 권위주의적 지배라는 제국의 (1) 정의에 부합한다. 자연히 타자를 복속시킬 수 있었던 배경과 원인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인 바, 1~5장은 주로 여기에 주목하면서 제국의 성립과 전개를 설명했다.

6장은 제국의 바깥, 즉 주변세력에 대해 서술했다. 더 정확하게는 그 주변세력으로 제국이 군사적으로 확장해 간 과정을 살폈다. 이 점은 제국의 (2) 정의에 해당한다. 일차적으로 중원을 통일한 진한제국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북쪽으로는 초원 유목세계에 속한 흉노를 몰아내고, 남쪽으로는 오령산맥을 넘어 월의 세계로 진입했다. 중원지역도 서로 다른 풍습을 갖고 있는 집단으로 구성되었지만, 모두 비슷한 자연환경 속에서 농경이라는 생산형태를 공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유목이라는 상이한 생산형태를 갖는 이질적 세계까지 그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고, 또 덥고 습한 지역이라서 병사들이 역병에 걸려 죽어가는 곳임에도 결국은 그곳까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했다. 중심에서 주변으로, 더 나아가 그 바깥으로 무한히 확장해 가는 제국의 논리가 작동하였던 것이다.

7-8장은 제국의 통치 구조, 즉 중앙과 지방의 행정제도를 설명하였고, 9장은 율령을 다루었다. 10장과 11장은 각각 전한과 후한의 사회경제사를 서술했다. 이 부분은 제국의 (3) 정의를 설명하기 위해 설정되었던 것 같다. 광대한 영토 내에 최고 지배자의 명령이 전달되고 그 명령이 실행되는 곳이 제국이라면,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그것이 가능한지를 설명해야 할 것이다. 중앙의 명령이 제국의 끝까지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앙집권제의 근간인 균현제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그러한 명령이 전달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것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이를 강제하는 장치인 율령지배의 방식이 기술되어야 한다. 이에 비해 사회경제적 생활은 자유로워 보인다. 그러나 제국의 유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지탱되어야 했다. 화폐제도가 대표적이지만, 물산이 풍부한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균형을 맞추어야 했다. 제국이 확대되면 될수록 중앙과 변경 사이에는 이러한 경제적 균형을 유지해야 할 필요가 증대된다. 사회경제적 측면도 제국의 각도에서 설정되었다는 것이다.

12장~16장은 이른바 사상사에 해당한다. 얼핏 제국과 거리가 먼 듯 보이지만, 실은 제국의 (4) 정의를 풀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제국 내에는 율령과 행정지배로, 변경과 바깥 쪽에는 군사적 공격으로 통제하고 있지만, 이보다 훨씬 효율이 높은 방식이 연성 권력, 소프트 파워다. 사상과 종교가 이러한 목적에 부합한다.

결국 책 전반에 걸친 목차와 내용은 서양에서 정립된 제국의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설계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사를 바라보는 서구의 시각이 전후 일본에 전해져

1960년대 이후 일본에서도 제국이라는 시각에서 진한사를 바라보게 되었다. 주로 일본의 좌파 지식인이 그러한 입장을 대변하였는데, 『케임브리지 중국사 : 진한제국』에 참여한 집필자 중의 한 사람인 西嶋定生도 여기에 속한다. 당연히 일본의 학계도 제국의 여러 정의에 부합하는 주제를 설정하고 연구를 진행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에서만 제국의 시각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 힘들다. 연구논문 제목에서도 진한시기를 제국이라고 일컫는 경우를 찾기 힘들다. 이성규 선생이 제국으로서의 진을 설정하고 그 성립 과정, 그리고 넓은 영토 안에서 지배자의 명령이 관철되는 제국을 설명하기 위해 통일 이후 중앙과 지방의 군현지배, 율령지배, 관작질서 등 다방면에 걸쳐 연구를 해 왔다. 제국의 변경에서 일어나는 이민족과의 접촉을 설명해 왔던 필자의 일련의 논문 역시 이러한 제국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서였다.

이와는 달리 중국에서는 제국이라는 단어를 찾아보기 어렵다. 그렇다고 이상에서 살펴본 구미나 일본 등지에서의 연구 주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진한 시기의 정치사, 제도사, 법률, 사회경제사, 사상사가 상세하고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또 제국을 전제하지 않아도 구체적인 역사상을 이해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적어도 주변세력과의 관계를 논할 때만큼은 제국의 시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큰 차이를 가져온다.

2. 제국 vs. 천하

『케임브리지 중국사 : 진한제국』의 6장은 余英時가 집필했다. 그는 한제국의 대외 관계를 기술하면서, 먼저 한제국의 세계질서를 이론과 실제라는 각도에서 개괄한 뒤 주변의 각 세력과의 관계를 하나씩 설명했다. 전국시대 추연의 大九州說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으로 중국을 ‘천하’로 규정하는 관념이 점차 ‘海內’라는 훨씬 현실적 개념으로 전환되어 갔다고 주장했다. ‘천하’라는 말은 정치적 상황에서 쓰였다고 한다. 한편 전형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 인식인 五服의 도식을 소개하면서도 그것이 실제 한제국과 주변세력과의 관계를 반영한 것이며, 또한 안과 밖을 구분하는 현실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해 한제국의 주변 세력에는 다양한 층차가 존재하며, 중국과 다양한 주변세력 간의 관계를 하나의 도면에 그려 넣게 되었던 것뿐이라는 것이다.

필자는 海內라는 개념이 과연 충분히 축소된 지리적 개념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지만, 천하라는 전통적 관념은 주로 정치적 맥락이라는 맥락에서 사용되었고 현실에서는 축소된 지리적 개념을 사용했다는 것, 그리고 이민족의 다양한 층차를 인정했다는 데에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진한제국은 스스로의 국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감숙성 황하 서쪽부터 둔황 陽關에 이르는 북변, 그리고 북쪽으로는 居延澤에 이르기까지 장성과 봉수가 이어져 있었는데, 이 봉수와 봉수를 잇는 선이 곧 당시의 국경(外境)이었다. 이 국경은 진한제국과 그 너머의 이적이 구분되는 선이었고, 국경 너머의 이적은

방어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戍卒들이 이곳으로 징집되어 왔다. 이 국경은 국가에 의해 엄격히 통제되었는데,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발급한 통행증을 소지한 자만이 이곳을 출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국경으로 둘러싸인 진한제국의 영역에는 南單于, 西羌, 烏桓은 물론 서역의 諸國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처럼 현실의 제국은 국경을 설정하고 그 바깥쪽 독립적인 국가와의 관계와 제국의 국경 안쪽의 이민족 지배를 구분하고 있었다. 국경 바깥쪽 독립적인 국가와의 관계는 국제질서 혹은 외교관계의 측면에서 다루었고, 제국의 국경 안쪽의 이민족은 다른 漢人과 마찬가지로 지배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진한시기의 현실적 개념으로서의 제국 대신 그들이 상상한 ‘천하’라는 개념을 사용해 역사 기술을 해 왔다. ‘천하’란 문자 그대로 ‘하늘 아래의 모든 지상’ 혹은 ‘천명을 받은 천자가 통치하는 질서가 구현되어야 하는 장소’라는 뜻을 갖는다. 도식적으로 설명하면, ‘천하’=‘중국’+四夷(國) 혹은 ‘天下’=王化文明의 세계(華=中(國)=內=人)+化外野蠻의 세계(夷=外(四方)=裔(邊)=尸(死人) 또는 禽獸)라고 할 수 있다.¹⁰⁾ 이 天下에는 국경이라는 개념이 들어갈 수 없다. ‘중국’만이 아니라 ‘四夷’의 세계를 포함하는 天下를 천자가 통치해야 하는 당위적 공간으로 이해하는 한, 그 안에 속하는 ‘四夷’ 즉 이적의 국가를 중국과 대등한 독립적 국가가 아니라 지배되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 자연히 진한제국과 주변 국가의 외교적 관계가 天下 내의 이민족 지배라는 틀로 치환되어 설명되는 것이다.

제국의 틀에서 보면 자연스럽게 군사적 확장을 통해 귀속시킨 이민족, 귀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습속을 고집하는 이민족, 또 제국의 국경 바깥 쪽의 이민족 등의 다양한 층차가 드러나게 된다. 하지만 천하라는 틀로 바라보면 이러한 층차 간의 경계는 모두 희미해져 버린다.

여기서 중국 학계에서 제국이라는 개념을 쓰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해 보자. 제국에 대한 서구의 정의를 보았지만, 문헌자료와 출토자료를 통해 본 진한시대는 이러한 정의와 어긋나지 않는다. 위에서 서술했듯이, 군사적 확장을 통해 광대한 영역을 점령하고, 변경 지역예까지 군현이라는 행정제도와 그에 근거해 문서행정, 율령지배가 관철되었다는 점은 중국학계에서 공인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국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좀 더 세밀한 추적이 필요하겠지만, 이른바 중국인의 근대적 경험과 상관이 있는 듯하다. 20세기 초 반식민의 상태에 빠진 중국에서는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지식계 전반에 걸쳐 일어났다. 그 결과 ‘계몽’으로 대표되는 학문적 영역과 ‘구망’으로 대표되는 현실 참여의 구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¹¹⁾ 반제국주의의 구호가 일상이 되었고, 이러한 정치적 표현은 교과서를 비롯해 많은 연구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역사학의 경우는 더욱 심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된 이후에도 이러한 경향은 줄어들지 않았다. 거의 90년대에 와서야 이러한 경향이 줄어들었지만, 반제국주의와 반봉건이라는 구호는 여전히 역사학자의 뇌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사의

10) 이성규, 「중화사상과 민족주의」, 『哲學』 한국철학회, 37, 1992.

11) 이택후, 『중국 현대 사상사의 굴절』, 제1장 계몽과 구망의 이중 변주, 지식산업사, 1992.

왕조를 제국이라고 부르는 것은 쉽지 않았을 터이다.

20세기초에서 후반에 이르기까지 제국이라는 표현에 대한 중국 지식인의 반응을 더 살펴보아야겠지만, 적어도 대포와 함대를 앞세운 군사적 영토 확장과 그에 이은 타국에 대한 이권 침탈이라는 점이 제국이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진한시기의 실제 역사상도 바로 우월한 군대를 앞세운 군사적 영토 확장이었고, 그 지역을 점령한 후 그곳으로부터 세역을 징발하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국으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제국의 이러한 군사적 확장이라는 점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

이러한 생각은 한제국과 흉노를 비롯한 주변 세력과의 관계를 오독하도록 만들었다. 한과 흉노의 관계는 언제나 흉노의 약탈이 먼저 이루어졌고 한은 이에 대응하는 식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군대를 앞세운 제국의 침략 대신 피동적인 대응으로 일관했다는 식으로 한과 흉노 관계를 기술했다. 진이 선제적으로 몽염을 시켜 흉노의 근거지였던 오르도스 지역을 점령했다거나, 그 뒤 조선을 비롯해 남월과 동월에 대한 한의 선제 공격 역시 역사서술에서 빠지곤 한다. 이처럼 중국학계에서는 제국이라는 개념을 회피함에 따라, 군사적 공격과 점령에 대한 회피, 여기에 더하여 천하라는 개념을 동원하여 제국의 변경에 거주하고 있는 다양한 층차의 이민족의 경계를 무시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요컨대 제국에 주목하면 변경지역의 이민족과의 관계가 또렷이 드러날 수 있는 반면, 이를 감추면 정확한 이민족과의 관계가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3. 사료의 굴레 : 신고와 의고

지금까지 제국이라는 용어에 주목해서 진한사를 바라보는 구미와 중국 학계의 차이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주변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중국학계의 오독을 지적해 보았다. 하지만 이러한 서사 방식에는 또 하나의 문제가 연계되어 있다. 원사료에 대한 무비판적 태도가 그것이다.

사실 조선을 비롯해 남월과 동월에 대한 한의 선제 공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기』와 『한서』 등에서는 이를 이른바 正戰論에 입각해서 다시 쓰고 있다.¹²⁾ 가령 『사기』 조선열전은 먼저 고조선에 대해 혈연적, 영역적으로 친연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서술하고 난 뒤 고조선과 요동태수 사이에 맺은 외신 관계를 강조했다. 그리고는 침공의 일차적 합리화를 외신의 의무 불이행에서 찾았다. 그렇지만 이 외신이란 본래 특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외교적 개념은 아니었다.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한의 입장에 의해 자의적으로 요구되는 것일 뿐이다. 적어도 제후왕에 대한 우세를 점하고 황제권이 크게 강화된 무제 이후에 요구된 의무이다. 한은 고조선 침공의 직접적 정당성을 고조선의 ‘반

12) 이와 관련해서는 김병준, 「한이 구성한 고조선 멸망 과정」, 『한국고대사연구』

란'에서 구했다. 한의 제후왕 반란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의 선제공격은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상대방이 군사적 행동을 감행하여 '반란'을 일으켰는지 여부였다. 그리하여 고조선의 遼東都尉 공격을 '반란'으로 간주하고 본격적인 전쟁을 도발했다. 남월열전과 동월열전도 동일하다. 이들이 먼저 군사적 도발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응했다는 논리이다.

『사기』 흉노열전의 서사는 조선, 남월, 동월과 조금 다르다. 하지만 흉노의 선제공격을 반란이라고 간주하지는 않지만, 먼저 변경 지역을 약탈하는 행위를 기록하고 이에 대응하여 한의 공격이 이어진다는 서사라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미 대대적인 흉노 정벌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흉노의 약탈을 구실로 삼았다. 전한 초기 한과 흉노의 화친 관계도 마찬가지다. 『사기』와 『한서』는 '화친'이라는 표현으로 흉노의 공격을 충분히 반격할 수 있으나 선물과 공주를 보내는 방식으로 공격을 줄여보려는 노력을 했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당시 한 왕실의 정치적 입장을 되풀이한 것에 불과하다. 그러나 필자의 분석에 따르면 이 시기 한은 흉노 세력에 대응할 수 없는 절대적 열세에 놓여 있었다. 문제와 경제를 거치는 동안 적극적 인플레이 정책을 통해 제국의 경제적 비축을 마련한 후 한무제 시기에 이르러 비로소 흉노와의 전쟁이 가능해졌다.¹³⁾

중국학계가 『사기』 『한서』의 서사를 그대로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이는 반면, 『케임브리지 중국사 : 진한제국』의 집필자들은 특별히 이 점을 경계하였다. 마이클 로이는 「도론」에서 문헌기록에 대한 세밀한 사료비판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했다. 서양학자의 눈에는 『사기』 『한서』 등의 정사 기록은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기록의 결락이 눈에 띄이는데 그 중에서도 주변세력과의 관계를 기록하는 부분에서는 상대방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마이클 로이는 이러한 기록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고고학자료, 출토문헌자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당시까지 발견된 간독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에는 문제가 없지만, 고고학 자료에 근거해 선진시기의 역사에 대한 정론이 도출되지 못해 부득이 논의의 시점을 진제국으로 삼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흥미로운 것은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대한 중국학자의 반응이다. 제1권 진한제국사를 번역한 뒤 서문을 달았던 李學勤은 이에 대해 독특한 반응을 보였다.

이러한 방식은 晚淸 시기 이래의 疑古 사조의 견해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케임브리지 진한사』는 광범하게 문헌자료를 인용하고 문헌의 변위와 고정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는 많은 서방 중국학자들이 일관되게 견지한 입장이다. 본 권의 각 장의 인용문이 정리와 교정을 거친 판본 및 중국, 일본 및 서방학자의 각종 주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본권의 서사방식이 고고자료의 사용을 중시하지 않았다는 것을

13) 김병준, 「전한 무제시기 대외전쟁과 주도세력의 변화」, 2019년도 동양사학회 동계워크숍 발표논문. 여기서 필자는 이른바 세력전이이론이라는 틀로 이 시기 한과 흉노의 관계 변화를 설명했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본권에는 중국 고고학의 중요 성과를 인용하고 있다.

서구의 사료 비판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듯하면서도 실은 고고학자료에 의한 문헌자료의 보완이 더욱 중요하다는 입장에 서 있음을 알 수 있다. 만청 시기 이래의 의고 사조라 함은 顧頡剛으로 대표되는 의고학파를 지칭하고 있음에 틀림없는데, 이러한 의고 분위기에서 벗어나자고 제창한 인물답게 본인이 서문을 쓰고 있는 『케임브리지 진한제국사』를 의고학파의 입장에서 떼어내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진한제국사』의 서술 방식은 이학근의 바람과는 달리 훨씬 의고 학파의 입장에 접근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고고학 자료를 중시했다고 해서 의고 학파와 차별성을 갖는 것은 아니다. 고고학 자료를 이용해서 더 철저한 사료비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반적으로 전통 사료에 기술된 사건이 과연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이 사료비판의 첫 번째 단계이다. 사실 중국학계도 이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며 나름의 분석과 비판이 이루어졌다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사건에 대한 전통 사가의 평가에 대한 비판 역시 매우 중요하다. 이 점과 관련해 중국 학계는 전통 사료에 적힌 사가의 평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 점이 전술한 제국 인식과 연결되면서, 진한시기 주변 세력과의 관계에 대한 이해에 한계가 발생한 것이라 판단된다.

4. 나가며

이상 제국이라는 시각에서 진한사를 다루었던 『케임브리지 진한제국사』와 그러한 시각이 결여된 중국학계를 비교해 보았다. 아울러 적극적인 사료비판에 방점을 두었던 구미의 연구방법과 전통사료의 기록과 평가에 의존하는 차이도 지적해 보았다. 이런 점이 『케임브리지 진한제국사』를 지금 다시 읽어볼 만한 이유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문제점 역시 적지 않다. 제국의 확장이라는 시각에서 기술하다 보니, 주변세력이 이를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한 서술이 부족하다. 1986년에 출간된 개설서라는 점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 90년대 이후 쏟아져 나오는 각종 출토자료 특히 간독류로 말미암아, 지금 고대사는 ‘다시 새롭게’ 쓰여지고 있다. 이러한 자료가 없었던 상황을 고려하며 읽어야 한다. 그러나 간독 자료가 너무 많아져 세밀한 주제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작금의 상황을 반성해 본다면, 제국의 성립과 확장 및 유지와 관련한 주요 문제를 전문적이면서도 두루 섭렵한 이 책의 내용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다.

위진남북조사에 대한 다각적 접근

-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2. The Six Dynasties, 220-589과 구미학계의 위진남북조사 연구 현황

趙晟佑(서울대)

I.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 경제, 문화 등 개별 주제들로 구성된 隋唐代的 두 번째 분책인 제 4권이 아직 출판되지 않은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 시대 역사를 정치사 중심으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제 3권은 이미 시리즈 출판 초기인 1979년에 등장하였으므로, 이 시리즈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은 채로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것이 위진남북조 시대였다. 魏蜀吳 삼국시대가 시작하는 220년부터 隋가 陳을 정복하여 중국을 통일하는 589년까지를 다룬 제 2권이 드디어 2019년 11월에 정식으로 출판되면서 이 결락이 채워지게 되었다. 秦의 전국통일부터 시작하여 문화대혁명과 그 직후의 시기, 그리고 이 시기 臺灣까지도 다루고 있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전체의 완결을 목전에 두게 된 것이다. 필자가 기억하기로 제 4권도 이제는 곧 출판될 것이라는 소문을 들은 것이 벌써 십여 년 전이므로 이제는 조만간 세상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제 4권이 출판되면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1978년에 제 10권이 출판된 이래 40년이 넘는 긴 시간에 걸친 거대한 프로젝트로서 그 완결을 보게 된다. 이 시리즈의 각 권은 출판된 시점에서 해당 시대에 대한 구미학계의 대표적 성과라는 의미를 가질 뿐 아니라, 시리즈 전체로서는 지난 40여 년간의 구미학계의 중국사 연구의 역사를 증언하며, 어떤 의미로는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가 된 것 같기도 하다.

이러한 와중에서 최근 출판된 제 2권은 기획 및 출간이 상당히 늦어지기도 했고, 내용 구성도 다른 권과 비교해 볼 때 다소 독특한 모습을 보인다. 이 책은 도론을 제외하면 3부 30개의 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 1부: 역사」는 제목 그대로 이 시기 역사를 魏, 吳, 蜀漢에서 시작하여 東魏-北齊, 西魏-北周, 南朝까지 11개 章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제 2부: 사회와 문화」는 전쟁, 대외관계, 북조 경제, 남조 경제, 농업, 소그드인, 북조의 물질문화, 남조의 물질문화, 여성, 지역사회의 주제를 다루는 10개의 章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 3부: 문화, 종교, 예술」은 유교, 淸談과 玄學, 불교, 도교, 민간신앙, 산문 문학, 운문 문학, 미술과 시각문화, 음악 등 9개 章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래에서 다시 거론하겠지만 이 책은 다른 권들이었다면 책의 절반 혹은 그 이상을 이루었을

‘역사’ 부분이 채 1/3이 되지 않으며, 제 3부에서 두드러지는 것처럼 오히려 다양한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며 다채로운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남중국과 북중국을 각각의 장으로 나누어 고고학 발굴 성과를 비교적 상세하게 소개하며 당시의 의식주를 비롯한 물질문화를 보다 풍부한 각주를 곁들여 생생하게 제시하고 있는 점은 근자의 역사학 연구 경향, 보다 정확하게는 위진남북조사 연구 경향을 반영한 이 책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다.¹⁾ 아울러 이 시대에서 빠뜨릴 수 없는 주제 중 하나인 淸談과 玄學에 대해서 별도의 장을 두어 상술하고 있는 것은 물론, 해당 시대의 유교, 불교, 도교, 심지어 민간신앙까지도 모두 별도의 장을 두었을 뿐 아니라, 문학도 산문과 운문을 별도의 장을 두었으며 미술, 음악까지 포괄하고 있는 것은 상당히 특징적이며, 이 정도로 해당 시대의 여러 주제들을 총망라한 경우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도 이 책이 유일하지 않을까 싶다. 그야말로 역사학이라는 틀을 넘어서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루는 구미학계의 역량을 모아 이 시대를 총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의욕이 돋보인다.

II.

이 책은 위진남북조 시대를 “Six Dynasties”, 즉 ‘육조’로 통칭하고 책의 제목으로도 이 용어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보통 통일 제국 시기는 해당 왕조의 명칭을 드러내면 그만이었으나, 魏晉南北朝나 五代十國과 같은 경우에 번역 명칭이 길어지는 탓인지 구미 학계에서는 용어 선택을 고민하는 듯하다. 구미학계에서는 이 책 서문에서도 밝히고 있는 것처럼 위진남북조를 그대로 표현하여 ‘Wei, Jin, and 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로 쓰자면 너무 길어져서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남북조’(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혹은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라고만 할 경우 삼국시기 및 동진과 십육국을 배제하고 남북조를 지칭하는 경우와 혼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다지 선호하지 않는다. 이러한 이유에서인지 구미의 위진남북조 학계에서 종종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칭하는 용어로 ‘Six Dynasties’를 사용하기도 한다.²⁾

주지의 사실이겠지만, ‘육조’라는 용어는 1) 『建康實錄』의 용례에 보이는 것처럼 建康에 수도를 두었던 삼국의 吳, 東晉, 宋, 齊, 梁, 陳의 여섯 왕조를 지칭하거나, 혹은 2) 『資治通鑑』에서처럼 正朔을 이어갔다고 보는 曹魏, 晉, 宋, 齊, 梁, 陳의 여섯 개 왕조를 지칭하기도 한다. ‘육조’라는 용어를 위진남북조 시대의 통칭으로 사용하는 경우, 2)의 용

1) 이 책의 편집을 맡았고 미국의 대표적인 위진남북조사 연구자로 알려져 있는 학계의 원로 앨버트 디노 위진남북조라는 시대를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하는 상세한 단행본을 출간한 바 있다. Albert E. Dien, *Six Dynasties Civilization*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2007)

2) 위 주석 1)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책의 편집자이기도 한 앨버트 디노의 이전 단행본에서도 ‘Six Dynasties’라는 용어로 위진남북조 시대를 통칭하고 있다.

법을 알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1)을 확대 적용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 책에서는 2)에 대한 언급 없이, 1)의 용법이 자연스럽게 시대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라 설명하며 ‘육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영어로 번역한 시대 명칭이 번잡스러워지는 것을 피하고자 고민한 끝에 위진남북조 시대의 총칭으로 ‘육조’를 택하였다고 하는데, 중국 학계에서는 ‘육조’라는 용어를 1)의 원래 의미 그대로 吳, 東晉, 宋, 齊, 梁, 陳의 여섯 왕조에만 적용시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³⁾ 우리 학계나 일본의 역사학계에서도 ‘육조’라는 명칭으로 위진남북조 시대를 지칭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생각하면, 영어의 편의성을 비롯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는 하지만 ‘육조’라는 용어를 책의 제목에 드러낼 정도로 전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했는지는 다소 의문이다.

구미학계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보다 파격적으로 접근한 사례도 없지 않다. 국내에서는 하바드 중국사 시리즈로도 알려진 *History of Imperial China* 시리즈의 두 번째 권인 *China between Empires: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는⁴⁾ ‘남북조’(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라는 용어를 제목 및 내용 중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저자인 마크 루이스는 일시적으로 서진의 통일기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曹魏 대 蜀漢과 東吳, 十六國 대 東晉, 그리고 북조 대 남조와 같이 이 시기는 중국이 남북으로 분열되어 있는 구도이므로 남북조라 통칭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마크 루이스의 과감한 의견으로, 오히려 구미학계에서는 이례적인 용법인 것 같다.⁵⁾ 해당 시대를 어떠한 용어로 부르는가는 그 시대를 어떻게 인식하는가와 떼어 수 없는 문제이므로, 이 책의 토론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초기 중세’(early medieval)나 ‘분열 시기’(period of disunity) 등과 같은 대안을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이 책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하게 논의하지는 않는다. 秦漢과 隋唐의 사이에 있는 위진남북조 시대의 성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앞뒤 시대를 포함하여 시대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문제는 지금은 비교적 논급되는 경우가 드물지만 지난 세기에 한동안 이 시대를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화두였는데, 이 책의 집필진이 스스로 어느 정도로 고민한 흔적이 이 책에는 그다지 분명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다. ‘육조’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어떤 의미로 이 점을 시사하는 것이 아닐까. 필자로서는 ‘육조’라는 용어로 위진남북조를 통칭하는 것에 의구심이 없지는 않으나, 구미 학계는 자신들의 언어로 인한 특수한 사정이 있을 터이니 일

3) 張承宗, 田澤濱, 何營昌 主編, 『六朝史』(江蘇古籍出版社, 1991)을 비롯하여 蔣福亞 主編, 『六朝經濟史』(江蘇古籍出版社, 1993) 및 陳長琦, 『六朝政治』(南京出版社, 2010)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오히려 『建康實錄』에서 지칭한 여섯 왕조만을 의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4) Mark Edward Lewis, *China between Empires: The Northern and Southern Dynasties*(Belknap Press, 2009). 한국어 번역은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지음, 조성우 옮김, 『하버드 중국사 남북조: 분열기의 중국』(너머북스, 2016).

5) 이 *History of Imperial China* 시리즈가 구미의 중국사 학계를 대표하는 업적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원래 진한사 전공자인 마크 루이스가 1권의 진한, 2권의 남북조, 3권의 수당 시대를 모두 집필한 점, 그리고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제 2권 남북조가 이번이야 겨우 완성되었으며 제 4권 수당대의 제 2부는 여전히 미완성인 상태라는 점은 구미의 중국사학계에서의 위진남북조와 수당시대 연구 현황에 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많다.

단 차치하기로 하자.

그 외에도 이 책에는 눈길을 끄는 또 다른 용어가 등장한다. 제 11장 남조(The Southern Dynasties)에서 저자 앤드류 치틱은 남조의 여러 왕조를 지칭하여 종종 ‘建康 제국’(Jiankang empire) 혹은 ‘건강 정권’(Jiankang regime)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치틱은 근자에 출간된 루틀리지 중국사 핸드북(Routledge Handbook of Imperial Chinese History)⁶⁾의 남북조 장을 담당하여 집필하였는데, 여기서도 남조와 북조를 각기 ‘건강 제국’과 ‘중국-선비 제국’(Sino-Xianbei empire)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고 있으며, 2020년에 출간된 본인의 단행본에서도 ‘건강 제국’이라는 용어를 제목에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⁷⁾ 제 8장 북위편을 집필한 스콧 피어스(Scott Pearce)도 해당 장의 말미에서 균전제 뿐 아니라 尙武의 기풍, 기마, 수렵 등 생활 문화 전반에 이르기까지 북위에서 수당대로 이어지는 연속성을 지적하며 ‘탁발부의 그림자’(shadow of Tabgach)라고 표현하였다. 이 뿐 아니라 제도 및 습속 등에서 북위에서 당대로 이어지는 유산이 있었음은 새삼스럽게 언급할 것까지도 없지만, 여기서 한 걸음 나아가서 북위에서 당까지의 중국을 ‘탁발국가’로 보려는 일본 학계 일부의 주장을 생각하면,⁸⁾ 한족과 선비족이 융합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중국-선비 제국’이라는 용어도 그리 낯설게 느껴지지는 않는다. 우리 학계에는 이미 오래 전부터 胡와 漢의 융합으로 북조를 설명한 胡漢體制論의 연구 성과가 있지 않은가.⁹⁾ 이에 비하여 ‘건강 제국’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적절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이 책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건강 제국’이라는 용어의 핵심은 남조의 네 왕조가 건강에 수도를 두고 남중국을 지배하였다는 점에 있는 듯하다. 중원을 상실하고 임시로 建康에 자리잡았으나 명목상으로는 여전히 사마씨의 쥘 왕조였고 북벌을 표방하던 東晉과 달리, 유유의 송 건국 이후부터는 같은 건강에 수도를 두었어도 이제 북중국과 별개로 독자적인 세계를 구축한 왕조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건강 제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일까. ‘건강 제국’이라는 것은 동진과 다른 남조의 본질이 무엇이건 그 본질을 잘 포착하여 드러내는 것 같지는 않다. 이에 대하여 보다

6) Victor Cunrui Xiong and Kenneth J. Hammond eds., *Routledge Handbook of Imperial Chinese History*(Routledge, 2018). 참고로 이 책에서는 위진남북조에 해당하는 시기를 三國(the Three States / Three Kingdoms), 晉과 十六國(the Jin and the Sixteen States), 南北朝(the Southern and Northern Dynasties) 세 개의 장으로 분리하여 서술하고 있다.

7) Andrew Chittick, *The Jiankang Empire in Chinese and World History*(Oxford University Press, 2020).

8) 8세기에 제작된 오르콘 비문에서 당시의 투르크인들이 唐朝를 타브가츠, 즉 한자로는 拓跋로 표기되었던 그 고유명사로 부르고 있는 것을 하나의 예로 제시하는 이러한 시각은 대체로 일본의 중앙 아시아 연구자들 사이에서 대두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森安孝夫, 『シルクロードと唐帝國』(講談社, 2007)를 들 수 있다. 그러나 代國의 건국부터 수와 당에 이르기까지를 전부 ‘탁발국가’라는 개념으로 포괄하려는 시도는 아직 논의할 여지가 많은 시론이 아닌가 싶다.

9) 지난 30년 넘도록 호한체제론을 기반으로 진행된 박한제의 연구 성과는 최근 4권의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박한제, 『중국중세 호한체제의 정치적 전개』(일조각, 2019); 『중국 중세 호한체제의 사회적 전개』(일조각, 2019); 『중국중세도성과 호한체제』(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중국 도성 건설과 입지: 수당 장안성의 출현전야』(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9).

상세한 논의가 필요할 터인데, 어디에서도 설명을 찾아 볼 수 없다.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본문 내용 중에서 별 다른 설명도 없이 마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용어처럼 사용되어도 무방한가.

III.

이 책의 「제 21장 지역사회」(Local Society)를 집필한 侯旭東은 2000년 이래의 중국의 위진남북조사 연구 현황을 정리한 글을 발표한 바 있다. 走馬樓吳簡, 투르판문서, 소그드인 묘장 등 새로운 자료가 주목받고 있다고는 하지만, 신진 연구자는 계속 새로 배출되는 데 비해 문자사료는 비교적 제한되어 있는 시대이므로 새로운 방법론적 돌파구가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고고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소설, 의서, 종교문헌 등 다른 학문분야에서 주로 활용하던 자료들을 이용할 것 등을 제안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서 자료적 제약이 연구 정체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읽힌다.¹⁰⁾ 이에 비해 구미의 위진 남북조사 학계는 애초부터 연구자 층이 두텁지 않았기에 이러한 우려가 나타날 여지도 그다지 많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 책의 편집자인 앨버트 딘이 1990년대부터 중국과 일본의 연구 성과를 구미 학계에 소개하는 등 학술교류는 꾸준히 이루어졌던 것 같지만, 오래 전에 패트리샤 에브리(Patricia Ebrey)의 博陵崔氏 연구가 신선한 자극을 주었던 외에¹¹⁾, 거꾸로 한국, 중국, 일본의 위진남북조사 연구자의 기억에 남을 구미학계의 연구 성과가 그리 많았던 것 같지는 않다. 독자적인 담론을 만들어 내거나 새로운 방법론을 구축해 낸 일도 없었고, 이러한 성과를 찾기 이전에 전공자의 수 자체가 많지 않았다. 위진남북조시대 역사의 연구하는 전공자의 층이 두텁지 않았던 탓인지, 오히려 이 시대와 관련하여 주목할 연구들은 역사학보다는 불교, 도교 등 이 책의 제 3부에 수록된 분야에 속하는 것들이었다. 필자는 위진남북조시대의 문학, 미술, 음악에 문외한이나 마찬가지로이므로 해당 분야 구미학계의 연구사가 어떠한지에 대하여는 물론 이 책의 해당 부분의 저자들에 대해서도 논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들을 조사하여 일일이 언급하고 소개할 수는 없으나 이 책에 필진으로 참여하여 「제 24장 불교」 편을 집필한 존 키쉬닉(John Kieschnick)이나¹²⁾

10) 侯旭東, 「關於近年中國大陸魏晉南北朝史研究的觀察與思考」, 『中國中古史研究: 中國中古史青年學者聯誼會會刊』第一卷(北京: 中華書局, 2011). 이 글은 원래 2007년에 발표된 글이나, 근래 위진 남북조사 연구에 대한 전체적인 경향과 문제 등은 대체로 현재 상황에도 부합한다.

11) Patricia Buckley Ebrey, *The Aristocratic Families in Early Imperial China: A Case Study of the Po-Ling Ts'ui Family*(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8). 주지하는 것처럼 에브리はその 이후에 주로 연구 대상을 송대로 바꾸어 다수의 성과를 냈다.

12) 잘 알려진 두 권의 단행본을 출간하였다. John Kieschnick, *The Eminent Monk: Buddhist Ideals in Medieval Chinese Hagiography*(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7); *The Impact of Buddhism on Chinese Material Culture*(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3) 등이 있다.

「제 25장 도교」 편을 집필한 스티븐 보켄캠프(Stephen Bokenkamp)와¹³⁾ 같은 경우가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루는 구미 연구자들에게 신선한 자극을 준 경우라 하겠다.

중국의 위진남북조사 학계에서도 학문 분야에 구애받지 말고 이전까지 주목하지 않았던 다양한 자료를 이용하여 다각적인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올 정도이고, 구미의 위진남북조사 학계는 장기간 활기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니, 이 책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늦게 완성되고, 시리즈의 다른 권에서 보기 힘들 정도로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 장들을 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인지도 모르겠다. 게다가 이 책의 편집자 중 한 사람인 키스 냅(Keith N. Knapp)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유교전통 및 문화사 관련 주제 전공자임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¹⁴⁾ 너무 오랫동안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 위진남북조 시대만 빠진 채로 있었으니, 늦어진 만큼 분발하여 역사, 사상, 고고학, 문화, 종교, 문학, 예술 등을 총망라한, 위진남북조시대의 모든 주제를 다룬 역작을 내려고 의욕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다.

그렇다면 그러한 의욕이 이 책에서 효과적으로 결실을 맺고 있을까. 이 점에 대해서는 독자에 따라 의견이 갈릴 것 같다. 다소 형식적으로 보일 수도 있으나 전체의 분량, 구성, 그리고 지면의 배분 문제를 이야기해 보자.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는 각 시대를 다룬 권이 다소 편차는 있으나 대체로 800쪽 내외의 단행본 두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비해 다른 시대보다 기간이 짧은 것도 아닌 위진남북조를 다룬 제 2권은 800쪽 조금 넘는다. 전체 분량 자체가 다른 시대의 절반 정도인 것이다. 그럼에도 이례적으로 다양한 주제를 망라하여 포괄하고 있다는 점은 결국 무엇을 의미할까. 우선 눈에 띄는 것은 제 1부 ‘역사’ 부분이 본문 전체의 약 1/3을 채 넘지 않고, 내용도 다소 소략하여 약간 자세한 시대사 개설서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 시리즈의 다른 권들과 가장 두드러지게 차이가 나고 아쉬운 부분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근자에 완성된 제 5권(송대)의 경우, 2009년에 제 1부 분책이 출판되고 약 6년 후에 제 2부 분책이 출판되었는데, 제 1부 분책은 907년 唐의 붕괴로부터 시작하여 1279년 南宋의 멸망까지 약 380년에 달하는 시기의 역사를 900쪽 가량의 분량을 통해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제 2부 분책에서는 재정, 군사, 법제를 비롯하여 道學에 이르는 여러 가지 주제를 약 800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제 2부 분책의 각 장은 길면 100여 쪽, 짧아도 60여 쪽 정도의 분량을 보이고 있다. 시리즈 초기에 출판된 제 3권(수당대 제 1부)의 경우를 참고해 보자면, 개별 주제를 다루는 제 4권(수당대 제 2부)이 아직 출판되지 않아 전모를 파악하기는 어렵지

13) 도교 문헌 중 중요한 자료들을 영어로 번역하거나 중요한 단행본을 출간한 외에도 영어권 도교 연구자들 사이에서 독보적인 연구 성과를 보인 바 있다. Stephen R. Bokenkamp, *Early Daoist Scriptures*(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Ancestors and Anxiety: Daoism and the Birth of Rebirth in China*(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14) 대표 저작이 孝 이념을 위진남북조 시대의 사회사적 맥락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Selfless Offspring: Filial Children and Social Order in Medieval China*(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이다.

만 일단 제 3권은 약 800쪽에 달하는 지면을 전적으로 정치사를 중심으로 한 역사 서술에 쓰고 있다. 제 4권의 경우도 아직 미완성 상태이나 원래 계획되었던 모습을 짐작할 수는 있다. 제 4권의 집필 자체는 이미 오래 전에 시작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완성이 오랫동안 지연되었고, 결국 제 3권의 출판 후 10년 정도 지난 시점부터 데이빗 맥 멀린(David McMullen), 스탠리 와인스타인(Stanley Weistein), 티모시 바렛(Timothy Barrett) 등 일부 집필진의 원고가 제 4권의 완성을 기다리지 못하고 먼저 수정 및 보완을 거쳐 한 편씩 독립적으로 단행본으로 출간되었다. 그런데 이들 책 세 종이 담고 있는 정보의 양이나 분량을 보면 이들이 원래 제 4권의 한 章씩을 맡게 되었을 때도 각기 적지 않은 분량에 상당히 자세한 정보를 담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세밀한 보완 작업을 통해 적지 않은 분량의 단행본이 되어 버린 맥멀린이나 와인스타인의 경우는 차치하고라도, 원래 원고의 형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바렛의 짧은 단행본만 보아도 100여 쪽을 넘고 있으니 제 4권의 한 章으로서는 결코 짧은 분량은 아니다.¹⁵⁾ 아마 처음 기획이 그대로 실현되었다면 제 4권도 송대 제 2부 분책과 비슷한 정도의 분량을 활용하여 제도, 사회, 경제를 비롯하여 사상, 종교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었을 것이다.

이처럼 당대와 송대를 다루는 권들의 경우에는 대체로 정치사 중심의 내용으로 시대사를 서술하는 부분이 1책, 그리고 해당 시대의 특징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개별 주제들, 예를 들어 사회, 경제, 특징적인 제도, 대외관계, 그리고 사상이나 문화 중 빠뜨릴 수 없는 부분들을 보다 상세하게 다루는 내용이 1책, 합 2책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반부에서 시대사 흐름을 제시하고 후반부에서 주제별 접근을 시도하여 상호 보완을 통해 해당 시대에 대한 수준 높고 균형 잡힌 이해를 제시하려는 의도로 기획되어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주제 선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송대의 각 주제를 다루는 제 5권 제 2부 분책의 경우 道學에 비중을 두어 사상 및 문화의 흐름을 설명하되 도교, 불교, 문학 및 예술에 관한 장은 없으며, 명대의 제 2부인 제 8권의 경우는 사상 및 종교에 관해서는 각기 장을 두었으나 문학 및 예술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고 있다. 필자는 다른 시대를 다루는 권들도 기본적인 구성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전체에 공유되고 있는 이러한 구성 방식이 위진남북조 시대를 다루는 제 2권에서도 공유될 것이

15) David McMullen, *State and Scholars in T'ang Chin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8)는 유교 經學, 학교 제도, 교사 및 예학 관련 논의 등을 비롯하여 唐代의 역사 저술 및 편찬, 詩文 등 그야말로 문인 학자들과 국가에 관한 광범위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 400쪽이 넘는 분량의 상세한 단행본 연구서로 출판되었다. 단행본으로 출판되는 과정에서 이처럼 방대하게 양이 늘어나지는 않았지만, 불교를 다룬 Stanley Weistein, *Buddhism under the T'ang*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의 경우도 약 250여쪽에 걸쳐 각 황제들의 재위기간 순으로 당대불교사를 서술하고 있다. 어쩌면 원래 해당 분책의 한 장으로 준비된 원래의 모습에 가장 가까운 형태로 출판된 것이 당대 도교사를 서술한 T. H. Barrett, *Taoism under the T'ang* (London: Wellsweep Press, 1996) 일 터인데, 앞의 두 책과 달리 다소 작은 판형의 110쪽 정도라고 하더라도 단행본의 한 장으로 집필된 것임을 생각하면 결코 짧지 않은 양이다.

라고 기대했었다.

그러나, 이번 제 2권은 전체 분량 자체가 다른 시대를 다룬 권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고, 다른 권과 비교해 볼 때 정치사 중심의 역사 부분을 축소하고 보다 많은 주제를 다양하게 다루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 다른 권의 절반 정도에 지나지 않는 지면을 그처럼 많은 장으로 세분하여 다양한 주제들을 다룰 경우, 과연 충분한 내용을 담아 낼 수 있는가. 앞에서 언급한 당대 제 2부 분책인 제 4권의 각 장이 될 예정이었던 원고들이 100쪽에 육박하는 규모였던 것과는 비교할 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다른 권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아도 대개 20쪽 내외의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제 2권 제 2부와 제 3부의 각 장들은 왜소하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제 1부 ‘역사’ 부분도 소략하여 아쉬움이 많은데, 제 2부와 제 3부의 각 장들 역시 주제가 다양할 뿐 심도있는 설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면 이 책의 장점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

물론, 제 2부의 전쟁사(제 12장 “The Art of War”), 대외관계(제 13장 “Foreign Relations”), 경제(제 14장 “The Northern Economy”와 제 15장 “The Southern Economy”), 물질문화(제 17장 “Northern Material Culture”와 제 18장 “Southern Material Culture”), 지역사회(제 21장 “Local Society”) 등을 다룬 장들의 내용을 제 1부 내용과 아울러 이해하면 상당히 보완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구성상 유기적 통일성이 부족하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이들 각 장에서 일정정도 위진남북조의 역사적 배경을 매번 되풀이해서 설명한 후 해당 장의 특수한 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느라 비효율적으로 지면을 낭비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이 중 몇 개의 장은 제목과 내용이 그다지 잘 부합하지도 않는 탓에 제 1부의 내용과 유기적으로 상호 보완이 되었어야 하는 제 2부의 또 다른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예를 들어 이 시기의 농업을 다룬다는 「제 16장 농업」(“Agriculture”)는 실제로는 賈思勰과 『齊民要術』에 관한 장이다. 賈思勰이라는 인물과 그의 저술인 『齊民要術』에 대한 설명에 치중할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이해를 포함하여 위진남북조 시대의 농업기술 혹은 농업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 혹은 더 나아가 오호십육국 시기 이후로 북중국의 경제생산이 농업과 목축을 통해 어떤 양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동진남조의 농업은 북중국과 어떻게 다른 특징을 보였는지 등을 다루어주기를 바라는 것은 지나친 기대일까. 賈思勰과 『齊民要術』을 다루기에 바쁜 탓인지 이러한 주제들에 대해서는 별 다른 설명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북중국의 경제를 다루는 제 14장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할 뿐이다. 『齊民要術』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농업을 보여주는 몇 안 되는 사료인 것은 부인할 수 없겠으나, 이 장 전체의 중심을 賈思勰과 『齊民要術』에 놓고 서술해야 했는지, 남조의 지식인과 관료들은 농업에 관한 자료를 남기지 않았으므로 남조의 농업에 대해서는 설명할 방법이 그다지 없다고 간략하게 마무리하면 되는 것인지, 다른 대안은 없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장이다.

이 시대의 대외관계를 10쪽 남짓한 짧은 분량으로 정리한 제 13장(Foreign Relations)이나, 중국에서 활동한 소그드인에 관하여 역시 10여 쪽 남짓으로 정리한 「제

17장 중국 내 소그드인의 역사」(“The History of Sogdians in China”)와 같은 경우는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장과 합쳐서 집필할 수는 없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크게 남는다. 여성사를 다루는 제 20장의 경우, 제목은 “여성, 가족, 젠더화된 사회(Women, Families, and Gendered Society)”인데 실제로 내용 대부분은 북위 태무제의 손자인 任城王 拓跋雲(恭宗 景穆帝 拓跋晃의 아들)의 딸인 拓跋純陀가 穆氏(丘穆陵氏)와 결혼하였다가, 배우자와 사별하고 漢族 고관인 邢巒과 재혼하였다가 邢巒 사후에는 大覺寺에서 비구니가 된 사례를 상술하며 당시 여성의 삶과 사회의 몇 가지 측면을 여성사적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북조 최고지배층의 이 사례가 과연 당시 여성과 사회에 관한 논의를 풀어내기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의문이 들 뿐 아니라 鮮卑族와 漢族, 남조와 북조, 사회 계층 등의 종족적,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없어서, 장의 제목은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위진남북조 시대의 여성, 가족, 사회라는 큰 주제를 이해하는 데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와 같은 장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제 2부를 읽고 있으면 이 책이 과연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한 권인지, 아니면 위진남북조 시대에 관한 학술회의의 논문집인지 혼란스러워진다. 편집과 기획 단계에서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로서의 어떠한 지향이나 정체성 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하고, 각 장들이 유기적으로 전체 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율한 것인가? 제 3부는 주제가 ‘문화, 종교, 예술’이므로 편집자 중 한 사람인 키스 넵이 위진남북조 시대의 경학과 예학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많은 지면을 할애하며 강조한 「제 22장 儒學과 그 영향」(Confucian Learning and Influence) 외에 불교, 도교, 민간신앙, 산문, 운문, 미술과 시각 문화, 음악 등 종교사, 문학사, 음악사 등 다양한 분야의 글을 수록하고 있어서 더욱 이 책을 독특하게 만들고 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 제 2권을 두드러져 보이게 하는 이러한 다각적 접근법은 이 책의 집필을 시작하기 위하여 저자들이 2012년에 모인 워크숍의 주제가 ‘육조 시대의 물질문화, 미술, 문학, 그리고 의례’(Six Dynasties Material Culture, Arts, Literature, and Ritual Workshop)였던 데서 이미 어느 정도 예정되어 있었던 것 같다. 그러나 다방면을 포괄하여 위진남북조시대를 이해하려는 이러한 방식은 이 책을 기획하고 편집한 사람들만의 접근법은 아닌 것 같다. 약 20여 년 전에 구미권 연구자들 일부가 모여 위진남북조에 대하여 종합적인 이해를 시도한 성과로 출간된 논문집 *Culture and Power in the Reconstitution of the Chinese Realm, 200-600*도, 사회사, 경제사, 관료제도, 문학, 불교미술, 도교 등 다방면에 걸친 연구를 포괄하고 있다.¹⁶⁾ 중국에서 簡牘, 石刻 등 새로운 사료가 발견되어 주목을 받아 왔고, 적극적으로 연구에 활용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이러한 새 자료들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았던 구미의 위진남북조사 학계는 사료적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통해 다각적으로 접근하는 경향이 이전부터 강했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16) Scott Pearce, Audrey Spiro, and Patricia Ebrey eds., *Culture and Power in the Reconstitution of the Chinese Realm, 200-600*,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1.

따라서 제 2부와 제 3부의 구성에 대하여 주제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산만해 보이는 것이 아닌가 비판할 수도 있지만, 나름의 연구사적 배경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다양한 시각과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 책의 구성에도 반영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주제를 최소한의 심도를 갖춘 방식으로 설명하려면 현재의 지면으로는 무리가 아니었나 싶다. 이 시대에 본격적으로 중국 역사에 등장하기 시작하여 설명할 것이 많다고 생각되는 불교와 도교에 대해서나, 사료 부족으로 인해 거의 志怪 소설에 의존하여 몇 가지 유형을 설명하고 추측하는 데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민간신앙에 대해서나 비슷하게 20쪽 남짓하게 지면을 배분하는 등의 방식은 이해하기 어렵다. 아무리 다양한 주제와 다각적인 접근을 중시하였더라도, 어느 정도는 주제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각 장의 지면을 보다 여유있게 배분하여 내용의 심화를 기도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다.

VI.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2권에서 보이는 다양성은 주제 선택의 측면에서만 두드러지는 것은 아니다. 다양한 주제로 구성하느라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들이 모이게 되면서, 구미 학계에서 활동하는 연구자라고 보아야 하는지 의문이 드는 필자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필자의 착각일 수 있으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구미학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심도있는 거질의 중국통사를 완성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집필진도 그러한 목표에 부합하도록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학계에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연구자가 집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알고 있다. 그런데 제 2권의 경우, 소그드인의 역사를 다룬 제 17장의 저자인 榮新江과 지역 사회의 존재 양상을 다양한 각도에서 다룬 제 21장의 저자인 侯旭東은 각각 북경대와 청화대에 재직하고 있는 저명한 중국의 연구자로 자세한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남중국의 경제를 다룬 제 15장("The Southern Economy")의 저자인 劉淑芬과 여성사를 다룬 제 20장의 저자인 李貞德은 두 사람 모두 대만의 中央研究院 歷史語言研究所에 재직하고 있는 저명한 대만의 연구자이다. 필자가 알기로 박사과정을 미국에서 마친 李貞德은 이전부터도 영어로 몇 차례 연구성과를 발표해 왔기에 본인이 맡은 장의 원고를 영어로 작성한 것으로 보이나, 그 외 榮新江, 侯旭東, 劉淑芬의 장은 중국어로 된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였음이 명기되어 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 다른 권에서도 구미학계의 저자가 한국, 중국, 일본의 저자와 공저한 장, 혹은 아시아지역에 기반을 둔 저자의 원고를 영어로 번역하거나 아니면 저자 본인이 영어로 쓴 장이 한 두 개 정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없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에 비해 제 2권의 경우는 그러한 장이 조금 많은 듯하고, 그리고 보다 근본적으로 번역에 의존한 이들 장이 책 전체로 보아 유기적으로 잘 융화되어 있지는 않다.

이상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2권의 전체적인 구성, 주제 선정, 지면 배분, 집필진 구성 등에서 드러나는 특징들은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구미의 위진남북조사 학계의 현황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여주는 것 같다. 이제까지 구미학계에서의 위진남북조 연구는 원래부터 종교나 예술 연구가 두드러지는 경향도 있었고, 역사 전공자가 그다지 많지 않아 활발한 학술활동이 돋보이는 상태라고 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듯, 이번에 출간된 제 2권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 다른 권에 비하여 눈에 띄게 시대사 서술 부분의 분량이 적어 전체 분량의 1/3 정도에 불과할 뿐 아니라, 이 시대의 온갖 주제를 망라하여 다루는 매우 다채로운 구성을 보였으며, 나아가 구미학계 뿐 아니라 중국과 대만 학계의 연구자들도 집필진에 포함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 책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위진남북조사 권이기도 하지만, 구미 학계의 역량을 결집하여 만들어 낸 위진남북조 연구 총집으로서 더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다. 다만, 아무리 다각적인 접근이 필요한 대상 시대라고 해도, 주제를 몇 가지 더 압축하고 지면을 재분배하여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제시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2세션

『케임브리지 중국사』 3권: 수당사

정병준 교수(동국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5-1권: 오대송사

이근명 교수(한국외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5-2권: 오대송사

이장욱 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케임브리지 중국사』 6권: 정복왕조사

윤영인 교수(영산대)

이진한 교수(고려대), 조복현 교수(경희대)

발
표

토
론

구미학계의 수당사 인식과 한국사 서술

정병준(동국대)

목 차

- I. 머리말
- II. 수당사 서술 형식과 주요 관심사
- III. 대외관계의 범주와 한국사 인식
- IV. 맺음말

I. 머리말

이 글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수당 편(이하 본서)¹⁾에 서술된 내용을 중심으로 구미학계의 수당사 및 한국사 서술의 특징을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수당사 및 대외관계에 관한 구미학계와 중국 학계의 차이점을 확인해 보고, 나아가 그러한 차이점 등을 한국 학계의 입장에서 비평해 보려고 한다.

다만 본서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 두 번째로 이른 1979년에 출간되었기 때문에 그 후의 연구성과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서는 여전히 학술적 가치를 지닌 것이 많고 그 상당수는 지금도 주류 학설을 이루고 있다.

1990년에 본서는 中國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 四方漢學研究課題組 譯, 『劍橋中國隋唐史』, 中國社會科學出版社라는 이름으로 중국어로 번역·출판되었다. 그리고 그 「번역 前言」에서는 본서의 주된 내용과 특징들을 대략적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도 본서의 기본적 서술 형식과 내용을 알 수 있는데, 본문에서는 먼저 그것을 요약한 후 이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면서 대외관계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조금 더 깊이 있는 토론을 해 보려고 한다. 또한 「번역 前言」에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정리에 이어 자신들의 시점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과 오류로 보이는 점들을 지적해 두었는데, 여기에는 오히

1) Denis Twitchett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3: Sui and Tang China, 589-906, Part I*,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려 한국의 입장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본문에서 아울러 검토해 보기로 하겠다.

본서는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7인의 연구자가 나누어 집필하였다. 즉 데니스 트위체트(제1장: 서언), 아서 라이트(제2장), 하워드 웨슬러(제3장, 제4장), 데니스 트위체트·하워드 웨슬러(제5장), 리차드 지소(제6장), 데니스 트위체트(제7장), 찰스 피터슨(제8장), 마이클 델비(제9장), 로버트 서머스(제10장)의 순서이다. 여기서 서언을 쓴 데니스 트위체트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공동편집자이기도 하지만, 본서에서 특히 주도적 역할이 느껴진다.

본서가 오래 전에 출간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그 이후에 나온 성과를 참조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 ②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너머박스, 2017, ③ 페어뱅크·라이샤워 저, 김한규 등 역, 『동양문화사』(상), 을유문화사, 1991, ④ 폴 로프 저, 강창훈 역,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유유, 2016 등이다.²⁾

II. 수당사 서술 형식과 주요 관심사

앞에서 언급한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唐代史의 조명』은 본서와 좋은 조합을 이루는 저작인데, 박한제가 쓴 역자 해제는 본서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 먼저 관련 내용을 인용해 보자. 즉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1978년 淸末 편이 가장 먼저 출판되었고 이듬해에 수당 편이 출판되었다. 이때 정말 편이 처음 출간된 것은 그들과의 직접적인 연관관계로 인한 관심으로 이 시대 연구자가 비교적 많다는 구미권, 특히 미국의 중국사학계 나름의 조건이 있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지만, 수당 편이 그 다음으로 나온 것은 색다른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중국 근대사를 전공한 하버드 대학교의 페어뱅크 교수와 함께 당대 경제사를 전공하는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트위체트 교수가 공동편집인으로 되어 있다. 트위체트 교수는 사상사를 전공하는 라이트, 제도사를 전공하는 폴리블랭크 교수와 함께 戰後 구미 당대사학계를 주도해 왔다. 이들 걸출한 3인의 학자가 배출한 학자들이 각각 세계학계의 수준에 평행하는 우수한 학문적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따라서 구미에서의 당대사 연구는 여러 시대보다 질적 수준을 갖춘 분야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 수당 편은 당초 파트 I 과 II로 나누어 기획되었다. 이미 출판된 I에서는 정치사의 흐름과 그에 연관된 경제·사회·군사 및 대외관계를 주로 다루었고, II에서는 행정·경제·사회의 각 제도 그리고 사상 및 종교, 문화 일반을 다루게 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당대사

2) 그 외에 존킹 페어뱅크·말 골드만 저, 김형중·신성곤 역, 『신중국사』, 까치, 2005;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저, 이동진·윤미경 역,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1; 발레리 한센 저, 신성곤 역, 『열린 제국: 중국 고대-1600』, 까치, 2005 등이 있다.

의 조명』은 아직 출판되지 않은 II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당대사의 조명』은 II가 아직 출판되지 않은 공백을 충분히 메워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박한제는 구미학계에서 중국사 가운데서 당대 연구자를 비교적 많이 확보하게 된 이유를 설명하였다. 즉 당대는 중국사 가운데 가장 전형적인 세계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이 그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고 하며 『당대사의 조명』의 서문에 적인 다음 문장을 인용하고 있다.

중화제국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당대는 위대했던 시대 중의 하나이다. 당대는 역사상 전례없는 물질적 풍요, 제도적 발전, 사상과 종교의 새로운 도약, 그리고 모든 예술 부문에서의 창조성으로 특징지어지는 시기였다. 이러한 엄청난 활력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첫째는 당 왕조의 절충주의로, 이것이 바로 당이 이전 400년의 혼란스런 역사로부터 다양한 문화의 흐름들을 한데 끌어 모은 방식이었다. 둘째는 당의 국제성, 즉 모든 종류의 외국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개방성이었다. 이러한 특성들로 인하여 당 문명은 보편적인 호소력을 갖게 되었다. 인접한 주변민족들은 늘상 그들 자신들의 고유 문화를 변형시킨 요인들을 당조로부터 수용하였다. 그리고 아시아의 도처에서 사람들이 당으로 몰려들었다. …… 당의 수도 장안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도시였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전역에 전파하는 문명의 중심지였다.³⁾

이는 『당대사의 조명』의 집필자들이 중국사 가운데 당대를 이해하는 시각이지만, 『케임브리지 중국사』 수당 편의 기본 시각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⁴⁾ 『당대사의 조명』의 집필자는 모두 11명인데, 이 중 아서 라이트, 데니스 트위체트, 하워드 웨슬러 3인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수당 편의 핵심 집필자이기도 하다는 점도 그것을 알게 한다.

앞에서 말한 「번역 前言」에서는 본서의 특색을 네 가지로 들고 있다. 첫째는 수당사의 중요한 역사인물과 사건에 대해 새로운 견해들을 적지 않게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그 역사인물의 예로 수 양제, 당 고조, 당 고종, 무척천, 당 덕종, 당 헌종, 이임보를 들고, 역사적 사건으로는 안사의 난, 우이당쟁, 회창폐불, 大中復佛을 들어 각각 구체적 내용을 적고 있다.

둘째는 수당사 연구의 미진한 부분이나 공백을 보완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① 기존에는 황제를 주로 다루었지만, 본서에서는 각 황제(특히 태종, 무척천, 헌종, 덕종, 헌종, 문종)의 재상·대신과 그 외 중요 인물들의 행적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여 정치사의 내용을 크게 보완하였다. ② 기존의 연구에서는 각 인물의 성격이나 기질을 고찰하여 그

3) 아서 라이트·데니스 트위체트 편, 위진수당사학회 역, 『唐代史의 조명』, 아르케, 1999(원래는 1973년), 11~12쪽.

4)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너머북스, 2017(원래는 2012년)의 6장 「외부 세계」, 18~19쪽, “당 왕조의 활력을 상징하는 두 가지 핵심 요소로는 절충주의(앞선 시대의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문화적 전통들을 활용하는 능력)와 세계주의(외국인과 그들의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개방성)을 들 수 있다”.

들이 수행한 역사적 작용을 평가한 것이 적었는데, 본서에서는 이러한 작업을 비교적 많이 수행하였다(수 문제, 수 양제, 당 덕종, 당 헌종, 당 경종, 당 선종 등). ③ 기존에 연구가 적었던 당 후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당 후기를 새롭고 명료하고 서술한 것이 많다(당 덕종 시기인 786년의 개혁, 당 헌종시기 裴瑒의 稅制 개혁, 오중윤의 건의에 따른 軍政制度 개혁, 9세기 중앙과 지방관계의 특징, 감군사 제도, 지방 民團의 건립과 군사화, 만당시기 권력의 새로운 구조, 朱溫의 降唐과 宣武軍 장악, 이극용의 활동).

셋째는 수당사를 서술할 때 수당에 한정하지 않고 특히 한에서 송까지의 긴 시간 속에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당시기의 전국통일을 논할 때 중국사의 분열과 통일의 역사들을 함께 언급하고, 안사의 난과 번진 할거를 논할 때도 분열과 통일의 추세라는 시각에서 서술하고 오대십국을 논할 때는 송대에 보이는 여러 가지 현상, 즉 강남의 경제 개발, 연해무역의 발달, 신문화인 계층의 동남 집중 등을 함께 서술한다는 것 등이다.

넷째는 사료비판을 철저히 행하고 또 각국의 연구성과를 광범위하게 섭렵하였다는 것이다. 연구성과에 대한 설명만 말하면 즉 영국, 일본, 미국, 프랑스 및 중국의 관련성과를 두루 다루고 있다고 한다.

잠시 본서의 세부 목차를 살펴보자. 이것만 보아도 본서의 대체적인 내용과 주 관심사를 쉽게 알 수 있다고 생각된다.

제1장 「서언」에서는 (1) 수 왕조가 중국을 재통일하는 과정, (2) 여러 가지 제도의 변화, (3) 경제와 사회의 변화, (4) 수당과 외부세계, (5) 사료 문제를 다루었다.

제2장 「수 왕조(581~617)」에서는 (1) 통일 직전인 6세기의 중국, (2) 수 왕조를 개창한 文帝(581~604)와 그를 보필한 대신들을 서술하고, (3) 수대에 당면한 현안들, (4) 2대 煬帝(604~617)의 개성과 생활방식,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을 다루었다.

제3장 「당 왕조의 건국: 당 고조(618~626년 재위)」에서는 (1) 건국 과정, (2) 당 왕조의 전국통일 과정, (3) 대내정책, (4) 당 왕조와 동돌궐의 관계, (5) 현무문의 변과 선양을 서술하였다.

제4장 「당 정권의 확립자 당 태종(626~649년 재위)」에서는 (1) 태종 시기의 신하들, (2) 조정의 '지역성 정치', (3) 국내정책과 개혁, (4) 중앙집권 강화정책, (5) 대외관계, (6) 후계자 투쟁을 서술하였다.

제5장 「고종(649~683년 재위)과 무후: 계승자와 찬탈자」에서는 (1) 무후의 대두, (2) 무후의 집권, (3) 고종의 대내정책, (4) 대외관계를 서술하였다.

제6장 「무후와 중종·예종의 통치(684~712)」에서는 (1) 무후의 준비시기(684~690), (2) 주 왕조(690~705), (3) 중종과 예종(705~712), (4) 이 시기의 문제들을 서술하였다.

제7장 「헌종(712~756년 재위)」에서는 (1) 헌종 재위 초기(713~720): 姚崇과 宋璟, (2) 헌종 중기(720~736), (3) 李林甫의 집권(736~752), (4) 양국충의 집권(752~756), (5) 헌종 시기의 종결을 서술하였다.

제8장 「중당과 만당의 궁정과 지방」에서는 (1) 동북변경, (2) 덕종(779~805년 재위), (3) 9세기 초의 번진, (4) 헌종(805~820년 재위)과 번진 문제, (5) 헌종 계승자 치하의 번진,

(6) 번진제의 쇠락을 서술하였다.

제9장 「만당의 궁정정치」에서는 (1) 안록산의 난과 그 결과, (2) 內廷의 발전(786~805), (3) 현종시대의 중앙집권 과정(805~820), (4) 9세기 중엽의 조정(820~859)을 서술하였다.

제10장 「당 왕조의 멸망」에서는 (1) 재정문제, 향촌의 피폐와 민중반란, (2) 懿宗(859~873년 재위), (3) 僖宗(873~888년 재위), (4) 만당 시기 중국 권력의 새 구조를 서술하였다.

이러한 목차만을 보아도 몇 가지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첫째, 수당의 역사를 황제 별로 파악하면서 아울러 각각의 시대에 활동한 인물들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수 왕조에서는 문제와 대신들, 당 왕조에서는 태종과 신하들, 현종과 요승·송경 및 이임보·양국충의 집권 등은 그러한 것을 잘 드러낸다. 실제 본문의 내용에 있어서도 각 인물의 개성에 대해 적지 않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둘째, 본문은 모두 9개 장으로 되어 있지만, 그 중 3개 장이 당 후기에 관한 내용이다. 이는 다른 개설류와 비교하면 많은 비중이라고 할 수 있다.⁵⁾ 특히 본서가 출간된 시기의 상황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다.⁶⁾ 셋째, 당 후기 서술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번진에 관한 것이다. 즉 제8장은 모두가 번진에 관한 내용이고, 제9장의 (1),(3)과 제10장의 (4) 등도 번진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다음 시대로 이행하는 과정에 번진이 중요한 작용을 한 것으로 본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지금 당 후기 부분에 대해 특히 주목한 것은 비교적 근래에 출간된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의 「들어가는 말」에 보이는 언급 때문이다. 즉

역사학자들, 특히 서구의 학자들은 당대 후반기가 전반기보다도 여러 면에서 더욱 흥미롭다고 생각한다. 756년 안록산의 반란으로 뚜렷해지는 역사적 단절은 왕조의 성쇠 면에서나 중국의 역사 전개의 전체 궤도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일본의 역사학자 나이토 토라지로(内藤虎次郎)은 8세기 중반에 시작되는 당에서 송으로 이어지는 기나긴 변혁의 시기는 중국 ‘중세’에서 ‘근세’로의 전환을 특징짓는다고 주장하였다. 서양의 시대 구분을 중국 역사에 대입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만, 나이토 이후의 상당수의 학자들은 그의 핵심적인 가설을 확인해 주었다. 안록산의 반란 이후 당 왕조는 중요한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제도들을 폐기하고, 제국의 문화적 지형을 재구성하였으며, 외부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고, 이와 같이 변화하는 세계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개발된 새로운 예술 형식은 모두 후기 중화 제국을 그 이전 시대와 구분지어 주는 기본적인 특징이었다.⁷⁾

5) 대부분의 개설류에서 당 후기는 전기에 비해 아주 간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6) 작꼬 제르네 저, 이동윤 역, 『동양사통론』, 법문사, 1985; 볼프람 에베하르트 저, 최효선 역, 『중국의 역사』, 문예출판사, 1997 등에서는 당 후기가 매우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7)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저, 김한신 역,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18~19쪽.

라고 한 후 「들어가는 말」(모두 6쪽)의 2/3 이상을 할애하여 당 후기에 나타나는 새로운 변화상을 세 가지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이는 당의 세계제국적 측면보다도 중국사 전체에서 차지하는 당의 역사적 의미에 더 큰 비중을 둔다는 것을 말한다. 이 책 본문의 서술은 반드시 당 후기에 중점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본서 이후 당 후기에 대한 구미학계의 기본 인식을 엿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III. 대외관계의 범주와 한국사 인식

앞의 목차를 보아도 본서에서 다루는 대외관계의 서술 방식과 비중을 알 수 있다. 즉 제1장에서는 (4) 수당과 외부세계, 제2장에서는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 안에 '중국 세력의 지속적 확장'이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138~147쪽에 걸쳐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4) 당 왕조와 동돌궐의 관계, 제4장에서는 (5) 대외관계, 제5장에서는 (4) 대외관계, 제7장에서는 (3) 이임보의 집권(736~752) 안에 '대외관계(720~755)'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430~447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또 제8장에서는 (1) 동북변경, 제9장에서는 (2) 內廷의 발전(786~805) 안에 '8세기 후반의 대외관계'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607~611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제9장에서는 (4) 9세기 중엽의 조정(820~859) 안에 '9세기 초기와 중엽의 대외관계'라는 소항목을 설정하여 676~681쪽에 걸쳐 서술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대부분의 장에서 대외관계를 설정하여 시기별로 국제관계를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당대사의 조명』의 서문에 적힌 대로 당의 국제성이나 개방성을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서술 형식은 기본적으로 앞 부분에 전체적 개략을 적고 이어 국가별(혹은 지역별)로 나누어 각각의 전개과정을 적은 뒤 마지막에 결론을 정리하고 있다.

각 시기의 국가별(혹은 지역별) 명칭을 보자.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는 한대 이래 전개된 사방에 걸친 여러 가지 나라들과의 관계를 총괄적으로 개괄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나라를 보면 베트남, 한반도 각국, 일본, 南詔, 突厥과 回紇, 契丹, 吐蕃, 大食(이슬람)이 있다.

제2장 (3) 隋代에 직면한 큰 문제 안에 '변방과 영토확장'이라는 항목을 설정하여 수 문제 시기 돌궐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5) 양제 재위 시기의 문제들 안의 '중국 세력의 지속적 확장'에서 流求, 日本, 吐谷渾, 돌궐, 고구려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3장 (4) 당 왕조와 동돌궐의 관계에서는 제목 그대로 동돌궐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4장 (5) 중앙권력 강화 정책 안의 '대외관계'에서는 동·서돌궐, 중앙아시아 오아시스, 토욕혼과 토번, 薛延陀, 고구려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5장 (4) 대외관계에서는 서돌궐, 한반도, 토번, 동돌궐의 부흥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7장 (3) 이임보의 집권(736~752) 안의 '대외관계(720~755)'에서는 토번, 중앙아

시아·突騎施와 아랍인, 동돌궐의 쇠락과 回紇의 흥기, 거란과 奚, 발해 등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제8장 (1) 동북변경에서는 동북 변경의 상황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다.

제9장 (2) 內廷의 발전(786~805) 안에 '8세기 후반의 대외관계'에서는 토번, 회흘, 남조와의 관계를 서술하였다.

제9장 (4) 9세기 중엽의 조정(820~859) 안에 '9세기 초기와 중엽의 대외관계'에서도 토번, 回鶻, 남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이를 통해 수당시대의 유구, 일본, 토욕혼, 돌궐, 고구려, 회흘, 거란, 발해, 남조 등은 모두 국제관계에 속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다만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언급한 나라들 가운데 베트남만은 당의 지배하에 있었던 점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581년 중국이 마주한 이웃 나라 가운데 고구려만이 정착인구가 있고 안정적이며 조식이 잘 갖추어졌고, 다른 나라들은 유목민 등으로 모두 중국보다 뒤쳐져 있었기 때문에 상대하기가 비교적 용이하였다고 하는 점이다. 고구려의 국가적 성격이나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앞에서 말한 「번역 前言」에서는 중국 학계의 입장에서 본서의 내용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면서 農民起義를 반란이라고 하는 것 등을 들고 있는데, 그 중에 토번과 발해 등이 일본·신라와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있다. 말하자면 토번과 발해는 중국 역사에 포함되어 독립국으로 볼 수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번역 前言」에서도 지적하듯이 본서에서는 두 나라가 일본이나 신라와 마찬가지로 위상을 가진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먼저 토번에 대한 서술 방식을 보면 예컨대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7세기에는 강력한 통일의 왕국이 된 토번이 침략의 확장을 시작하면서 서방으로 향하는 중국의 통상로를 위협하였다. 고종 때는 토번이 토욕혼을 멸망시켜 河西走廊과 蘭州에 장기 중병 주둔을 강요하였다. 755년 후 安祿山の 난 때 토번이 감숙을 점령하였다”라고 하고, 제4장 (5)의 '대외관계'에서는 “당 고조 때 토번은 이미 중국 북서쪽 국경에 압력을 가하기 시작했다. 623년 隴右道の 한 주를 침입하였다. 634년 토번은 당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공물을 바치는 사신을 보냈다. 이것이 당 왕조 시대 이런 공식 및 非관방 시절 단 약 100개 중 첫 번째이다. …… [641년의] 이번 화친은 중국과 토번에게 20년 동안의 평화관계를 가져왔다. …… 그리고 토번은 9세기 중엽까지 중국에게 가장 위협된 나라로 발전하였다”라고 하고, 제5장 (4) 대외관계에서는 “678년 고종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설득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토번 방어가 조선보다 더 시급한 일이 된 사정에 따른 것이다. …… 서쪽의 토번에 대한 전투에 많은 병력이 투입돼 더 많은 부대를 한반도에 보내 옛 동맹의 침략적 확장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한국을 점령하고 통치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다”, “고종은 7세기 60, 70년대 고구려전쟁에 주력하면서 토번의 날로 늘어나는 위협에 한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못했고, 그 결과 서부 변경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적 변화가 있었다. 660년 토번은 토욕혼을 공격하였다. 663년 그들은 다시 공격

을 개시하여 토욕혼인들을 청해호 주변의 고향 땅에서 쫓아냈다. 토욕혼 국왕은 절망 속에서 중국인에게 원조를 간청했으나 거절하였다. 고종은 토번과 당 영토 사이의 유일한 완충국이었던 토욕혼이 무너질 때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었다. 토욕혼이 정복당하면서 토번은 甘肅 국경과 타림 분지를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고, 또 제7장 (3)의 ‘대외관계(720~755)에서는 “토번은 여전히 중국이 가장 다루기 어려운 이웃 국가이다. 714년 당이 패한 후, 토번은 그들의 왕국을 굳건히 하였다. …… 730년 계약 협정 후 토번왕은 당의 종주권을 승인하고 토번 국경의 장수들이 당 영토 침입을 그만두고 계약 내용을 담은 비석이 국경에 세워졌다. 평화는 몇 년 동안 지속되었다. 양국은 서로 사신을 파견하여 국경이 정립되고, 국경 울타리도 건립되었다. 그러면서 당은 동북의 거란과의 지속적인 전쟁에 전념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평화는 736년 파괴되었다. 토번인이 또 小勃律를 공격하였고 당의 항의에 불구하고 멈추지 않았다. …… 현종이 새 화약에 동의하지 않자 토번은 741년 여름 과감하게 침공하기 시작하여 다시 청해호를 장악했다. 이들은 철통 같은 石堡城을 탈환하고 甘肅 국경의 당 영토까지 침공하였다”라고 하는 것 등이다. 이러한 서술에서는 토번이 다른 독립국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것은 발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장 (4) 수당과 외부세계에서 “唐高宗 때까지 고구려를 정복하여 한반도는 수년에 걸쳐 중국의 보호국이 되었다. 중국은 철수 후 전 한반도가 처음으로 신라로 통일되었고, 만주 및 연해주는 발해의 중심부를 형성하였다. 신라와 발해는 당을 참고하여 정치적 독립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중국 문화권에 있었다”라고 하고, 제7장 (3)의 ‘대외관계(720~755)’에서는 “동만주에서 나타난 강하고 안정된 국가 발해는 동북지역의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 …… 712년이 되어서야 당은 대조영을 발해왕으로 인정했다. 새로운 발해가 강대하고 번영한 왕국이 되었다. 그 조직은 신라처럼 중국의 모식을 엄격히 모방하였다. …… 719년에 대조영이 죽은 후에 그의 아들 대무예가 왕위를 계승하였다. …… 발해왕은 자기의 연호를 채용하였다. 중국 정삭을 포기하고 독립을 표시한 것이다. …… 이때 현종은 발해에 대해 강력한 행동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강력한 발해의 굴기에 위협을 느낀 신라왕과 계획을 세웠다. 당 군대가 營州로부터, 또 신라군이 한반도 북부에서 협공을 준비하였다. 결과는 참담한 패배였다. 733년 중국인은 거란과 다시 분쟁이 생겨서 전쟁을 포기하였다. …… 발해왕 가운데 가장 위대한 大欽茂가 즉위하였다. 그가 즉위한 57년 동안 발해의 국력은 최고로 높아졌고 높은 문화수준을 이루었다. 그의 통치하에 발해는 제도와 문학 문화 방면에서 당을 따라 복사판이 되었다. 신라와 일본과 같았다. 그가 한자로 행정과 문학이 통용하는 동아시아 중국 문화권의 일부가 되었다. 발해도 신라나 일본과 함께 완전히 독립하였다. 당조가 그 내정을 간섭할 수 없었지만, 조공 관계는 조심스럽게 유지되었다. …… 발해가 건국된 후 당조는 동북에서 새로운 정세에 직면하였다. 신라와 발해는 중국보다 발전 정도가 현저히 떨어지는 부족 민족도 아니고 생활방식과 사회조직에서 완전히 다른 유목제국도 아니었다. 그들은 모두 정주사회이며 완전히 중국처럼 구성된 중앙집권 관료의 왕국이었다. 당조는 반드시 그들과 함께 일종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야

하였다. 이전 어느 이웃나라와 지낼 때보다 훨씬 평등한 관계와 더욱 공동의 문화를 이루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였다”라고 한다. 이러한 서술에서도 발해가 신라·일본 등과 하 등이 차이점을 찾을 수 없다.

이제 본서에서 한반도 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였는가를 살펴보자. 「번역 前言」에서 토번과 발해 등이 일본·신라와 동등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한 것을 통해서도 신라 등이 독립국으로서 중국과 국제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신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살펴보지 않아도 좋다고 생각된다. 대신 여기서 살펴보고 싶은 것은 ‘동북공정’ 이후에 문제가 된 고구려에 대한 서술이다. 앞에서 본서가 고구려의 국가적 위상을 매우 높게 평가한 것 등을 언급하였다. 그 외의 내용을 보면, 제2장 (3)의 ‘변방과 영토확장’에서 “돌궐의 處羅와 그의 기병들이 양제를 따라 고구려로 첫 원정에 나서 전공으로 많은 하사품을 받았다. …… 배구는 양제에게 고구려 사자를 귀국시켜 고구려왕이 수로 직접 찾아오도록 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돌궐을 이끌어 엄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명하게 하였다. 牛弘은 즉시 명령을 받들어 사자에게 명확하게 알렸다. 사자는 이 메시지를 본국으로 가져가졌으나 고구려왕은 그 말을 거부하였다. 수는 언젠가 대군을 동원하여 이 하극상 같은 짓을 한 나라를 토벌해야 할 것이었다. …… 배구는 폭넓은 경험이 있지만 동북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승리를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배구는 똑똑하였지만 그가 쉽게 이길 수 있다고 한 그 지역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였다. 배구의 계획에서 먼저 문제가 발생한 것은 동돌궐의 용병을 사용할 계획을 이루지 못한 것이었다. …… 고구려가 遼河 서쪽을 침공한 것에 대한 복수를 위해 598년 수 문제가 수록 공격을 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고구려는 이때 군사적으로 강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해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고, 제4장 (5)의 ‘대외관계’에서 “수양제는 한반도의 고구려를 정복하려고 하여 세 번을 시도해도 실패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그의 제국이 멸망하였다. 계속된 전쟁으로 고구려도 많은 피해를 입었다. 전쟁의 상처는 618년 고구려 嬰陽王(590~618년 재위)의 죽음과 이복동생 榮留王(618~642년의 즉위 때까지도 회복되지 않았다. 고구려의 권력이동은 중국에 새 왕조가 들어서는 것과 동시에 이루어졌다. 그리하여 양국이 좋은 관계를 회복하였다. 619년 고구려는 다시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하여 당에 공물을 바쳤다. …… 당의 이익은 한반도의 분열을 유지하는 것이다. 그런데 고구려가 한반도를 통일할 위험이 생겨났고, 말갈 및 일본과 동맹할 위험성도 있었다. …… 두 달 동안 공격한 후 태종은 겨울이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군대를 철수시켰다. 돌아가는 길에 당군은 또한 대풍설의 피해를 입었다. 몇 천 명의 군사가 죽고 공격이 실패로 끝났다. 태종의 공격이 실패하자 연개소문이 더 오만해졌다. …… 648년 6월 태종은 이듬해에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완전히 분쇄할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그의 오랜 친구이자 고문인 房玄齡이 죽기 전에 국력을 소모하고 명분이 없는 공격을 포기하라고 당부해도 태종이 듣지 않았다. 고구려 정복의 실패는 태종 본인에게 그림자를 드리웠지만, 아시아에서 날로 성장하는 당의 힘을 약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고, 또 제5장 (4) 대외관

계에서 “태종은 649년에 고구려를 최종 정복하기를 바랐으나 죽음에 임해 직접 이 공격을 취소하였다. 이는 오히려 고구려의 독재자 연개소문의 야심을 강화시켰다. …… 연약한 고종이 수 양제와 당 태종이 실패한 중대한 군사원정을 이렇게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은 이상해 보인다. 그러나 고종은 두 명의 군주가 갖지 못한 유리한 조건이 있었다. 첫째, 연개소문 사후 고구려에 내란이 일어나면서 방어선이 심각하게 약화되었다. 둘째, 바다로 보급을 받을 수 있는 백제를 당 군대가 점령함으로써 고구려의 심장부를 신속하게 타격하고 제2의 전선을 개척할 수 있었다. …… 678년 고종은 신라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라는 설득을 받아들였는데, 그 이유는 토번 방어가 한반도보다 더 시급하게 된 사정에 따른 것이다. 신라는 이미 몇 년 동안에 백제와 고구려 남부의 대부분을 점령하였다. 당은 본국과 가까운 더욱 심각한 군사 업무에 주의를 기울였다. 서쪽의 토번에 대한 전투에 많은 병력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군대를 한반도로 보내 옛 동맹국의 침략적 확장을 억제할 수 없게 되자 한반도를 점령하고 통치하려던 계획은 취소되었다”라고 한다.

이렇게 볼 때 본서에서는 토번, 발해, 고구려가 중국사의 범주에 속한 것으로 인식하지 않는 것이 명확하다. 이러한 인식은 구미학계의 다른 여러 저서에도 보이지만,⁸⁾ 여기서는 ‘동북공정’ 이후에 나온 저서를 살펴보도록 하자. 즉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의 6장 「외부 세계」를 보면 “티베트의 성장은 신강 지역을 둘러싼 모든 세력이 참여하는 외교적, 군사적 분쟁을 촉발시켰다. …… 이러한 외국(즉 고구려, 백제, 일본) 지도자들의 굴복은 순전히 형식적이어서 직위를 받은 인물들조차도 종종 적극적으로 중국의 영향력과 군대들에 반대하였다. …… 당나라는 티베트로부터의 증가하는 위협에 집중하여 더 이상 한반도의 정복사업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다. 한국은 여전히 명목상 중국의 국가체제를 모방한 당나라의 종속국가로 남아 있게 되었다. …… 신라의 한반도 통일은 당나라의 한반도 병합의 의도를 종식시켰고, 동북 지역에서의 거란의 성장은 돌궐의 쇠퇴 이후 소멸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북방으로부터의 위협을 재현하였다. …… 그러나 가장 커다란 변화는 서쪽에서 발생하였다. 성장하는 세력이었던 티베트는 630년대에 당나라와 이름뿐인 동맹을 제한하였고 북부와 서부로 계속해서 확대하고 있었다. …… 티베트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 조정은 서부 지역으로 군사를 배치하고 서돌궐을 격파하였을 뿐 아니라 카슈미르, 갠지스 강 유역 그리고 오늘날 아프카니스탄 일부 지역에서 열성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라고 한다.⁹⁾ 다만

8) 예컨대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134쪽, “[당 현종은] 돌궐족·위구르족·티베트족의 위협에 대비해 방위 병력을 재건하고 쓰촨에서 만주에 이르는 변방에 일련의 군사적 구역을 설치하였으며 그곳의 사령관(절도사)들에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였다”; 폴 로프, 『옥스퍼드 중국사 수업』, 153쪽, “수 양제는 612년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고구려에 대한 대대적인 군사 원정을 단행했지만, 실패로 끝났다. …… 많은 수나라 장군이 양제처럼 희망 없는 전쟁에만 몰두하는 군주를 따르는 것은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고 결국 내전이 일어났다” 등이 보인다.

9) 마크 에드워드 루이스, 『하버드 중국사 당: 열린 세계 제국』, 296쪽, 309쪽, 310쪽, 315쪽,

이 책에서는 발해에 관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이로 보면 구미학계에서는 ‘동북공정’ 이후에도 본서에서와 마찬가지로 토변과 고구려를 중국사의 범주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IV. 맺음말

구미 학계의 송대 정치사 이해

이근명(한국외국어대)

머리말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의 송대사 부분, 즉 제5편이 마침내 출간되었다. 정치사에 해당하는 제5편의 1권은 지난 2009년에, 제도사 사회사 경제사 문화사에 해당하는 2편은 2015년에 출간된 것이다. 1960년대 후반 John King Fairbank와 Denis Twitchett가 이 시리즈를 기획한 것으로부터 실로 40여년, 그리고 1970년대 중반 최종적인 편찬 방침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헤아려도 30여년만에 완성이 된 셈이다.

이처럼 송대사 부분이 시리즈 가운데 가장 늦게 출간된 것은 구미학계의 사정 때문이다. 구미학계의 중국사에 대한 관심은 단연 근현대에 집중되어 있고, 그 다음으로는 근현대의 직전 시기인 명청시대에 대한 관심이 단연 높다. 이를 제외하고는 역사의 연원 단계, 즉 고대사에 대해서도 자못 깊이 있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하여 그 중간에 해당하는 송대사의 연구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논평의 대상으로 삼은 제5편의 1권은 총론을 제외하고 도합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대와 십국이 각각 1개, 북송은 5개 장으로서 태조·태종·진종, 인종과 영종, 신종, 철종, 휘종과 흠종으로 나뉘어져 있다. 남송 역시 고종, 효종, 광종과 녕종, 리종, 도종과 말기 황제들의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시리즈의 여타 시대사와 마찬가지로 역대 황제를 단위로 하여 역사를 서술해 가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오대 시기에 2개 장, 북송에 5개 장, 남송에 5개 장을 설정하고 있는 구성의 배분은 대체로 그 존속 기간과 일치한다.

역사 이해에 있어 상대적 경중의 평가는 일단 도외시하고 이렇듯 그 시기적 장단에 의거하여 서술해 간다는 태도는 그 자체만으로 자못 흥미롭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시각으로 인해 본서는 동아시아에서 출간된 개설서에 비교하여 분명한 특징을 지닌다. 무엇보다 오대 이래 송대 역사의 흐름을 시기적 추이와 함께 차분하게 조명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간 동아시아에서 나온 개설서들은 예외 없이 특정 시기와 특정 사건을 중심으로 송대사를 인식하여 왔다. 북송 초의 제도 개혁, 왕안석의 개혁, 북송말 남송초의 대금 관계 등이 그것이다.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사실에 대해서는 대단히 인색한 시

선을 보였다. 그런데 본서는 오대 이래 남송말까지의 역사 전개를 어느 시기 하나 소홀히 처리하지 않고 골고루 균형 있게 다루고 있다. 예컨대 오대십국의 경우 기존의 개설서나 통사 모두 의례적인 분량만을 할애했을 뿐이다. 그것도 화북 오대 왕조의 변천에 대해서만 약간 의미를 부여하고 십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본서는 십국의 왕조에 대해서도 북송과 남송에 비교하여 완전히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남송 시대사에 대한 서술은 대단히 주목할 만하다. 그간의 송대사 이해에서는 개설서나 연구 논저를 막론하고 북송 시대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송대사 연구에 이른바 ‘당송간 변혁’이라는 시각이 중요한 작용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현전 자료의 분량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 그리하여 남송 시대에 대한 연구는 북송 시대와 비교하여 매우 빈약한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을 고려할 때 본서의 남송 시대에 대한 찬찬한 검토는 대단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필자들은 총 9명이다. 이 가운데 Daniel Levine이 철종과 휘종·흠종 부분의 2개 장을, 그리고 Richard Davis가 남송의 광종·녕종, 리종, 도종과 말대 황제의 3개 장을 집필하였다. 북송의 철종과 휘종·흠종, 그리고 남송의 광종·녕종, 리종, 도종과 말대 황제의 시대가 유사한 역사적 흐름을 지닌다는 측면에서 동일한 필자가 집필을 담당하고 있다는 사실에 어느 정도 수긍이 가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 시리즈가 지니고 있는 위상, 그리고 그 방대한 집필의 분량을 감안할 때 동일한 필자에게 2개, 심지어 3개 장의 서술을 위임하는 사실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 역시 구미의 송대사 연구가 지니고 있는 취약성을 상당 정도 반영하는 것이라 여겨진다.

본서는 전체 13개 장에 총 1000여 쪽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이다. 그 모든 내용에 대해 소상히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스럽지도 않다고 판단된다. 여기서는 동아시아의 송대사 연구자들이 주로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던 시기, 즉 북송 초기와 왕안석의 개혁, 그리고 남송 초의 정치사 관련 서술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송초의 개혁과 대외 관계

송초의 세 황제, 즉 태조와 태종, 진종 시대의 정치사는 본서의 제3장에 해당한다. 전체 약 70여 쪽에 달하는 분량으로서 여타 황제 시기와 비교하여 특별히 많은 지면을 할애하지는 않고 있다. 제1장인 오대가 약 100쪽, 제2장 십국이 70여 쪽, 제4장 인종과 영종이 70쪽 등임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 비중이 지나치게 적지 않나 여겨질 정도이다. 특히 신종편은 무려 140여 쪽에 달한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그 비중의 과소함이 더욱 두드러진다.

이 장의 필자는 대만의 中央研究院에 재직하고 있는 柳立言과 黃寬重이다. 두 사람이 필자로 선정된 것은 양인 모두 미국 학계와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이 참작된 결과인 듯하다. 柳立言¹⁾은 미국의 Princeton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인물이며, 黃寬重²⁾은 한동안 미국의 Princeton 대학과 Harvard 대학에서 방문학자로 체류한 바 있

다.

북송의 건국자 태조 조광윤으로부터 태종을 거쳐 제3대 진종에 이르는 시기의 정치사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역사학계에서는 대부분 송초의 제도 개혁과 거란 관계를 중심으로 이해하여 왔다. 제도 개혁으로는 문치주의의 확립과 황제 독재 체제의 수립이 강조되었다. 이 장의 서술 또한 크게 보아 이러한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주요한 정치사의 흐름을 따라 서술하면서도 송초의 제도 개혁과 대외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송대의 정치 구조와 제도가 당대와 비교하여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가 하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이 장의 필자가 기본적으로 대만을 근거지로 하여 활동하고 있다는 점, 따라서 주로 동아시아 학계의 연구 성과 및 연구 풍토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송초의 정치사, 즉 태조와 태종, 진종 시대를 다루는 부분의 서술은 네 개의 절로 되어 있다. 송의 건국, 先南後北의 통일 전쟁, 태종 시대의 대 거란 관계, 그리고 진종 시대의 이해가 그것이다. 절의 제목만을 살펴보면 송초의 정치적 굴절 가운데 극히 일부의 주제만을 서술하고 있는 듯 보인다. 하지만 그 세부의 내용은 절의 제목이 언급하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는다. 송초의 정치적 변천을 대부분 짚고 있다 하여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다.

송의 건국 부분에서 다루는 주요 주제는 후주 세종의 제도 개혁, 진교역의 병변과天命의 분식, 문신 관료제의 수립 등이다. 이 가운데 주목을 끄는 내용은 태조 조광윤이 기본적으로 오대의 토양에서 성장하여 그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조광윤의 정권 장악과 송의 건국도 기본적으로 오대의 역사 전개를 답습한 것이라 말한다. 뿐만 아니라 태조는 그 치세를 통해 무인 중시의 태도를 견지했다고 한다. 오대의 왕조 교체와 빈번한 전쟁을 목도한 그는 강한 군대의 필요성을 잘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태조의 통치기 송조 권력이 대단히 불안정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물론 유의해야 한다. 배주석 병권이라든가 조보나 조광의 등에 대한 의존, 심복 무장의 중용 등은 그러한 태조의 노심초사를 잘 보여주는 것일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 하여 이러한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겨진다. 필자인 유럽언과 황관중도 분명히 언급하고 있듯이 태조의 오대 유제 불식에 대한 의지는 극히 명료했기 때문이다. 태조 시기 정치사에 드리운 오대의 그림자를 지적하는 것은 필요하고 또 적절한 배려이지만, 본서의 서술은 다소 지나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
- 1) 柳立言은 1958년 홍콩에서 출생하였으며 1986년 Princeton 대학에서 “The Absolutist Reign of Sung Hsiao-tsung (r.1163-1189)”이라는 연구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작으로는 『宋代의 家庭和法律』(上海：上海古籍出版社，2008)이 있다.
 - 2) 黃寬重은 1949년 臺灣 宜蘭縣 출신으로서 대만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연구저작으로는, 『晚宋朝臣對國是的爭議-理宗時代的和戰，邊防與流民』(臺大文史叢刊，臺北，1978)，『南宋史研究集』(臺北：新文豐出版公司，1985)，『南宋時代抗金的義軍』(臺北：聯經出版事業公司，1988)，『南宋軍政與文獻探索』(臺北：新文豐出版公司，1990) 등이 있다. 柳立言과 黃寬重 양인은 일찍이 『中國社會史』(臺北：空中大學出版部，1996)라는 서적을 합編한 바 있다.

두 번째 절에서는 통일전쟁의 경과와 개봉 정도의 의미, 금군의 개혁 등을 다루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매 정권의 복속 때마다 그 결과 어느 정도의 영토와 호구가 더해졌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이를 테면 ‘남한의 정복으로 송조가 60개 현과 17만여 호를 확보하였으며, 남당은 33개 현과 88만 호를 지배하고 있었다.’³⁾고 언급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구미 사회에서 편찬되는 중국사 개설서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전통적 사서 편찬 내지 기술 방식이 재현되고 있는 듯하여 자못 흥미롭다. 또한 개봉 정도가 경제적인 이유로 취해졌다고 말한다. 이로 인해 남방의 경제력이 복송 중앙 정부와 긴밀히 연결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러한 이해는 기존의 송대사 연구자에 의해 빈번히 지적되는 바와 같다. 다만 본서에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방은 십국 시기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였으며, 그 결과 안정과 번영이 구가되어 인구가 경제가 번창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십국 시기를 거치며 경제 중심지로서 남방의 위상이 확고해졌다고 서술하고 있다. 사실 십국 치하의 남중국이 상대적으로 화북에 비교하여 안정적인 정치 구조 하에 있었다는 점은 동아시아의 연구자들이 모두 동의한다. 하지만 오대 시기 남중국의 안정은 어디까지나 화북과 비교할 때의 상대적인 의미일 뿐이다. 십국 역시 왕조의 조명은 대단히 짧았고 군사적 충돌도 잦았다. 뿐만 아니라 왕조 권력의 대민 지배 역시 폭력적이고 약탈적인 경우가 많았다. 그렇기에 복건이나 형호 지방의 경우 복송 중기에 이르도록 그 경제 상태는 대단히 낙후된 면모를 보였다. 십국 정권 하에서 문신관료제의 맹아가 발달하고 또 경제의 안정 상황이 등장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곤란하다 여겨진다. 실제로 복송 시대 강남으로부터 조운되는 세미 원액이 600만석으로 규정되나 그 대부분은 양절과 강동 지역에서 산출되는 것이었다. 일부 정권 혹은 일부 시기의 상황을 십국 치하의 전체로 일반화하는 것 역시 충분히 경계해야만 한다.

세 번째와 네 번째 절은 거란과의 화전, 그리고 진종 시기의 정치사를 서술하고 있다. 먼저 태종의 즉위를 둘러싼 미스터리, 즉 이른바 축영부성과 금궐지맹을 다루며, 태종은 태조 말년 사실상 태조의 후계자로 확정된 상태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축영부성이나 금궐지맹에 대한 해석은 최근 학계의 일반론을 충실하게 수용하고 있다. 태종 즉위 전후 정계의 지형에 대한 평가도 매우 설득력이 있다. 이어 거란과의 전쟁, 즉 옹희복벌 전후의 사정을 서술하고, 송대 사대 유서의 편찬과 그 의미를 비교적 소상히 서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진종의 즉위와 종실의 수난을 다룬다. 그리고 전연의 맹이 타결되는 과정과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부여한다. 전연의 맹으로 송측이 막대한 세폐를 지급하였지만, 그것이 전쟁 시기의 소요 경비에 비하면 대단히 경제적이었다는 사실, 나아가 국가 재정에 미치는 부담도 적었다고 평가한다. 또한 그나마 거란과의 변사에서 세폐로 지급된 액수 이상의 흑자가 발생하였다고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은 대체로 동아시아 학계의 인식과 평가와 부합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만 하나 주목을 끄는 언급이 있다. 진종의 즉위와 함께 송대 새로운 형태의 황제

3)

가 출현하게 되었다고 논급하는 점이다. 진종의 그 재위 초기 태종을 본받아 외정에 의욕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내 독단적인 지배 대신 관료제에 의존하는 군주로 나아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 치세를 통해 문신관료제가 정착되고 황제는 관료와 더불어 국정을 협의하여 결정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평가 또한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연구자들의 기존 이해를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니다. 송대사 학계에서는 대체로 태조와 태종은 공히 송조의 창업 군주였으며 진종이래 수성기로 접어든다고 이해하여 왔다. 사실 이러한 평가와 인식은 전통시대 이래 정착되어 온 것이기도 하다. 본서에서는 이를 해석하여, 진종이래의 북송 조정이 황제의 선도가 아니라 관료제 협의에 기반한 정치를 지향하게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2. 북송 중엽의 개혁과 당쟁

북송의 제6대 황제 즉 신종 시대의 역사를 다루는 부분의 필자는 Paul Jacov Smith⁴⁾이다. 그는 미국 송대사 학계의 원로로서 그 사이 적지 않은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Denis Twitchett와 함께 본서(《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제5편의 1권)를 기획한 공동 편집자이기도 하다.⁵⁾

1067년부터 1085년까지의 신종 시대 18년을 다루는 부분은 7개의 절로 약 140쪽에 걸쳐 서술되고 있다. 본서를 구성하는 12개의 장 가운데 가장 많은 지면을 점유하고 있다. 그 다음으로 많은 분량의 장이 오대 부분으로 약 95쪽이며 그 다음은 북송 말의 휘종과 흠종 시대를 다루는 7장으로 약 90쪽이다. 그 만큼 본서에서는 북송 중엽의 신종 시대와 왕안석의 개혁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이러한 왕안석 개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동아시아 학자들에게 공통적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왕안석의 개혁을 두고, 당송간 변혁의 총결산이라든가,⁶⁾ 혹은 이후 북송의 역사 전개를 규정지은 일대 사건이었다고 평가⁷⁾를 내리기도 한다.

신종 시대에 대한 서술 부분은 7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즉 신종의 즉위와 11세

4) Paul Jakov Smith는 1947년 출생한 미국의 송대사 연구자로서, 현재 Pennsylvania에 있는 Haverford College에 재직 중이다. 1983년 University of Pennsylvania에서 역사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주요 저서로는, *Taxing Heaven's Storehouse: Horses, Bureaucrats, and the Destruction of the Sichuan Tea Industry, 1074-1224*(Cambridge: Harvard University, Council on East Asian Studies, 1991)가 있으며, *State Power in China, 900-1325*(Edited by Patricia Buckley Ebrey and Paul Jakov Smith, 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2016),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Paul Jakov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03) 등을 편집하였다.

5)

6) 梅原郁, 「王安石의 新法」(『岩波講座 世界歴史』9, 東京, 岩波書店, 1970), p.225.

7) 白壽彝 主編, 『中國通史綱要』(上海人民出版社, 1980), p.243.

기 중엽의 위기, 왕안석의 권력 장악, 초기의 개혁 정책, 경제적 불균등 해소에서 착취로의 변화, 원풍 연간 신종 주도 하의 신법 정책, 서하와의 전쟁, 그리고 신종의 사거와 개혁파의 퇴장이 그것이다. 절 제목만 살피더라도 본서가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 어떠한 견지에서 서 있는지 명확히 드러난다. 즉 신종이 19세의 나이로 즉위했을 때 북송 정권은 여러 가지 모순에 휩싸여 있었으며, 이러한 그는 이러한 정황을 극복하고 북방의 서하와 거란을 물리쳐 군사적 공업을 이루려 하였다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신종의 의도에 원로 신하들은 부응하지 못하여 왕안석을 등용하였다. 왕안석은 제치삼사조례사를 설치하여 국정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하였고, 특히 재정 구조를 일변시켜 중소 농민을 보호하면서도 재정을 확충하는 정책을 도입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개혁에 대해 원로를 위시한 대다수의 관원들이 반대하면서 개혁은 파행적인 길을 걸어갔다고 한다. 그리하여 왕안석은 자신의 개혁 이념에 반대하는 관료를 파직시키고 동조하는 인물들만 발탁하였다. 결국 신종의 조정은 왕안석 중심의 권위주의적인 정부로 탈바꿈되어 갔다. 한편 신종에게 있어 개혁 정치는 대외 원정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는 것일 뿐이었다. 이러한 신종의 자세에 따라 신법은 점차 변질되어 경제적 불균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으로부터 재정 흑자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술은 신종 시대 및 왕안석의 개혁에 대한 인식과 평가의 문제를 다각적으로 제기한다. 왕안석의 신법이 종국적으로 어떠한 성격을 지니는 것이었는가? 신법 정치에 있어서 신종의 역할을 어떠한 것이었는가? 그리고 신법을 둘러싼 신당과 구당의 대립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가 그것이다.

이러한 의문에 대해 본서는 동아시아 학자들의 송대사 이해와 비교하여 다른 듯 유사한 듯 복잡 미묘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우선 왕안석의 신법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문제에 있어, 본서는 긍정과 부정, 즉 상찬과 타기 사이의 그 어딘가의 지점에 서 있다.

왕안석에 대한 평가는 전통 시대 이래 극단적으로 엇갈렸다. 왕안석의 지지자들에게 그는 최고의 인격이자 이상적 정치를 구현한 인물이었다.⁸⁾ 반면 반대자들에게 있어 왕안석은 거의 뿔의 화신과 같이 묘사되었다.⁹⁾ 전통시대 왕안석에 대한 평가는 구법당 라인의 남송정권이 출범하며 일단락되었다. 이후 왕안석은 朝政을 그르치고 國論을 양분시켜 북송을 멸망으로 이끈 장본인이라고 규정되었다. 그가 기획하여 시행했던 新法 제 조항도 기본적으로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친 악법으로 인식되었다. 이러한 악평은 20세기

8) 이를테면 왕안석에 대한 정치적 후견인이자 지지자였던 神宗은 熙寧 6년(1073) 그에게 자신의 玉帶를 하사하며, “賜卿帶以傳遺子孫, 表朕與卿君臣一時相遇之美也.”(『續資治通鑑長編』 권247, 神宗 熙寧 6년 10월 辛巳)라고 말하고 있을 정도이다. 또 왕안석의 정치적 계승자라 할 수 있는 蔡京은 왕안석을 孔子廟에 配享하고 있다.

9) 蘇洵은 「辨姦論」에서, ‘왕안석은 人之常情을 거스르는 大姦으로서 奸人의 대명사라 칭해지는 西晉 王衍과 唐代的 盧杞를 합한 것보다 세상에 더 큰 해악을 미칠 인물’이라고 말했던 사실은 유명하다. 심지어 근엄한 도학자인 司馬光조차 한때는 왕안석과 德談을 주고받는 점잖은 관계를 유지했지만 熙寧 3년(1070) 2월 및 3월의 서신왕래를 통해 절교한 후에는, “安石首倡邪術, 欲生亂階, 違法易常, 輕革朝典, 學非言僞. 王制所誅, 非曰良臣, 是為民賊.”(『司馬溫公傳家集』 권17, 「奏彈王安石表」)이라고 말하고 있다.

에 들어 청조가 멸망할 때까지 기본적으로 답습되었다.¹⁰⁾ 그러다가 왕안석에 대한 평가가 극적으로 전환되는 것은 20세기 이후의 일이다. 중국이 제국주의 열강의 압박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정을 지휘하며 국가적 난제에 대처하고자 하는 왕안석의 모습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심지어 梁啓超와 같은 인물은, 왕안석이 출현했던 것이 중국사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다.¹¹⁾ 이러한 왕안석에 대한 호의적 평가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에도 지속되고 있다.¹²⁾

왕안석 및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 전반적 긍정과 부정으로 궤도난마와 같이 평가하는 것은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을 것이다. 비단 왕안석에 그치지 않고 역사적 사안 그 어느 것이든 복합적인 실체와 성격을 지니고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 왕안석의 개혁 또한 본서가 지적하듯, 중소 농민과 상인을 보호한다는 사회정책적 취지와 아울러 또 한편으로 재정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재적 확보책의 성격도 겸비하는 것이었다. 왕안석의 개혁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로 면밀하면서도 다각적인 검토와 고려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신법 도입 단계의 취지는 물론이려니와 그 시행의 실제, 그 효과의 지역적 굴절과 편차, 그리고 시기의 추이에 따른 신법 정치의 변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만 한다.

다음으로 왕안석 신법에서 신종이 점유하는 위치와 역할의 문제 역시 전통 시대 이래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였다. 청대의 조익이 왕안석의 개혁을 평가하며, ‘왕안석의 집권과 활동은 신종에게 雄心이 있었기에 가능했다.’¹³⁾고 지적하였던 것은 유명하다. 오늘날의 연구자 중에도 신종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¹⁴⁾ 그런데 본서는 이러한 인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재원의 재분배를 통해 새로운 부를 창출하여 백성들에게 과세하지 않고서도 국부를 증대시킬 수 있다는 왕안석의 원래 목표는, 신종의 대외 팽창을 향한 야망에 눌러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로 변형되었다.’¹⁵⁾ 라고 단언하고 있다. 신법이라는 개혁을 둘러싸고 왕안석과 신종 사이에 커다란 인식의 분기가 있었고, 최종적으로는 왕안석의 이념이 신종의 대외 공업 추구라는 욕망에 압도되어 갔다는 것이다. 이렇듯 본서에서 신종과 왕안석을 선명히 대비시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뿐더러 역사적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 여겨진다. 신종의 언설 가운데 창생의 구제라는 시각을 가지고 신법에 접근하는 사례는 허다하다. 본서에서 서술하듯 왕안석과의 첫

10)

11) 梁啓超, 『王安石傳』 「敘論」.

12) 오늘날 대륙학계에 왕안석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전연 없는 것은 아니다. 절대 다수는 물론 왕안석의 정책 내지 왕안석에 대해 상찬하는 입장에 서 있지만, 여전히 왕안석 내지 神法을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견해도 소수이나마 존재한다. 그러한 비판적 평가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논술이, 王曾瑜, 『王安石變法簡論』(『鞏鉅編』, 河北大學出版社, 2006 및 『擬意齋集』, 蘭州大學出版社, 2003 등에 수록)이라 할 수 있다.

13)

14) 葉坦, 『大變法-宋神宗與十一世紀的改革運動』(北京, 三聯書店, 1996)과 楊碩, 『宋神宗與王安石變法』(貴陽, 貴州人民出版社, 2005)은 그러한 시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저이다.

15) 서론

대면에서부터 신종은 그러한 이상을 드러낸 바 있다. 왕안석의 신법에 대해 전반적인 긍정이나 부정이나 라는 논단을 물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종과 왕안석의 시각을 명쾌히 대비시키는 것 또한 온당한 태도라 할 수 없을 것이다.

신당과 구당 사이의 대립에 대해 본서는 대단히 흥미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양 정파가 치열하게 서로를 공박하였던 것은 비단 개혁 정책에 대한 인식의 상위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거기에는 정부의 조직 원리 내지 정부의 구성에 대한 시각차가 담겨 있었다고 말한다. 사마광과 한기, 여회 등의 구당이 신법의 타당성에 대해 반대되는 의견을 지니고 있었던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안석과 신당의 과도한 중앙 집권적 통제 및 대간관의 언로에 대한 억압에 대하여도 큰 강렬한 반감을 표지하였다고 한다. 구당의 극렬한 반대에는 후자의 요인 또한 중요한 작용을 미쳤다는 것이다. 그리고 왕안석 정권의 중앙집권적 통제 및 반대론에 대한 억압은 이후 휘종 시대의 채경과 남송의 진회, 한탁주 등에 의해 답습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¹⁶⁾

구당의 왕안석에 대한 비판 가운데 이른 바 ‘조종의 성법’을 위배하였다는 논단은 잘 알려져 있다. 이 조종의 성법을 두고서는 통상 신법 시행 이전의 구법을 가리키는 것이라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구당 인사들의 언설을 보면, 조종의 성법을 단순히 신법으로 대치되는 이전의 법제를 가리키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그들에게 조종의 성법은 저버릴 수 없는 가치이자 송대 문치의 상징물이었다. 그것은 왕안석이 구성하였던 권위주의적 중앙정부와는 다른, 사대부의 언로에 의해 뒷받침되는 개명적 정부를 의미한다. 본서에서 지적하는 신당과 구당 사이의 대립과 그 차이에 대한 설명은, 이러한 측면을 분명한 필치로는 아니나 우회적으로 담아내고 있다고 여겨진다.

3. 남송의 건립과 소흥화의

송조의 南遷과 고종의 통치를 다루는 부분은 본서의 제8장이며 그 필자는 Arizona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陶晉生¹⁷⁾이다. 고종 시기의 정치사를 본서는 대단히 익숙한 구도로 서술한다. 금에 의해 북송의 도성 개봉이 함락된 상태에서 고종이 황제로 즉위하게 된 전후의 사정으로부터, 남으로 내려와 항주를 행재로 하여 정권을 재건하였던 것,

16)

17) 陶晉生은 1933년 湖北에서 출생하였으며, 1967년 Indiana 대학에서 鄧嗣禹를 지도 교수로 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저명한 중국사상사가였던 陶希聖(1899~1988)의 친자이다. 『宋遼關係史研究』(臺北: 聯經出版事業公司, 1984), 『北宋士族-家族-婚姻-生活』(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專刊, 臺北: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01), *The Jurchen in Twelfth-Century China: A Study of Sinicization*(Seattle: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76) 등 수많은 연구 저작이 있다.

그리고 금에 대한 항전의 과정과 화의, 진회의 전권, 마지막으로 퇴위 후 상황으로 살아 갔던 사실 등을 거의 시대순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동아시아 연구자들 역사 인식 내지 역사 서술과 사실상 동일하다. 서술의 전체적 맥락뿐만 아니라 대체적인 서술의 기초 역시 우리가 통상적으로 접하던 내용과 대동소이하다. 구체적인 역사적 사안에 대한 이해 역시 동아시아 연구자의 시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는 이 장의 필자가 미국에서 생활하지만 그 학문적 수련의 많은 시기를 대만에서 보냈던 것, 그리고 현재까지도 중국 및 대만 학계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는 사실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이처럼 고종 시기의 정치사에 대한 본서의 서술이 동아시아 학계와 비교하여 크게 두드러진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검토를 필요로 하는 부분은 산견된다. 여기서는 세세한 사건에 대한 서술은 차치하고, 고종의 남송 정권 건립, 악비에 대한 평가, 그리고 소흥화의에 대해서 약간의 점검과 논평을 진행하도록 한다.

본서는 고종에 대해 매우 호의적인 시선을 견지하고 있다. 고종은 개봉 함락과 사직의 위기라는 국면에서 주변 세력을 효과적으로 수습하여 정권을 재창립해 나갔다고 기술하고 있다. 남도 초기 정권 보위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무장의 독자적 활동을 용인하였지만 점차 무장 세력을 조정의 권위 아래 흡수해 가는 것에 성공해 갔던 사실도 수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남송 초 걸잡을 수 없는 기세로 발생하였던 반란 세력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한다. 1142년의 소흥화 의 역시 내외에 여러 논란이 있었으나 고종은 국가의 안위라는 대국적인 견지에서 다소 굴욕적인 조건으로 화의를 수락하였다고 서술하고 있다.

하지만 고종의 역할과 통치에 대해서는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가 지배적이다. 소흥화 의 이후 진회에게 내치를 내맡기고 사치와 향락에 탐닉하였던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으려니와, 그 이전 고종의 행태도 근실함과 거리가 멀었다. 그렇기에 중국의 원로 송대사 연구자인 王曾瑜와 같은 인물은 고종의 전기를 출간하며 『황음무도 송고종』¹⁸⁾이란 제목을 붙이고 있을 정도이다. 황제 즉위 직후 금의 공격으로 정권이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려있을 때조차 고종의 환락 탐닉과 안일한 생활은 거침이 없었다. 묘부 유정언은 본서에도 기술되어 있듯 1129년 3월 궁정의 변란을 일으킨 후 고종의 무능과 안일함을 질책¹⁹⁾하며 퇴위를 강요하였다. 이 명수의 변은 사실상 고종의 무능과 무절제한 생활에 의해 태동된 것이었다.²⁰⁾

항주 정도의 과정에 대한 서술에서도 고종의 역할이 다소 적극적으로 묘사되고 있다. 고종은 금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태세의 구축을 위해 조신들에게 건강부 정도를 탐문하였다고 기술되어 있다. 또 그 자신 건강부에 한동안 체류하며 그곳에 정도하는 것을 타진하였다고 한다. 하지만 고종의 건강부 행차가 장준과 조정 등 당시 재집의 강력한 권유로 말미암은 것이었다는 사실은 결락하고 있다.

18)
19)
20)

다음으로 본서는 악비의 활동을 소상히 기술하며 그 역할을 매우 부각시키고 있다. 1130년 금군으로부터 건강부를 탈환하였던 사실, 1134년 5월 양양을 수복하였던 것, 1135년 남송 조정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던 종상·양요의 반란 진압, 그리고 1140년에 있었던 언성의 전투 등이 모두 상세히 언급되고 있다. 소흥의 화의 직전 진회에 의해 모반의 죄목이 씌워져 살해되었던 사실도 구체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진회와 대비하여 악비는 전통적인 시각 그대로 걸출한 영웅으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중국 학계에서 악비에 대한 언급은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 된 지 오래다. 대략 1990년대까지만 해도 중국 학계의 악비에 대한 평가는 전층적인 입장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였다. 악비와 진회의 대립 구도를 민족 영웅과 매국노라 이해하였다. 하지만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고 이른바 통일적다민족국가론이 대세를 점하면서 악비란 존재는 미묘한 사안이 되어 버린 것이다. 중국이 통일적다민족국가라는 관점에 의거하여 남송과 금 사이의 전쟁도, 중국이라는 국가 내부에서 발생한 내전에 불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더 이상 악비를 두고 ‘구국의 영웅’ 등으로 칭양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중국 내 악비 평가의 전변을 잘 보여주는 것이 『악비연구』라는 부정기 간행물이다.²¹⁾ 이 간행물은 악비의 사당이 있는 항저우에서 발간되었다. 1988년 1집이 나왔는데 2004년 5집이 간행되고서 사실상 폐간되어 버렸다. 1996년에 간행된 4집까지만 해도 악비를 민족 영웅이라 인식하는 논문이 절대 다수였다. 그런데 중국 당국의 민족정책이 강화되며, 『악비연구』는 이후 거의 10년 만인 2004년에 이르러 5집이 가까스로 발행되었다. 그나마 5집에 수록된 논문들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악비와 무관한 것으로 채워져 있다. 사실상 『악비연구』가 아니라 『송대사연구』라 해도 전연 이상할 것이 없는 정도이다. 악비라는 인물이 지닌 정치적 민감성, 그리고 그로 말미암은 악비에 대한 관심의 저하 등이 여실히 반영된 상태라 하겠다.

오늘날 중국 대륙의 중국사 개설서에서는 거의 대부분 악비의 행적에 대해 매우 소략한 서술로 일관하고 있다.²²⁾ 당국의 민족정책에 부응하는 자세가 소장학자를 중심으로 대세를 점해 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 원로 연구자 가운데는 이러한 악비 평가의 굴절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예컨대 왕증유나 이석후 같은 원로 학자들은, ‘악비를 당시의 정황에 따라 평가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달리 인식한다면 역사 공부란 대체 무슨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반문하기도 한다.²³⁾ 또한 하충례 역시 『남송정치사』를 서술하며 적지 않은 지면에 걸쳐 악비에 대한 평가가 뒤바뀌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²⁴⁾ 그러나 이러한 격양된 반론은 일부의 작은 목소리일 뿐 악비의 비중 격하라는 대세는 거의 확고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 장의 필자인 도진생은 중국 학계의 흐름은 전연 돌아보지 않은 채 악비에 대한

21)
22)
23)
24)

전통적인 평가의 견지를 그대로 지키고 있다. 그 자신 중국 당국의 정책적 필요를 돌아보지 않아도 되는 입장에 있을뿐더러 중국 학계 내 원로와 거의 동일한 연배에 있기 때문이다.

맺음말

“중국사”의 “외부정권과 변경국가”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의 정복왕조사 서술

윤영인(영산대)

목 차

- I. 서구학계 정복왕조사 연구의 대표 성과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
- II. 정복왕조의 정체성
- III. 『중국사』 제 6권의 한국사 인식
- IV. 탈“중국”의 정복왕조사

I. 서구학계 정복왕조사 연구의 대표 성과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6권

출간된 지 이미 25년이 넘었지만 『케임브리지 중국사』(이후 『중국사』로 줄임)의 제 6권은 여전히 10-14세기 중원¹⁾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정복 통치하였던 북방민족의²⁾ 제국인 거란,³⁾ 금, 대하[“서하”],⁴⁾ 그리고 몽골에 대한 서구학계의 대표적 성과로 인정받고

- 1) 이 논문에서는 “중국이라는 지리적 공간”을 가리키는 용어로 복합적인 의미의 “중국” 대신 “중원”을 사용하였다. “중원”은 본래 한족 문화의 중심지인 화북 평원을 의미하나 넓은 의미로 만주(요동), 신강, 티베트, 몽골 등 “변방”에 대비되는 한족의 주요 거주 지역 혹은 한족이 대다수를 차지한 역사적 공간을 가리키기도 한다.
- 2) “북방민족”은 초원과 만주 지역에 거주한 여러 “부족”들을 가리키며 종종 호(胡) 혹은 적(狄)으로 기록되었다. 북방민족들은 군주를 칸(카간 혹은 한)으로 불렀고, 10진수 단위의 군사조직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원적 통치체제를 갖춘 다민족·다언어 제국을 세웠다.
- 3) 일반적으로 거란은 부족의 이름으로, “요”(遼)는 거란족이 세운 제국의 국호로, 그리고 “요”가 망한 후 그 유민들이 중앙유라시아로 이주하여 세운 나라를 “카라키타이” 혹은 “서요”라고 한다. 하지만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기록에서는 거란의 국호가 시종일관 “키타이” 혹은 “카라키타이” [“哈喇契丹” 혹은 “大契丹”, “契丹國”, “契丹” 등]로 보인다(刘浦江, 『辽朝国号考释』, 『历史研究』, 2001년)

있다. 이 책은 기존의 주요 연구를 집대성한 연구서이자 개설서로 전공자는 물론 비전공자와 일반 독자들은 물론 중국학계에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⁵⁾ 『중국사』 제 6권은 한족 왕조에 비해 비교적 소홀시 되었던 정복왕조⁶⁾ 거란, 대하, 금, 그리고 몽골제국의 흥기와 중원 정복, 다민족·다언어·다문화 제국을 통치하게 된 역사적 배경, 그리고 통치체제와 제도를 제국이 당면하였던 국제질서, 사회체제, 경제적 변화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서술하였다. 『중국사』 제 6권은 총 37개의 표와 지도, 거란, 서하, 금, 원 황실 세계도, 각 왕조의 연호와 수도 위치를 표와 총 9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 1장에서 3장까지 각 장마다 하나의 왕조(거란, 서하, 금)를 다루었던 반면, 마지막 6개 장(제5장~9장)과 전체 분량의 절반 이상은 원(몽골제국)시기를 조명하는데 이는 비교적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던 세계제국 몽골사의 중요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단순히 기존 성과를 정리하여 열거하는데 그치지 않고 정복왕조사 연구에 새로운 시각과 이론적 틀을 제공하면서 토론의 장을 열었다고 평가한다.

『중국사』 시리즈는 서구학계에서 활동한, 즉 서구에서 학위를 취득하고 서구의 연구기관에서 활동하며 연구 결과를 서구권 언어로 발표하는, 학자들로 집필진을 구성하는 것이 원칙이었고 제 6권의 저자들 역시 모두 유럽과 미국학계 출신 학자들이다.⁷⁾ 공동편집자 중 한 명인 프랑케(Herbert Franke, 1914~2011)는 쾰른대학, 본대학, 베를린대학에서 수학하고 법학박사(1937)와 철학박사(1947) 학위를 취득한 후 뮌헨대학에 재직하면서 여진과 몽골의 역사를 연구하였다. 또 다른 편집자 트위첵(Denis Twitchett, 1925~2006)은 런던대학교와 케임브리지대학에서 당나라 시대를 전공하였고 1968년에서 1980년까지 미국 프린스턴대학에서 활동하였다. 두 공동 편집자가 독일과 영국의 유럽학계 출신이라는 사실도 흥미롭지만 이는 20세기 후반까지 북미학계에서는 정복왕조를 연구한 학자들이 극소수였음을 보여주며 아직도 이 분야 전공자들은 몽골제국사를 제외하고는 한, 당, 송, 명 등 한족왕조 연구자들에 비해 아직도 현저하게 작은 규모에 머물고 있다. 편집자들은 책의 서론(Introduction)에서 거란, 금, 대하와 몽골제국 시기를 관통하는 “변경”(the frontier), “외부인”(foreigners), “다국체제”(multistate system), “맹약관계”(treaty relations), “정권의 유형”(modes of government), 그리고 “다중언어

6期, pp. 40-43; 刘凤翥, 「从契丹文字的解读谈辽代契丹语中的双国号—兼论“哈喇契丹”」, 『东北史研究』; Biran, Michal, 2005,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pp. 215-17). 이 논문에서는 거란족이 세운 제국의 일반적 명칭으로 “거란”[키타이]을 사용하였다.

4) 서하(西夏)라는 명칭은 중원의 서쪽에 위치하였다는 의미로 몽골제국 시기에 편찬된 『遼史』와 『宋史』 등에 보이는데 탕구트는 그들의 왕조를 대하(大夏) 공식명칭은 한자로 “백고대하(白高大夏)국”이라고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탕구트 왕국의 국호로 “대하”를 사용한다.

5) 『중국사』 제 6권은 출간된 지 4년 만에 번역본이 “본고장”인 중국에서 출판되었다(傅海波, 崔瑞德 编, 1998, 『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6) “정복왕조”(Dynasties of Conquest)는 비트포겔(Karl Wittfogel)이 체계화한 개념으로 정복자의 정체성과 독자성, 그리고 다민족제국에서 발생한 문화적 변용과 이원적 통치체제에 주목하였다(Karl Wittfogel and Feng Chia-s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p. 1-32 참조).

7) 집필진에 참여한 학자들의 대표 연구 성과는 참고문헌 참조.

성”(multilinguality) 등 핵심 개념을 정의하였다.

제 세 개의 장에서는 각각 거란, 대하, 그리고 금을 다루었다. 제1장 “The Liao”(거란)는 편집자 트위첵과 독일 학자 티에쨌(Klaus-Peter Tietze)가 공동으로 집필하였는데 『요사』와 거란사 연구의 대작 비트포겔의 *The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의 내용을 토대로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어 서술하였다. 제2장 “The Hsi Hsia”(서하)를 저술한 던넬(Ruth Dunnell)은 프린스턴대학에서 박사학위(1983)를 받았으며 정치사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더불어 대외관계, 경제구조, 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을 보인다. 편집자 프랑케가 저술한 제 3장 “The Chin Dynasty”(금왕조)는 거란과 대하를 다룬 부분과 비교할 때 보다 다양하고 충실한 서술이 돋보인다. 정치사 외에도 제도, 민족 구성, 사회구조, 경제, 지성사와 종교 등을 다루었고 특히 문화변용(acculturation)과 한화(sinicization), 그리고 이에 대한 반작용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4장에서 7장까지는 몽골제국의 역사를 시대별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4장 “The Rise of the Mongolian Empire and Mongolian Rule in North China”(몽골제국의 흥기와 북중국 통치)는 몽골제국사 전공자 알슨(Thomas Allsen)이 집필하였는데 테무진의 탄생에서 명케칸까지 정치 제도의 발전과 역할, 그리고 사회와 경제사의 주요 쟁점을 다루었고 특히 중원 북부 지역 통치에 초점을 맞추었다. 제5장 “The Reign of Khubilai Khan”(쿠빌라이의 치세)는 로사비(Morris Rossabi)가 쿠빌라이의 전기를 다룬 본인의 저서를⁸⁾ 토대로 몽골제국 전성기의 사회, 경제, 종교와 문화를 서술하였다. 제 6장 “Mid-Yüan Politics”(원 중기의 정치사)의 저자 소계경(蕭啟慶, Hsiao Ch'i-Ch'ing)은 대만국립대학 사학과에서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학의 저명한 몽골사 전공자 클리브스(Francis W. Cleaves)교수의 지도 아래 1969년 원대의 군사제도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집필된 중 유일하게 동아시아 학계에서 활동하여 싱가포르국립대학(1974~1994)과 대만 국립청화대학(國立清華大學)에서 재직하였고 2000년에는 대만 중앙연구원(中央研究院)의 원사(院士)로 선출되기도 하였다. 소계경은 1294년에서 1332년, 즉 테무르(成宗, Temur Khaghan, 1294-1307), 카이산(武宗, Khaishan, 1307-1311), 아우르바와다(仁宗, Ayurbawada Khaghan, 1311-1320), 시데발라(英宗, Shidebala Khaghan, 1320-1323), 예순테무르(泰定帝, Yesun Temur Khaghan(1323-1328), 그리고 투테무르(文宗, Tugh Temur, 1328- 1332)의 칸들의 시대를 다루었는데 제국의 통치 제도와 이념이 한족 전통과 제도의 영향을 받은 점을 강조하였고 빈번하게 발생한 파벌 투쟁의 원인을 몽골과 한족의 엘리트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대칸 권력의 쇠퇴에서 찾았다. 제 7장의 저자 다디스(John Dardess)는 “Shun-ti and the End of Yüan Rule in China”(순제와 몽골의 중원 통치 종말)에서 토곤 테무르칸(Toghon Temur, 순제(1333-1368)) 치하의 정치사를 다루었으며 몽골제국이 중원을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칸의 지도력 부재, 홍수와 가뭄 등 자연재해, 그리고 새로운 사상의 등장 등을 지목

8) Morris Rossabi,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하였다.

제8장과 9장은 몽골제국 전 시기의 제도와 사회를 조명하였다. 8장 “The Yüan Government and Society” (원의 통치기구와 사회)의 저자 앤디콧-웨스트(Elizabeth Endicott-West)는 원의 통치 기구와 조직을 문, 무, 감찰, 그리고 황실의 기구로 나누어 접근하였는데 중앙과 지방의 이분법적 관계를 분석하여 몽골제국이 그 제도적 장치와 달리 실제로는 중앙집권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원나라의 사회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족을 제외한 몽골과 기타 부족의 엘리트 계층을 다루고 있다. 제 9장 “Chinese Society Under Mongol Rule, 1215-1368”(몽골 통치 시기의 중국(한족)사회) 저자 모트(Frederick W. Mote, 1922~2005)는 1948년 중국 남경대학교를 졸업하고 1954년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도종의(陶宗儀)의 『輟耕錄』 연구로 박사학위를 획득한 후 프린스턴대학에 재직하면서 『중국사』 프로젝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모트는 주로 몽골 통치 아래 중원에서 발생한 사회 구성과 민족 관계의 변화를 민족등급제와 호적을 통한 세습제도 등을 통해 설명하면서 기존 송과 금의 제도를 바꾸려고 하였던 몽골 제국의 정책적 노력에 초점을 맞추었다. 나아가 몽골과 색목인 지배층이 정치와 군사적 권력을 통해 한족을 통치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우월한” 한족 문화에 동화되었다는 기존 견해를 비판한다.

II. 정복왕조의 정체성

『중국사』 시리즈는 시대별로 편성되어 하나의 왕조를 한 권(卷)으로 서술하는 것이 원칙이었지만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400여 년간 존재한 4개의 정복왕조를 하나로 묶으면서 동시대에 존재하였던 한족 정권인 오대, 송, 그리고 남송과 분리하여 따로 서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시대별로 거란과 송, 그리고 금과 남송을 묶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았을까?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사이에 어떤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일까 아니면 단지 편의성의 방편이었을까? 나아가 거란, 대하, 금, 그리고 몽골이 세운 “정복왕조”의 역사는 과연 “중국사”인가? 여기서 “중국”(China)이라는 용어는 “한족(漢族)” 혹은 “중원(中原)” 혹은 “한지(漢地)” 등 여러 의미가 종종 중첩되어 정확한 정의를 내리기 어려우며 “중국의 문화” 역시 다양한 문화적 전통이 혼합된 결과물이었기에 그 의미를 한족 전통 문화와 그 핵심 가치관에 국한시켜도 “중국”이라는 정치적·문화적·공간적 실체는 시대에 따라 크게 변하였다.⁹⁾ 그리하여 스탠든(Naomi Standen)은 근대 “중국”의 개념을 과거에 그대로 적용하는 시대착오적 개념이야말로 올바른 역사 인식의 가장 큰 장애물로 보았다.¹⁰⁾

9) John W. Dardess, “Did the Mongols Matter?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pp. 112-22.

10) Naomi Standen,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또 탕구트가 세운 대하는 정통 왕조로 인정받지 못하였기에 몽골제국이 이전 왕조들의 역사를 편찬하는 과정에서 제외되어 단지 『遼史』, 『宋史』, 『金史』의 「외국열전」(列傳) 등에 기록된 단편적 내용만이 전해진다. 그런데도 제 6권에서는 대하의 역사를 따로 장을 세워 가능한 상세하게 다루었다. 하지만 중원의 주변에 위치하면서 한족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티베트와 위구르제국 등은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 따로 장을 세워 서술하지 않고 대신 『케임브리지 내륙아시아 초기역사』(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에 포함되었다.¹¹⁾ 결국 『중국사』 제 6권의 집필자들은 “중원”이라는 한족의 역사적 공간에 대한 정복과 통치 여부를 중국사의 범주를 설정하는 주요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런데 “중국사”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중원을 정복한 외부왕조에게 어느 정도 “중국”이라는 역사적 정체성이 있어야 한다. 거란, 대하, 금, 그리고 몽골에 과연 그러한 정체성이 존재하였다면 이는 어떠한 과정을 통해 형성되었을까? 편집자들은 정복왕조가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한족 세계”(한족 전통의 세계질서)의 틀에 편입되면서 “중국사”와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하였다.

공식 사절단과 공문서를 통한 외교적 교류는 정복국가들이 “중국[즉 한족]의 세계”(“the Chinese world”)로 흡수되는 과정을 강화·가속화한 것이 분명하다. 외교적 절차는 한족의 선례를 따랐을 뿐만 아니라 외교의 언어(문자)도 한문이었다. 거란, 금, 혹은 서해[대하]가 송에 보낸 문헌을 그들 고유의 언어 혹은 문자로 기록하거나 한문과 병기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정복왕조가 그들의 종교에 올린 서서(誓書)를 그들 고유의 언어로 작성하였는지 역시 알 수 없다. 하지만 이들 국가들이 가진 다언어성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지역 국제관계에서 공통어는 한족의 언어(와 문자)였다고 추정해도 무방하다 [There can be no doubt that diplomatic intercourse through embassies and correspondence strengthened and accelerated the absorption of the conquest states into the Chinese world. Not only was the procedure modeled on Chinese precedents; the diplomatic language was Chinese. It does not seem that any letter from Liao or Chin or Hsi Hsia to the Sung was ever written in the native language and script or that a parallel text to the Chinese version was drafted in their own

Frontiers in Question: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Naomi Standen,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p. 31.

11) 위구르와 티베트의 역사는 1990년에 출간된 『케임브리지 내륙아시아 초기역사』(Denis Sinor,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에 포함되어 있다. 내륙아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활한 공간을 모두 포함하는 지리적 개념이며 이 책의 마지막 장에서 거란과 여진을 하나로 묶어 서술하였는데 그 저자는 바로 『중국사』 6권의 편집자이자 제3장 금 왕조를 집필한 프랑케교수이다. 『중국사』가 요과 금 왕조에 대한 구체적인 서술이라면 『내륙아시아 초기역사』는 왕조 건국 이전과 멸망 이후 시대를 관통하는 거란과 여진 부족의 역사를 모두 다루었다.

language. We also do not know whether the oathletters of the northern states that had to be ritually deposited in their own ancestral temples were written in the native language. It seems safe to assume that however multilingual the states might have been, the diplomatic lingua franca throughout continental East Asia was Chinese].¹²⁾

즉 정복왕조들은 한족의 전통과 제도적 틀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편입되면서 “중국”이라는 역사적 범주에 들어오게 되었다고 인식한 것이다. 나아가 『중국사』 제 6권 편집자들은 거란, 여진, 탕구트, 몽골이 세운 제국을 단순히 중원의 농경·정착 문명의 한족정권과 대비되는 유목국가로만 볼 수 없으며 북방민족의 명칭은 어느 특정 “단일 집단”(homogeneous people)이 아니라 복합적인 현실(complex reality)을 반영한다고 하였다. 또 정복왕조들은 토착(부족)문화(nativism)와 문화변용(acculturation)의 갈등, 다언어·다문화 체제 제국의 통치 문제, 권력의 개인화, 통치의 분열, 지식인 계층의 신분 하락 등 여러 면에서 상호 유사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정복왕조의 군대는 다국적으로 구성되었고 많은 한족 병사를 포함하고 있었기에 송과 북방 정복왕조의 전쟁 역시 단순히 부족(민족) 혹은 종족 간의 전쟁이 아니라 “중국 내전의 특별한 모양”(a special form of Chinese civil war)이었다는 것이다.¹³⁾

그런데 정복왕조가 북방에서 흥기한 사실을 통해 “정복”이라는 역사적 현상은 북방민족의 전통과 역사적 경험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음을 말해준다. 즉 정복왕조 고유의 전통에 대한 상세한 고찰이 요구되지만 이들이 중원으로 들어오기 이전 역사는 “중국사”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인식되어 제6권에서는 매우 소략하게 서술되어 있다. 실제 거란, 여진, 탕구트, 몽골은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숲, 분지, 초원, 사막의 오아시스 등)에 적응하면서 통치방식, 다언어성, 문화변용, 세계관, 역사적 경험, 그리고 국가의 정책 목표 등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초원 유목문명의 몽골과는 달리 만주에서 흥기한 여진과 거란은 혼합적 성격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중원지역과 관계를 맺었으며 탕구트 대하 역시 지역의 비교적 척박한 환경으로 인해 주변 국가 특히 송나라와의 교역이 매우 중요하였다. 거란, 탕구트, 여진의 정복왕조들이 중원 한족의 전통과 제도에 크게 의존하고 수용한 사례와 대조적으로 몽골은 거란, 위구르, 중앙유라시아 이슬람, 티베트 등의 전통을 널리 차용하였다.

제6권의 편집자들은 “원의 중국 재통일”(reunification of China under the Yüan)¹⁴⁾ 이전 시기를 “맹약의 시대”(an age of treaties)로 정의하면서 거란, 대하, 금이 한족왕조 송(북송과 남송)과 더불어 “동등한 국가 중 하나”(China among Equals)로 “다국체제”(Multistate System)의 “맹약관계”(Treaty Relations)를 형성·유지한 것을 강조

12)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Introduction,” *CHC*, Vol. 6, p. 20.

13)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Introduction,” *CHC*, Vol. 6, p. 12.

14)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1994,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p. 18.

한다. 물론 『중국사』 제 6권의 출간 이전에도 “조공체제” 이론의 문화론적 편견과 역사적 실제 사이에 나타나는 모순을 지적하고 한족 전통의 제도와 공간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범위에 성립·유지되었던 국제질서를 규명하고자 하였던 서구학계의 노력이 있었다. 특히 정복왕조 시기인 10세기에서 12세기까지의 동아시아에는 세력균형에 의해 성립·유지된 다원적 국제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¹⁵⁾ 또 바필드(Thomas Barfield)는 북방민족과 한족왕조의 관계를 기존의 “교역 혹은 약탈”이라는 이분법적 논리가 아닌 중원, 초원(몽골지역), 그리고 만주라는 세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순환과정에 주목하여 접근하였다.¹⁶⁾ 레자드(Gari K. Ledyard)는 동북아시아 국제관계에서 한반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원-만주-한국의 삼각관계를 통해 한족왕조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는 역사적 순환과정을 이해하고자 하였다.¹⁷⁾

동아시아 국제관계는 군사적 세력균형으로 유지되었고 다양한 정치적 타협과 문화적 교류의 산물이었기에 중원이라는 공간의 한계를 초월하여 만주, 한반도, 그리고 초원과 중앙유라시아 등 여러 지역에 거점을 두고 있었던 다양한 정치세력으로 구성된 다원적·다국체제(pluralistic and multi-state)의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런데 제6권의 집필자들은 정복왕조와 한족왕조 사이에 형성된 “다국체제”의 국제질서를 강조하면서도 고려 등 소위 “주변”을 보는 시각은 여전히 조공과 책봉으로 이루어진 “중심”(중원)과 “주변”의 공식 관계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정복왕조의 정체성과 밀접하게 연결된 또 하나의 역사적 현상은 바로 “한화”이다. 그런데 동아시아 역사에서 “한화”를 강조하는 학자들은 그 용어에 내재된 “한족,” “중국,” 혹은 “중국문화”의 개념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한 역사적 사실을 간과하면서 “한화”의 개념을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설정하여 역사 현상에서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무시한다. 한족 왕조의 정치 이념과 제도를 채택하고 실제 어느 정도 문화의 수용과 동화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한화”로 규정할 수는 없다. 물론 6권의 집필자들은 “우월한 문명과 미개의 대립”(confrontation between high civilization and barbarism)의 기존 시각으로는 정복왕조와 중원의 관계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하였다.¹⁸⁾ 정복왕조 지배층이 한족 문명의 매력에 심취하였던 현상 역시 부족 고유 전통의 가치관을 포기한 것이 아니며 부족체제와 제도를 대신하여 중원의 유교적 가치관에 입각한 제도를 수용한 사례를 북방민족의 정체성이 동요하고 있었다는 분명한 증거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복왕조가 “우월한” 한족의 문화를 맹목적으로 수용하지 않았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방민족이 다수의 한족과는 별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던 모습에 주목한다. 특히 부

15) Morris Rossabi, ed., 1983,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pp. 225-29.

16) Thomas Barfield,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pp. 167-177.

17) Gari K. Ledyard,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pp. 313-353. 김한규도 레자드와 유사한 시각에서 접근하여 만주를 중원이나 한반도의 “변방”이 아니라 “요동”이라는 독자적 체계의 “역사공동체”로 설정하였다(김한규, 『요동사』)

18)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Introduction,” *CHC, Vol. 6*, p. 13.

족체제에서 제국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당시 가장 높은 위상을 가진 외국 문자(즉 중원의 한문)를 차용하지 않고 새로 그들 고유의 문자를 창제하여 제국의 언어를 한문과 동등한 위치의 기록언어로 승격시킨 사실에 주목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거란, 대하, 여진과 몽골은 제국을 운영하면서 한문을 제국의 문자로 그대로 차용할 수 있었지만 모두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 사용하면서 한쪽보다 우월한 그리고 차별되는 정체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한 것이다.

정복왕조들의 “한화”에 대해서는 다양한 시각의 고찰이 요구된다. 예를 들면 소수의 한족만을 통치한 “작은 제국” 대하와 절대다수의 한족을 통치한 “세계제국” 몽골의 “한화” (즉 한족 제도의 수용)를 동일한 시각에서 접근할 수 있을까? “한화”가 단지 한족들을 통치하기 위한 정책의 결과가 아니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던넬은 대하의 “한화”를 탕구크 부족체제의 분산된 권력을 중앙집권화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수단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몽골은 중원만이 아니라 위구르와 티벳, 그리고 다양한 초원지역의 전통을 필요에 따라 수용하였고 자신들의 언어와 문자에 가장 높은 권위와 지위를 부여하였다. 쿠빌라이가 “원”제국을 선포하기 이전에 이미 몽골제국은 중원의 북부를 통치한 거란과 금은 물론 위구르와 대하, 그리고 중앙유라시아의 여러 전통과 제도를 절충적으로 수용하였다. 결국 “중국”의 세계관은 한족과 타민족이 만들어 낸 역사적 산물이기에, “한화”라는 일방적 시각의 틀로는 한족왕조와 정복왕조의 복잡하고 다양한 관계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서술이 어려운 것이다.¹⁹⁾

III. 『중국사』 제 6권의 한국사 인식

동아시아 다원적 국제질서에서 세력균형의 중요한 축이었던 고려에 대한 『중국사』 제 6권의 서술은 단편적이고 소략하다. 이는 1990년대 제6권을 편찬한 시기 집필진과 대다수 서구 동아시아사 전공자들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과 지식이 대체로 중국과 일본학계의 성과와 시각을 통해 간접적으로 형성되었던 상황에서 기인하였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서구 대학에서는 중국사 연구자에게 어느 정도의 일본어와 일본사에 대한 기본 지식을 요구하면서도 한국 등 “주변”에 대한 관심은 많지 않았기에 『중국사』 제 6권에 한국학계의 시각이나 성과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결국 중국과 일본학계의 연구 성과는 널리 인용되었던 반면 한국어 독해 능력이 없던 집필진들은 헨톤(William Henthorn)과 로저스(Michael C. Rogers)의 영문 논문과 저서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²⁰⁾ 한국학자의 저서가 인용된 것은 단 2차례에 그치는데 그마저도 한우근과 이기백의 한국사 개설서 영

19) Evelyn Rawski,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pp. 829-50.

20) 헨톤과 로저스의 논문과 저서는 참고문헌 참조.

문번역본들이었다.²¹⁾

이렇게 한국학계의 성과와 사료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중국사』 제 6권의 서술은 고려가 한족의 문화를 추종하면서 한족중심적 세계질서에 “순응”하면서 중원의 왕조들에 “사대”하였다는 선입관을 답습하고 있다. 그 한 예로 트위철헤트는 10세기 후반 거란과 고려의 충돌에 관한 서술에서 고려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10세기경에 이르면 ‘한국인’(즉 고려인)들은 모든 계층이 한족 문화의 영향에 철저히 젖어 있었고 거란을 혐오하고 증오하며 두려워하였다”(By the tenth century the Koreans were thoroughly imbued with Chinese cultural influence at all levels and hated, despised, and feared the Khitan).²²⁾

트위철헤트는 계속하여 11세기 초까지도 고려가 거란에 대해 “비타협적 태도”(Korean intransigence)를 견지하였다고 하였는데,²³⁾ 그로부터 불과 10여 년이 지난 1020년대의 거란과 고려의 관계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서술한다.

[양국 사이에] 조공관계가 재개되고 사신들을 정기적으로 주고받았다. 1031년 현종이 죽자 선왕의 아들이자 계승자 왕흥(덕종)은 거란조정에 의해 책봉되었다. 그 후 거란의 거의 마지막까지 고려는 거란의 충성스러운 제후국으로 남았고 양국 사이에 평화가 드리워졌다”(The tributary relationship was resumed, and envoys were regularly exchanged. When in 1031 Hyōnjong died, his son and successor Wang Hūm (Tōkchong; r. 1031-4) was invested as king by the Liao court. From this date until almost the end of the Liao, Koryō remained a loyal vassal, and peace prevailed between the two states).²⁴⁾

그러면 11세기 초 거란과 고려의 관계에는 어떤 큰 변화가 있었는가? 저자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별다른 관심이나 설명을 제시하지 않는다. 아마도 “한족(전통)의 보편주의”(Chinese Universalism)을 신봉한 고려 통치자들의 지위는 “한족 세계질서의 틀에서 유교적 도덕과 지식의 관리자로서 인정된 역할”(their acknowledged role as custodians of (Confucian) virtue and wisdom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hinese world order)에 있었고 정복왕조와 한족왕조의 연호 시행과 조공의 기록을 근거로 고려가 “다국적 [국제관계의] 현실”(multi-state reality)로 부터 가리어져 있었다고 한 로저스(Michael Rogers)의²⁵⁾ 주장을 그대로 수용한 듯하다.²⁶⁾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조공체제의 이념에

21) Han Woo-keun (Han U-gun), *The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Lee Kyung-shik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Yi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nd Edward J. Shultz.

22) Twitchett, Denis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CHC*, Vol. 6, p. 103.

23) Twitchett, Denis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CHC*, Vol. 6, p. 111.

24) Twitchett, Denis and Klaus-Peter Tietze, “The Liao,” *CHC*, Vol. 6, p. 112.

치중하여 고려의 정치와 경제적 동기, 문화 교류, 안보 등과 같은 다양한 요인과 고려가 시행한 현실주의와 실용주의적 전략에 대한 고찰의 부재를 드러낸다.

비록 언어의 장벽으로 한국 학자의 성과를 활용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고려시대 연구의 가장 중요한 사료이자 동시대 정복왕조에 대한 “외부” 시각을 제공하는 『고려사』 등 한문으로 기록된 1차 사료 역시 거의 활용하지 않은 점은 매우 아쉽다. 특히 제 1장에서 거란과 고려의 수차례 전쟁 서술은 『고려사』에 비해 내용이 매우 소략하고 오류가 많은 『요사』에 전적으로 의존하였다. 그런데 집필자들이 한국사 전통 사료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니었다. 제 6권의 부록 “사료 소개” (Bibliographical Essays)에서는 『고려사』의 중요성을 두 번이나 강조하였다. 『고려사』는 “여진과 고려의 관계에 매우 중요한 완전히 독자적인 사료”(A completely independent source of great importance for the relations between the Jurchen and the Korean state of Koryŏ)이자 “원제국과 고려 (중원과 빈번하며 오랜 접촉을 하였던 지역(즉 고려)과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필수사료”(an indispensable record of the Yüan's relations with a land that had frequent and extended contacts with China)라고 높게 평가하였으나 본문에서는 한 번의 형식적 인용에 그치면서 거의 활용하지 않았던 것이다.²⁷⁾

마지막으로 제6권에서 “Korea”는 한반도의 국가를 지칭하는 단어로 사용하였는데 대체로 고려, 그리고 간혹 신라 등 삼국을 의미하기도 하였으나 결코 발해를 가리키지 않았다. 즉 발해를 “중국사”의 영역으로 서술하지도 않았지만 동시에 한국사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하지만 발해는 기본적으로 중국어 발음인 “Po-hai”로 근 100여 차례 표기하였고 한국어 발음의 “Parhae”는 단지 4차례 병기하는데 불과하였다.

IV. 탈“중국”의 정복왕조사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의 세계사 시리즈는 어느 특정 국가 혹은 지역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통사이자 개설사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사료의 제한과 축적된 연구가 부족하였던 당시 서구 학계의 현실에서 『중국사』 제 6권 내용 대부분이 정치사, 특히 왕위계승과 권력투쟁, 대외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런데도 서구학계 최고의 학자들이 기존의 연구 성과를 집대성한 결과 『중국사』 제6권은 출간 이후 정복왕조사 연구의 방향과 미래 과제를 제시하면서 학계에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이 책에서 집필자들은 기존의 한족중심적, 그리고 단선적 시각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25) 중국 고대와 중세를 연구한 로저스(Michael C. Rogers)는 당시 서구학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고려 관련 논문을 다수 발표하였다. 로저스의 대표 논문들은 참고문헌 참조.

26) Michael Rogers,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pp. 9-10.

27) Herbert Franke and Denis Twitchett, eds., *CHC, Vol. 6*, pp. 437, 682, 704.

인식하였고 특히 모트(Mote)는 몽골 원제국을 중국사의 한 시대로만 인식하는 학자들이 종종 원대의 “중국”은 실제 몽골제국의 한 부분에 불과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였다.²⁸⁾ 그러나 『중국사』 제6권 편집자들 역시 마르코 폴로가 당시 몽골제국의 북방과 남방을 전혀 다른 나라로 보았던 사실을 그가 “중국의 기본적 통합체”(the basic unity of China)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한 결과로 보았는데, 이는 오히려 거란, 대하, 여진, 몽골의 정복왕조들을 “우리가 오늘날 중국이라고 부르는 거대한 통합체”(greater unity that we now call China)²⁹⁾의 틀에 역지로 끼워 넣는 것이 아닐까? 북방 초원과 만주의 전통을 계승한 다민족제국 정복왕조의 통치 아래 있던 북방을 남송의 옛 강남과는 전혀 다르게 인식하였던 폴로가 과연 현실을 착각하였던 것이었을까? 다원적 국제질서에서의 북방과 남방, 그리고 “중국”을 초월하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한 문명의 상호작용에 대한 고찰, 특히 “한화”와 반대로 진행된 “북방화” 현상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해석의 부재가 가장 아쉽다.

결국 『중국사』 제6권은 기존 한족중심적 시각을 비판하고 어느 정도 정복왕조와 북방민족의 정체성을 강조하지만 궁극적으로 거란, 대하, 금, 몽골의 역사를 “중국사”의 틀 안에서 서술하였다. 오늘날 중국학계는 정복왕조를 “소수민족”이 세운 정권으로 인식하고 북방민족의 역사는 “중국사”의 주변부에 편입하고 있다. 그러나 거란, 탕구트, 여진, 몽골의 역사는 중국 “소수민족”의 역사이자 당-송-명으로 이어지는 한족왕조 중심 역사의 결가지에 불과한가? 중국의 역사를 단선적(單線的) 발전의 틀, 그리고 “한화”라는 문화적 현상에서 접근할 때 북방민족과 정복왕조의 역사를 종종 왜곡되었다. 즉 북방민족과 정복왕조를 “중국”이라는 틀 안에서 서술하면 “소수민족” 그리고 중국 왕조사의 한 시대적 단계로서만 역사적 의의가 있게 되는 것이다. 결국 거란, 탕구트, 여진, 몽골족을 “중화민족”을 구성하는 “소수민족”으로 인식하고자 하는 중국의 현재주의적 역사관의 극복을 위해서는 정복왕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이해가 요구된다. “중국”이라는 시대착오적 역사적 경계에 갇힌 기존 정복왕조사 연구와 서술의 한계를 극복하고 “중국”의 요대, 하대, 금대, 원대가 아닌 세계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란, 탕구트, 여진, 그리고 몽골 중심의 역사 서술 가능성을 기대해 본다.

28) Frederick Mote, “Chinese Society under Mongol Rule, 1215-1368,” *CHC, Vol. 6*, p. 625.

29) Herbert Franke Denis Twitchett, eds., “Introduction,” *CHC, Vol. 6*, p. 21.

참고문헌

1. 동아시아 언어

김한규, 『요동사』, 문학과 지성사, 2004.

윤영인 외 7인,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 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2010.

傅海波, 崔瑞德 编, 『剑桥中国辽西夏金元史』,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998.

蕭啟慶, 『元代史新探』, 新文豐, 1983.

蕭啟慶, 『元朝史新論』, 允晨文化, 1999.

蕭啟慶, 『內北國而外中國: 蒙元史研究』, 中華書局, 2007.

蕭啟慶, 『元代的族群文化與科舉』, 聯經出版公司, 2008.

蕭啟慶, 『元代進士輯考』, 中央研究院歷史語言研究所, 2012.

蕭啟慶, 『九州四海風雅同: 元代多族士人圈的形成與發展』, 聯經出版公司, 2012.

刘浦江, 「辽朝国号考释」, 『历史研究』, 6期 (2001).

刘凤翥, 「从契丹文字的解读谈辽代契丹语中的双国号—兼论“哈喇契丹”」, 『东北史研究』, 第2期 (2006)

2. 서구 언어

Barfield, Thomas, *The Perilous Frontier: Nomadic Empires and China, 221 BC to AD 1757*, Oxford, UK: Blackwell, 1989.

Biran, Michal, *The Empire of the Qara Khitai in Eurasian History: Between China and the Islamic Worl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Dardess, John W. "Did the Mongols Matter? Territory, Power, and the Intelligentsia in China from the Northern Song to the Early Ming," in Paul J. Smith and Richard von Glahn, eds. *The Song-Yuan-Ming Transition in Chinese History*, Cambridge and London: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Dardess, John, *Conquerors and Confucians: Aspects of Political Change in Late Yua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3.

Dardess, John, *Confucianism and Autocracy: Professional Elites in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Dardess, John, *A Ming Society: T'ai-Ho County, Kiangsi, Fourteenth to Seventeenth Centuri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7.

Dunnell, Ruth and Peter Stearns, *Chinggis Khan, World Conqueror*. Longman, 2010.

Dunnell, Ruth, *The Great State of White and High: Buddhism and State Formation in Eleventh-Century X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96.

Endicott-West, Elizabeth, *Mongolian Rule in China: Local Administration in the Yuan Dynast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 Han Woo-keun (Han U-gun), *The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Lee Kyung-shik, Honolulu: East-West Center Press, 1971.
- Henthorn, William E., *Korea: The Mongol Invasions*, Leiden: E. J. Brill, 1963.
- Franke, Herbert and Denis Twitchett, ed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6: Alien Regimes and Border States, 907-1368*,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 Franke, Herbert, "Treaties between Sung and Chin." *Études Song/Sung Studies*, series 1 (1970).
- Franke, Herbert, "Chinese texts on the Jurchen (I): A Translation of the Jurchen Monograph in the *San-ch'ao pei-meng hui-pien*." *Zentralasiatische Studien* 9 (1975).
- Franke, Herbert, "Chinese texts on the Jurchen (II): A Translation of Chapter One of the *Chin-shih*." *Zentralasiatische Studien* 12 (1978).
- Ledyard, Gari K., "Yin and Yang in the China-Manchuria-Korea Triangle."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Mote, Frederick,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a*, Knopf, 1971.
- Mote, Frederick, *Imperial China: 900-1800*, Harvard University Press, 1999.
- Naomi Standen, "(Re)Constructing the frontiers of tenth-century North China," in *Frontiers in Question: Eurasian Borderlands, 700-1700*, ed. by Daniel Powers and Naomi Standen, London: MacMillan, 1999.
- Naomi Standen, *Unbounded Loyalty: Frontier Crossings in Liao Chin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7.
- Rawski, Evelyn,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 (1996).
- Rogers, Michael C., "Sung-Koryō Relations: Some Inhibiting Factors." *Oriens* 11 (1958).
- Rogers, Michael C., "Factionalism and Koryō Policy under the Northern Sung,"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79 (1959).
- Rogers, Michael C., "Koryō's Military Dictatorship and Its Relations with Chin." *T'oung Pao* 47 (1959).
- Rogers, Michael C., "Sukchong of Koryō: His Accession and His Relations with Liao," *T'oung Pao* 47 (1959).
- Rogers, Michael C., "Some Kings of Koryō as Registered in Chinese Works."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81.4 (1961).
- Rogers, Michael C., "The Regularization of Koryō-Chin Relations (1116-1131)," *Central Asiatic Journal* 6 (1961).
- Rogers, Michael C., "The Late Chin Debates on Dynastic Legitimacy," *Sung Studies Newsletter* 13 (1977).
- Rogers, Michael C., "The Chinese World Order in Its Transmural Extension: The Case of Chin and Koryō," *Korean Studies Forum* 4 (1978).
- Rogers, Michael C., "P'yōnnyōn T'ongnok: The Foundation Legend of the Koryō State," *The Journal of Korean Studies* 4 (1982).
- Rogers, Michael C., "National Consciousness in Medieval Korea: The Impact of Liao and Chin on Koryō," in Morris Rossabi, ed. *China among Equals*, Berkeley and Los Angeles:

-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Rossabi, Morris ed., *China among Equals: The Middle Kingdom and Its Neighbors, 10th-14th Centuri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 Rossabi, Morris, *Khubilai Khan: His Life and Tim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 Sinor, Denis, *The Cambridge History of Early Inner Asi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Tietze, Klaus, "The Liao-Sung Border Conflict of 1074-76," in Wolfgang Bauer, ed., *Studia Sino-Mongolica: Festschrift für Herbert Franke*, Wiesbaden: Franz Steiner, 1979.
- Twitchett, Denis,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3.
- Twitchett, Denis, *Printing and Publishing in Medieval China*, New York: Beil, 1983.
- Twitchett, Denis, *The Writing of Official History Under the T'ang*,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2.
- Wittfogel, Karl and Feng Chia-sheng, *History of Chinese Society: Liao (907-1125)*, Philadelphia: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949.
- Yi Ki-baik, *A New History of Korea*, translated by Edward W. Wagner and Edward J. Shultz,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1984.

3세션

『케임브리지 중국사』 7권, 명사(1)

이화승 교수 (서울디지털대)

발 표 『케임브리지 중국사』 8권: 명사(2)

계승범 교수 (서강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9-1권: 청제국사

김선민 교수 (고려대)

토
론

노기식 명예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조영헌 교수 (고려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명사』 상권

이화승(서울디지털대학)

목 차

- I. 서 론
- II. 『명사. 상권』의 서술 배경과 구조 분석
- III. 20세기 80년대 영미 역사학계의 중국사에 대한 시각과 간극
- IV. 결 론

I. 서 론

역사 기술에서 通史는 한 지역, 나라 혹은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오랜 시간에 걸쳐 중요 사건과 테마를 중심으로 변화과정을 서술하는 방식이다. 전체적인 인식을 중시하기 때문에 나열식에 평탄한 서술방식으로 斷代史와는 구분되었다. 즉 통사는 긴 흐름으로 고금의 시야를 넓혀주어 역사의 유구함과 면면히 이어지는 생명력을 볼 수 있는 반면 단 대사는 세밀한 분석으로 한 왕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차이가 있었다. 중국에서는 연속적인 움직임과 규칙적이고 안정된 모습에 대한 서술의 차이라는 점에서 역대 많은 학자들의 쟁론이 끊이지 않았다.¹⁾ 일찍이 두 서술 방식의 차이에 대한 뚜렷한 개념도 형성되었었는데, 清代학자 章學誠은 통사가 갖추어야 할 특징으로 ‘六便’과 ‘二長’을 지적하였다. 六便은 중복을 피하고(免重複), 테마별로 균등하게(均類別), 배분(便銓配)하고 공정(平是非)하여 충돌을 피하고(去抵牾), 연관 사실을 자세하게 서술(詳鄰事)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二長은 사료를 잘 조합(具剪裁)하여 일정한 규칙을 세운다(立加法)라고 하였다. 반면 별 특징이 없고(無短長), 기초적(乃原題)이며 길을 잃어버리는(忘標目) 폐단도 경고하였다.²⁾ 清末, 西學이 도입되면서 교육과 대중화라는 측면에서 통사에 대한 가

1) 謝貴安「縱貫與橫截:通史與斷代史的功能及關係」, 『中國社會科學報』, 2020.5.22.
http://news.cssn.cn/zx/bwyc/202005/t20200522_5132618.shtml (中國社會科學網)

2) 章學誠『文史通義.說林』卷 4.

치가 재정립되어 통사 편찬이 활발해지고 많은 통사들이 새롭게 선을 보였다.³⁾

1950년대까지 미국, 유럽에서 중국에 대한 인식은 소수 전문가들의 영역에 머물렀으나 국제사회와 중국내에서의 정치변화에 따라 점차 새롭게 주목을 받았다.⁴⁾ 대중들의 관심도 증가하자 이에 발맞추어 새로운 보급서의 요구도 늘었는데 이때 편찬된 대표적 중국통사 책으로 『케임브리지 중국사』를 꼽을 수 있다. 1966년 데니스 트위체트(Denis Twitchett)와 존 페어뱅크(John K. Fairbank) 교수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서방의 독자들에게 내용과 기초가 있는 중국사 저작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을 계획하여 한사람의 저자가 서술하였던 기존 중화권의 통사와 달리 미국, 유럽의 학자들, 중국계 학자들이 참여하여 1978년 처음 『케임브리지 중국사. 진한사』편이 세상에 나온 이후 중화인민공화국사까지 각 시대편이 모두 출간되어 전편이 하나의 통사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중국내에서도 내용이 세밀하고 완성도 또한 높아 독자들의 호평을 받았다.⁵⁾

본고는 1988년에 출간된 『케임브리지 중국사. 명사』 상권, 즉 政治史篇의 분석을 통해 집필과정의 배경, 연구자들의 관계, 當代 미국, 유럽에서의 중국사 연구 성과와 그 성과 뒤편에 존재하는 시대적 간극 등에 대해 人的 要因에 관심을 두고 토론해보고 저한다. 이미 時差가 상당히 있고 또한 시대 변화에 따라 통사에 대한 서술 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므로 章節 내용의 분석은 최소화하였다.⁶⁾

II. 『명사. 상권』의 서술 배경과 구조 분석

1979년 여름, 프린스턴 대학에서 明代 국제학술대회가 개최되었다. 중국 대륙학자들이 처음 참가하면서 프레드릭 모트, 데니스 트위체트 교수 주제하에 『케임브리지 중국사. 명사』편이 계획, 진행되어 1980년까지 두 차례 회의가 열렸다. 국립 인문재단

3) 중화권에서 출간된 비교적 대표적인 통사로는 錢穆『國史大綱』을 필두로 白壽彝『中國通史』, 鄧之誠『中華二千年史』, 周谷城『中國通史』, 呂思勉『中國通史』, 傅樂成『中國通史』, 黃仁宇『中國大歷史』 등이 있다.

4) 이 지역의 호칭에 대해 중국 대륙 학계에서는 ‘英語世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다. 范德, 萬明「近年英語世界明史研究新趣向」, 『中國史研究動態』, 1期, 2000. 본고에서는 ‘영미권’, ‘미국, 유럽’, ‘서방’, ‘서양’을 혼용할 것이다.

5) 頭條新聞「劍橋中國史如何評價大明王朝?」(2017.07.22.). 중국 대륙에서는 학술정보다는 일반 대중들에 대한 소개서로 주로 언론매체에서 많이 다루었다.
<https://kknews.cc/history/pxlgm8.html>

6) 2016년 中國電影頻道節目中心은 中國社會科學院 歷史研究所 감수를 거친 『中國通史100集歷史記錄片/ChinaHistory』를 제작하였다. 전체 중국 역사를 1편 「中華道路」에서 100편 「帝制的終結」까지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이다. 각 시대별 전문가들이 총출동하여 CG를 곁들여 고대부터 현대의 모습까지를 담았다. 明代편은 76편 「明太祖朱元璋」- 87편 「崇禎帝」까지로 商傳, 毛佩琦교수 등의 해설이 곁들여져 있다.

https://www.youtube.com/playlist?reload=9&list=PLOrf2h5ONlwUTW9etWK4b3xQiz8LdggKS&ap=desktop&fbclid=IwAR3YapFst0lvmt-w_lIVvwrRTBeGqWWYix4Zw4fsGZ301g0LGY6F5NPA9fCQ

(National Endowment the Humanities)의 지원 아래 참가한 학자들이 시대별로 章節을 나누어 쓰고 방금 프린스턴 대학에서 학위를 마친 제임스 게이스(James.P Geiss) 박사가 전체적인 진행을, Mellon 장학금을 받는 10여 명의 젊은 학자들이 정리와 편집을 맡기로 하였다. 두 차례 회의 사이에 찰스 허커(Charles O.Hucker)가 참가 학자들과 중국 대륙을 방문하여 자료 수집의 기회를 가졌다. 당시 프린스턴에 방문학자로 와 있던 北京의 王毓銓, 臺北의 徐泓 교수가 원고 수정에 참여한 뒤 1988년 출간되었다. 각 장절과 집필자들의 배경은 다음과 같다.

『明代史.上卷』 집필진

집필부분	이름	영문	중문	생평	출신학교와 재직학교
편집인	데니스 트위체트 (영)	Denis Twitchett	杜希德 or 崔瑞德	1925-2006	1955년 캠브리지 대학 Ph.d 1980-1994 프린스턴 대학 재직
서문	프레드릭 W 모트 (미)	Frederick W. Mote	牟復禮	1922-2005	1954년 워싱턴대 Ph.d (李方桂 교수 학생) 1956-1987 프린스턴 대학 재직
1장					
2장	에드워드 L 드레이어 (미)	Edward L. Dreyer	爱德华·L. 德雷尔,	1940-2007	1974년 하버드대 Ph.d (페어뱅크, 楊聯陞 교수 학생) 1970-2007 마이애미 대학 재직
3장	존 D 랑그로이스 (미)	John D Langlois, Jr	小约翰·D 郎洛瓦 or 藍德彰	1942-2010	1974년 프린스턴대 Ph.d (프레드릭 W 모트 교수 학생) J.P 모건 등 금융기관 근무
4장	천쉬에린 (홍콩)	Chan Hok-lam	陈学霖	1938-2011	1967년 프린스턴대 Ph.d (프레드릭 W 모트 교수 학생) 워싱턴대, 홍콩 중문대학 재직
5장	타일만 그림 (독)	Tilemann Grimm	泰爾曼 格里姆	1922-2002	1953년 함부르크대 Ph.d Tubingen 대학 재직
6장	프레드릭 W 모트				
7장	제임스 게이스(미)	James.P Geiss	盖杰民	1950-2000	1979 프린스턴대 Ph.d (프레드릭 W 모트 교수 학생) 프린스턴 대학
8장					
9장	황런위 (미)	Ray Huang	黄仁宇	1918-2000	1964년 미시건대 Ph.d (Albert Feuerwerker와 余英時 교수 학생)
10장	윌리엄 에트웰 (미)	William S. Atwell	威廉·S.阿特韦尔	1940-	1975년 프린스턴대 Ph.d 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 재직
11장	린 스텐브 (미)	Lynn Struve	林恩·A.斯特鲁夫 or 司徒琳	1944-	1974년 미시건대 Ph.d 인디애나 대학 재직
12장	볼프강 프랑크(독)	Wolfgang Franke	傅吾康	1912-2007	1935년 함부르크대 Ph.d 함부르크 대학 재직

본서는 총 12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데니스 트위체트(영), 프레드릭 모트, 에드워드 드레이어, 존 랑그로이스, 윌리엄 에트윌, 린 스티브, 제임스 게이스(미), 천쉬에린, 황런위(중), 타일만 그림, 볼프강 프랭크(독) 등 11명이 참여하였다. 국가별로는 미국 6명, 독일 2명, 중국계 2명, 영국 1명이었으며 모트 교수를 중심으로 프린스턴 대학 제자들이 주를 이루었다. 최고령인 볼프강 프랭크는 (67세)이미 은퇴한 후였고, 60대 황런위(61), 50대는 2명(모트, 그림), 40대가 제일 많았으며 가장 젊은 게이스는 29세로 당시 미국, 유럽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학자들이 망라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1330년 명왕조의 흥기로부터 1662년 南明 멸망까지 時間順으로 정치사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마지막 12장은 명대 출간된 저술 고찰을 통해 다시한번 전시대를 회고하였다. 각 장별 집필자의 기본 자료를 중심으로 당시 시대적 연구 배경을 통해 본권의 전체적인 흐름을 살펴보겠다.⁷⁾

먼저 총편집인 데니스 트위체트(Denis Twitchett, 杜希德 or 崔瑞德, 1925-2006)는 영국 런던 출생으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지리학을 공부한 뒤 해군 정보분석센터(Bletchley Park or X站)에서 일본어, 런던 아시아아프리카 학원에서 중국어를 배운 뒤 1955년 캠브리지 대학에서 『舊唐書·食貨志』를 번역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⁸⁾ 그사이 東京 대학에서 仁井田升교수에게 사사하였다. 런던대학과 캠브리지 대학(Department of Far Eastern Languages and Literatures)에서 중국어를 강의하였고, 1962년 아더 라이트(Arthur F. Wright, 芮沃壽)교수와 “Confucian Personalities”(『儒家人物』, Stanford Univ Press)를 출간하였다. 1967년 영국 학술 아카데미(The British Academy) 원사가 되었고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대학 Department of Asian Studies에서 강의하다가 1994년 은퇴하였으며 오랫동안 Asia Major의 편집장을 지냈다. 唐代 관료제도로부터 재정, 화폐제도, 인쇄술, 불교의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⁹⁾ 1966년 처음 캠브리지 중국사 편찬을 구상하여 페어뱅크와 함께 2006년까지 발기인 및 총편집자로 참여하였고 모트교수와 함께 본서(7권)의 공동 편집자였다. 역시 캠브리지 일본사에도 참가하였다.¹⁰⁾

7) 50여년 전후의 자료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논문제목과 출판사 등과 관련 후일 진일보한 자료를 찾을 수 있게 중문표기를 곁들인다. 이미 세상을 떠난 학자들의 자료는 착오가 있을 수 있음을 밝혀둔다.

8) 賴瑞和, 「追憶杜希德教授」『漢學研究通訊』 26 : 4 (總104期) 台北, 2007年11月. 당시 영미권에서는 중국 正史 등 원서를 번역하여 박사논문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Introducon’ 부분에서 唐代 재정제도의 여러 가지 문제를 언급하였다.

9) 대표적인 연구로 “Financial Administration Under the T'ang Dynasty”(『唐代財政制度』)Cambridge Univ Press, 1963; “Perspectives on the Tang” Yale University Press(Arthur F Wright), 1973; “The Birth of Chinese Meritocracy: Bureaucrats and Examinations in Tang China”(『中國知識精英的誕生：唐代中國的官僚和科舉制度』)1976; “Printing and Publishing in Medieval China”(『中國中古時期的印刷與出版』) Frederic C. Beil N.Y.: “The Writing of Official History Under the T'ang”(『唐代官修史學』), 1992 등이 있다.

10) 賴瑞和, 앞의 문장. 그는 1956년 일본인 市川梅子女士 (Umeko Ichikawa) 여사와 결혼하였다. “A Chronology of Key Events in the Life of Professor Denis Crispin Twitchett(1925~ 2006)”.

서문과 1장 명왕조의 흥기(1330-1367), 6장 성화, 흥치 통치시기(1465-1505)등 가장 많은 부분을 서술한 프레드릭 W 모트(Frederick W. Mote 牟復禮, 1922 - 2005)는 미국 네브라스카주 출신으로 1943-46년까지 육군 항공부대(United States Army Air Force)에 근무하면서 중국학에 흥미를 가져 하버드 대학에서 趙元任 교수가 개설한 어학 과정에서 중국어를 배웠다. 이후 OSS(Office of Strategic Service)에 입대 중.버마 전쟁에 투입된 뒤, 1944年 中國 成都, 北平, 天津 등에서 통역 장교로 복무하고 제대하였다.¹¹⁾ 1948년 다시 중국에 와서 金陵大學(1952년 南京大學과 合併) 歷史學系에 입학하여 向達, 啓功, 顧頡剛, 貝德士, 王繩祖, 陳恭祿 교수에게 사사하였다.¹²⁾ 1948년 졸업 뒤 北京大로 뭇함 교수를 찾아갔으나 그가 이미 학교를 떠난 뒤여서 王崇武 교수의 소개로 北京大 歷史研究所에서 鄭天挺 교수에게 明清史 강의를 들었다. 이후 미군이 모두 철수하자 南京의 주중 대사관에서 통역관으로 근무하다가 1950년 미국으로 돌아왔다.¹³⁾

1954년, 시애틀 워싱턴 대학에서 李方桂 교수 지도하에 元末 明初 인사 陶宗儀를 다룬 “T'ao Tsung-i and his Cho Keng Lu”(『陶宗儀及其<綴耕錄>研究』)로 博士學位를 취득하였다. 國立臺灣大學에 와서 Post Doctor 과정을 밟으며 鄭騫, 屈万里, 王叔岷 교수에게 배웠다. 北京語는 물론 廣東語도 능하여 1955년 네델란드 레이던 대학(University of Leiden)에서 Fulbright 交流장사로 중국어를 강의하면서 학자의 길로 들어섰다. 1956년, 프린스턴 대학 동방학과(Department of Oriental Studies)에 임용되어 이 대학의 유일한 중국어, 중국 문화 강의자가 되었다. 1962년, 첫 번째 저서 “The Poet Kao Ch'i(詩人高啓)”를 출간하였다. 1969年, 동아시아학과(Department of Asian Studies)를 창설, 宋元明史를 강의하다가 1987年 은퇴하였는데 Francis Cleaves(柯立夫)와 더불어 미국의 元代 연구 기초를 다진 학자로 추앙받았다.¹⁴⁾ 그의 후임자는 余英時 교수였다. 이런 배경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서문과 명조의 성립 전후와 성화, 흥치 년간 부분 등 가장 많은 분량을 맡게 되었다.

그는 원말 명초사회가 약육강식 국면에 진입, 점차 軍事化되면서 尙武정신을 중시한 점에 주목하였다. 원 말기, 조정에서는 권력투쟁이 끊이지 않았고 軍政도 영망이 되면서 조정과 사회 지식인들 사이에 큰 변화가 일었다. 文宗은 漢化가 상당하였고 지식인들도 元의 합법성을 받아들였으나 몽골 귀족들은 漢인들이 조정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여 큰 혼란을 야기하였다. 모트 교수는 원말의 혼란세력을 크게 네 집단으로 정리하였다.

<http://lib.ihp.sinica.edu.tw/03-rare/MWSP/10/b.htm>

11) 戰略事務局 혹은 戰略情報局이라고 번역하며 2차 세계대전중 미국의 중요 정보 전략을 수집하던 곳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Office_of_Strategic_Services

12) 그가 南京대학에서 공부할 때 顧頡剛 교수가 다른 교수들과 식사를 하면서 이 미국학생을 지도할 의향을 물었으나 누구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최후에 王崇武교수가 술이 너무 취해 사양을 못하는 바람에 이 학생을 받았고 결국 明代를 연구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7%8E%8B%E5%B4%87%E6%AD%A6/6855799>

13) 2월 발렌타인데이 때 江蘇 泰州 출신 陳效蘭여사와 결혼하였다.

14) 任增強「美國学界蒙元史研究模式及文獻舉隅」, 『北方民族大學學報』, 3期, 2012.

첫째는 擴廓鐵木兒, 李思齊, 陳友定 등 지방관들로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 조정과 관계를 유지하였다. 두 번째는 지방의 사회 지도층 인사들로 자신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 되었는데 영웅심리에 휩쓸려 다른 세력과 병합하곤 하였다. 세 번째는 張士誠, 方國珍과 같은 匪賊들로 지식인들의 지지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끝없는 야심을 적나라라하게 표출하기도 하였다. 네 번째는 종교를 기반으로 둔 반란세력으로 최초의 동력을 제공하였지만 15년이 지나자 점차 전통 질서를 회복하려는 儒家세력에 병합되었다고 하였다.

모트 교수는 평생 중국 유가문화에 심취하여 존중과 애정을 표하였는데 자신의 중국 이름 ‘復禮’도 李方桂 교수의 조언으로 『論語』의 ‘克己復禮’에서 따온 것이었다. 또한 蕭公權을 특별히 존경하여 『中國政治思想史』를 번역하였고,¹⁵⁾ 은퇴이후 “Imperial China, 900-1800” (Harvard Univ Press, 1999)(『帝制中国, 900-1800』)를 출간하였다. 1950-60년대 미국, 유럽의 척박한 환경속에서 존 페어뱅크, 데니스 트위체트 등과 함께 초기 중국학 연구를 주도하며 프린스턴 대학이 중국사 연구의 한 축을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¹⁶⁾

2장 명대 군사 문제를 서술한 에드워드 드레이어(Edward L. Dreyer, 爱德华·L. 德雷尔, 1940-2007)는 샌디에고 출신으로 1961년 하버드대 역사학과를 졸업하고, 1971년 페어뱅크, 楊聯陞(Lien-sheng Yang) 교수 지도하에 “The Emergence of Chu Yuan-chang, 1360-65(『朱元璋的出現』)”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특히 중국어, 일어, 독일어 등 언어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며 1970-2007년까지 마이애미 대학(University of Miami)에서 중국 정치사와 軍事史, 鄭和 더 나아가 세계 軍事史 연구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 첫 번째 저서인 “Early Ming China: A Political History, 1355-1435”(Stanford Press, 1982)는 원말의 전쟁에서부터 명초 권력의 지리적 기반, 군사, 외교, 조정 등 5대 분야의 분석을 통해 명초 통치자들의 군사적 정치적 결정이 광범위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후의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다는 주장으로 명대 정치 진행 과정에 대한 빈틈없는 관찰이 담겨 있었다. 미국, 유럽에서는 최초로 명초기의 정치, 군사문제를 다룬 선구자적인 연구로 평가받았다. 특히 명대 군사문제에 대해 페어뱅크와 Frank Kierman이 편찬한 『Chinese Ways in Warfare』에서 鄱陽湖 전투에 관한 “The Poyang Campaign of 1363: Inland Naval Warfare in the Founding of the Ming Dynasty,”(Harvard University Press, 1974)를 발표하였는데, 이는 그가 본서의 2장 명대 군사 문제를 다루는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15) “Intellectual Foundations of China”, 1971. 王立剛譯『中國思想之淵源』, 北京大學出版社, 2009. 朱鴻林「追思牟復禮先生」(牟復禮教授追思紀念會발언문장, 2005.3.5.), 『明儒学案研究及论学杂著』, 生活·读书·新知三联书店, 2016年1月版. https://www.sohu.com/a/60855591_260616.

16) 그는 1960년대 Rockefeller 재단과 Ford 연구재단에서 많은 경제적 지원을 받았으며 2005년 콜로라도 덴버에서 82세로 사망하였다. 그의 제자들로 본서에 참가한 John D. Langlois, Jr James Geiss을 비롯하여 Thomas Bartlett (白慕堂), Peter K. Bol (包弼德), Richard Davis (戴仁柱)등과 朱鴻林, 張彬村, 石守謙, 張英華, 黃清連 등 중국학자들이 대표적이다. https://en.wikipedia.org/wiki/Frederick_W._Mote

그는 명조 건립과정을 4단계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초기 反元을 이끌던 농민 조직은 정식 군대 면모를 갖추지 못하다가 朱元璋과 陳友諒이 전쟁을 벌이던 至正 20-23년 사이에서야 비로소 효율적인 군사조직으로 전환하였다고 하였다. 전쟁의 목표 역시 都市 쟁탈전으로 바뀌며 점차 河道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어선들이 전함으로 전환하는 등 군사적 변화에 주목하였다. 이후 홍무초년까지는 주원장이 전국을 통일하는 시기였으며 홍무 5년, 명 조정의 건립과 동시에 군대가 정부 시스템의 일부분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서술하였다.

그의 군사사 연구는 두 번째 저서 “China at War 1901-1949”(Routledge London, 1995)로 연결되었다. 20세기 초반 중국에서 일어난 무력충돌을 다루었는데 민족주의자와 공산주의자의 내전은 정규군 간의 재래식 전투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 뚜렷한 유형의 '인민전쟁'의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역시 군사사 관점에서 2006년, 鄭和 航海 600년 기념 해에 “Zheng He, China and the Oceans in the Early Ming Dynasty, 1405-14” (Library of World Biography Series, NY, 2007)를 출간하였다. 鄭和의 항해는 기존 주장처럼, 새로운 발견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 나라들을 명나라 지류 시스템의 범위 안에 들어오게 하는 군사 임무라는 점을 주장하였다.¹⁷⁾

3장 홍무시기(1368-1398)를 다룬 존 랑그로이스(John Dexter Langlois, Jr, 藍德彰 혹은 小約翰·D 郎洛瓦, 1942-2010)는 매우 독특한 배경을 가진 역사학자였다. 롱 아일랜드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나, 1960년 프린스턴 대학에 입학하였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를 마친 뒤 1966-1969년 Princeton in Asia 프로그램에 참가, 타이완 東海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며 중국어를 배웠다.¹⁸⁾ 1969년 프린스턴 대학원에 입학, 1974년 모트 교수 지도하에 『蒙古統治下金華地區的儒士』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리고 하버드 법학원에서 1년동안 법제사 공부를 하고,¹⁹⁾ 1982년까지 뉴 잉글랜드에 있는 보든 칼리지(Bowdoin College) 동아시아학과에 재직하였다. 그 사이 1977년 일본 京都, 1978년에는 중국을 방문하여 문화대혁명후의 중국을 직접 목도한 뒤 원대 연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는 “China under the Mongol Rule”(『蒙元統治下的中國』, Princeton Univ Press, 1981)을 출간하였다.²⁰⁾ 법제사에 대한 관심은 꾸준히 이어져 유학과 법사이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루었는데 명대 유가의 법에 대한 시각을 다룬 ‘Living Law in

17) 부인 June Teufel Dreyer도 중국, 일본 정치사를 연구하였다.

<https://www.historians.org/publications-and-directories/perspectives-on-history/february-2008/in-memoriam-edward-l-dreyer>

18) 그는 1968년 臺灣 東海 대학 출신인 范心怡(Hsin-i)여사와 결혼하였다.

19) 그의 또 다른 저서인 “Ritual and Law in the Legitimation of the Ming Dynasty(『明代正统性问题中的礼仪与法律』혹은『明代法制化中的礼与法』로 中譯)”는 1975년에 출간되었다는 언급이 있을 뿐 자세한 정보가 전하지 않는다.

<https://www.amazon.com/Ritual-law-legitimation-Ming-dynasty/dp/B00072Z952>

20) Françoise Aubin, Donald Holzman의 평론을 참조, Pacific Affairs 57(1), 103-104p, 1982.

Craig Clunas는 몽골의 통치체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유용한 책이라고 평가하였다. Journal of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No 1, pp 223-224, 1982.

Sung and Yuan jurisprudence'(「宋元法学中的‘活法’」,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41)」를 발표하였다.²¹⁾

그는 홍무 13년 발생한 胡惟庸 사건이 당시 안정적인 국면에서 엄격한 감시와 공포 통치로 바뀌는 전환점이 되었다고 보았다. 비록 관방 사료에서는 胡惟庸의 부패와 모반을 지적하지만 이는 胡惟庸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친신을 관료 시스템에 진입시키려 했다는 것을 설명할 뿐, 오히려 태조의 강력한 독재성을 반영한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다양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명초 정치 권력과 제도의 수립이라는 명제사이에서 어떻게 갈등했는지를 서술하였다.

1982년, 충분한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그는 역사학자로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선택을 하였다. 금융회사인 Morgan Guaranty Trust로 자리를 옮긴 것이다. 중국어, 일본어를 정확하고 품위 있으며 유머 넘치게 구사하고 지역 문화에 밝다는 점을 높이 인정받아 일본, 영국, 홍콩 등지를 거치며 지역 전문가로 성장하였다. 이후 중국 개혁개방과 더불어 J.P. Morgan and Morgan Stanley를 거쳐 중국 農業銀行(Agricultural Bank of China)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이사로 근무하였다. 그 사이 1986년에는 뉴욕대학에서 MBA 학위를 받았고 다시 프린스턴 대학으로 돌아가 2년 동안 “Banking in China”라는 교양과목을 개설하기도 하였으며 여러 대학에서 明史관련 강연을 하기도 하였다. 일생동안 역사학자와 은행가라는 흔치 않은 두 가지 신분으로 학계와 금융계에서 활동하였다.²²⁾

4장, 건문, 영락, 홍희, 선덕시기(1399-1435)를 서술한 천쉬에린(陈学霖, Hok-lam Chan William, 1938-2011)은 廣東 新會사람으로 홍콩에서 출생, 홍콩대학을 졸업한 뒤, 1967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모트 교수의 지도하에 명초 인물 劉基를 다룬 “Liu chi(1311-1375), The Dual Image of a Chinese Imperial Advisor(『劉基作為中華帝國顧問的雙重角色』)”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워싱턴 대학 동아연구소, 국제연구원 중국연구소에 재직하면서 러시아 출신으로 元代를 연구하는 Nicholas Poppe(鮑培) 교수와 함께 영역을 넓혀 宋元明시기의 사학을 필두로 사상과 인물, 사서의 편찬에 많은 연구를 하였다.²³⁾

21) 송원 법가들이 이미 법률과 人情 사이의 관계에 따라 사건 발생의 여러 구체적인 요인들로부터 사법관이 자유재량을 가지고 법률적 유연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의 ‘活法’이란 개념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결국 유학과 사대부, 정치가들이 법률을 보는 기본적 시각을 통해 유가 정치가들은 법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않으며 법률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용은 도덕적 훈련을 거친 사법관리에 의해 좌우된다고 하였다. 1982년에도 다시 일본 동경대학 법학원, 중국사회과학원을 방문하여 법제사에 대한 진일보한 시각을 갖게 되었다.

22) 그는 J.P. Morgan Stanley의 아시아 지역 업무를 담당하면서 2002-2006년까지 Morgan Stanley Properties의 중국 책임자로 중국내 불량 자산을 처리하는 업무를 맡았다. 2010년 8월까지 深圳發展銀行 (Shenzhen Development Bank), 中信銀行, 農業銀行(Agricultural Bank of China) 이사를 지냈다. 2000년에는 미네소타 대학(Univ of Minnesota)과 하버드 대학에서 明史 관련 강연을 하였다. 吳艷紅「藍德彰先生學術紀念」, 『明史研究』, 1期, 2012.

<https://www.ixueshu.com/document/8345171e8e4bca8c68f777622e458046318947a18e7f9386.html>
<https://paw.princeton.edu/memorial/john-d-langlois-jr-%E2%80%99964-74>

그는 이 시대에 세워진 제도들이 이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주의하였다. 靖難의 役과 惠帝 실패가 군사력의 차이 때문이라기보다는 실전 경험 부족때문이고 惠帝의 문치통치에 대한 理想은 이후 仁, 宣宗 정치에도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이다. 명후기에 惠帝에 관한 전설이 특히 유행한 것은 백성들이 당시 조정에 대한 불만에 어진 정치치를 요구한 것으로 지식인들 또한 사회 혼란의 원인을 成祖의 집권으로부터 찾았다고 하였다. 따라서 成祖가 정치, 경제, 군사적인 면에서 끼친 영향력은 太祖보다도 더 크다는 것이다. 그 외에도 北京 천도이후 군사조직과 漕運 시스템 운영에 엄청난 경비가 들었고 長城外의 군대를 철수시키므로 서 이후 명대 중기 이후 변경에서의 套寇문제를 야기하였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이후 1992-2000년까지 홍콩 中文대학에 재직하였고 2011년까지 『中国文化研究所学报』의 편집인과 회장을 지내며 명대 연구를 계속 하였다.²⁴⁾ 특히 『李朝實錄』의 자료들을 이용하여 조선 사신들의 눈에 비친 태조, 성조, 인종, 선종, 영종 등에 관한 내용들을 잘 활용하기도 하였다.

데니스 트위체트와 함께 5장 정통, 경태, 천순 시기(1436-1464)를 서술한 타일만 그림(Tilemann Grimm, 1922-2002, 泰爾曼 格里姆 or 蒂勒曼 葛林)은 독일 획스터(Höxter)에서 태어나 2살 때 부모를 따라 北京에 왔다. 6살 때부터 北京에 있는 독일 학교에 다니며 중국어를 배웠는데 친구들에게 ‘Sinolögchen’(중국인 진씨)라고 놀림 받을 정도로 중국 생활에 잘 적응하였다. 그의 부모는 그림이 지나치게 ‘중국화’ 되는 것을 우려해 12살 때 아버지 Reinhold Grimm이 다른 가족들은 남겨둔 채 아들과 독일로 돌아갔다. 이후 함부르크 대학에서 1953년 “Das Neiko der Ming-Zeit(1368-1644)”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또 한편으로 1967년부터 毛澤東 연구에도 많은 성과를 내며 윈스터(1962~1965), 보훔(1965~1974), 튀빙겐(1974~1989)에서 중국어와 문화, 역사를 강의하였다.²⁵⁾ 1978년에 하이델베르크 과학대학의 정식회원이 되었고, 볼프강 프랭크가 창간한

23) 초기 연구로는“The Historiography of the Chin: Three Studies(『金代史学三论』)”,(Wiesbaden,Franz Steiner Verlag,1970年)와 “The Rise of Ming T'ai-tsu: Facts and Fictions in Early Ming Official Historiography(『明太祖(1368-1398)의 兴起: 明代的 官方历史编纂学中的 事实与虚构』)”,(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95:4(1975)이 있고 1976년 컬럼비아 대학에서 출간한 Dictionary of Ming Biography, 1368-1644 (『明代名人传』) 编纂에 참여하였다. 1981년에 발표한 “Chinese Official Historiography at the Yuan Court: The Composition of the Liao, Chin,and Sung Histories(『元代的 官修历史: <辽史><金史><宋史>의 修撰』)”는 John D. Langlois, Jr가 편찬한 “China Under Mongol Rule”에 수록되었다. 또 콜롬비아 대학의 William Theodore de Bary(狄培理)교수와 같이 원대 초기 몽골인들이 朱熹의 사상을 어떻게 북방에 전파하였는지를 분석한 “Yuan Thought:Chinese Thought and Religion Under the Mongols(『元代思想: 蒙古统治下的 中国思想与宗教』, 1982)는 학계의 호평을 받았다. 이 연구는 이른바 ‘中國之元’을 강조하며 송,원,명을 하나의 계보로 보아 원대를 당송과 명청 시기를 잇는 과도기로 보았다. 이는 훗날 ‘蒙古之元’이라는 蒙元을 하나의 독립된 국가로 보는 시각, 세계사적 관점에서 보는 ‘世界之元’과는 차이를 보였다.(任增强, 앞의 문장).

24) 『明太祖文字獄考』, 『亞洲研究雜誌』 29期, 1995.

25) Mao Tse-Tung. Mit Selbstzeugnissen und Bilddokumenten. Rowohlt, 1968 (16. Aufl.: 2001). Erziehung und Politik im konfuzianischen China der Ming-Zeit: 1368-1644. Hamburg:

漢學잡지 『Oriens Extremus』의 편집인이 되었다.

이 장에서는 土木의 ‘變’에 대해 세 가지 측면에서 해석을 하였다. 영종시기 무거운 부역과 천재지변, 불합리한 租佃제도로 인해 사회불안과 농민반란, 환관 득세로 중앙정부 권력 구조에 변화와 몽골 也先의 침입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위기들은 조정에 큰 자극을 주었고 관료시스템이 점차 안정을 되찾아 이후 행정과 군사 개혁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였다. 몽골의 침입은 단순한 경제적 이유이지 영토에 대한 야심이 아니며 15세기 명 조정은 여전히 안정적으로 내정과 외환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였다.

6장, 흥치, 성화시기(1465-1505)를 서술한 모트 교수는 황제가 내각 대신을 더 이상 親臣으로 보지 않은 점을 가장 큰 시대적 특징이라고 지적하였다. 새로 등극한 젊은 황제와 전시대 인물인 늙은 내각 대학사들은 친밀감을 유지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다. 황제가 母后와 자신과 비슷한 나이의 환관과 가깝게 지내자 환관들은 거의 내각과 동등한 지위를 행사하므로 서 조정은 이 삼자간의 협의를 통해 유지되었고 內廷과 外朝사이에 커다란 충돌은 일어나지 않았다. 다만 군 지휘관들이 초기의 공신 자제들에서 점차 무능력한 문관과 환관들로 충당되고 衛所制가 부패하자 孝宗은 于謙에게 새로운 훈련법을 지시하고 군권은 문관에게 돌아가는 등의 개혁이 실시되었다는 것이다. 성화시기에 발생한 서남 苗徭族의 반란. 荊襄의 亂 등은 조정에서 문무관 사이에 권력투쟁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7장-8장 정덕, 가정시기(1506-1566)를 서술한 제임스 게이스 (James P Geiss, 盖杰民, 1950-2000)는 뉴욕출신으로 Williams College를 거쳐 1979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모트 교수의 지도하에 “Peking under the Ming, 1368-16

44, (『明代的北京 1368-1644』)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16세기 전반의 상황, 특히 농업기술과 생산력의 제고, 絲綿등 수공업 발달 등 경제 상황에 대해 서술하고 황제의 통치력이 증가하는 측면에서도 서술 하였다. 그러나 더 많은 稅收가 걷히지 않아 재정적자가 발생한 것은 혹 朝廷의 통치력이 이전만 못하지 않았는지라는 물음을 제기하였다. 실제로는 정덕, 가정시기 황제는 理學의 영향으로 자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1960. (Mitteilungen der Gesellschaft für Natur- und Völkerkunde Ostasiens; 35 B) Habilitationsschrift)
China und Südostasien in Geschichte und Gegenwart. Köln/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66. (Arbeitsgemeinschaft für Forschung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Geisteswissenschaften: H. 133.)
Chinas Traditionen im Umbruch der Zeit(Köln/Opladen: Westdeutscher Verlag, 1971.
Kulturelle und historische Grundlagen der Beziehungen Chinas zum Ausland. München: Gesellschaft für Auslandskunde, 1979. (Beiträge zur internationalen Politik; 1)
Sinologische Anmerkungen zum europäischen Philosophiebegriff. Heidelberg: Winter, 1981.
(Sitzungsberichte der Heidelberger Akademie der Wissenschaften, Philosophisch-Historische Klasse; 7)

기 욕망을 제대로 펼치기 힘들었고 관료들의 힘도 강해졌다는 것이다. 새로 개간한 토지는 바로 편입되지 않아 관리들이 면세 받는 경우도 갈수록 증가하였으며 동남 연해의 走私貿易에 속수무책으로 세금도 걷지 못하다보니 경제는 발전하였으되 국가재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였다고 하였다.

그는 1988년에 武宗과 표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여 중국학자들의 주목을 받았고,²⁶⁾ 중국계 학자들과 같이 “CLASSICAL CHINESE A BASIC READER (文言基礎讀本)”라는 미국 학생들을 위한 중국어학 교재를 출간하기도 하였다.²⁷⁾

9장을 서술한 황런위(黃仁宇, 1918-2000) 교수도 매우 독특한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1918년 湖南省 長沙에서 출생하여 1936년 南開 대학 전기과 졸업 후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다. 1940년 成都 중앙군사학교를 마치고 장교로서 1943년-1944년 인도, 버마에 파견되었다. 전쟁 후 東北保安司令部 사령관 참모를 거쳐 1946년 미 육군 참모대학을 수료한 뒤 국방부 참모로 근무하였다. 1950년, 주일 대표단 소령에서 퇴역한 후 다시 미국으로 가서 미시건 대학에 입학하여 1954년 학사, 1957년 신문학 석사 후에 역사학으로 옮겨 1964년 알버트 포이에르베르커(Albert Feuerwerker)²⁸⁾와 余英時 교수 지도하에 “Taxation and Government Finance in Sixteenth-Century Ming China (『十六世纪中国明代的税制和政府财政』)”로 박사학위를 받았다.²⁹⁾ 이후 사우스 일리노이대학을 거쳐 1980년까지 뉴욕주립대학(New Paltz)에서 가르쳤고 하버드 대학 동아연구소 연구원을 역임하였다. 당시 명대 재정문제를 연구하는 거의 유일한 학자로서 주로 張居正의 개혁, 東林黨爭과 3대 遠征에 관해 서술하였다. 그는 萬曆 중기가 명대 역사의 명운을 가르는 전환점으로서 이후 역사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이는 神宗 황제의 성격과 당쟁에 기인한다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그 배후의 진실을 외면한 것으로 당시 명 조정은 정부 조직이라는 측면에서 그저 순박한 농업사회에 적응하고 있을 뿐 새로운 도전을 맞을만한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고 지적하였다. 王學의 王良과 李贄 등 사상가들이 이러한 이데올로기의 속박을 극복하려 노력했지만 현실을 바꾸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더구나 神宗 황제는 문관들이 자신이 총애하는 鄭貴妃 소생의 태자 책봉을 반대하자 어전 회의에 나가지 않는 일종의 ‘怠業’을 감행하므로 서 결국 쇠망의 길로 들어섰다는 것이

26) 『明武宗与豹房』, 『故宫博物院院刊』 3期. 이 논문은 다음 해 叶祖孚가 『西苑豹房也养豹』으로 계속 토론이 이어졌다. 『故宫博物院院刊』 2期, 1989.

27) A Basic Reader, Readings in Classical Chinese Poetry and Prose (1994), Selections from Classical Chinese Historical Texts (1993), and Selections from Classical Chinese Philosophical Texts (1993). 그의 사후인 2004년 프린스턴 대학 출판부는 이 책들을 모아 “Classical Chinese: A Basic Reader(袁乃瑛, 唐海濤와 공저)” 라는 개정판을 출간하였다. 그는 1972년 역시 프린스턴에서 만난 중국인 부인 Margaret Y. Hsu와 결혼하였는데 그녀는 의료관련 컨설팅팅 회사를 운영하며 남편 사후 남편 이름을 딴 기념회를 운영하며 명대사를 연구하는 젊은 연구자들을 지원하였다. <https://geissfoundation.us/>.

28) 알버트 포이에르베르커(费维恺, 1925-2014)교수는 페어뱅크의 제자로 『中国早期工业化：盛宣怀(1844-1916)和官督商办企业』(1958)을 출간하는 등 근대사 연구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

29) 이 논문은 여러 곡절을 거쳐 1974년이 되어서야 Cambridge Press에서, 중국에서는 2001년 三聯서점에서 출간되었다. 黃仁宇著 張逸安譯『黃河青山-黃仁宇回憶錄』, 318쪽, 臺北聯經, 2001.

다. 내우외환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왕조가 그나마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내적인 역량이라기보다 아직 강력한 위협을 가할만한 적수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고 하였다. 그의 이런 시각은 “1587, A Year of No Significance”(Yale Univ Press, 1981)에서 좀 더 대중적으로 재현되었다.³⁰⁾

10장, 태창, 천계, 숭정 시기(1620-1644)를 저술한 윌리엄 아트웰 (William S. Atwell, 威廉·S.阿特韦尔)은 워싱턴 대학, 하와이 대학을 거쳐 1975년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84년부터 호바트대학(Hobart and William Smith Colleges)의 역사, 아시아 언어 문화학과(history and Asian languages and cultures)에 재직하였다.

그는 ‘17세기 위기론’으로 명조의 쇠망을 해석하였다. 명왕조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면서, 지역별 차이를 고려하지 못했고 기후의 변화가 농작물 수확에 미친 영향 등 과거의 어떤 변수들에 대한 고려도 충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16세기부터 유럽의 확장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가 점차 세계 경제 시스템에 들어오면서 白銀이 중요한 변수가 되었다. 백은 유통이 증가하자 물가 급등, 도시 인구 팽창, 상공업의 분업과 전문화가 진행되었고, 그 결과 커지는 빈부차이로 인해 사회 구성원간의 관계도 긴장되었다고 하였다. 17세기에 들어 軍費와 공공부분의 경비가 증가하자 경제성장은 정체되고 사회 긴장 관계는 더욱 심화되었다. 수입 백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자 전혀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해외 銀 생산국의 사정 여하에 따라 중국 내부 경제가 심각해지고 다른 변수가 더해져 결국 명나라는 멸망으로 들어섰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의 연구는 13세기-17세기 사이 아시아 환경 변화로 범위를 넓혀 재정과 환경문제를 다룬 “Time, Money, and the Weather: Ming China and the ‘Great Depression’ of the Mid-Fifteenth Century”(the Journal of Asian Studies, vol. 61, no. 1, Feb. 2002)로 발전하였다.³¹⁾

11장, 南明시기(1644-1662)를 저술한 린 스텐브(Lynn A. Struve, 林恩·A.斯特魯夫 or 司徒琳)는 시애틀 워싱턴대학에서 중국문화를 공부하고 1974년 미시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이후 인디애나 대학에 재직하면서 1984년 “The Southern Ming, 1644-1662”(Yale University Press, 1984)를 출간하여 학계의 주목을 받았다.³²⁾

30) 이 책은 1982년 American Book Award에 선정되었다. 책 출간전후 Jonathan D.Spence 교수는 The New York Review에 책에 관한 리뷰를 실었으며,(1981.4.30.) New York Times도 책에 대해 자세한 리뷰를 실는 등 미국 언론과 대중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1981.6.21.)

<https://www.nytimes.com/1981/06/21/books/interesting-times.html>

중국에서는 『萬曆十五年』(1982년 中華書局)으로 출간된 이후 여러 출판사에서 꾸준히 증간되었다.

31) 이외에 “Volcanism and Short-Term Climatic Change in East Asian and World History, c. 1200-1699” (Journal of World History Vol. 12, No. 1, Spring,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1)도 있다.

32) 李榮慶譯 『南明史』, 上海古籍出版社, 1993. 린교수는 2017년 중문판 서문에서 데니스 트위체트, 패트릭 모트 교수에게서 남명사 부분 집필을 요청받고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과정을 밝혔다. 비교적 짧은 시기의 복잡한 역사를 최대한 적은 사람들과 통속적이고 평이한 서술방식을 택하였다고

남명사는 불과 18년의 짧은 기간에다가, 康熙帝의 文字獄으로 인해 많은 자료들이 훼손되어 연구가 매우 어려운 영역으로 인식되었다. 중국 학계에서도 陳寅恪의 『柳如是別傳』에 이어 1957년에 이르러서야 謝國楨의 『南明史略』이 나왔을 정도였다.³³⁾ 따라서 국제적으로는 더욱 연구자를 찾기가 힘이 들었지만 그녀에게는 오히려 거대한 상상의 공간을 제공해줄 수 있었다. 그녀는 명대 내내 문무관리 사이에서 원만한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황제 보필에 문제가 있었다는 점에 주의하였다. 太祖이래 군신분의 세습, 승상제 폐지, 관리들의 월권, 환관 득세 등 요인으로 인해 몇 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동안 관리들은 서로 협조하지 못한 채 개별적으로 존재하여 사회적 충돌을 원만하게 해결하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남명조정에서도 생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에서 황권과 군사적 대응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치명상을 입었다며 명대 정치 본연의 모습에서 멸망의 원인을 찾았다. 다만 엘리트 집단의 忠君愛國이라는 이데올로기로 인해 남명 遺民의 기개는 유지될 수 있었을 뿐이었다.³⁴⁾ 경제에 관한 다양한 요인들을 배제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중국학계에서는 린 스티브의 연구가 문헌 사료에 충실하고 엄격한 고증으로 민족간 대립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새롭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명 정권의 건립이 백성들의 지지에 의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며 ‘弥足珍貴’라고 호평하였다.³⁵⁾ 그녀는 남명사의 연장선상에서 심리학 등 새로운 영역과 융합하여 명대 사상사, 문헌자료,³⁶⁾ 17세기 명청교체기 연구를 지속하여 1993년 “Voices from the Ming-Qing Cataclysm: China in Tigers' Jaws” (Yale University Press 1993), 5년 뒤에는 “The Ming-Qing Conflict 1619-1683” (A Historiography and Source Guide, 1998)을 출간하여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당시 많은 개인 문집에서 ‘꿈(夢, dreamworld)’이 언급되는 것에 주의하여 17세기 전후 이 심리학 이론을 통해 배후에 있는 역사적 요인들을 분석한 연구였다. 그녀는 책을 출간하면서 中文 해독 능력이 많이 늘어 명말 청초 개인 문집들을 충분히 이용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³⁷⁾

12장, 명대 역사 서적부분을 서술한 볼프강 프랭크(Wolfgang Franke, 傅吾康, 1912-2007)는 당대 독일의 중국학 연구를 이끈 선구자로, 함부르크에서 출생하여 1935년 함부르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함부르크 학파의 주요 인물이 되었다. 1937

회고 하였다.

33) 이후에도 顧誠 『南明史』(中青社, 1997, 光明日報, 2011), 南柄文 『南明史』(故宮博物館出版社, 2011) 정도가 뒤를 이었다.

34) https://www.yicai.com/news/5355243.html?open_source=weibo_search

35) 朱政惠 「中外文化交流史研究的新成果」, 『走出中世紀』, 그녀의 책은 2017년 上海에서 중역본이 출간되어(주 29 참조) 閻崇年, 朱維铮 교수의 호평을 받았다. 그녀는 당시 中文실력이 부족하여 野史, 別史, 奏疏, 方志, 實錄외의 자료들을 처리하지 못하였다고 겸손해 하였다.

<https://baike.baidu.com/item/%E5%8D%97%E6%98%8E%E5%8F%B2/7744476?fr=aladdin>

36) 「黃宗羲學術中‘心’的概念」(『中國哲學學報』9:1, 1982), 「明夷待訪錄與明儒學案的再評價」, (The Journal Asian Studies 47:3, 1988), 『历史编纂和资料索引』(A Historiography and Source Guide), 东亚研究学会, 1998年.

37) 趙世瑜譯 『世界时间与东亚时间中的明清变迁』, 三聯書店, 2009.

年, 처음 上海에 왔고 1945-1946년에는 北平 辅仁大学을 시작으로 1946-1948年 成都 四川大学 역사학과, 1948-1950년까지 北京 대학 西語學科에서 독일어를 강의하였다. 그리고 中德学会(Peking German Institute)의 간사 등을 지내며 『中德學志』, 『漢學集刊』, 『中國文化研究會刊』 출간에 참여하였다.³⁸⁾ 1950-70년 사이 하버드 대학 연구원, 쿠알라룸푸르 말레이시아 대학, 싱가포르 남양대학 및 하와이 대학 등을 거쳐 함부르크 대학 중국언어문화 연구소에 재직하다가 1977년 은퇴하였다. 독일의 동아시아 협회 회장을 역임하였고 중국과 독일의 수교에 깊이 관여하였으며 중국 연구에 큰 성과를 쌓은 『Oriens Extremus』를 창간하였다. 은퇴 후에도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 대학 중문과, 北京 사범대학 사학과, 中山 대학 동아시아 연구소 석좌 교수로 재직하며 동남아 華僑史 연구에 많은 성과를 남겼다.³⁹⁾

Ⅲ. 20세기 80년대 영미 역사학계의 중국사에 대한 시각과 간극

1950년대 이전까지 영미권에서 중국학 연구는 매우 소외된 변방의 영역이었지만 한국 전쟁이후 새로운 산업(신흥산업)으로 변모하였다. 중국에 대한 인식이 점차 변화하였고 무엇보다 정책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이다. 1958년 이후 미국 정부가 중국의 위협은 전략적으로 명확히 약화되었다는 내용의 국방교육 법안(National Defense Education Act)을 통과시키며 한편으로 일부 대학에 중국어, 문화를 강의하는 학과들이 개설되도록 지원하고 록펠러 재단, 포드 기금회, 태평양 기금회 등도 그동안의 모든 기금을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액수를 제공하였다. 그 외 여러 기관들도 대학교의 도서관 설비확충이나 교수들의 연구 성과 수준에 따라 기금을 제공하였다.

학자들은 연구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연구비가 필요하였고 이를 위해 연구 성과를 출간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는데 출판사들은 원고를 받은 뒤 대략 3-5명 정도의 지명도 높은 인사들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추천에 의해 출판을 결정하였다. 추천을 받지 못하면 출간이 어려워지고 자연스럽게 연구비 지원에서도 소외되는 일종의 순환과정을 거치며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형성되었다. 그러다보니 아이비 리그 대학 등 소수에게 집중되고 연구 흐름도 결정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페어뱅크가 미국의 외교정책을 위해 중국사 연구를 이용하며 이런 방식은 일반인들이 중국사에 대해 경박한 생각을 유도하여 심도 깊은 논의로 이끌 수 없을뿐더러 학문적인 입장에서 중국역사가 그저 서방학자들이 알고 있는 수준에서 서술되어 중국적 특색은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다. 즉 방향이 먼저 정해지고 그 방향을 향해서 하나의 고정된 형식을 따라 연구가 진행

38) 그는 南開 대학 출신의 胡雋吟 여사와 결혼하였다.

39) "Preliminary Notes on the Important Chinese Literary Sources for History of the Ming Dynasty 1368-1644", 1948.

"An Introduction to the Sources of Ming History", Univ of Malaya Press, 1966.

된다는 우려가 나왔다.⁴⁰⁾ 이와 다르다면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지원을 받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우려는 특히 중국계 학자들에게서 대두되었다.

黃仁宇 교수는 학위 취득 후 1966년 하버드 대학 동아연구소에서 박사논문을 책으로 출간을 위한 연구 지원을 받았으나 페어뱅크와 드와이트 퍼킨스 교수는 연구 범위의 축소, 계량화 작업과 더불어 재정과 화폐정책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였다. 黃교수는 明代가 계량화를 통한 관리방법 등 현대 사회과학 방법을 적용하기 어렵고, 자신의 논문이 “서양학자들이 익숙하지 않은 자료”를 이용하여 정부 세수와 지출관리의 과정 분석을 하였으므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였다.⁴¹⁾ 간극은 좁혀지지 않아서 결국 하버드대학 총서로 출간되지 못하였다.⁴²⁾ 黃교수는 가까운 거리에서 그들의 자료에 대한 인식과 처리 방법, 분석, 시각의 형성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강한 문제의식을 느끼기 시작하였다.⁴³⁾

중국 역사는 수십 개의 왕조가 흥망을 이어가므로 학생들은 이것을 외우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하였다. 더구나 순환이론은 단지 상대적 가치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고 특히 각 왕조사이의 제도 차이가 매우 복잡한데 기존 영미학계내의 교재들은 저자의 견해와 관점에 따라 이러한 요소들을 단순하게 단정짓곤 하였다. 학생들은 쉽게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 즉 조정은 부패하고 관리들은 잔인하며 백성들은 무지한 채 비위생적이라는 단편적인 인식에 빠지게 되었다. 이 현상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학에서는 이런 중국의 현상이 실패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며 매우 복잡하고 제어할 수 없는 특이한 여러 요인들이 움직인 결과임을 지적하고 해석해야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자들은 자료들을 소화할만한 충분한 시간이(!) 없어 史實의 선택에 連貫性이 끊어진 채 이야기는 많지만 내용이 산만하여 학생이나 일반 독자들에게는 설득력을 가지지 못하고 혼란만 가중 시켰다. 黃교수는 망원경을 가지고 넓은 시야로 보다 보면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보조 교재의 필요성을 느껴 진시황 통일부터 당대까지 5만자, 138개의 단문으로 구성된 “China Is Not a Mystery”『(中国并不神秘)』를 집필하였다. 그러나 출판이 쉽지 않았다. 원고를 접한 출판사들은 자문위원단이 내린 ‘不平均’이라는 이유로 출판을 망설였다. 작은 주제 하나로 논문을 쓰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전문 영역을 만들어가는 학계의 시각에서 본다면 “익숙치 않은 명사, 지나치게 큰 범위,

40) 黃宗智「我們的問題意識:對美國的中國研究的反思」2쪽, 『民間歷史文獻研究中心』, 2016.1.22. 廈門大學. 黃교수는 이를 ‘西方的選擇性’이라 표현하였으며 미국의 1,2,3세대 연구자들을 통해 이 문제를 토론하였다.

41) 黃仁宇, 앞의 책, 320쪽.

42) 결국 6년이 지난 1974년에서야 Cambridge Press에서, 중국에서는 2001년 三聯 서점에서 출간하였다. 黃교수는 페어뱅크 교수에 대한 존경심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고 다만 도덕적 판단과 기술적 측면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하였다. 黃仁宇, 앞의 책, 281-322쪽.

43) 한 예로 陳子龍이 편찬한 『皇明經世文編』에 대한 시각의 차이를 들 수 있다. Philip Kuhn, Lyun Struve 등은 모두 이 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나 黃교수는 (자신의 논문에서 이 책을 다룬 경험을 바탕으로) 내용이 산만하고 문장들이 서로 상충되었을 뿐 아니라 때로 한 문장내에서도 모순점이 있었다며 연구자의 시야를 넓혀주기 힘든 자료라고 주장하였다. 黃仁宇, 앞의 책, 571

전통적으로 진부한 관념들이 혼재해 있다”고 판단한

것이었다. 결국 출판사는 “범위가 너무 넓고 작자의 권위 부족으로 세간의 공격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출판을 거부하였다.⁴⁴⁾ 아이비 리그의 소수 권위자들이 인정하지 않으면 새로운 관점이 담긴 책은 출판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⁴⁵⁾

시각, 자료뿐 아니라 연구 방법에서도 간극은 존재하였다. 당시 미국 대학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영미 등 다른 지역 연구자들과 같은 연구 방식을 취하였다. 서양사 연구가 식민시기나 외교정책 등 하나의 영역을 선택하여 주전공으로 하고 다시 작은 분류를 만들어가듯 중국사에서도 자신의 영역(주제)을 정하고 자신의 학생들에게 그 영역안의 작은 주제를 연구하도록 하는 분업형태가 자리잡고 있었다. 당연히 학생들은 종합적인 시각보다는 한 연구의 부속품이 되는 경우가 많아 중국사에서 가져야할 종합적인 시야를 가지기 어렵다보니 항상(서양의 발전형태와 비교하여) 비판적 평가가 주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동서양이 어떻게 만나서 문화적으로 교류하므로 서 하나의 완전한 세계사를 이루는지를 관찰하기에는 장벽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⁴⁶⁾

黃교수는 통사라는 본서의 집필 참가를 통해 이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참가자들에게 전공, 연구자간의 벽을 뛰어넘어 새롭고 견고한 관점을 만들어 보자고 건의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러한 자신의 시도가 ‘겁없이 함부로 행동하는 바람에(膽大妄爲)’ 오히려 ‘친구와의 관계’만 ‘더욱 긴장(繃緊)’시키는 결과를 낳았다고 아쉬워하였다. 물론 중국계 학자들 뿐 아니라 The Journal of Asian Studies(『亞洲研究期刊』) 편집장을 역임했던 로버트 카프(Robert A. Kapp) 역시 당시의 이러한 불균형이 새로운 분야의 지식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한 바 있었다.⁴⁷⁾

IV. 결 론

본서는 明代를 시간순으로, 그리고 해석보다는 서술에 중점을 두어 시대사 연구의 입문서로서 혹은 대중들이 읽기에 편하여 시공에 관계없이 오늘날까지도 호평을 받고 있다.⁴⁸⁾ 통사에도 불구하고 명대 정치, 군사, 재정제도의 변천과 개혁을 통해 정부의 효율

44) 앞의 책. 黃교수는 데니스 트위체트, 콜롬비아 대학 명예교수인 Goodrich L Carrington, 리츠 대학의 Bill Jenner, Dr. De Bodde, 예일 대학의 Arthur Frederick Wright에게 의견을 물었는데 Arthur Frederick Wright가 가장 부정적이었다. 黃교수는 그녀에게 직접 “자신의 역사관이 민족적 우월감을 가지고 있거나 지나치게 중국에 우호적”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었고 그녀는 간접적으로 “그렇게 형편없지는 않다”라고 회답하였다.

45) 黃교수는 “책을 내지 못하면 나는 그림자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심정으로 미국에서의 연구생활을 표현하였다. 앞의 책.

46) 黃宗智, 앞의 문장. 黃교수는 현대사부분에서도 역시 같은 문제를 제기하였다.

47) 黃仁宇, 앞의 책, 572쪽.

48) 중화권에서 학술적으로 다룬 논문은 소수이고, 주로 일반 대중들에 대한 소개서로 주로 언론매체에서 많이 다루었다. 頭條新聞 “劍橋中國史如何評價大明王朝?” 2017.07.22

을 살펴 본 점은 주목할 만한 것이다. 특히 본고에서 특별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7장, 8장에서 마르크스 역사가들의 계급사관에 대한 비판은 매우 설득력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⁴⁹⁾ 물론 기존의 한 사람이 전체를 서술하는 방식과 달리 여러 사람이 나누어 쓰다보니 일관성이 결여되거나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었고 각 장절의 표제도 연대나 주제별로 역시 일정하지 않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겠지만 당시의 환경을 고려한다면 큰 문제는 아닐 것이다.

외국연구자들, 특히 미국, 유럽의 연구자들이 중국사를 연구할 때는 분명한 한계를 느낄 수 있다. 본서가 준비, 출간되었던 20세기 중반에는 직접 중국과 접촉한다는 것도 제한적이어서 완전히 낯선 문자와 문화를 읽히고 자료의 습득도 쉽지 않았다. 중국 연구자처럼 오랜 기초 학습과정을 통해 사료에 접근하며 거시적인 시각을 양성하는 방식 또한 익숙치 않았다. 연구자들이 전쟁이후 군복무 등 특수한 상황이나, 단기 연수 혹은 결혼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중국을 접하였지만 전문 연구자로서 사료 해석과 사료의 취사 선택을 통한 중국 연구는 여전히 커다란 장벽이었다. 그 장벽을 극복하고 놀라운 성과를 이룬 학자들이 모여서 통사를 완성하여 기초 입문서로서 대중들에게 다가간다는 것은 중요하고 필요한 시대적 과제였으며 그 공헌은 매우 값진 것이다. 물론 그들의 연구가 이미 ‘奇異’한 시대는 아니었다라도 여전히 변방에서 점차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이다. 본서는 국가 정책의 변화를 통해 정부나 민간 단체의 지원을 받아 소수의 결정자들이 연구 방향을 잡아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과정에서 중국계 학자들이 느끼는 간극이 있었고 서술 과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는 시도도 있었지만 시대적 환경을 극복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간극은 서양사 연구에서 얻었던 경험들이 꾸준히 접목되면서 1990년대 코헨(Paul A.Cohen)의 中國中心論이나, 엘리엇(Mark C.Elliott)의 新淸史論에 대한 쟁론에서도 여전히 존재한다.⁵⁰⁾ 티모시 브룩(Timothy Brook) 교수는 자신의 연구가 창문을 통해 중국이라는 집안을 들여다보는 것이라고 표현한 바가 있었다. 영미식 인식과 중국적 특성이라는 사이의 간극은 앞으로도 여전히 역사학계가 풀어나가야 할 기본적인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https://kknews.cc/history/pxglgm8.html>

49) 巫仁恕「評劍橋中國史明史之評價」, 『人文社會學科教學通訊』卷2,4期,1991.12

50) Paul A.Cohen著 林同奇譯『在中國發現歷史-中國中心觀在美國的興起』,臺北稻香出版社,民國80年.
Mark C.Elliott著 이훈,김선민옮김『만주족의 청제국』,서울 푸른역사,2009.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8 (1998) 검토 한국 관련 내용을 중심으로 -

계승범 (서강대 사학과)

목 차

1. 들어가며
2. 책의 구성과 대외관계 기술 내용
3. 한국 관련 내용 소개와 비평
4. 나가며

1. 들어가며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 明代를 위해서는 7권(1988년)과 8권(1998년) 등 모두 두 권을 할애하였다. 7권은 거의 다 황제의 재위 기간을 기준으로 시기별로 章을 나누어 시대사를 개괄하였다. 8권은 정부 조직, 재정, 법률, 대외관계, 사회경제, 유학, 종교 등 여러 주제를 15개의 장으로 나누어 엮은 주제사이다. 여기서는 8권의 내용을 검토한다.

먼저 각 장의 주제를 간략하게 소개하되, 대외관계에 해당하는 네 개의 장에 대해서만 그 내용을 간략하게 살피는 것으로 발표문을 구성하려 한다. 이 발표에서 모든 장을 골고루 다루기 힘든 이유는 간단하다. 현재 전체 발표자의 면면을 보면, 모두 중국사를 정통으로 전공하신 분이시며, 오직 발표자만 홀로 한국사 전공자이다. 따라서 명대 다양한 주제사에 대하여 필자는 비평할 능력이 없다. 심지어 대외관계라고 해도 명과 동남아시아, 명과 중앙아시아, 명과 서양인 등과 같은 주제라면 발표자의 학문 역량으로는 수준 있는 비평이 벅하다. 그런데도 애초 발표를 수락한 이유는 비평의 중점을 한국 관련 내용에 두는 것이 이번 검토발표회의 주요 목적이라 전해들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난 중간 발표회 때(11.13) 도출한 검토 방향은 각자 맡은 볼륨의 전체 내용에 대한 전체적 비평 및 한국 관련 내용의 검토였다. 따라서 발표자가 과연 8권에 대한 검토·비평을 맡는 것이 최선인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개인적으로 심히 부정적이다. 더욱이 명대 주제사를

한국사 전공자가 맡는 것부터 모양새가 좋지는 않다. 당연히 명대 전공자께서 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부득이 한국 관련 내용을 다룬 5장(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을 집중적으로 검토하려 한다. 8권을 통틀어서 한국 관련 언급은 사실상 5장뿐이다. 혹시 일본과의 관계를 다루면서 한국을 언급한 게 없을까 보았지만, 일본 관련 장은 아예 마련하지도 않았다. 17세기 초 조선 사신 李睟光(1563~1628)이 북경에서 南越 사신을 만나 서로의 역사에 대해 필담을 나눈 일이 유명하므로, 베트남을 다룬 4장(Ming Foreign Relations: Southeast Asia)에 혹시 조선 관련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여 살펴보지만 역시 마찬가지다. 따라서 이 발표에서는 명과 조선의 관계를 다룬 5장을 주로 분석하는 수밖에 없다.

캠브리지 역사 시리즈의 구상은 1966년에 시작하여, (vi쪽) 7권은 1988년에 출간을 완료하였다. 이에 비해, 주제사를 다룬 8권은 1990년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1998년에 출간하였다.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관련하여 1990년대는 중요하다. 무게 중심이 Fairbankian들의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 학설에서 '신청사'(New Qing history) 학설로 넘어가는 조짐이 나타났던 전환기였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관계를 다룬 네 개 장에서는 학설은 거의 언급하지 않은 채 관계의 진행 추이를 사실적으로 기술하는 데 주력하였다. 아마도 집필 방침이 그러했던 모양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발표에 임하고자 한다.

2. 책의 내용과 대외관계 기술 내용

8권은 Introduction을 제외하고 모두 15개의 chapter로 이루어졌다. 다양한 주제를 담았는데, 장별 구성은 다음과 같다.

Introduction - Denis Twitchett & Frederik W. Mote

1장: Ming Government - Charles O. Hucker

2장: The Ming Fiscal Administration - Ray Huang

3장: Ming Law - John D. Langlois, Jr.

4장: The Ming and Inner Asia - Morris Rossabi

5장: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under the Ming - Donald N. Clark

6장: Ming Foreign Relations: Southeast Asia - Wang Gungwu

7장: Relations with Maritime Europeans, 1514-1662 - John E. Wills, Jr.

8장: Ming China and the Emerging World Economy, c. 1470-1650 - William Atwell

- 9장: The Socio-economic Development of Rural China during the Ming - Martin Heijdra
- 10장: Communications and Commerce - Timothy Brook
- 11장: Confucian Learning in Late Ming Thought - Willard Peterson
- 12장: Learning from Heaven: the Introduction of Christianity and Other Western Ideas into Late Ming China - Willard Peterson
- 13장: Official Religion in the Ming Romeyn Taylor
- 14장: Ming Buddhism - Yú Chūn-fang
- 15장: Taoism in Ming Culture - Judith A. Berling

7권의 마지막 장에서 다룬 ()까지 포함하면, 모두 16개의 소주제를 엮은 셈이다. 이로써 보면, 조선시대 한중관계 관련 연구를 좀 했다고 해서 8권 전체를 검토하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함이 분명하다. 어쨌든 이 가운데 명대 대외관계를 다룬 장은 4장부터 7장까지 네 개이다. 네 장의 배치 구성을 보면, 북경을 중심으로 볼 때 북쪽의 몽골, 동쪽의 조선, 남쪽의 월남을 기본 축으로 삼았음을 알 수 있다. 여기에 해안으로 명에 접근한 포르투갈, 네덜란드, 스페인 등 서양인과의 교류를 추가한 구성이다. (추후 보강 예정)

3. 한국 관련 내용 소개와 비평

저자 클라크(Donald N. Clark)는 여말선초 시기 한중관계 연구로 1978년 하버드 대학에서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¹⁾ 지도교수는 페어뱅크(John K. Fairbank)였다. 이후 교육계로 진출하여 Trinity 대학에 자리를 잡았다. 발표자는 2006-2007년에 미국 UCLA에서 full-time lecturer로 근무했는데, 그때 마침 colloquium 차 UCLA를 방문한 저자와 만나는 기회를 가졌다. 그때 발표 주제는 당시 북한이 처한 여러 현실 문제였으며, 자유로운 토론 시간에도 주로 자신의 북한 방문 경험을 흥미롭게 제공하였다. 당시 저자는 한중관계 주제로는 연구가 왕성하지 않았으며, 꽤 오래 전부터 북한 선교에 관심을 두고 그런 방면으로 힘쓰고 있었다. 그런데도 Cambridge History의 장 집필을 맡을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그의 박사학위 주제 때문인 것 같다. 이제 그가 작성한 5장의 내용을 검토해보자.

1) Donald N. Clark, "Autonomy, Legitimacy, and Tributary Politics: Sino-Korean Relations in the Fall of Koryŏ and the Rise of the Yi," Ph. 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1978).

The Pattern of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各章이라서 그런지, 서론에서 명대 북경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의 전체 그림이나 배경 설명은 제공하지 않은 채 바로 한중관계를 거론하였다. 그래도 첫 문장에서 조선(한국)을 “model Chinese tributary state”라고 전제함으로써, 명대 한중관계를 ‘중국적 세계질서’라는 프레임 속에서 살피려는 저자의 의도를 분명히 하였다. 서론의 전반부에서는 한중관계의 역사적 배경을 당-신라 관계 및 요-금-원 등과 고려가 맺은 다양한 관계를 짧게 요약하였다. 특히 몽골 간섭을 받을 때는 고려가 원 황제의 직접 통제 하에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서론의 중반부에서는 Fairbankians의 중국적 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 프레임에 따른 것 같은 단어를 일부 사용하였다. 특히 조공체제(tributary system)가 정치·안보·무역·문화 등 거의 모든 면에 걸쳐서 명과 조선 쌍방 간에 어떻게 작용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good example)라고 명시하였다. 조선의 입장에서는 명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대를 취함으로써 국가안보와 자주권(autonomy) 및 국왕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명으로서는 조선을 충실한 속국(vassal state)으로 둬으로써 동쪽 방면의 군사적 위협을 방지하는 데 활용하였다.

서론의 말미에서는 명대 한중관계의 내용과 추세를 시기별로 나누었다. 이에 따르면, 첫 시기는 두 나라 사이의 갈등과 긴장 및 조선이 명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 등을 특징으로 하되, 영락제의 즉위로 해결되었다. 다음 전환기는 임진왜란으로, 저자는 이 전쟁 때문에 조선이 물리적으로나 정식으로 황폐화하였으며, 명도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했다고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1644년에 명이 몰락한 후에도 조선이 계속 명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명의 정통성을 계속 추종한 국면을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한국을 조공체제의 전형적인 사례로 본다면, 그런 한중관계 중에서도 명-조선 관계야말로 가장 대표성을 갖는다고 지적하였다.

이 서론에서 먼저 주목할 점은 일단 한반도의 고려-조선 왕조 교체를 바로 앞서 중원에서 발생한 원-명 교체라는 큰 자장 안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본 거시적 관점이다. 국내 학계가, 특히 한국사학계가 고려-조선 왕조 교체를 지나치게 국내 문제에 국한하여 설명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런 넓은 시각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왕조 교체만이 아니라 사유체계로 보아도 14세기가 ‘불교⇨유교’ 대전환기였으며, 실제로 한반도의 왕조 교체 또한 ‘불교⇨유교’ 전환과 함께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하다.

다음으로는 고려가 상대한 중원의 패권국, 곧 요-금-원을 거론하면서 저자가 정복 왕조(conquest dynasty)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점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비트포겔(Karl Wittfogel, 1896~1988)이 꽤 오래 전에 제시한 ‘정복왕조’론을 1990년대에 chapter 5를 집필하던 저자(Clark)가 몰랐을 리는 없다. 그렇다면 요-금-원을 한데 묶어 간단명료하게 가리킬 ‘정복왕조’라는 용어를 피하고 “watching closely as the Liao,

Chin, and Mongol states rose in succession”이라고(272쪽) 풀어서 기술한 이유는 무엇일까? 遼와 金이라 했으면 당연히 元이라 써야 일관성이 있음에도, 원 대신에 몽골이라는 종족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말이다. 발표자가 보기에, 이는 Harvard 대학에서 Fairbank 교수 지도하에 박사학위를 받은 저자의 학문적 배경 때문인 것 같다. 또한 저자가 정복왕조 학설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다른 설명이 마땅치 않다.

실제로, 서론에서 집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저자는 명-조선 관계를 가장 이상적인(model) 조공관계로 유형화하였다. 전해종과 Fairbank가 1969년에 발표한 내용과²⁾ 사실상 동일하다. 다만 무엇을 기준으로 한국을 model이나 representative로 평가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 기준 문제는 1969년 당시에 다소 논란이 있었는데, 그로부터 근 30년이나 흘러 1998년에 나온 이 장에서도 보강은 전혀 없다. 솔직히 이 장의 내용은 저자가 약 20년 전에 발표한 박사학위논문을 축약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로써 보면, 저자는 박사학위논문에서 피력한 내용을 20년이 넘도록 조금도 변경하거나 보강하지 않은 셈이자, 30년 전에 등장한 ‘중국적 세계질서’ 학설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주목할 점은 명이 구축한 조공체제에서 조선의 위상을 autonomy라고 표현한 점이다.³⁾ 이 단어에 independence의 의미가 없지는 않으나, 대체로 自治의 의미로 널리 쓰인다. 앞뒤 맥락을 놓고 이 단어의 의미를 보면, 외국이되 스스로 사대함으로써 간섭받지 않는, 곧 북경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에 조공을 바치며 편입된 조공국(tributary state)이라는 의미다. 당시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屬國 또는 自主之國이다.

여기서 속국의 의미를 살펴보자. 조공을 바치는 나라는 명과 청에서는 물론이고 조선에서도 모두 번국 또는 속국으로 불렸다. 藩國은 말 그대로 제국의 울타리 역할을 하는 주변국이라는 의미다. 속국은 상위의 정치체, 곧 황제가 다스리는 제국에 부속된 제후의 나라라는 뜻이다. 모두 제국과는 조공·책봉 관계로 묶여 있다. 그런데 조공의 반대급부가 책봉이므로, 조공이 제대로 유지되고 특별한 일이 없다면 책봉국은 조공국의 내정에 굳이 간섭할 필요가 없다. 중원 제국에서도 이런 나라들은 外國으로 분류하였다.

그런데 속국의 의미는 『만국공법』의 유포(1864)를 계기로 변하였다. 전통시대 속국은 외국이었다. 『25사』에서 조선이 거의 다 외국 조에 배치된 점만 보아도 자명하다. 또한 그런 속국은 自主之國의 의미를 지녔다. 내정은 自主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의미다. 따라서 자주를 현대어로 바꾸자면 自治가 최적이다. 현대인은 속국과 자주를 마치 대립

2) John K. Fair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3) The Koreans, by providing tribute and gestures of submission, bought security and autonomy by forestalling Chinese intervention. By paying tributes, Korean kings also purchased imperial legitimation and support. For the Chinese, the tributary system mean that Korea would strive to act like a loyal vassal state, posing no threat and supporting Chinese security objectives in the area. (273쪽)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속국은 곧 자주국이였다. 따라서 근대 번역어인 독립주권국의 의미를 조선인이 자주국으로 이해한 것은 당연하였다. 이를 인정해야, 강화도조약 1조에서 조선을 자주국(自主之國)으로 명시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조선은 본래 자주국이었으므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일본은 『만국공법』상의 주권국가(sovereign state) 의미로 사용함으로써 조선에 대한 청의 간섭을 방지하고자 한 것이다.⁴⁾

이런 점을 두루 고려할 때, 저자가 명이 조선에게 vassal sate(근대적 의미의 속국)를 기대한 데 비해 조선은 autonomy(전통적 의미의 속국 또는 자주국)를 추구했다고 기술한 것은 명대 한중관계의 속성을 잘 응축한 설명이라 할 수 있다. 임진왜란 중 강화협상 테이블에서 조선이 철저히 배제된 사실은 명-조선 관계의 이런 속성을 고려하지 않고는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국제무대에서는 명을 배제한 채 외교적 independence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人臣無外交’는 한갓 이론에 불과했지만, 그것을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한 점에서 조선은 특수한 사례라 할 수 있다.

Ming Korean Relations: The First Phase

Koryŏ and the Founding of the Ming: 여기서는 14세기 후반 명과 고려 사이의 외교적 긴장 상황을 위화도회군(1388)에 이르기까지 꽤 상세히 기술하였다. 공민왕(r. 1351~1374)의 반원정책과 내우외환의 연속, 명의 건국(1368)과 원과 명 사이에 처한 고려의 딜레마, 고려의 요동원정(1370)과 명과의 긴장고조, 공민왕의 암살과 명 사신의 피살(1374), 우왕(r. 1374~1388)에 대한 명의 책봉 거부와 고압적 태도, 명과 몽골(나하추) 사이에서 여전한 딜레마, 鐵嶺衛 파동과 고려의 2차 요동원정 및 위화도회군(1388) 등을 명과 고려의 갈등에 초점을 맞춰 설명하였다.

상세하기는 해도 개설 수준이기에 비평할 거리는 별로 없는 편이다. 다만 명과 고려 사이의 긴장고조가 한반도 내부의 왕조 교체에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보면서도, 애초 서론에서 언급한 동아시아적 시각에 대해 부연하지 않은 점은 아쉽다. 국력에 현저한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약소국이 강대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면, 대개는 그 나라의 의견이 양분되어 갈등을 빚게 마련이다. 따라서 위화도회군 같은 군사정변은 동서고금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의 하나이지, 여말선초 시기 한반도에 발생한 매우 특수한 사례는 아니다. 또한 조선 건국 후에도 10년 가까이 명과 조선 사이의 긴장은 매우 높았으므로, 고려-조선 교체 후에도 명과의 관계에서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었다. 따라서 이런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저자가 서론에서 명시한 대전제, 곧 한반도의 고려-조선 왕조 교체는 중원에서 발생한 원-명 전환기(transition)와 관련 있다는 전제에 대한 충분한 부연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이는 저자의 박사학위논문이 갖는 문제이기도 한데, 이 장에서도 그대로 답습하였다.

4) 김형종, 「근대 한중관계의 변용: 자주와 독립 사이」, 『동양사학연구』 140, 2017.

Ming-Korean Relations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이 소절에서는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새 왕조를 개창했음에도 명이 새 국왕 이성계에 대해 품고 있던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 및 그로 인한 갈등 고조 상황을 꽤 자세하게 분석하였다. 명이 이성계를 경계한 이유부터 분석하였는데, 저자는 크게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먼저, 이성계의 출신에 대한 의심과 국왕 암살 혐의였다. 주지하듯이, 이성계가 권신 李仁任(?~1388)의 아들이라는 점과 고려의 마지막 세 왕을 암살했다는 소문과 의심은 명 조정에도 파다하였다. 이른바 장기간에 걸친 宗系辨誣의 대상이 바로 이 ‘헛소문’인데, 저자는 이 의심의 공식적 파기는 1587년 곧 조선의 선조(r. 1567~1610) 때에 이르러 일단락되었다고 적었다.

다음으로, 당시 명에서 크게 신경을 쓰던 요동의 안보 때문이었다. 특히 이성계의 출신지는 함흥이었고, 여진인과 친밀했으며, 개국공신 중에도 여진인이 들어 있었다. 이에 명으로서는 조선과 여진의 긴밀할 관계에 경계수위를 높이지 않을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이런 연장선상에서 저자는 이성계가 이미 1370년 공민왕의 요동 원정에 참여함으로써 요동 방면 지리와 군사 방어시설에 익숙한 점을 우려하였다. 요컨대, 이성계를 매개로 하여 조선과 여진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명은 결코 묵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설상가상으로, 자신에 대한 모욕적 언사에 지나치리만치 예민하던 홍무제가 주도한 表箋 사건은 두 나라 사이의 긴장을 고조시켰다.

이런 긴장 상태는 1398년 태조 이성계(r. 1392~1398)가 왕위에서 물러나고 마침 홍무제도 사망하면서 긴장완화 국면으로 급선회하였다. 저자는 이를 명 내부의 갈등 상황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홍무제 사후에 남경의 建文帝와 북경의 燕王(영락제)은 내전에 돌입했는데, 서로 조선과 긴장을 완화할 필요가 절실하였다. 건문제로서는 연왕을 진압하기 위해 그 후방의 조선과 긴장을 유지할 필요가 없었으며, 조선의 貢馬도 필요하였다. 전선이 양자강 유역으로 내려와 압박을 심하게 느끼던 건문제가 주저 없이 당시 조선의 국왕이던 정종(r. 1398~1400)과 태종(r. 1400~1418)을 전격적으로 책봉한 것은 바로 명 내부의 이런 요인이 컸다. 연왕 역시 남쪽으로 진군하는 상황에서 요동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후방의 조선과 긴장을 해소가 필요가 있었다. 남경에서 영락제가 즉위하자, 태종은 바로 조공 진하사를 파견하였고, 영락제는 그를 즉시 다시 책봉하여 호응하였다. 표전 문제로 구금 중이던 조선 사신도 모두 석방하고, 하사품도 내렸다. 저자에 따르면, 홍무제는 창업군주로서 변경지역 방어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면서 고려·조선과 갈등을 빚었고, 건문제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조선과의 우호관계가 필요하였다. 영락제는 이 둘을 모두 견비하였는데, 특히 외국의 군왕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조공을 받음으로써 새로운 황제로서 면모를 강화할 수 있었다.

14세기 말에 벌어진 이런 상황을 통해 저자는 조선이 적극적으로 조공관계에 관심을 둔 이유를 분석하였다. 조선의 목적은 두 가지 곧 안보(security)와 자주(autonomy)였다. 명과 자발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접근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조선은 필요하다면 명의 동의도 없이 상황에 따라 몽골이나 여진과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였다. 표전 사건 때는 정도전(1342~1398)을 보내라는 황제의 명을 거부하고 재차 전쟁을 준비하기도 하였다. 저자는 이를 조선이 안보와 자주 가운데 굳이 하나만 택

해야 한다면 자주(autonomy)를 더 중시한 예증으로 보았다.

이 소절에서 다른 내용은 국내 학계에서도 주지하는 바로, 특별히 비평할 거리는 별로 없다. 다만 몽골을 몰아내고 새롭게 떠오른 강대국 명을 상대로 무려 세 번씩이나 요동 원정 움직임을 보인 점을 들어, 조선의 자주성을 강조한 점이 눈에 크게 들어온다. 이는 아마도 저자가 명-조선 관계를 탐구하되 한국사 기반으로 접근한 한국학 전문가이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중국사 전공 비한국계 영어권 학자가 이 장을 집필했다면, 완전한 독립(x)변수로서의 명을 한층 더 강조했을 것이다.

Tribute Missions

Korean Embassies to China: 저자는 먼저 조선에서 명에 파견한 사신단의 종류와 빈도를 살폈다. 이에 따르면, 정조사·성절사·천추사·동지사 등과 같은 정기 사행 외에도 진하사나 진위사 등 술한 특별 사신을 망라하여 소개하였다. 사신의 종류가 다양한 만큼 사행 빈도도 높았는데, 오죽하면 명의 예부에서는 경비 문제를 들어 불평을 토로할 정도였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1392~1450년(태조~세종) 58년 동안 조선은 391회나 사신을 파견하였고, 이는 연평균 7회에 해당하였다. 또한 사행 빈도의 추이를 통해 명과 조선 사이의 외교 갈등의 다과를 추론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테면, 15세기 후반에는 연평균 3, 4회로 안정적이었으나, 중종반정(1506)을 계기로 명의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다시 증가하였다.

저자에 따르면, 사신단의 규모는 대략 40명 정도로 正使는 판서(minister)급이었는데, 초기에 왕자가 사행을 이끌 때는 규모가 더 컸다. 『大明會典』(Collected statues of the Ming)에 근거하여 조공품목도 상세히 열거하였는데, 저자는 인삼과 종이 등 품질 면에서 중국 것보다 더 우수한 품목을 주로 목록에 올렸음을 강조하였다. 또한 조선 사행단이 물품을 가져가서 비공식적으로 무역하는 관행에 대해서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였다. 공식적으로는 예부를 통해 조공과 하사가 이루어지지만, 조선 사신 일행이 북경에 숙소를 잡으면 중국 상인들이 몰려와 무역이 이루어졌다. 조선이 주로 가져온 주요 품목은 인삼, 모피, 종이, 붓 등이었고, 조선인은 그 대금으로 조선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였다. 이런 사실을 통해, 저자는 조선이 명과의 조공관계에 매우 열성을 보인 이유가 바로 이런 무역의 기회 때문이라고 풀이하였다.

황제의 공식 하사품도 조선에게는 큰 관심 사안이었다. 왕족의 관복, 악기, 장신구, 비단, 옥, 약초 등이 일반적으로 주요 품목이었다. 그래도 조선이 중시한 품목은 서적이었고, 실제로 이들 서적은 조선에 큰 영향을 끼쳤다. 유교경전과 각종 주석서, 논설, 역사서, 시문선, 문집 등의 서적이 한양에 도착하면 정부는 바로 복제하여 퍼트렸다. 이들 서적은 조선이 국가의 문물을 갖추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 예로, 『大明律』은 조선의 법전을 편찬하는 데 밑거름으로 작용하였다. 이 밖에도 저자는 使行路와 역관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런 기술 내용도 일반적인 이해와 별로 다르지 않다. 다만 1990년대에 영어권에서 나

온 글임에도, (마치 국내 학자가 기술한 것처럼) 조공사신 파견에 조선이 적극적이던 점을 조선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설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 또한 저자가 한국사에 조예가 깊기 때문이자, 1990년에는 영어권에도 한국사 전공학자가 이전에 비해 꽤 증가하였고, 그에 따라 조선시대 한중관계를 다룬 연구가 심심치 않게 나오던 상황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

Ming Embassies to Korea: 그렇다면 명은 조선에 사신을 얼마나 왜 파견하였을까? 저자는 먼저 명의 조선 사행을 개괄하였다. 이에 따르면, 사신이 요동에 도착하면 통사를 통해 의주에 미리 알렸으므로, 조선 조정은 조칙사의 파견을 미리 알았다고 하였다. 다만 사신 일행이 한양에 근접할 때까지는 사행의 이유나 목적을 잘 알 수 없었다고 하였다. 명 사신의 조선 방문 목적은 대개 조선 국왕의 책봉, 명 황제의 즉위나 황태자 책봉의 고지, 특별 조사 등이었으며, 정기적인 파견은 없었다. 1392~1450년 연간에 명은 조선에 모두 95차례 사신을 파견했는데, 그 가운데 50차례는 태종 재위 연간(1400~1418)에 집중적으로 발생하였다. 그런데 15세기 후반에는 26차례, 16세기 전·중반에는 겨우 10차례였다. 그러다가 선조 때(1567~1608) 약 40년 사이에 35회로 증가하였다. 이런 추이에 대해 저자는 명-조선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明使 파견 빈도가 서서히 줄어들었고, 선조 때 다시 증가한 것은 임진왜란이라는 특수상황 때문으로 풀이하였다. 저자의 통계를 보면, 1392~1644년간 즉 명과 조선이 공존하던 시기에 명사는 도합 186차례 조선에 왔는데, 이는 1년에 1회도 안 되는 수치다.

이어서 명사의 구체적 사례를 기술하였다. 文士로는 1369년 명의 건국을 통지하러 고려에 온 첫 明使 Hsieh Ssu와 명-조선 관계가 안정을 구가하던 1488년 弘治帝(r. 1487~1505)의 즉위를 알리러 온 董越을 들었다. 특히 『朝鮮賦』를 비롯하여 조선에 대한 다양한 저술을 남긴 동월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하지만 초기의 明使는 대개 환관이었음과 조선에서 그들이 부린 횡포도 비교적 사실대로 기술하였다. 조선 출신 환관 申貴生과 한인 환관 Huang Yen을 대표 사례로 들고, 이들을 달래기 위해 조선이 지출한 엄청난 경비 문제도 언급하였다. 저자는 明使(조칙사)의 조선 파견은 근본적으로 불평등 관계였음도 아울러 지적하였다. 따라서 당시 조선에서는 어차피 외교적 접촉을 해야 한다면 한양보다는 북경에서 접촉하기를 원했다고 부연하였다.

이 소절의 내용도 대개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이므로, 특별히 비평할 부분은 별로 없다. 다만, 현재 국내 학계에는 조선시대 명사 관련 연구가 꽤 쌓여 있다.⁵⁾ 또한 몇 년 전에는 『使朝鮮錄』을 묶은 역주본까지⁶⁾ 나와서 학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저자가 5장을 집필하던 1990년대만 해도 조선에 다녀온 明使에 대한 영어 논문은 거의 없だし피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소절을 집필하면서 저자는 2차 자료가 아닌 1차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이런 사정 때문에 아마도 이 소절의 내용이 상대적으로 소략하고 또한

5) 대표적으로는 김한규, 『사조선록 연구: 송·명·청 시대 조선 사행록의 사료적 가치』 (서강대학교출판부, 2011) 참고.

6) 김한규 역주, 『사조선록 역주』 1-5 (소명, 2012).

종합적이지도 않은 것 같다.

The Ming-Korean-Jurchen Triangle

Korean Contact with the Jurchen Tribes: 저자는 명-조선 관계에서 늘 변수로 작용하던 만주의 여진을 독립적 상수로 간주하고 요동과 만주 일대를 둘러싼 알력과 경쟁을 다루었다. 15세기에 들어서면서 북경을 중심으로 한 조공체제가 북경과 한양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작동할지라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던 여진과의 중층적 관계를 기술하는데 꽤 많은 지면을 할애하였다. 이 소절은 14세기 후반 명과 고려 사이에 고조되던 긴장 상태를 기술한 앞의 내용과 다소 중복인 감은 있으나, 그것을 좀 더 상세히 그리고 여진의 동태를 가미하여 기술함으로써 그가 말하고자 하는 ‘삼각관계’(triangle)의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였다.

저자는 먼저 압록강 유역과 그 너머 요동과 만주에 대한 한국인의 故土의식을 간략히 소개하고, 고려시대에 꾸준히 추진한 북진정책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오히려 요-금-원 등이 해당 지역을 자국의 영토로 편입하여 직할하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한국인의 인구 중심부가 점차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동했다고 지적하였다. 공민왕이 즉위하면서 고려는 이후 멸망할 때까지 약 30년간 다양한 방법으로 영토 회복을 추진하였지만, 이번에는 명과의 갈등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1387년에 나하추가 명에 복속하면서 만주 일대에 잠시 힘의 공백이 발생하자, 그것을 차지하기 위한 명과 고려의 경쟁은 더욱 가사화하였다. 새 왕조 조선 또한 고려의 정책을 계승하여 1390년대에 지속적으로 만주의 여진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여진 추장을 초무하여 조선에 조공을 바치게 하고 그 대가로 조선의 관직과 선물을 하사하였다.

조선과 여진이 가까워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던 흥무제는 使行路를 아예 바다로 지정한다거나 여진의 조선 귀화를 금하는 등 이 문제에 깊이 개입하였다. 고려의 비협조로 별다른 성과가 없자, 흥무제는 이른바 鐵嶺衛 파동을 일으켜 고려를 압박하였다. 이에 고려는 되레 요동 원정군을 일으켰는데, 이때 사령관이 바로 이성계였다. 그가 위화도에서 회군하고 고려를 무너트린 점을 들어 저자는 요동과 여진을 둘러싼 명과 고려의 갈등이 바로 고려-조선 왕조 교체의 핵심 요인이었음을 반복해 강조하였다.

이 소절의 내용도 널리 알려진 것으로 특별히 비평할 부분은 별로 없다. 다만 이 소절의 배경 설명은 앞선 기술(The First Phase)과 적지 않게 겹친다. 따라서 굳이 이 소절을 별도의 소절로 구성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차라리 명의 여진 정책과 그 변화 추이를 포괄적으로 개괄하고 나서, 동시기 조선의 여진 정책을 명에 대한 사대정책과 관련하여 비교 차원에서 기술하는 편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아울러 이 소절의 제목은 “Korean contact with the Jurchen”인데, 실제 내용은 이보다는 오히려 명의 입장에 중점을 둔 탓에 제목과 내용이 그다지 잘 부합하지도 않는다.

Ming Policy toward the Jurchen: 이 소절은 매우 소략하여 두 문단뿐이다. 하나는

명이 조공체제를 통해 여진과의 무역을 독점하려 했으며 몽골이나 한국인 등 주변의 어떤 다른 세력과도 접촉하지 못하도록 막고자 하였다. 이런 정책은 기미정책의 맥락에서 실시한 衛(wei)의 설치로 나타났다. 다른 하나는 猛哥帖木兒(Mengge-timur) 이야기다. 명 내부에서 계승 문제를 놓고 내전이 벌어진 사이에 맹가첩목아는 조선으로 귀부하여 회령에 거주하였고, 조선에서는 그를 藩胡(vassal)로 여기고 대우하였다. 그런데 만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던 영락제는 당시 여진 추장 가운데 꽤 지명도가 높던 맹가첩목아를 명으로 귀부하도록 다양하게 종용하였다.

이 소절은 갑자기 푼 끊어진 느낌이다. 명의 여진정책이라는 것도 특별한 내용이 별로 없으며, 요동과 만주 일대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라면 앞에서 이미 열추 설명한 바 있다. 왜 이랬는지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차라리 이 節은 굳이 소절로 세분할 필요 없이 ‘삼각관계’에 중점을 두어 종합적으로 기술하는 편이 훨씬 나았을 것 같다.

The Effect of Ming Contacts with the Jurchen: 이 소절에서는 맹가첩목아를 포섭하기 위한 명과 조선 사이의 경쟁, 맹가첩목아의 이중 복속 상황, 조선의 대여진 군사작전과 압록강-두만강 경계 확보 및 사민정책, 조선에 내몰린 여진의 요동 침탈 및 명의 강경대응, 건주위 추장 李滿住의 몽골 접촉, 土木變(1449), 명의 보복 공세와 명-조선 연합군의 건주여진 공격(1467), 그런데도 그치지 않고 일상화한 여진의 변경 소요, 임진왜란으로 인한 새로운 변동 등을 차례로 기술하였다.

이 또한 주지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히 비평할 거리는 별로 없다. 그래도 두어 가지는 지적할 필요가 있다. 먼저, ‘effect’라는 소절 제목과는 달리 본문 내용은 여러 사건을 시기별로 연동하여 설명했을 뿐이다. 제목을 ‘영향’으로 잡았으면 우선적으로 영향 분석이 중심을 이루어야 할 텐데 전혀 그렇지 않다. 내용으로 보자면, 전체 흐름은 정확한 편이나 세부 내용에서는 보완할 점이 많다. 일단 명대를 전체적으로 다루면서도 실제 내용은 15세기 중반까지만 주로 기술하였다. 또한 여진을 둘러싸고 벌어진 명과 조선의 다양한 개입과 회유 및 군사작전 등을 설명하는 데 치중한 나머지, 그래서 명의 여진정책이 조선정책과 어떻게 연동되었으며, 각 정책의 골자는 무엇이며, 정세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해갔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거의 없다. 그렇다 보니, 정작 이 절의 제목인 ‘삼각관계’의 실체와 그 속성이 무엇인지조차도 제대로 드러내는 데 실패하였다.

Other Issues in Ming-Korean Relations

The Granting of Investiture: 명-조선 관계에 영향을 끼친 여타 외교 사안으로 저자는 먼저 조선 국왕의 책봉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에 따르면, 홍무제 이후로도 명은 새로 즉위한 조선 국왕의 책봉을 두 차례 거부한 적이 있었다. 바로 세조(r. 1455~1468)와 중종(r. 1506~1544)의 사례이다. 처음에 한두 번 거절하다가도 이내 책봉을 승인하기는 했지만, 이 둘의 공통점은 현왕이 살아 있는데도 비상적 방법으로 새 왕이 즉위한 점이다. 이 사례를 들어 저자는 황제의 책봉이 조선에서 국왕의 정통성에 매우 중요한 필수요소

였으며, 명은 이 책봉을 통해 조선에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설명하였다.

이런 기술은 국내 학계에서 조공과 책봉을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폄하하는 경향과는 사뭇 다르다. 명의 책봉 거절은 임진왜란 중에 많이 발생했는데, 국내 학계에서는 이를 대체로 전쟁이라는 비상시국에 발생한 점을 들어 예외로 치부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조공·책봉 관계가 그저 형식에 불과한 관계가 아니라면, 다른 말로 실제로 작동하던 황제-제후 곧 군신관계라면 제후(왕)에 대한 황제의 임면권 행사는 원론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하다.⁷⁾ 따라서 책봉 거부 사례를 통해 추출할 수 있는 명-조선 관계의 본질을 좀 더 분석적으로 살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다.

아울러, 저자는 책봉 거부 사례로 세조와 중종 두 개만 들었지만, 사례는 더 있다. 명은 광해군의 세자 책봉 주정은 모두 다섯 차례나 거부했으며, 광해군이 즉위한 후에도 한 번 더 거절하고 특별 조사관까지 파견하고 나서 승인하였다.⁸⁾ 역시 정변을 통해 즉위한 인조의 책봉도 중종 때처럼 난항을 겪었고, 책봉을 받기까지는 2년이나 걸렸다.⁹⁾ 집필 당시 저자가 이런 사례들까지 인지했는지는 발표자가 알 수 없으나, 분명히 알고 내용을 기술했다면 그 의미를 어떻게 풀이했는지 궁금하다.

Items of the Tribute List: 이 소절에서는 조선이 감당하기 힘든 조공 품목의 감면이나 폐지를 북경에 청원한 내용을 간략하게 다루었다. 대표적인 것으로 금을 꼽았으며, 은이나 고급 종이 등도 거론하였다. 하지만 청원은 별 효과를 보지 못했다. 고려 우왕 때(1383)에는 은 대신이 말을 바치기도 했으나 한때의 예외였을 뿐이다. 조선 태종~세종 때(15세기 전반)는 가가호호 금은 귀중품을 각출하거나 불교사원의 불상을 녹여 금을 충당하기도 하였다. 그래도 부족하면 일본에서 수입하였다. 마침내 1429년 명은 조선의 조공 품목에서 금과 은을 삭제하고, 그 대신 이전보다 많은 양의 인삼 등을 바치도록 하였다.

다만 금은과 같이 한반도에서 많이 나오지 않는 고가품이 조공 품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원이 고려를 복속한 이후의 일이다. 명은 몽골을 중원에서 몰아내고 몽골의 유풍을 없앤다고 천명하였지만, 실제로는 원의 유제를 상당 부분 그대로 답습하였다.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적지 않게 벗어난 몽골 때의 사례 때문에 명과 조선 사이에서 조공 품목과 액수를 놓고 꽤 장기간에 걸쳐 교섭이 진행되었고, 끝내 금과 은을 폐지함으로써 조공 관계가 '정상적으로' 돌아온 점을 간략하게라도 적시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Human Tributes: 주요 조공 품목으로 저자는 '人身'을 들고 꽤 길게 설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런 관례는 元代에 시작하였다. 소년을 차출하여 환관으로 삼는 관례를 짧

7) 계승범, 「임진왜란 중 조명관계의 실상과 조공책봉관계의 본질」, 『한국사학사학보』 26, 2012.

8) 계승범, 「세자 광해군: 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

9) 한명기, 「조중관계의 관점에서 본 인조반정의 역사적 의미: 명의 조선에 대한 '擬制의 지배력'과 관련하여」, 『남명학』 16, 2011.

게 소개한 후 자는 貢女 설명으로 이 소절을 거의 채웠다. 특히 공녀는 북경에서 어떤 일을 맡는가에 따라 출세도 가능했음을 원의 기항후 사례를 들어 설명하였다. 또한 흥무제의 후궁이 된 한씨, 영락제를 낳았다는 소문이 있는 다른 후궁 궁씨의 예를 들었다. 이런 사례가 초기 명-조선 관계에 긍정적이기는 했어도, 유교적 원리에 어긋난다는 불만 또한 조선에 팽배하였다. 공녀의 목적은 이후 기생이나 하녀 등으로 다양화하였고, 이에 따라 공녀의 출신 신분도 비양반층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마침내 1433년 사람을 조공으로 데려가는 일은 공식적으로 폐지되었다. 이런 조치에 따라 이미 명에 끌려가 있던 공녀 53명을 조선으로 돌려보내기도 하였다.

여기서도 공녀와 같은 ‘인신 조공’이 몽골의 영향 때문임을 분석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았다. 단지 이런 관행이 원대에 시작했음만 아주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다. 그렇다 보니, 15세기 전반에 이르러 금은 및 공녀를 조공 품목에서 왜 갑자기 삭제하였는지, 그 폐지를 위해 조선이 명에게 호소한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 요컨대, 공녀의 사례만 소개했을 뿐, 이런 조공 관행을 통해 명-조선 관계의 특징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분석은 부재하다.

Ming-Korean Relations during Hideyoshi Invasions

이節은 모두 6쪽이 넘는 분량인데, 전체의 23% 곧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명-조선 관계의 전개에 있어서 그만큼 임진왜란의 중요성을 인정한 셈이다. 하지만 기술 내용은 별로 그렇지 않다. 이 절의 내용을 짧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서두에서는 3포 개항을 비롯하여 전쟁 이전 조선과 일본의 관계를 약술하였다. 다음에는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과 조선에 대한 압력, 통신사 파견, 조선의 일본 요구 거절, 전쟁 발발 과정 등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이후로는 전쟁의 추이로 거의 모든 지면을 채웠는데, 지극히 일반적인 내용이다. 전쟁 초기 연이은 패배, 선조의 몽진, 고니시 유키나가의 평양 점령, 해전에서 이순신의 활약, 선조의 요동 망명 시도, 전쟁 초기 명의 조선 의심과 脣亡齒寒 차원의 참전 결정, 요동에서 들어온 祖承訓 부대의 실패, 시간을 벌기 위해 명이 파견한 沈惟敬 및 한시적 휴전, 李如松 군단의 참전과 평양성 탈환, 벽제관 패배, 한양을 포기한 일본군의 남해안 결집, 소강상태에서 명과 일본 사이에 벌어진 강화협상, 오해와 거짓으로 인한 협상 결렬, 정유재란 발발, 명-조선 연합군의 의견 충돌과 명의 작전지휘권 행사, 히데요시의 죽음과 일본군 철수 시작, 순천 앞바다의 마지막 전투 등을 순차적으로 기술하였다. 이 사이에 저자의 분석이라면, 전쟁 초기에 조선이 일방적으로 밀린 이유에 대한 설명인데, 분석이라 보기에선 지나치게 피상적이지 단편적이다. 고작 당쟁과 申砮의 작전실패 둘만 꼽았기 때문이다.

마지막에는 전쟁의 여파를 세 문단에 걸쳐 기술하였다. 오랜 참전으로 인한 명의 재정 악화와 국력의 쇠퇴, 누르하치의 성장, 조선의 정치력 혼란과 再造之恩 인식의 확산에 따른 호란의 초래, 조선의 상당한 물질적 피해, 주자학의 일본 전파 등이 주요 내용이다. 저자는 전쟁으로 혜택을 본 대표적 인물로 누르하치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꼽

는 것으로 마무리하였다.

이런 내용은 지극히 개설적이라 비평할 대상도 아니다. 그래도 먼저 사실의 오류를 지적해보자. 저자는 전쟁 초기에 선조가 광해군을 세자로 책봉하면서 그로 하여금 함경도를 방어하는 임무를 부여했다고 적었으나(294쪽) 이는 오류이다. 광해군은 分朝를 맡아 본인의 조정을 이끌며 전국의 의병을 독려하였다. 후에는 명 황제의 특명으로 撫軍司를 맡아 사실상 야전군 총사령관 역할을 담당하였다.¹⁰⁾ 또한 저자는 전쟁이 소강상태로 접어들고 나서 의병(militia)이 활약한 것처럼 기술하였으나(296쪽) 역시 오류이다. 의병의 실제 활약은 개전 초기 약 10개월 정도의 기간뿐이며, 평양성을 수복하여 전황이 호전되면서부터는 거의 모든 의병을 관군에 편입한 탓에, 독자적으로 움직이는 의병은 사실상 없었다.

토론의 여지가 있는 기술 내용도 있다. 참전을 계기로 명이 쇠락의 길로 들어섰는지에 대해서는 학계에 이론이 있다.¹¹⁾ 시시비비를 가릴 능력이 발표자에게는 충분하지 않으나, 참전 때문에 재정이 고갈되고 명이 쇠퇴했다는 전통적 가설은 재고의 가치가 있다고 본다. 마찬가지로, 과연 전쟁 '덕분에' 누르하치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도 재고할 필요가 있다. 전쟁 기간 7년 동안 누르하치가 海西女眞에 대해 어떤 선제공격도 삼간 채, 즉 군사적전을 중지한 채 전쟁의 추이를 조용히 지켜본 사실 및 오히려 명과 조선에 두 차례나 참전 의사를 타진한 점은 조선에서 벌어진 큰 전쟁이 누르하치에게 단순히 팽창의 호기가 아니었음을 잘 보여준다. 건주여진의 코앞인 요동을 통해 明軍이 계속 이동하고 명-조선-일본 군대가 도합 30만 가까이 압록강 남쪽 한반도에 집결한 상황은 이제 갓 건주여진을 통합한 누르하치에게는 상당한 위협 요인이었다면 모를까 호기는 아니었다.¹²⁾

그런데 이 절의 결정적 문제는 임진왜란을 계기로 명-조선 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접어들었으며, 협상 테이블에 조선은 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그것이 명대 통시적 한중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전쟁 전후의 한중관계에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 의미는 무엇인지 등에 대한 분석적 설명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명의 참전과 전쟁 중에 발생한 숭한 상호간의 경험은 명-조선 관계의 본질과 관련하여 다양한 모습을 제공하는 천혜의 보고와도 같은데, 정작 여러 사건의 경과를 피상적으로 나열하는 기술로 그친 점은 아쉽다 못해 큰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Korea and the Fall of the Ming

마지막에 약 한 쪽을 할애하여 에필로그에 가까운 마무리 문단을 제공하였으나, 광해군의 외교 노선, 인조반정, 명의 몰락 등을 아주 간략하게 터치하듯이 기술했을 뿐이

10) 계승범, 「세자 광해군: 용상을 향한 멀고도 험한 길」, 『한국인물사연구』 20, 2013.

11) Kenneth M. Swope, *A Dragon's Head and a Serpent's Tail: Ming China and the First Great East Asian War, 1592-1598*, (Norman: University of Oklahoma Press, 2009).

12) 계승범, 「임진왜란과 누르하치」, 『임진왜란: 동아시아 삼국전쟁』 (휴머니스트, 2007). 참고로 이 책은 일본어로도 번역되었다. 『壬辰戰爭 16世紀 日·朝·中の國際戰爭』 (東京: , 2008).

다. 이 또한 전쟁 이후 17세기 전반의 상황을 조선에 중점을 두어 건드린 정도일 뿐, 이른바 명-청 교체기에 들어선 이 시기에 명-조선의 관계가 어떤 국면으로 나아갔으며, 후금(청)이 어떤 주요 상수로 등장하여 진정한 의미의 ‘삼각관계’를 형성하였는지 등에 대한 정치한 설명이 거의 없어서 몹시 허전하다.

4. 나가며

명대 한중관계와 관련하여 학계에서 관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주제를 세 개만 간략하게 제시하는 것으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본문에서 언급하기는 했는데, 명대 조선은 屬國이나 藩國 내지는 제후국으로 상호 인정하였다. 이런 표현은 실록에도 꽤 나온다. 그렇다면 이런 용어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심하게 말하자면, 조선은 과연 autonomy는 그래도 확실하게 챙겼는가에 대해서도 반증 사례가 워낙 많다.

둘째, 명-조선 관계의 본질이 무엇이었기에, 명-청 교체의 격변기를 맞아 조선은 (군주를 쫓아내면서까지) 철저한 崇明排淸 노선을 끝까지 견지하였을까? 책봉국(황제국)을 도합 여덟 차례나 바꾸고도(후당-후진-후한-후주-송-요-금-원-명) 이념적·윤리적 부담을 거의 느끼지 않은 고려시대 선배들과는 달리, 17세기 전반 조선의 후배들은 명-청 교체를 왜 天命이 바뀐 것으로 ‘cool하게’ 수용하지 못했을까? 이는 명-조선 관계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고찰해야 할 주제로, 한국사 분야에서는 일부 학설이 나온 바 있다. 再造之恩을 강조한다거나,¹³⁾ 禮教秩序에 주목한다거나,¹⁴⁾ 관계의 본질이 부자관계 곧 君父-臣子 관계였기 때문이라는 설명¹⁵⁾ 등이 그것이다. 다만, 더 본격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관계사의 지평을 넓힐 필요가 있다. Clark이 쓴 5장의 내용도 그렇고, 현재 국내 학계도 거의 천편일률적으로 국가 대 국가 또는 정부 대 정부라는 지극히 정치적 맥락에서만 관계사를 연구하는 경향이 압도적이다. 하지만 관계에는 사유체계(사상)의 전파와 수용, 경제적 교환, 문물의 이동, 인적 자원의 이동, 상호인식 등등 非정치적 요소도 허다하다. 한 예로, Clark의 글을 읽으면, 조선이 명에게 거의 모든 면에서 자발적으로 의존적이고 사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16세기에 명에서 발생한 양명학을 조선에서는 이단으로 몰아 단호하게 배격하였다. 중화라면 사족을 못 쓰던 조선의 지배엘리트들은 왜 ‘made in China’인 양명학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렸을까? 이런 점까지 두로 살펴야, 명-조선 관계의 본질에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13)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14) 허태구, 『병자호란과 예, 그리고 중화』 (소명출판, 2019).

15) 계승범, 「삼전도항복과 조선의 국가정체성 문제」, 『조선시대사학보』 91, 2019.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9, Part One: The Ch'ing Empire to 1800, edited by Willard J. Peters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김선민(고려대학교)

1. 미국학계의 전통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말할 나위 없이 서양의 독자층을 위해 쓰여진 책이다. 1966년에 처음 기획된 이 시리즈는 웨이드-자일스(Wade-Giles) 방식에 따라 중국어 발음을 표기한다.¹⁾ 2002년에 출판된 9권의 제1부 『1800년까지의 청제국』(이하 『청제국』) 역시 Peking이나 Canton처럼 이미 “익숙해진” 몇 개의 지명을 제외하고, 중국인 독자뿐 아니라 오늘날 미국인 독자들에게도 낯설어진 오래된 로마자 표기법을 고수하고 있다.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가 오늘날 중국학계에서 널리 통용되는 한어병음 표기법이 아니라 웨이드-자일스 표기법을 사용하는 이유는 미국학계의 중국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겠다는 이 책의 목표와 연관지어 추측할 수 있다. 총괄 편집자인 페어뱅크와 트위체트는 캠브리지 중국사의 기획 의도가 책이 서술된 시점까지 중국사 연구에 축적된 성과를 망라하여 “역사를 읽는 서양의 독자층에게 중국사 해석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임”을 밝힌 바 있다(p. xviii). 미국학계의 중국사 연구가 오랫동안 중국과 일본 및 유럽학계의 연구 성과에 크게 의존해왔음을 고려할 때, 『청제국』의 저자가 한 명을 제외하고 모두 미국인이라는 점은 주목할만하다. 그들이 사용하는 중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처럼, 『청제국』 역시 미국학계의 전통 속에서 “서양의 독자층”을 위해 쓰여진 책이라고 할 수 있다.

청사를 다루는 9권의 제1부와 제2부는 모두 윌라드 페터슨(Willard J. Peterson)이 책임편집자를 맡았는데, 그는 1970년에 하바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 동아시아학과에서 재직한 사상사 전공자이다. 2002년에 출판된 『청제국』의 서문에서 페터슨은 “구질서”와 “신질서”의 구도로 청사를 설명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말할 나위없이 그의 스승인 페어뱅크를 의식한 것이다.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가운데 가장 먼저 1978년에 출판된 10권 『청대 후기, 1800-1911』에서 페어뱅크는 19세기의 청대사란 서구세계와의 충돌로 인해 구질서가 끝난 시기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2002년에 이르러

1) 웨이드-자일스 표기법은 영국 외교관이자 중국어 교수였던 토마스 웨이드(Thomas Francis Wade)가 1867년에 처음 발표했고 이후 1892년에 또 다른 영국 외교관인 허버트 자일스(Herbert Allen Giles)와 그의 아들이 완성했다. 한어병음법은 1958년에 중국의 언어학자 周有光이 고안한 방식으로, 1982년에 국제표준화기구(ISO)에 등록되었다. 대만은 오랫동안 웨이드-자일스 표기법을 사용하다가 2008년에 공식적으로 한어병음법으로 전환했다.

패터슨이 지적하듯이, 페어뱅크의 이와 같은 시기 구분은 19세기 이전의 청사를 설명하기 곤란하게 만들어버린다. 만약 19세기까지의 청사가 구질서였다면, 18세기까지의 청사는 상대적으로 젊은 구질서라고 보아야 하는가? 페어뱅크가 말하는 중국의 구질서가 1636년 청이 건국되기 이전부터 이미 만들어진 것이라면, 청이 무너뜨린 명의 역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명은 “전통적인 중화문명”이 아직 쇠퇴하지 않은, 성숙된 상태를 가리키는가? 그렇다면 1644년부터 1800년까지의 청사란 16세기의 성숙한 중화 문명이 19세기에 이르러 쇠퇴할 때까지의 오랜 과도기였다고 보아야 하는가?(3쪽) 결국 페어뱅크의 20세기적 문제의식으로는 1800년까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던 청제국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패터슨은 스승이 만든 구질서-신질서의 구분법을 완전히 폐기하지는 않지만, 대신 1) 16세기에서 18세기, 2) 19세기 이전, 3) 19세기 이후의 세 시기로 청사를 구분하고 각 시기의 연속성과 단절성에 주목할 것을 제의한다. 패터슨은 먼저 제도의 측면에서 연속성을 설명한다. 중앙집권적인 관료제도, 황실의 부계상속, 유가사상에 기반한 과거제도, 인구증가, 경제성장이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청의 “구질서”를 유지시킨 토대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청은 만주족이 세운 이민족 국가라는 점에서 명과 달랐다. 패터슨에 따르면 만주족의 청에 대해서는 이들이 진정한 중국인이 아닌 이방인으로 존재했다는 관점과 중국식 제도를 받아들여 한화되었다는 관점이 서로 대립하지만, “정치적이지 않은 역사적인 해석”에 따르면 청대 만주족은 이방인이자 동시에 한화된 존재였다(6쪽). 그는 명과 청의 차이점을 크게 두 가지로 지적한다. 첫째, 청의 황제들은 정규 관료체제와 별도로 만주와 몽골 귀족, 그리고 황실 소속 보오이에게 특별한 임무를 부여했다. 둘째, 청은 명대보다 중국의 영토를 두 배 이상 확대시켰는데, 새로 복속시킨 만주·몽고·신강·티베트에는 비한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한인 관료를 파견하지 않았다. 더 많은 다양한 신민들을 통치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청은 명과 분명히 달랐다는 것이다.

패터슨과 『청제국』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청대 만주족 황실이 비한인의 이질성과 한인으로서의 동화(sinified) 두 측면을 동시에 지녔다고 평가한다. 청황실의 군사적 특징은 그들이 이룬 정복과 팽창에서 분명히 보이지만 청의 성공은 한인을 중심으로 하는 관료제와의 공존과 협력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강조하는 것이다. 『청제국』의 저자들 가운데 특히 알렉산더 우드사이드(Alexander Woodside)는 청사를 만주족으로 대표되는 군사 세계와 한인을 중심으로 하는 상업 세계의 결합과 공존의 역사로 설명한다. 다른 저자들 역시 청이 외래왕조라는 점은 분명히 의식하지만, 그들의 관심은 대부분 한인의 사회·경제·문화적 활동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적어도 2002년 미국학계가 이해하는 『청제국』의 중심은 만주족 황실이 아니라 한인의 세계였다.

2. 『청제국』의 내용

『청제국』은 총 10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앞의 5장은 각각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순치제,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 시기를 연대기적으로 서술하고, 뒤의 5장은 각각 기인, 지식인, 여성, 사회, 경제를 주제로 청사를 분석한다. 앞부분의 연대기 서술에서 저자들은 청의 지배층이 만주족이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면서도, 이들의 주된 관심은 청황실이 한인 사회를 어떻게 지배하려 했고 한인들이 만주족의 통치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뒷부분의 주제별 분석에서는 한인 세계에 대한 편향이 더욱 분명해진다. 만주족의 흥기를 다룬 1장과 팔기제와 기인을 분석한 6장을 제외하고, 청이 통치한 다양한 비한인 집단과 그들이 거주하는 변경지역에 대한 관심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청제국』의 구성과 내용은 이처럼 중국 내지와 한인의 활동에 집중되어 있다.

1장 「1644년 이전의 국가 건설」을 집필한 거트로드 로쓰 리(Gertraude Roth Li)는 1975년에 하버드 대학에서 청 초기 만문사료를 분석하여 박사학위를 취득했고 2000년에는 만문자료 독법을 위한 교재를 출판하기도 했다.²⁾ 로쓰 리에 따르면 청제국의 성공은 “동북지역에서 여진이 200년에 걸쳐 조선·몽고·한인과 맺은 복합적인 관계에서 비롯되었다”(9쪽). 이러한 관점에 따라 로쓰 리는 입관 전 여진의 역사를 명대 여진·누르하치·홍타이지 시기로 나누고, 다시 각 시기에 대명·대조선·대몽고 관계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한다. 또한 누르하치가 만주국가를 건설하고 요동을 정벌하는 과정, 홍타이지가 몽고를 복속시키고 명에 맞서 제국을 건설하는 과정을 정치·경제·사회의 측면에서 분석한다. 로쓰 리에 따르면 누르하치는 처음에는 경제적 부와 지역적 권력을 얻고자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제국 건설을 목표로 팔기를 창설하고 여진 뿐 아니라 한인과 몽골까지 포괄할 수 있는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홍타이지는 누르하치가 세운 기반 위에 명의 중국식 제도를 도입하여 청제국을 위한 개념적·제도적 기반을 만든 것으로 평가된다.

2장 「순치시기」의 저자 제리 데너라인(Jerry Dennerline)은 1973년 예일대학에서 만주족의 강남 정복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³⁾ 오랫동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청 초기 만주족과 한인의 관계를 탐색해온 연구자답게 데너라인은 순치시기의 역사도 만주족 황실과 한인 관료의 갈등을 중심으로 설명한다. 그는 누르하치부터 순치제에 이르는 청 황실의 가계를 표로 만들어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했다.⁴⁾ 데너라인에 따르면 입관 직후

2) 로쓰 리의 박사논문은 “The rise of the early Manchu state: a portrait drawn from Manchu source to 1636),” 만문자료 독법 교재는 *Manchu: A Textbook for Reading Documents*, National Foreign Language Resource Center, 2000.

3) 데너라인의 박사논문 제목은 “The Mandarins and the Massacre of Chia-ting: An Analysis of the Local Heritage and the Resistance to the Manchu Invasion in 1645”이다. 이후 그는 *The Chia-ting Loyalists: Confucian Leadership and Social Change in Seventeenth-Century China* (Yale University Press, 1981), *Qian Mu and the World of Seven Mansions* (Yale University Press, 1989)를 출판했다.

4) 그러나 데너라인은 홍타이지를 “아바하이”로 부르는 잘못 불러서 혼란을 가져왔다. 흥미롭게도 1장

만주족 황실이 여러 가지 위기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지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젊은 만주 귀족들과 요동에서부터 만주족과 함께 한 소수의 지식인들” 덕분이였다. 만주족 황실은 중국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팔기제도, 공동 의결체제, 공개적인 토론, 반역자에 대한 가혹한 처벌, 신속한 군사 배치 등 누르하치가 남긴 유산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 동시에 지식인 활용, 팔기의 중앙집권적 통제, 한인 관료 임용 등 홍타이지가 수립한 국가 건설의 원칙도 만주족의 성공적인 중국 정복에 중요한 원인이었다. 데너라인은 청의 중국 지배가 만주족의 특징과 한인의 협력이 조화를 이루어 만들어낸 결과였다고 말하지만, 그의 서술은 순치제 등극과 도르곤 섭정을 둘러싼 갈등, 한인 관료들의 파벌 정치, 강남 지식인들에 대한 순치제의 “文治” 등에 집중되어 있고, 정치 외에 다른 분야에 대한 언급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3장 「강희시기」는 강희제에 관해 이미 두 권의 책을 출판한 조나단 스펜스(Jonahan Spence)가 썼다. 그는 1965년 예일대학에서 강희제와 황실 보오이 조인의 관계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이듬해 이를 책으로 출판했으며, 1974년에는 강희제를 1인칭 화자로 한 전기를 썼다.⁵⁾ 「강희시기」에서 스펜스는 강희제의 치세를 연대기 순서로 정리한 다음, 강희제의 즉위와 친정, 중국 내지 정복, 제국의 변경 확장, 궁정의 파벌투쟁, 주요 경제 정책, 그리고 강희년간의 문화에 대해 각각 항목을 나누어 설명한다. 황제가 섭정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친정을 하기까지의 과정이나 황태자 폐위를 둘러싼 갈등은 만주 귀족들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러시아와의 국경 문제나 준가르 몽골과의 갈등 등 제국의 건설과 관련하여 「강희시기」의 강희제에게 만주족 황제로서의 특징은 별로 보이지는 않는다. 오히려 스펜스가 묘사하는 강희제는 황제의 권위를 유지하고 제국을 통일시키고자 했던 전형적인 중국 천자의 모습에 가깝다. 스펜스의 말대로 강희제는 “중국의 가장 위대한 통치자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의 치세는 중화제국의 역사에서 가장 활기차고 복잡한 시기”였다(120쪽).

4장 「옹정시기」의 저자 매델레인 젤린(Madeleine Zelin)은 1979년 버클리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옹정년간의 세제 개혁과 養廉銀을 주제로 책을 출판했다.⁶⁾ 「옹정시기」는 먼저 옹정제의 즉위를 둘러싼 논쟁과 갈등을 소개한 후, 황제와 관료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한다. 젤린에 따르면 옹정제는 자신의 황위계승과 만주족 지배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중국의 전통적인 화이론을 반박하기 위해 「대의각미록」을 출판했다고 여겨지지만, 사실 옹정제의 통치철학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자료는 「붕당론」이

에서 로쓰 리는 홍타이지가 아바하이로 잘못 알려지게 된 것은 지오바니 스타리(Giovanni Starry)의 논문과 아더 훔멜(Arthur W. Hummel)의 『청대인물열전(Eminent Chinese of the Ch'ing Period)』에서 비롯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9쪽 각주 3번).

5) 스펜스가 쓴 강희제에 대한 두 권의 책은 각각 *Ts'ao Yin and the K'ang-hsi Emperor: Bondservant and Master* (Yale University Press, 1966), *Emperor of China: Self-Portrait of K'ang-hsi* (Alfred A. Knopf, 1974)

6) *The Magistrate's Tael: Rationalizing Fiscal Reform in Eighteenth Century Ch'ing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4.

었다(193쪽). 명말의 사상가들은 자치적인 공동체에 기반한 탈중앙집권화를 주장했지만, 옹정제는 백성의 복지란 지역 엘리트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고, 국가는 강력한 권한을 가진 황제가 관료의 보좌를 받아서 운영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옹정년간에 발전한 주절제도, 관료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세제 개혁, 서남지역에서의 개토규류 정책 등은 모두 옹정제의 중앙집권적인 통치 철학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켈린의 평가에 따르면 옹정제의 정책은 “18세기에 강력하고 근대적인 국가기구를 건설하는 기반”을 마련했지만, 황제 개인에게 집중된 정치 제도로는 중국이 직면한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었다(228-229쪽).

6장 「청제국의 정복 엘리트」는 파멜라 크로스리(Pamela Crossley)가 썼다. 그는 1983년 예일 대학에서 만주족의 씨족(clan)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고 다트머스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청제국과 만주족에 대해 여러 권의 책을 출판했다.⁷⁾ 크로스리의 주된 관심은 팔기의 제도적인 측면이 아니라 팔기 구성원들의 정체성이 시기적으로 변화하는 양상 혹은 기인에 대한 황실의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팔기의 역사를 네 단계로 나누어 설명한다. 1582-1626년 누르하치가 금국을 건설하고 요동을 정복하던 시기, 1627-1643년 홍타이지가 제국을 건설하는 시기, 17세기 후반에 중국 내지와 몽고를 정복하는 시기,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에 서몽고·신강·티베트를 정복하는 시기에 기인의 역할과 제국 내에서의 위치는 계속 변화했다. 크로스리는 청제국의 팽창 과정에서 황실의 계획에 따라 만주팔기·몽고팔기·한군팔기의 정체성, 지위, 내적 구성, 정치적 역할이 끊임없이 재조정되었음을 강조한다. 저자의 관심이 청황실의 기인 정체성 만들기에 집중되어 있는 만큼, 주방팔기의 위치나 계층별 차이에 따른 기인들의 다양한 모습은 간과되어 있다. 무엇보다 기인 내부의 구분에 집중하느라 기인과 민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7장 「청초기와 중기 지식인의 사회적 역할」은 1980년에 펜실베이니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프린스턴 대학에서 가르치고 있는 벤자민 엘만이 썼다. 엘만은 청대 고증학, 과거제도, 과학사에 관해 여러 권의 저서를 출판했는데,⁸⁾ 여기에서도 그의 관심은 국가

7) 크로스리의 박사논문은 “‘Historical and Magic Unity:’ The Real and Ideal in Manchu Clan Identity”이다. 청사와 관련된 저서로는 *China's Global Empire: The Qing, 1636-1912*,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1년 출판 예정); *A Translucent Mirror: History and Identity in Qing Imperial Ideolog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9; *The Manchus*, Basil Blackwell, 2002 (한국어판: 파멜라 크로스리 지음, 양희웅 옮김, 『만주족의 역사』, 돌베개, 2013년); *Orphan Warriors: Three Manchu Generations and the End of the Qing World*,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등이 있다.

8) 명청시대 과거제와 지식인에 관한 엘만의 저작으로는 *From Philosophy To Philology*, Harvard University Press, 1984 (한국어판: 벤자민 엘먼 지음, 양희웅 옮김, 『성리학에서 고증학으로』, 예문서원, 2004년); *Classicism, Politics, and Kinship*,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0; *A Cultural History of Civil Examinations in Late Imperial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0; *On Their Own Terms: Science in China, 1550-1900*, Harvard University Press, 2005; *Civil examinations and meritocracy in late Imperial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2013 등이 있다.

가 주도하는 과거제가 청대 지식인, 특히 강남 신사계층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집중되어 있다. 그에 따르면 송대 이래 중국의 왕조는 통치자와 지식인 관료층의 협력으로 유지되었는데, 이는 비한족 왕조인 청대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청황제들은 한인 지식인들의 전통적인 가치관과 이념을 민간 통치의 규범으로 만들었다”(360쪽)고 해석하는 점에서 엘만은 명-청의 차별성보다는 한인의 세계를 매개로 이어지는 명-청의 연속성을 강조한다. 명대부터 이어져 온 청대 지식인의 사회적 관습과 도덕적 가치는 학교제도와 과거제도를 통해 재생산되었다는 것이다. 청초 과거시험에서 만주와 한인의 조화에 대한 질문이 등장했다는 것, 건륭제가 만주와 몽고에게는 한문 고전을, 한림원의 한인들에게는 만주어를 학습하게 했다는 것, 棚民·回民·苗族에게 과거를 통해 교화를 시도했다는 것 등 비한인과 관련된 내용이 간간히 소개되지만(389-392쪽), 엘만에게 청제국의 중심은 말할 나위없이 한인의 세계였다.

8장 「여성, 가족, 젠더 관계」의 저자 수잔 만(Susan Mann)은 1972년 스탠포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에서 가르쳤다. 그는 명청시대 상인과 관료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출발하여 이후 여성사로 연구 영역을 확대해갔다.⁹⁾ 이 장에서 수잔 만은 청의 중국 정복이 여성과 젠더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명청시대에 여성과 가족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청은 중국을 정복한 후 한인 남성에게는 변발을 강요한 반면 한인 여성들의 전족은 금지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한인들이 공적 영역에서는 청을 수용한 반면 사적 영역에서는 거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자, 남성과 달리 여성은 공적 영역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굳이 전족을 강제적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었음을 뜻하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나 수잔 만의 주된 관심은 인구 증가와 상업의 발달이 여성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18세기 중국의 인구증가는 여성의 신체에 대한 의학지식의 확산, 상업 발달에 따른 여아 살해의 감소 등 여성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상품 교역의 확대와 노동 시장의 발달로 인해 남성의 외지 체류가 증가하자 오히려 여성의 도덕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한편 직물 산업의 발달로 여성 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어났는데, 엘리트가 아닌 일반 가정의 여성에게까지 전족이 확대되는 것은 바로 여성의 가내 노동이 증가한 것과도 관련이 있었다(461쪽). 청대 여성에게 지배적인 요소는 만주족의 통치가 아니라 한인 세계를 중심으로 하는 상업경제였던 것이다.

9장 「사회의 안정과 변화」를 집필한 윌리엄 로우(William T. Rowe)는 콜럼비아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청대 사회경제사 분야에서 여러 저서를 발표해왔다. 그는 특히 유럽사 연구에서 사용되는 ‘근대 초기(early modern)’ 및 ‘시민사회(civil society)’라는 개념을 중국사에 적용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¹⁰⁾ 「사회의 안정과 변화」에서도 로

9) 수잔 만의 저서는 *Local Merchants and the Chinese Bureaucracy: 1750-1950*,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recious Records: Women in China's Long Eighteenth Century*,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7; *The Talented Women of the Zhang Famil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우는 청대 사회에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를 근대 초기의 특징으로 설명한다. 여기에는 급격한 인구증가, 영토의 팽창, 다민족 사회로의 변화, 새로운 지역으로의 이주나 천민 계급의 해방과 같은 전례없는 사회적 유동성, 급속한 상업화, 도시 문화의 발달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한편 로우는 복건과 광동에 거주하는 蠻民·客家·賤民 등을 민족(ethnicity)의 범주로 설명하는데, 이를 통해 그가 주목하는 것은 만주족과 한인의 관계가 아니라 청대에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다양한 계층간의 갈등이었다. 로우는 청대 중국사회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청대 중엽까지 중국은 유가사상을 완고하게 고집했으며, 청제국의 기본적인 구조와 규모는 명대와 거의 똑같았고, 근본적인 기술적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계중심의 戶가 사회질서와 경계생산의 중심적인 기본 단위였다.” 그러나 이러한 특징이 중국사회의 “정체(stagnation)”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사회적 갈등이 공적인 국가기구가 아니라 국가와 사회 사이의 공공영역(public sphere)에 의해 관리되었다는 점에서 로우는 청대에 새로운 변화가 나타났다고 평가한다(561-562쪽).

10장 「1644-1800년의 경제성장」은 레이몬 마이어(Ramon H. Myers)와 왕예치엔(Yeh-chien Wang, 王業鍵)이 공동으로 썼다. 레이몬 마이어는 워싱턴 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스탠포드 대학에서 가르쳤는데, 그는 『청제국』 외에도 1986년에 출판된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13권 2부 『1912-1949년 중화민국』에도 참여하여 5장 「농업체제」를 썼다.¹¹⁾ 한편 왕예치엔은 1969년 하버드 대학에서 중국 경제사로 박사학위를 받고 미국의 켄트 주립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후 대만 중앙연구원으로 자리를 옮겼다.¹²⁾ 마이어와 왕은 “통제경제(command economy),” “관습경제(customary economy),” “시장경제(market economy)”의 세 가지 개념을 이용하여 청대 중국 경제를 분석한다. 청대 통제경제는 세금 징수, 소금과 구리 전매, 광동 무역 등 국가의 주요 경제활동을 가리키는데, 이것은 관습경제 혹은 민간 상인의 협조를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여겨진다. 두 저자에 따르면 청대 국가와 상인, 지역의 관리와 엘리트들은 중국의 문화적 전통으로 여겨지는 상호 보증·人情·가족주의·유가 이념을 바탕으로 연결되었는데(577-578쪽), 청대 중국의 통제경제와 관습경제를 매개한 것은 다름 아닌 고도로 발달한 시장경제였다. 한인 세계를 중심으로 경제를 분석하는 만큼, 두 저자는 명의 멸망과 청의 중국 정복을 전형적인 중국왕조의 교체로 이해한다. 치수사업의 문제, 부재지주의 증가, 노예노동의 확대, 요역의 과중함 등 여러 요인이 결합한 결과 명 말에 농민반란이 일어났고 청군이 입관함으로써 명이 붕괴했다는 것이다(564쪽). 청대 시장경제는 명대와 마찬가지로

10) *Hankow: Commerce and Society in a Chinese City, 1796-1889*,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4; *Hankow: Conflict and Community in a Chinese City, 1796-189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9.

11) “The agrarian system,” i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edited by John K. Fairbank and Albert Feuerwerker. 그 외에 중국 경제사와 관련된 마이어의 저서는 *The Chinese Peasant Economy*,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The Chinese Economy, Past and Present*, Wadsworth Press, 1978.

12) 왕예치엔의 저서는 *Land Taxation in Imperial China, 1750-1911*, Harvard University Press, 1973; 『中國近代貨幣與銀行의演進, 1644-1937』, 中央研究院經濟研究所, 1981年.

가지로 시장경제·통제경제·관습경제가 서로 의존하여 발전했지만, 청대 중국은 아메리카 은의 유입, 동전 공급의 증가, 지폐 사용 덕분에 화폐 부족에 시달리지 않았고 비료와 농업기술의 향상으로 토지의 생산성도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명대 중국과 달랐다. 그러나 두 저자는 청대 중국의 시장경제가 관습경제를 대체하지 않았고 대자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서구의 자본주의와 분명히 구분된다고 강조한다(645쪽).

3. 청대의 민족, 제국, 변경

『청제국』에 참여한 10명의 미국 학자들 가운데 청이 지닌 제국적 특징에 가장 주목한 것은 5장 「건륭년간」의 저자 알렉산더 우드사이드이다. 그는 1968년 하바드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캐나다 UBC 대학에서 가르쳐온 중국과 동남아시아사 전공자이다.¹³⁾ 우드사이드에 따르면 건륭제의 치세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1750년 준가르를 정복함으로써 오늘날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 뿐만 아니라 몽골공화국과 카자흐스탄의 일리 계곡, 그리고 시베리아의 일부까지 모두 청의 영토로 만들었다는 사실이다. 내륙아시아가 청의 판도에 들어온 것은 이전 왕조를 괴롭히던 군사 보급 문제가 해결되면서 청의 군사들이 서북의 사막과 초원지대까지 진출할 수 있게 된 결과였다. 건륭제의 두 번째 공적은 두 배로 증가한 인구를 부양했다는 점인데, 이것은 신대륙 작물로 인한 농업 생산의 증가와 오랜 정치적 안정이 가져온 결과였다. 우드사이드는 건륭제가 변경에서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동안 만주족 황실이 이끄는 군사 세계와 한인이 주도하는 상업 세계가 불가분의 관계를 맺게 되는 과정을 세밀하게 검토한다.

우드사이드는 건륭제의 치세를 천하 통치, 민족 문제, 계급 문제, 제국주의라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분석한다. 그에 따르면 건륭제는 만주족이기는 했지만 통치자로서는 한인 군주와 다름없었다(honorary Chinese state-builder, 235쪽). 건륭제는 2,000년 전 진시황제가 목표로 삼았던 통일제국을 완벽하게 건설하고 결과적으로 오늘날 다민족국가 중국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했다. 건륭제의 성취는 신강·티베트·서남지역을 영토적으로 평정했다는 사실 뿐 아니라 여러 민족에 대한 법령을 체계화하여 황제의 권위 아래 천하를 통일시킨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건륭제의 관심이 특정 민족이나 지역이 아니라 천하 통치에 있었다는 사실은 만주족 황제인 건륭제가 제국 내의 민족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드사이드에 따르면 다양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건륭제는 한화주의자가 아니었고, 그의 치세에 한인과 만주족의 집단적 정체성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 있었다. 그러나 건륭제가 한인의 문화를 매우 중시한 것 역시 분명한 사실이었다. 한인 세계는 중앙아시아 세계를 제국에 결속시키는 데

13) 우드사이드의 저서 *Lost Modernities: China, Vietnam, Korea, and the hazards of world histor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의 한국어판은 알렉산더 우드사이드 지음, 민병희 옮김, 『잃어버린 근대성들: 중국, 베트남, 한국 그리고 세계사의 위험성』, 너머북스, 2012년.

이념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었다(237-238쪽).

건륭제의 관심은 청제국의 안정이었지 만주족의 민족적 특권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이해하면 18세기 청의 역사를 새롭게 볼 수 있다. 만약 건륭제를 한인 군주나 만주족의 민족 수장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에게서 동시대의 유럽 군주와 같은 식민제국의 통치자(colonier ruler)의 모습을 찾을 수 있다. 우드사이드가 강조하듯이, 건륭제는 식민제국의 통치자였으며 그의 목표는 민족 문제를 초월한 것이었다. 식민제국의 통치자인 건륭제에게는 봉건주의와 중앙집권주의 두 가지 서로 다른 통치 방식이 있었다. 봉건주의 원칙은 제국의 다민족적·다언어적 요소를 위계적인 권력 구조로 통합하고 황제가 개인적으로 그 구조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황제는 휘하에 다수의 소군주들을 거느리고 정교한 절차를 만들어 이들을 서로 구분했다. 한편 중앙집권주의는 과거제와 관료제를 통한 문서행정으로 제국을 지배하는 방식이었다. 문서행정을 통해 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는 통역이 필수적이었는데, 한문에 기반한 과거제로는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소군주들의 영역을 다스릴 수가 없었다. 그 때문에 건륭제는 완전히 한화된 이념보다는 특정 민족과는 무관한 보편적인 가치를 강조하게 되었던 것이다(242-244쪽).

우드사이드는 청의 통치 전략에서 보이는 봉건주의와 중앙집권주의라는 두 가지 상반된 측면을 서남지역의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옹정제는 인간은 모두 도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와 문화가 다른 변경의 이민족이라 해도 제국의 신민은 모두 황실의 적자가 될 자격이 있다고 믿었다. 옹정제의 이러한 믿음은 중앙집권화 정책으로 발전했는데, 우드사이드는 이를 “다민족의 사회화”(multiethnic socialization)라고 명명한다(249쪽). 중앙집권화를 강조하는 옹정제에게 서남지역의 모호하고 불분명한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고 이 지역의 광산·소금·차 매매를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도 해결할 필요가 있었다. 서남지역의 개토귀류, 즉 토지를 장량하고 경계를 확정하고 현지의 비한인 토씨 대신 관료를 순환 임명하는 것은 중앙집권화를 추구하는 옹정제의 통치 방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서남지역의 정치적인 탈봉건화(political defederalization)는 지역 수장들이 동남아시아 왕실과 맺고 있던 중층적인 복속 관계를 위협했을 뿐 아니라 현지의 비한인들이 한인에게 토지를 빼앗기고 유랑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이 때문에 건륭제는 서남지역의 중앙집권화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변경의 비한인 소수민족에게는 고유의 특징이 있으며 이들을 내지의 한인들과 똑같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 소수민족을 황실의 赤子로 만들어 제국의 행정망으로 편입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옹정제와는 다른 시각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260쪽).

건륭제의 통치 전략을 분석하면서 우드사이드는 청의 제국 경영에서 한인 세계, 특히 이들의 상업이 결정적으로 중요했음을 강조한다. 건륭제의 청제국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실 민족이 아니라 경제였다. 염상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17세기 말에는 국가 전체 수입의 9%였으나 1753년에는 17%로 증가했다(240쪽). 1765-69년 버마와의 전쟁은 제국과 상업의 관계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신강 정복에 성공한 만주 군대가 버마와의 전쟁에서는 실패했다는 사실은 제국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제기했다: “청제국의 지리

적 사회적 범위는 어디인가?”(266쪽) 우드사이드에 따르면 건륭제 치하의 청제국은 정치·군사 제국과 상업 제국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정치·군사 제국의 경계는 예수회 선교사들이 제작한 지도에서 표현되는 곳으로, 여기에는 관료들을 배치하여 변경을 확실하게 구획할 필요가 있었다. 반면 상업 제국에서는 상인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경계가 유연하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유리했다. 신강에서는 정치군사 제국과 상업 제국이 충돌하지 않았지만 서남지역에서 청군의 활동이 버마와 베트남의 경계 지역에서 중국 상인의 활동을 위협하고 있었다. 한인의 상업을 방해하는 한 이곳에서 만주 군대의 전쟁은 성공할 수 없었다. 우드사이드는 신강과 서남지역의 정복전을 비교하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린다. “만주 군대가 건설한 제국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때 한인이 주도하는 상업 제국보다 오래가지 못했다”(266쪽). 비한인의 정치군사 제국과 한인의 상업 제국의 이해가 서로 균형을 이룰 때 비로소 청제국이 최대로 팽창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4. 『청제국』 이후의 연구 경향

19세기 말 서구의 충격을 기준으로 청사를 구분하는 페어뱅크의 관점이 19세기 이전의 청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청제국』의 책임편집자 패터슨은 구질서와 신질서라는 구도를 고수하고자 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미국학계의 많은 연구자들은 페어뱅크의 접근법을 비판하고 새로운 중국사 이해를 위해 다양한 주제를 연구하고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왔다. 『청제국』의 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윌리엄 로우는 2009년에 쓴 『하바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에서 1970년대 이후 미국학계의 중국사 연구에서 등장한 다양한 연구 방법과 관점을 소개한 바 있다.¹⁴⁾ 프랑스 아날학파의 사회사 연구로부터 영향을 받은 미국학계의 중국사 연구자들은 서구의 충격과 중국의 대응이라는 모델 대신 중국 내부의 변화와 발전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이를 통해 전통과 근대의 구분을 넘어 청사를 하나의 전체로 파악하고자 했다. 또한 탈식민주의 비평과 문화사 연구로부터 자극을 받은 연구자들은 종족·민족의 정체성에 주목하여 이른바 ‘신청사’ 연구를 발전시키게 되었다. 1990년대 말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미국학계의 신청사 연구는 청대 만주족이 완전히 한화된 것이 아니었으며 이들이 지닌 비한인 정체성이 청제국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미국학계의 신청사 연구는 그동안 한국학계에 여러 차례 소개되었으며, 중국학계에서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90년대 말부터 미국학계의 중국사 연구에서 보이는 특징과 이에 대한 중국학계의 부정적인 반응은 한국의 연구자들에게 신청사 연구 자체보다

14) William T. Rowe, *China's Last Empire: The Great Qing*, Harvard University Press, 2009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년), 「서론」.

더 많은 주목을 받았다. 2013년 중국학자 덩이주왕(定宜莊)과 미국학자 마크 엘리엇(Mark C. Elliott)는 미국의 신청사 연구와 중국학계의 반응을 상세히 소개한 바 있다.¹⁵⁾ 이들의 설명에 따르면 신청사의 등장은 중국의 당안관에 소장된 만문당안이 연구자들에게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한 것,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영미권 학계의 탈근대·탈식민 이론이 중국사 연구에서 탈중심적 담론을 확산시킨 것과 관련이 있었다. 신청사 연구가 기존 중국사 연구와 가장 크게 구별되는 특징은 한화론을 비판한다는 점에 있다. 청이 중국을 성공적으로 통치한 이유는 만주족이 한인의 문화에 동화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륙아시아의 여러 비한인 문화를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변강지역을 통치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미국학자들이 한화론을 반박한다는 사실은 중국학계에서 큰 논쟁을 일으켰다. 신청사의 여러 주장 가운데 중국학계를 가장 자극한 것은 청사를 중국의 한 왕조가 아닌 여러 다양한 민족의 역사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한인이 아닌 만주족을 청사의 주체로 강조하는 점, 한인 중심주의를 비판하는 점, 청의 역사를 중국 고유의 관점인 大一統이 아니라 제국의 군사적 팽창의 산물로 보는 점, 청과 현대 중국을 구분하여 이해하려는 점 등은 중국학계로 하여금 신청사가 단순한 역사 연구가 아닌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게 만들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의 결과 중국학계의 청사 연구에서도 제국·변경·민족문제가 활발하게 논의되기에 이르렀다.¹⁶⁾

그렇다면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신청사 연구를 둘러싼 국제적인 토론을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9권의 제2부 『1800년까지의 청왕조』(이하 『청왕조』)는 신청사 연구가 활발히 토론되고 있던 2016년에 출판되었다. 『청왕조』는 『청제국』과 마찬가지로 윌라드 패터슨이 책임편집을 맡았는데, 『청왕조』의 서문에서 패터슨은 신청사 연구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2002년의 서문에서 만주족이 이질적이면서도 한화되었다는 절충적인 해석을 내렸던 패터슨은 2016년의 서문에서는 오히려 청을 “제국”이 아니라 “왕조”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에 따르면 왕조란 특정 시기, 특정 통치 가문, 혹은 특정 정부의 통치 하에 있는 영토를 모두 가리킨다(2쪽). 반면 제국은 국민국가의 이상과 반대되는 팽창주의적 세력을 비판적으로 가리킬 때 사용되는 부정적이고 문제적인 용어이다(3-4쪽). 패터슨은 제국 대신 중국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大一統의 개념으로 청의 영토 확장, 이번원에 의한 외변 통치, 기인과 한인의 구도를 설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패터슨은 제국의 시각으로 청사를 바라보는 미국학계의 최근 연구 경향이 아니라, 중화왕조의 연속성과 한인 중심의 대일통사상을 강조해온 중국학계의 전통적인 시각을 대변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청왕조』의 서문에서 패터슨은 18세기 청이 수립한 질서를 신질서라고 명명함으

15) 定宜莊·[美] 歐立德(Mark C. Elliott), 「21世紀如何書寫中國歷史：“新清史”研究的影響與回應」, 彭衛主 編, 『歷史學評論』 第一卷 (北京: 社會科學文獻出版社, 2013), pp.116-146.

16) 중국학계의 제국·변경·민족 문제에 대한 논의는 거자오광 지음, 김효민·송정화·정유선·최수경 옮김, 『전통시기 중국의 안과 밖: ‘중국’과 ‘주변’ 개념의 재인식』, 소명출판, 2019년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로써 페어뱅크가 제창했던 19세기 이전의 구질서와 대비시키고자 시도한다. 그러나 2002년 『청제국』이 제시한 질문에 2016년 『청왕조』가 새로운 답을 했다거나, 패터슨의 문제의식이 그동안 미국학계의 연구 성과를 통해 심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무엇보다 중국사에 대한 패터슨의 시각은 페어뱅크가 반세기 전에 제창한 구질서-신질서의 틀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영미권 학계에서 축적된 중국사 연구를 집대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했지만, 『청왕조』의 책임편집자는 오히려 학계의 새로운 연구 경향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과거의 낡은 문제의식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 『청제국』의 한국사 인식

『청제국』에서 한국사가 언급되는 것은 만주족의 흥기 과정을 설명한 1장이 유일하다. 저자 로쓰 리는 여진이 만주부락에서 청제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조선·몽고·명과 복합적인 관계를 가졌다고 설명했지만, 명실록과 청실록과 같은 한문자료나 구만주당이나 만문노당과 같은 만문자료를 주로 인용할 뿐, 여진에 관한 한 가장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선왕조실록은 참고하지 않는다. 조선의 자료로 인용되는 것은 신충일의 「건주기 정도록」이 거의 유일한데, 이것조차 대만에서 출판된 자료에 수록된 것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27쪽, 각주 50번). 또한 청 초기 지도에서 조선의 의주는 “I-chou”로 표기되어 있다(33쪽). 조선과의 관계가 매우 밀접하고 중요했던 누르하치와 홍타이지 시기에 대한 연구에서조차 조선 지명을 중국어 발음으로 표기하는 것은 미국의 중국사 연구에서 조선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잘 보여주는 증거이다. 2002년 당시 미국학계의 한국사에 대한 이해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는 사실은 6장의 저자 크로슬리가 조선을 “Yi Korea”라고 부른 점에서도 드러난다(358쪽). 『청제국』의 주된 관심이 한인 세계에 집중되어 있던 만큼, 조선뿐 아니라 다른 외부세계의 관계는 전혀 논의되지 않는다는 점이 이 책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4세션

『케임브리지 중국사』 9-2권, 청제국사

박민수 교수(이화여대)

발 표 『케임브리지 중국사』 10권 만청사

홍성화 교수(부산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11권: 만청사

이준갑 교수 (인하대)

토
론

노기식 명예연구위원(동북아역사재단), 조영헌 교수(고려대)

『캠브리지 중국사』 10권-1부

홍성화(부산대)

『캠브리지 중국사』 10권(Late Ch'ing 1800-1911, Part1)은 1978년에 출판되었는데,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는 가장 이른 시기에 출간되었다. 이 10권의 주편자는 존.K. 페어뱅크이다. 목차와 각 편의 저자는 다음과 같다.

- 1장 : 이끄는 글 : 구질서 - 존.K. 페어뱅크(1907-1991)
- 2장 : 청령 내륙아시아(1800년경) - 조지프 플래처(1934-1984)
- 3장 : 왕조의 쇠퇴와 동란의 근원 - 수잔 만 존스(1943-), 필립.A.쿤.
- 4장 : 광저우 교역과 아편전쟁 - 프레더릭 웨이크먼 2세(1937-2006)
- 5장 : 조약 체제의 성립 - 존.K. 페어뱅크
- 6장 : 태평천국의 난 - 필립.A.쿤(1933-2016)
- 7장 : 중국-러시아 관계(1800-1862) - 조지프 플래처
- 8장 : 청조의 몽골, 신장, 티베트 통치의 전성기 - 조지프 플래처
- 9장 : 청조의 중흥 - 류광징(劉廣京, 1921-2006)
- 10장 : 자강운동 : 서양기술의 도입-궈팅이(郭廷以, 1904-1975)·류광징(劉廣京)
- 11장 : 1900년까지 기독교 선교회와 그들이 미친 영향-폴.A.코헨(1934-)

중아시아 전문가인 조지프 플래처가 12장 가운데 3개의 장을 집필하고 있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11장 기독교에 관한 부분을 한 장으로 설정한 것도 상당히 이례적인 장절구성인데, 참고로 이 시기를 다루고 있는 개설서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신승하, 『근대중국: 개혁과 혁명』

- 1장 : 서설
- 2장 : 중국과 서양의 교섭
- 3장 : 청조의 쇠퇴와 중·영관계
- 4장 : 청의 아편정책과 제1차 아편전쟁
- 5장 : 제2차 아편전쟁과 북경조약
- 6장 : 태평천국

- 7장 : 양무운동-중구의 근대화운동
- 8장 : 변법유신 운동과 혁명 운동의 태동
- 9장 : 의화단

이매뉴얼 C.Y. 쉬(徐中約)의 『근-현대중국사』 역시 다음과 같은 체제로 이루어졌다.

- 1장 : 전통제도의 연속 1600-1800년
- 2장 : 내외외환 1800-1864년
- 3장 : 외국 제국주의가 결렬하던 시기의 자강운동 1861-1895년

그리고 胡繩, 『아편전쟁에서 5.4운동까지』 역시 체제는 위와 대동소이하다. 얼마전에 국내에서 출간된 배경한 편집, 『중국 근현대사 강의』 역시 관련 부분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2장 : 18세기 후반의 중국과 세계
- 3장 : 내외외환과 중화제국의 동요
- 4장 : 자강운동과 열강의 침탈

미국 연구자의 개설서 역시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

윌리엄 로, 『하버드 중국사-청』

- 6장 : 위기
- 7장 : 반란
- 8장 : 중흥
- 9장 : 제국주의
- 10장 : 혁명

참고로 일본의 개설서 역시 마찬가지이다.

요시자와 세이치로, 『중국근현대사-1, 청조와 근대세계』

- 1장 : 번영 속의 위기
- 2장 : 반란과 전쟁의 시대
- 3장 : 근대 세계에 도전하다
- 4장 : 청말의 경제와 사회
- 5장 : 청조 지배의 전환기

菊池秀明-『ラストエンペラーと近代中國』(講談社, 2005)

- 1장 : 남쪽에서 불어오는 훈풍-태평천국운동과 열강
- 2장 : 동요하는 중화제국
- 3장 : 내셔널리즘의 탄생-무술변법과 의화단
- 4장 : 청제국의 황혼

결론적으로 이 시기에 관한 개설서는 큰 흐름 속에서 볼 때, ① 도광년간까지의 청제국 체제, ② 광동체제와 아편무역, ③ 제1차 아편전쟁, ④ 태평천국운동, ⑤ 제2차 아편전쟁과 베이징·텐진 조약, ⑥ 양무운동, ⑦ 1884년 청불전쟁, ⑧ 1894년 청일전쟁, ⑨ 무술변법 등의 내용이 위주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전통 청제국이 제1차 아편전쟁 후 → 태평천국 운동 발발, 제2차 아편전쟁 후 → 텐진 베이징조약 → 양무운동, 청일전쟁 패배 → 시모노세키 조약 → 무술변법 → 의화단 운동 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사실 거의 모든 개설서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¹⁹⁾ 지역적으로 보자면 제2차 아편전쟁 이전까지 청의 주요 상대국가는 영국이고, 청불전쟁 시기에 프랑스, 그 다음 시기는 일본의 대두라는 스토리로 서술이 맞추어져 있다. 하지만 『케임브리지 중국사』는 그와는 달리 내륙 아시아 속에서 청조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캠브리지 중국사』 10권(Late Ch'ing 1800-1911, Part1)에서는 조선에 관한 서술은 조공을 서술할 때 한 번 등장하는데, 이 역시 내륙아시아를 중심에 청대사를 서술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된다.

1장 : 이끄는 글 구질서

여기에서는 청대 사회의 기본적인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중국사회는 타성에 젖어 있다고 하면서, 농민들은 (개별적인-인용자)시진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시진 공동체의 정점에는 신사(紳士)가 있었으며 이들은 기본적으로 대지주이기도 하였다.

20-25만명의 인구를 지닌 행정 단위인 縣에서 지방관은 중앙정부를 유일하게 대표하는 존재였고, 지도력이 있는 지방 신사들과 긴밀히 협조해야만 했다. 전통 중국 경제는 잉여 농산물을 생산에 투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사치를 통해서 남용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청왕조의 또 다른 특징은 정부의 성격 자체가 매우 사적이었다는 것이다. 관리나 신사들의 충성의 대상은 구체적인 인간관계로 맺어진 황제와 왕조였다. 전근대 사회에서 이러한 통일성의 핵심적 가치는 국란, 지역적인 무정부 상태, 도적의 횡행 등을 진압하여 백성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었다. 평화와 질서가 통치의 정당성을 보장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왕조의 중앙권력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관료주의적 행정 체계의 정점에 자리 잡고 있고, 이러한 행정 조직의 하부에서는 친족 집단과 신사들의 충성과 지

19) 나미키 요리히사, 이노우에 히로마사, 『아편전쟁과 중화제국의 위기』(논형, 2017) 역시 위의 흐름은 상당히 유사하지만, 3장 태평천국과 5장 양무운동 사이에, 4장으로서 상해 조계를 다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아마도 상해의 일본인 거리를 서술하기 위한 설계인 듯 생각된다.

도력을 통해 지방을 통제해 나가야 비로소 달성될 수 있었다. 외형상 18세기말 청의 통치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최고의 힘을 과시하고 있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이 되면 그것이 속이 텅 빈 허상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2장 : 청령 내륙아시아(1800년경)

1800년전까지만 해도 청 역사의 초점은 내륙아시아에 맞추어져 있었다. 17-18세기에 청군이 내륙아시아로 확장해 들어간 것은 역사적으로 장기간에 걸쳐 큰 영향을 미쳤는데, 청조는 만주 북부의 각 부족을 전통적인 羈縻 정책에 따라 통제했다. 몽골 18세기 말에 이르면 몽골 유목민의 우세는 완전히 기울게 된다. 청 정부는 군대를 통해 통치권을 유지했다. 이 지역에는 실질적인 자치권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몽골의 각 기의 구성원인 청조의 가장 기본적인 인적 자원인 소위 만주 팔기 등의 기인들과는 분명히 구분되었다. 따라서 이 책에서 ‘기인’이라고 할 때는 청조의 군사 구조의 팔기군에 속한 기인을 가리키고, ‘기민(旗民)’이라고 할 때는 몽골 각 기의 구성원을 가리킨다. 영광을 누렸던 몽골의 군사력 쇠퇴와 유목 경제의 몰락을 재촉했다. 청정부는 단일한 몽골 불교가 발전해 몽골족 통합의 구심점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몽골 내에서 달라이 라마와 몽골의 두 종교 지도자 사이의 세력 균형을 교묘히 유지하려고 했다. 인구는 날로 줄어드는 반면 사원 수는 오히려 날로 증가했다.

청의 군대는 이 두 지역을 통합해 ‘새로운 영토’라는 의미의 신장이라는 이름으로 속령으로 삼았다. 청은 원주민들의 내부 문제에 간해서는 가능한 한 간섭하려 하지 않는 정책을 취했다. 매년 신장 지역의 청 당국은 스텝 지역으로 관리를 보내 카자흐인에게서 세금을 거두어들이게 했다. 카자흐인들은 이민족이기 때문에 청은 그들의 자사크를 임명하지도 그들을 기로 나누려 시도하지 않았다.

티베트는 만주, 몽골, 실장과 달리 상당한 정도의 독립을 누리고 있었는데, 대체로 먼 거리와 험준한 지형 덕택이었다. 티베트에 관한 청조의 영향력은 1792년 티베트-네팔 전쟁에 대한 건륭제의 군사개입 때 정점에 달했다. 이후로는 서서히 쇠퇴했다. 청조의 감독은 라싸에 주둔하는 주장대신, 암반, 방판대신, 부담반, 그리고 소규모 주둔군이 담당했다. 만주, 몽골, 신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주장대신(암반)에는 항상 기인이 임명되었다. 청 정부와 티베트인들은 황제와 달라이 라마의 관계를 완전히 다른 관점에서 보았다. 청의 입장에서 달라이 라마는 황제의 보호를 받고 있는 자였다. 티베트인의 관점에서 보자면 황제는 단지라마의 세속적 후원자일 뿐이었다. 이는 티베트인들이 달라이 라마의 지위를 청 황제의 지위보다 높게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다. 1808년 이후 청의 영향력은 계속 감소하였다. 이제 주장대신(암반)들은 “정치적 옹서버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181년-1816년 영국-네팔전쟁은 네팔의 조공국 지위에 대한 청조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주었다. 영국은 네팔에 승리하여 칼리강에서 수틀레지강 사이의 모든 영토를 양도받았다. 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도 전혀 무관심했다.

내륙아시아의 속국들에서 베이징으로 유입되는 세입은 많지 않았다. 사실 청이 그들에게 원한 것은 오로지 평화였다. 만주인의 내륙 아시아사 정복은 이윤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강력한 적대적 세력의 등장을 억제할 목적으로 전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리하여 대륙 방면에서 중국 본토는 안전하게 보호 받았다. 러시아 세력이 대두하였지만, 1815년 베이징에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관심은 거의 감지조차 되지 않았다.

3장 : 왕조의 쇠퇴와 동란의 근원

1799년 건륭제가 세상을 떠난 후 가경제가 직면한 가장 급박한 과제는 정부에서 和珅의 영향력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청말과 근대시기 중국사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분명 인구 급증이었다. 건륭제 때 진사 정원이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였고 생원의 정원도 고정되었다. 동생의 숫자도 18세기 말에는 제한되었다. 매관매직 행위는 제한된 수의 관직에 대한 압력을 증대시켰고, 결국 사회적 이동 통로의 부족 현상을 한층 더 첨예화시켰다.

서역층의 팽창은 명말에 시작된 일조편법이라는 세제 개혁 이후 현이 떠맡게 된 행정 업무의 부담이 커진 것에 일부 원인이 있었다. 일부 신사들은 불법 혹은 半합법의 활동을 통해 생존을 추구했다. 그 중의 하나가 포람(包攬) 징세 청부였다. 무릇 관원 사회에서 사사로이 파당을 만든다고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는 반드시 탄핵당하고 처벌받게 되어 있었다.

청대 한족 관리들이 지방행정을 장악하게 되는 변화는 태평천국의 난에서부터 비로소 시작되었다고 하지만, 최근 그러한 변화는 사실상 가경조부터 시작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아편 수입대금으로 은이 국외로 유출되면서 중국의 복본위 화폐 체계가 영향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화폐의 불균형은 즉시 세수와 상업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했다. 화폐 가치의 하락과 실제 세율의 상승에 대한 민중의 반응은 1840-1850년대 광범위한 항세운동으로 폭발했는데 특히 양쯔강 중하류 지역에서 격렬했다. 때로 이 운동은 생원, 감생과 같은 하층 신사들의 지도하에 발생하기도 했다.

백련교 반란은 청 왕조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했다. 이 반란으로 말미암아 지방 신사층의 지지, 새로운 지방 통제 체제의 부과 그리고 향용의 고용이 없으면 정규군만으로는 내부 반란을 진압할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청정부의 군사력이 돌이킬 수 없이 쇠퇴한 사실을 드러낸 사건은 아편전쟁이 아니라 오히려 백련교의 난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20-1830년대 만연한 분위기 중의 하나는 관료들의 부패로 그것은 청 정부 특유의 정교한 후견 체제를 통해 조장되고 유지되었다. 도광조 때는 중앙정부의 힘이 전보다 약해져 있었다. 국고에 남아 있던 은은 고갈되어 18세기초 6천만냥에 달하던 것이 1840년대에는 8백만냥으로 줄어들었다. 19세기말이 되면 막우의 숫자는 이미 7,500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

4장 : 광저우 교역과 아편전쟁

청황제까지도 광저우 교역을 주요한 개인적 수입원으로 보았다. 황제는 내무부 관리를 파견하여 광저우 1년 관세수입 가운데 85만5,000냥의 현은을 황제의 사적인 금고로 올려 보냈다. 청조의 해관감독이 점점 더 개인적으로 부패해갔고 청과 영국의 교역 독점자들의 신용이 점차 불안정해졌으며, 마지막으로 아편의 자유로운 거래가 성행하게 되었다. 점차 ‘광저우의 이익’은 교역에서 빨아내 외국인 상인이나 공행과 관련된 모든 상하 관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식으로 유용되는 기금으로 변질되었다.

1826년 이후 스페인령 아메리카의 은 공급원이 고갈되고 미국인들이 국내 투자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중국으로의 은화수입이 크게 줄었다. 19세기의 첫 10년 동안 대외교역 수지에서 대략 2,600만냥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런데 1828년~1836년 동안에는 3,800만냥이 유출되었다.

흠차대신으로 파견된 임칙서의 탁월한 점은 심리 전술을 설득한 도덕적 설득 활동을 아편을 근절한다는 그의 대담한 구상에 있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해야 그러한 목적에 확실히 도달할 수 있는지는 도광제는 분명히 알고 있지 못했다. 도덕적 엄정성과 단호하고 신속한 행동을 통해 국내의 아편상들과 마찬가지로 영국 상인들을 쉽게 위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전쟁’은 결코 고려할 문제가 아니었다.

공식적인 아편전쟁의 첫 번째 단계는 1840년대 6월부터 1841년 1월까지 지속되었다. 1841년 1월20일 찬비조약에 합의하고 이 조약은 영국측의 요구대로 홍콩을 할양하고 600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였다. 양쯔강의 요새이자 만주 방어군의 주둔지인 전장(鎮江)도 점령되었다. 이로써 운하는 봉쇄되었고, 청 제국 두 쪽으로 갈라져버렸다.

5장 : 조약 체제의 성립

중국에 파견된 영국의 군사력은 처음부터 인도에서 활동하던 영국군들로 조직되어 있었다. 한마디로 중국에서 무력을 사용할 당시 영국의 정책과 가치관은 인도에서의 성공적인 경험에 의해 형성된 것이었다. 그들은 우월하고 자신감이 넘치며 또 때로는 오만하기까지 한 지배 집단으로 들어왔다.

1841년 증반에 그는 친구 임칙서에게서 받은 몇몇 번역물을 이용해 친구 자료들을 기초로 『해국도지』라는 책을 완성했다. 청의 역대 군사적 성공을 기록한 역사서 『성무기』와 더불어 국제 교역과 서구의 함선에 의해 제기된 문제들을 다방면에 걸쳐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하려 한 선구적인 시도였다.

기영의 대미 정책과 대불 정책은 ‘일시동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의 군사력을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편제하려는 노력은 별로 보이지 않았다. 서계여(徐繼畬)는 서방의 각종 자료들을 수집해 44점의 서구식 지도가 포함된 세계지리서인 『영환지략(瀛環志略)』을 편찬했다.

당시 중국의 공식 문서들은 여전히 번외(藩外)의 이인들을 ‘영역(英逆)’ 즉 ‘영국의 반역자’로 베이징 중심의 세계질서에 속해 있지만 그에 반항하는 반역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이 무력에 의존하는 것은 ‘반순(反順)’에 해당하는 것이었다. 실로 조약항 체제는 중국인들에게 완전히 새로운 것으로 불쑥 투여 나온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중국의 환경 속에서 자라나온 것이었다. 새로운 조약의 조항들은 모두 중국 전통의 확대였으며 제도로 볼 때는 원래는 과거의 관습과 충돌하는 것이 아니었다. 아편전쟁은 오늘날 회고적으로 볼 때는 하나의 대격변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다.

조약체제는 함포에 의해 수립되었고, 또 함포 외교에 의해 지탱될 수밖에 없었다. 함포 외교는 중국과 서양의 접촉에서 누가 주도권을 잡을 것인가를 둘러싼 갈등이 결말이 나지 않으면 표면화된 것이었다.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넓은 의미에서의 문화 갈등이라고 할 수 있었다. 영국은 중국 제국을 하나의 식민지로서 지배하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법적 규제하에 진행되는 영국식 국제 관계와 자유 무역 방식을 중국이 따르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국의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기를 원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국의 상업적 이익이 보장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그렇게 되려면 중국의 전통 사회에 혁명이 일어나야 했다. 따라서 중국이 그것에 완강히 저항한 것은 너무나 당연했다.

조공 시대에는 외국인이 광저우 성내로 들어가는 것이 한 번도 허용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1842년 이후에는 그러한 금령을 유지하는 것이 곧 광저우인의 저항의 상징이 되었다. 1850년대 내내 조약체제는 광저우에서는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화남지방이 각종 반란으로 시끄러워지자 푸젠 지방의 차와 안후-장쑤 지방의 생사는 좀 더 가까운 수출로인 상하이로 통해 수출되었으며 이에 따라 메이링(梅嶺)을 넘어 광저우로 이어지던 과거의 수송로에서 생계를 유지하던 선부(船夫)와 집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1856년 10월 (제2차 아편전쟁의) 개전 원인이었던 로어처선 애로호 사건 중에 실제로 영국 국기는 게양되지도 강제로 끌어 내려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런 상태에서 애로호는 해적질을 하고 있었다. 1858년 1월4일 군대를 파견해 순무와 총독을 체포했다. 그런 다음 완강한 섭명침을 배에 태워 캘커타로 이송했는데, 그는 그곳에서 다음 해 생을 마감했다. 베이징 정부는 이러한 재난이 발생한 원인은 섭명침에게 있다고 비난했다.

영국은 교역의 기회와 근대적 유형의 관계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 이상으로 중국의 중앙정부가 약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다. 청조정은 1860년 8월 양쯔강 하류의 심장부를 장악하고 있는 태평천국군을 진압하는데 필요한 광범위한 군사적·재정적 권한을 한족인 증국번에게 주게 된다.

이제 베이징에서 핵심적인 논란거리가 되었던 것은 과거 광저우에서 오랫동안 문제되어 왔던 국가간 평등 문제였다. 외세의 압력을 받고 있었지만 조정으로서는 조공 사절에 대한 오래된 규정을 따르지 않는 외국인의 베이징 방문이라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

다. (영국 군인 살해를 계기로) 옐긴과 그로는 함풍제를 엄중하게 응징하기로 결정하고 이미 외국 군대에게 심하게 약탈된 베이징 북서쪽의 여름 별궁 원명원을 불태워버렸다.

우리는 청의 약점을 몇 가지 측면에서 청의 약점을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외국의 실체에 대한 습관적 무지와 고의적인 무시가 그것이었다. 거의 반맹목적으로 외국의 군주들에 비해 중국의 천자가 월등히 우월하다는 주장을 끝까지 고수하는 태도보다 그것을 더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것이다. 베이징 조정은 평등한 관계에 기반한 대화를 거부하다가 마침내는 불평등한 관계를 강요받게 된 것이다.

(베이징 조약·텐진 조약을 체결하는 시기에) 연안에서 조금 떨어진 내지에서는 어디에서도 정치 경제의 전통적인 분야에 별다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또 인접국과들과의 관계에도 큰 변화가 없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조공 사절단이 계속 베이징을 방문했다. 1860-1894년 사이 조선에서 조공 사절이 파견된 해수는 25년, 류큐에서는 8년, 안남에서는 5년이었고 네팔에서는 네 차례, 미얀마로부터는 한 차례 조공사절이 파견되었다.

6장 : 태평천국의 난

홍수전은 기독교로 개종한 학교 친구이자 사촌인 풍운산과 함께 광서성 산간지역으로 선교 여행을 떠났다. 풍운산은 신도들을 묶어 여러 촌락을 연결하는 지방 분회망을 조직했으며, 이들을 합쳐서 '배상제회'를 세웠다. 홍수전이 38번째 생일일 맞이한 1851년 1월11일에 '태평천국'의 성립을 선포했다. 청군측에서 의견만 분분할 뿐 실제 행동은 아무 것도 취하고 있지 못한 사이 태평천국군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못한 사이 태평천국군은 포위를 뚫고 탈출해 광시의 성도인 구이린(桂林)성을 향해 북진해 이를 포위 공격하였다.

465쪽 홍수전 본인은 최고의 지위인 '천왕'의 칭호를 계속 보유했다. 이 때 홍수전의 지위는 아주 애매했다. 그가 다른 왕들보다 높은 영적 지위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의 우월한 칭호에 나타나 있다. 태평천국군이 전국의 동포들을 향해 봉기해 일어날 것을 단호한 목소리로 촉구한 것은 바로 용안에 포위되어 있던 시기였다. 그들은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한 것 이외에도 일련이 포고문을 반포해 새로운 질서의 도래를 선포하고 동시에 청조의 죄과를 열거했다.

홍수전은 전혀 새로운 종류의 천명을 받은 왕조의 개창자-이 천명은 여호와(상제)로부터 직접 받은 것으로 묘사되고 있으며, 만주족은 단순히 국가를 찬탈한 오랑캐가 아니라 일종의 초자연적인 악마의 화신으로 그려지고 있었다. 태평천국군은 모든 것을 포용할 천국을 지상에 건설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을 공공연히 밝혔다.

『천조전무제도』 가운데 당황스러운 부분은 토지의 정기적인 재분배에 대한 언급을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제도의 논리로 보나 역사적 선례들로 보나 그러한 규정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태평천국의 지도자들로서는 토지의 영구적 사유를 허락하는 듯한 인상을 줌으로써 농민층의 지지를 끌어들이려는 정치적 유혹을 뿌

리치기 어려웠을 것이다. 실제로 태평천국의 토지 정책은 빈농과 무토지 노동자들을 광범위하게 끌어들이 수 있었음이 분명하다. 태평천국의 『천조전무제도』에서 나타나는 국가주의적 어조는 경제문제에 관한 관료 중심적 해결이라는 중국의 전통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이었다.

기독교 신앙은 객가인들의 투쟁을 새로운 의미 차원으로 끌어 올렸다. 즉 그것을 구원받은 자와 저주 받은 자의 전투로 바꾸었던 것이다. 이제 그들은 그들 특유의 정의감으로 충만되어 모든 것을 포괄하는 우주관을 바탕으로 청조의 문화에 대항할 수 있었다.

반란에 맞선 엘리트층의 지도자로 등장한 증국번은 신사층은 아니었지만 교육적·사회적 야망이 큰 지주집안에서 태어났다. 우연히도 전통 중국사회가 내외로부터 근본적인 도전에 직면한 역사적 순간에 실천적이지만 동시에 철저하게 보수적인 일련의 사상들이 나타났다.

증국번의 새로운 조직은 군사적으로 중요했을 뿐만 아니라 청제국의 미래를 위해 중대한 정치적 의미를 갖고 있었다. 증국번의 막료와 장성 집단은 재능 있는 행정가들을 길러내는 온상이 되었던 것이다. 한쪽 신사가 지휘하는 새로운 군사 세력이 출현했다고 해서 청조의 정규 군사제도가 이들로 완전히 교체된 것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홍인간은 1859년에 발표한 『자정신편(資政新編)』을 통해 중앙 통제를 강화하고 서양 기술을 채택해 중국 경제와 교통의 근대화를 촉진하며 서양 열강과 돈독한 우의를 맺는다는 취지의 기본적인 정책 노선을 천명했다. 1860년 6월8일 증국번은 양강 총독 서리겸 흠차대신으로 임명되어 강남 하류 지역의 최고 군사권을 갖게 되었다. 청조의 입장에서 본 개인의 군사력과 정규 지방관의 권위가 이런 식으로 결합되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움직임이었다. 1850년대에 이미 증국번의 몇몇 막료들이 순무나 순무 서리로 임명되면서 그러한 선례가 이루어진 바 있었다.

상하이 인근에서의 전투 후 그들은 공식적으로 ‘상승군’이라고 불렸는데 이 이름은 중국인이 비정규 향용부대에 대해 보통 사용하던 상서로운 명칭이었다. 이홍장의 회군(淮軍)이 장쑤 동부와 저장 북부의 여러 도시들을 차례차례 태평천국군의 손에서 수복하고 있을 때, 회군의 규모는 5만명을 넘어서고 있었다. 본인의 상군을 외국 군대식으로 편제하기를 주저하던 보수적인 후원자 증국번과는 달리 이홍장은 상하이를 통제하면서 재빨리 그에 따른 기술적 장점을 인식했다. 그는 서양인들에게 강선이 있는 소총과 서양식 야포를 대량으로 구입했으면 영국과 프랑스 교관을 고용해 회군이 이 무기들을 다룰 수 있도록 훈련시켰다.

수도는 포위되고 하류의 경제 기조도 빼앗긴 태평천국군은 마침내 자포자기적인 상황 속에서 마지막 전투를 전개했다. 1864년 7월19일 난징 성을 점령한 증국전은 그곳 백성들을 학살하고 도시를 불태웠다. 이 마지막 대재앙에서 10만명이 죽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수전은 난징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미 병사했다.

수십 명 혹은 100여명으로 구성된 개별 무리들은 통상 ‘염자(捻子)’ 혹은 염이라 불리었다. 혼란스럽지만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이들 염비 집단이 전체로서 백련교의 한 지

파로서 간주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그것이다. 그들은 장락행을 ‘대한명명왕(大漢明命王)’이라 불렀는데 이 칭호는 민주 왕조에 대한 도전을 의미했을 뿐만 아니라, 백련교의 마니교적 신앙과의 관련성을 간접적으로 암시했다. 1856년 염비들은 장종우의 지휘 아래 생계린친을 포위해 살해했다. 이 죽음은 베이징 조정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반란군으로서 염비가 청조에 가한 정치적 위협은 태평천국에 못 미쳤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이들이 보다 완강해서 평정하기가 더 어려웠다. 그들이 끈질기게 저항할 수 있었던 것은 대부분 그들이 지역 사회의 각종 제도와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태평천국군은 전통 사회의 가치와 제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점령한 도시의 배후에 있는 내륙의 농촌에까지 통제력을 확장하기 어려웠다. 태평천국에게는 도시가 제국의 정통성의 상징이었으며 또한 그곳에서만 그들의 독특한 제도를 유지시킬 수 있었다. 중국 고유의 농촌 조직 형태들은 오히려 정통 신사들에게 의해 쉽게 동원되었으며 이들은 중심 도시를 태평천국군에게 점령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현에서 지방 방어 조직을 이용해 농촌에 대한 통제력을 성공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다.

7장 : 중국-러시아 관계(1800-1862)

러시아는 카흐타 조약 외에도 우두머리들이 중국에 조공의식을 행한다는 조건하에 3년마다 베이징에 隊商을 보낼 수 있었으며, 러시아 정교회 선교단을 베이징에 두는 것을 허용받았다. 이외에는 어떤 러시아인도 중국에 들어 올 수 없었다. 베이징으로 파견된 러시아 사람들은 항상 청조가 조공국에 요구하는 삼궤구고두를 행해 왔다. 매카트니 사건 이후 청조는 이전 어느 때보다도 전통적인 조공 의례, 특히 고두를 고수하는 데 신경을 썼다.

1851년 8월6일 러시아 대표 코발레프스키와 중국 대표 혁산이 쿨자 조약에 서명했다. 조약의 내용은 일리와 타르바가타이를 개방해 중국-러시아 사이의 무관세 교역을 허용하는 것이었다. 쿨자 조약은 외부 상인들은 교역 시기에만 올 수 있고, 영구거주는 허용되지 않던 중국 변경지역의 시장의 전통을 다소 근대화시켰다.

페리 제독이 일본의 문호를 ‘개방시킨’ 사실이 알려지자 극동의 전략적 중요성은 한층 더 높이 평가되기 시작했다. 러시아 탐사대는 아무르 강북쪽 영역을 광범위하게 탐사했다. 크림 전쟁의 종식은 러시아, 영국, 프랑스가 중국에서 다시 새롭게 활동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었다. 1858년 아이훈에서 혁산과의 협상이 시작되자마자 상황은 혁산에게 불리했다. 혁산은 무라비요프의 요구에 동의하고 1858년 만주어, 몽골어, 러시아어로 작성된 아이훈 조약에 조인했다. 혁산은 이 조약을 청의 영토를 할양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러시아인의 이주와 교역을 정식으로 인정하는 일시적인 조치로 간주하고 있었다.

영불 연합군이 아직 베이징 성 밖에 주둔하고 있을 때, 사실 러시아 외교관이 연합국

을 도와 조약을 체결하는 일에서나 청을 도와 연합국의 요구를 줄이는 일에서나 도움을 준 것은 거의 없었다. 청과 러시아 사이의 베이징 조약은 1860년 11월14일에 체결되었다. 이 조약은 러시아가 아이훈 조약에서 추구하였던 것들을 제공했고 아울러 텐진 조약의 내용을 확인하는 동시에 확대했다. 청 제국은 그곳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한쪽을 중국 본토에만 가두어두려는 시대착오적인 정책에 계속 집착함으로써 극동아시아 북부의 넓은 귀중한 영토를 잃게 되었다.

8장 : 청조의 몽골, 신장, 티베트 통치의 전성기

1820년에는 코칸트 칸국의 자한기르가 청나라에 의한 통치에 반발하면서 ‘호자’(Khoja)의 부활을 외치며 반란을 일으켰다. 호자는 수피의 낙쉬반디야 교단에서 유래하여 17세기 경부터 동투르키스탄 지역의 위구르인 지도자를 일컬었던 칭호로 자한기르는 아쿠타 구르크(백산당)의 호자였다. 청나라는 일리장군부의 장령(창린) 섬감총독인 양우춘, 산동순무 우룽가(무룽아), 광숙제독인 제신에게 진압 명령을 내렸다. 1827년, 악수에서 벌어진 전투에서 자한기르 군대는 패배했다. 자한기르 호자는 1828년에 사로잡혀 북경으로 송환되었고, 도광제에 의해 처형당했다.

역사가들은 청 제국의 19세기 역사를 쇠퇴기로 보는 경향이 있다. 청제국 자체는 몰락하고 있을지 몰라도 한쪽의 중국, 그들의 문화와 역량은 전례 없는 확장기로 들어가고 있었다. 19세기 전반기에 내륙아시아에서 청조의 통치는 전성기를 구가했다.

몽골에서 사원 제도의 성장과 한족 세력의 침투는 외몽골보다 내몽골에서 더욱 빨리 진행되었다. 사원은 점점 더 내몽골에 집중되었고 유목민들은 중국 경제와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게 되었다.

몽골에서 청조의 이익은 점차 한족의 이익이 되어갔다. 만주족 통치자들은 사고방식에서 점점 더 한화되어 갔으며 한족이 몽골의 초원 지대까지 들어가 교역하고 정착하는 것을 금하는 초기의 금령을 포기했다. 이제 몽골 유목의 유목 경제가 쇠퇴함에 따라 한족 이주자 뿐만 아니라, 초원 지대에서 농경을 시작했으며 왕공이나 또는 몽골인들의 부채로 상환한 토지를 소유한 한족 상인 지주들에게서 농토를 빌렸다.

내륙 아시아에서는 피상적이었지만 청조의 권위는 점점 늘어가던 내몽골, 신장 전역, 그리고 티베트 동부 주변 도처의 중국 본토 출신 한족 이주민의 안전을 책임질 정도의 충분한 힘은 있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반란과 유럽의 침략 및 침체되어 가던 만주족의 운명에도 불구하고 1790-1860년대에 이르는 기간은 청 제국에게는 위대한 시기였다.

9장 : 청조의 중흥

청조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중국이 엘리트들이 본인들의 이익을

왕조의 이익과 동일시했으며, 둘째, 그들이 임시방편으로 조직한 민병으로 지방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변의 견해는 철학적으로 무수한 사물이 각자의 ‘고유한 지위’를 갖고 있다는 정주학파의 가르침에 기반하고 있었다. 인간 사회에서 각자의 ‘분’은 제국 체제와 가족내의 위계질서에 존재했다. 청조의 통치자들은 이미 엄격한 교육을 받은 (한인) 사대부 관료들을 단단히 신임하게 되었다.

대 서방 관계를 다룰 새로운 총리아문이 1861년 1월에 황제의 비준을 받아 3월31일 정식으로 설립되었다. 함풍제는 이러한 현실에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특히 유럽 군대가 여전히 텐진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베이징이 귀환 날짜를 계속해서 지연시켰다. 결국 그는 다시는 돌아갈 수 없었다.

숙순도 황친으로서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어쨌든 섭정이 될 자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8명의 대신은 ‘고명지신’으로서의 지위에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으므로 그들은 어린 황제의 보호자를 자임했고 황제를 대신해 정책 결정도 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에게 부여된 권력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오직 ‘충고하고 보좌할’ 권한만 부여되었으므로 그들은 황제 자신의 통상적인 ‘주비(硃批)’를 대체할 수 있는 옥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다. 그들은 두 명의 황태후가 가진 고유한 권한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린 황제의 어머니 자격으로 이들은 합법적으로 어린 황제를 대신해 옥새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서태후는 과거 先帝를 위해 주접을 정리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옥새를 찍어주기 전에 모든 칙령과 조서의 초안뿐만 아니라 주접도 먼저 보아야 하며, 자순대신들이 추천한 고관들도 자신의 비준을 얻은 후에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날 밤 장례 행렬에 끼여 베이징에서 멀지 않은 곳까지 올라 와 있던 숙순도 순친왕의 군대에 의해 체포되었다.

황태후들은 즉각 8대신의 처벌을 결정한 관리들에게 자신들의 ‘수렴청정’을 준비하도록 했다. 황태후들은 공친왕에게 ‘議政王’이라는 존호를 수여하여 정부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주었다. 서태후는 47년간 중국의 실질적인 통치자로 군림했다. 공친왕은 젊고 과단성이 있었으며, 무엇보다 대단히 총명하고 직무에 충실한 만주족 정치가인 문상의 자문을 구할 만큼 현명한 판단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베이징을 관할하는 보군 통령 겸 공친왕의 평화 교섭 대표로 임명되었다. 그는 청조의 새로운 외교 정책의 실질적인 입안자가 되었으며 서방 관리들로부터 총리아문의 ‘실력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정변 후에는 군기처의 핵심 인물로도 부상했다.

胡林翼이 개탄했던 것은 아역들을 문밖으로 쫓아낼 수 있을 만큼 세력이 컸던 소위 ‘大戶’는 통상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정규 부세조차 납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대부분의 田賦는 실제로 통상 평민 신분의 소지주들인 ‘小戶’(미천한 가문)에 부과되었고 비정규적인 과세에 대한 이들의 최선의 방어책은 서리와 아역에게 뇌물을 주어 세액을 낮추거나 아니면 보통은 돈을 벌 목적으로 이들의 부세와 부가세를 청부 징수(包攬)하는 신사들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었다.

정일창은 1868년 장쑤성에서 서리가 ‘공식’일 경우 재직자들이 1만냥을 받고 팔았는

데, 이것은 연납 지현의 경우보다 높다고 상주했다. 18세기의 경우 홍량길은 현의 크기에 따라 한현에 200-1,000명 사이의 서리들이 있었던 것을 추산했다. 옌군 전쟁 이후의 경우 산둥 출신으로 1862년 진사가 된 어사 유백천은 큰 현에는 2,000-3,000명, 작은 현조차 적어도 300-400명 정도 있었던 것으로 추산했다. 게다가 서리들은 농촌을 돌아다니면서 농촌의 치안 담당자와 접촉하던 아역과 결탁했다. 19세기초 저장성의 몇몇 현에는 이미 1,500-1,600명에 달하는 아역이 산둥의 큰 현에는 적어도 1,000명 정도의 아역이 있었다. 100-200명의 아역이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온 서리들을 따라 몰려 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그들이 수고한 데 대해 식사와 비용을 제공해야 했다. 이처럼 19세기 중기에 일어난 반란의 주원인이었던 지방 정부의 누습은 분명히 대대적인 파괴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것이다.

증국번은 만년에 부도덕한 사회는 결국 도덕적인 인물에 의해 구원받아야 하며, 따라서 올바른 가치와 태도를 기르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견해로 돌아섰다.

메리 라이트의 탁견은 앞으로 이 시기의 역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청조의 증흥은 “중국의 전통적 제도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주장하기 위한 최후의 위대한 노력”을 대변하며 “당시의 위대한 사람들은 길게 드리워진 그림자 속에서 승리를 보았다”는 것이 그녀의 최종적인 평가이기 때문이다.

10장 : 자강 운동 : 서양 기술의 도입

1861년부터 ‘자강’이라는 용어가 상주문, 상유문, 사대부들의 글에 빈번히 등장한다. 그것은 중국의 세계적 지위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례 없는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공친왕과 文祥이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은 것은 중국과 서양의 접촉이 불가피하며, 신중한 외교정책을 통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서구열강이 전반적으로 조약을 충실하게 준수하고 있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심조림 역시 영불연합군이 베이징을 점령한 후 마음만 먹었다면,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조약을 교환한 후 수도를 훼손하지 않고 떠났다.” 공친왕과 문상은 유럽인들이 분명히 청조에 대해 일정한 호의를 갖고 있고, 청조의 이익을 위해 그들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1860년부터 3년간 태평천국군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영불연합군의 덕분이었다.

이홍장은 서양 기술을 습득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에 감명을 받았다. 그는 도쿠가와 바쿠후가 유력 가문의 젊은이들을 서양의 여러 나라에 공장 견습공으로 파견하는 한편, ‘기계를 만드는 기계’를 획득해 국내에 설치했다는 사실을 알았다. 풍계분은 1861년 『교빈려향의』를 써서 중국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는 광범한 내부 개혁에 관한 제안을 올렸다. 풍계분은 영국, 러시아, 프랑스, 미국의 국력이 비슷해 서로 세력 균형을 이루고 상호 견제하고 있어서 적어도 당분간은 현상 유지 국면이 될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중국에는 4개국 이 의견의 일치를 이루어 함께 중국을 도모하거나 아니면 한 국가가 패권을 잡게 될 것이며, 어떤 경우든 중국은 피해자가 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이 빠른 시간 내에 자강을 이루는 것, 그것은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자강 운동은 베이징의 총리아문의 지지를 받았다. 본래 총리아문은 교역에 관한 협상을 담당하던 곳이었지만 모든 '서양 관계 사무(洋務)'를 관장하는 핵심 조정기관이 되었다. 양무 활동은 청 조정으로서 전혀 새로운 형태의 활동으로서 여기에는 외교 문제, 대외 교역 관세, 상인이나 선교사에 관한 모든 문제들뿐만 아니라, 외국어 학교, 군사 훈련, 병기창, 조선소, 광산, 증기 상선, 해군 등 서양인들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의 관리와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1861년에 설립된 후 약 23년동안 총리아문은 군기처와 거의 동일시되었다.

1865년 서태후는 공친왕의 지위에 타격을 주었다. 다시 군기처와 총리아문에 복귀했지만 공친왕의 명성과 세력은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다. 그는 1861년에 수여되었던 의정왕 칭호를 영구적으로 박탈했다.

1873년 말까지 이런 소총 4,200여정을 생산했지만 제조 가격이 수입된 레밍턴 소총보다 높았을 뿐 아니라 품질도 훨씬 떨어졌다. 푸저우 선정국에서 생산된 배들이 강남에서 제조된 윤선보다 뛰어났다고 하더라도 속도가 느리고 유지비가 많이 든다는 점은 마찬가지였다. 나무로 된 선체와 싱글 빔 엔진을 사용하고 있던 이들 선박은 강남의 윤선과 마찬가지로 1870년대의 유럽 기준에서 보자면 확실히 도태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서태후 본인이 섭정 지위를 맡고 있었고 실로 만주족의 통치 자체가 모두 유가의 윤리와 문화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가 유가 문화에 대한 倭仁의 이해의 본질적 측면에 대해 쉽게 반대할 생각이 없었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11장 : 1900년까지 기독교 선교회와 그들이 미친 영향

신구교도를 막론하고 대다수 선교사들은 중국 문화를 용인할 수 없었고, 또한 그것에 충분히 적응할 생각이 없었으며 또 그럴 수도 없었다. 중국 토착문화를 향한 선교사들의 요구는 타협이나 양보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중국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 그들이야말로 가장 공공연히 전통을 파괴하는 자들이었다.

17-18세기에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문명에 대해 점차 대단히 관용적인 태도를 보이게 되었는데 심지어 일부 선교사들은 기독교와 유교가 효과적으로 조화를 이룰 가능성을 탐색하는데까지 나아갔다. 기독교 공동체들은 비밀결사처럼 취급될수록 더욱더 비밀결사처럼 활동할 수밖에 없었다. 개신교의 중국 내 선교활동은 1807년 런던 선교회 소속의 로버트 모리슨의 도착과 함께 시작되었다. 모리슨은 윌리엄 밀른의 도움을 받아 1819년 신약과 구약 성서의 번역을 완료했고 이어 최초로 중영사전을 편찬했다.

1840-50년대 개신교 선교사들의 활동 중 비록 그보다는 덜 극적이었지만 훨씬 오랫동안 지속된 업적은 문헌 출판 분야에 있었다. 1850년대에 이른바 『위본 역본 신약성경』이 완성되는데, 이것은 개신교 선교사 단체 전체가 합심해 중국어본 공동 번역 성서를

만들어내는 일에 부분적으로 성공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1860년 이후 가톨릭 선교사들은 지방의 정치적 사법적 사안에 적극 개입하였는데, 이는 행정당국과 비교인인 일반 대중의 적대감을 극도로 자극했다. 1900년에 이르면 중국의 가톨릭 입교자는 70만명을 상회했고 중국인 사제는 450-500명이나 되었다.

선교사와 이들의 추종자들에 의해 두려움과 분노가 야기된 결과 청말에 반교회 갈등이 극히 만연하게 되었다. 1860-1900년의 40년동안 중국에서는 최고위급 외교 교섭을 요하게 될 정도의 중대 사안으로 발전한 사건이나 소요만도 수백 건을 헤아렸고 지방 차원에서 쉽게 타결된 사건은 수 천건에 달했다.

왜 그렇게 많은 중국인 관리들이 특히 하급 관리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을 적대시했을까. 관리들이 호의적이었던 그렇지 않은 1860년 이후 선교 반대 활동이 청조의 각급 관아를 가장 괴롭히는 사안의 원천이 되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선교사들이 중국의 개혁운동 운동에 미친 영향은 1895-1898년 사이의 시기에 최고조에 도달했다. 청말의 가장 대담한 철학적 주장 중의 하나인 담사동의 『인학』은 기독교와 유교 교리에 동일한 비중을 부여하고 있는데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는 것이었다. 20세기로 넘어오는 시점은 기독교 선교사들이 이와 같은 의미에서도 전환점이었다. 의화단 대학살 사태는 중국인과 외국인 사회 간에 계속 점증하고 있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에서 터진 것으로서 기독교 선교에 반대하는 배외 세력의 압박이 최고 수위를 넘어섰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반기독교 정서는 20세기에 도 가라앉지 않았다.

결론 : 10권 서술상의 특징

해당시기에 관한 10권 저자들의 기본적인 인식은 다음과 같다고 생각된다. 청조 전통적인 구조는 황제를 정점으로 한 관료제이지만, 사적 충성으로 뭉어진 상당히 중앙집권도가 낮은 구조였으며, 특히 청조의 약점은 특히 지방통치에 있었다. 지방관은 관할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고, 지방 유력자인 신사층에 협력을 구해야만 했다. 청조의 약점은 세금 징수 과정에서 두드러졌는데, 세금을 주로 내야 하는 大戶은 요역은 물론이고 세금까지 회피하였다. 그리고 세금 징수 과정에서 서리와 아역의 자의적 징수와 횡령도 횡행하였다. 이에 대해서 풍계분과 같은 인사들이 이를 비판하고 개혁을 주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편전쟁 등의 외부 침략 이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조와 중앙아시아 관련 서술을 맡은 조셉 플래처의 관점은 지금의 눈으로 봐도 상당히 혁신적이며 현재 신청사를 비롯하여 중앙유라시아의 시점에서 청조를 바라 보려는 노력의 시초에 해당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러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청조가 중요하게 간주했던 곳은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이 육박해 오고 있는 실질적인 전투의 장인 바다 쪽이 아니었다는 뜻이 함축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아편전쟁으로 인하여 대량의 실업자가 발생하고 이것이 기독교의 전파 등과 어우러져서 태평천국 운동을 낳게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증국번과 이홍장 등의 양무파 관료들이 등장하게 되었다는 점은 다른 개설서의 서술과 대동소이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풍계분 등의 양무파 관료들의 개혁론의 기원을 포세신이나 魏源 등에서 찾기 보다는 기독교의 영향에서 찾고 있는 점도 두드러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자강운동 역시 서양 기술의 도입 차원에서 논의되고, 그들이 받아들여 만든 수준도 평가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개설서는 ‘충격-반응’이라는 도식에서 서술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을까 생각된다. 이 10권의 필자 가운데 한 사람이자 특히 기독교 파트를 맡고 있는 폴 A. 코헨이 이후 ‘중국 자신에 입각한(China-centered)’ 접근법을 적극적으로 소개하고, 중국의 근현대사는 중국 내부의 조건에 의해 판단되고 연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니었을까 생각된다.²⁰⁾ 결론적으로 이 10권은 매우 독창적인 측면과 함께 매우 전통적인 시각이 한데 섞여 있는 저작으로서 영감의 원천이자 훗날 학자들의 극복의 대상이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20) 폴 A. 코헨, 이남희 역, 『학문의 제국주의』 순천향대학교출판부, 2013.

서구 중심에서 중국 중심 근대사 연구로의 전환 :『캠브리지 중국사 11권(1800~1911)』에 대한 논평

이준갑(인하대)

1. 미국 학계의 중국 근대사 연구 시각 반성과 중국 중심 접근법

본권의 명칭은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1, Late Ch'ing 1800-1911 Part 2* 이며 1980년 캠브리지대학 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한글 번역본은 『캠브리지 중국사 11(1800~1911)-청 제국 말』(새물결, 2007)이란 제목으로 간행되었다. 책임 편집자는 존 K.페어뱅크 교수와 류광징 교수이고 서문도 두 사람의 이름으로 작성되었다. 본권은 모두 10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장과 4장의 저자가 각각 두 사람인 관계로 집필자는 모두 12명이다. 12명 집필자의 신분은 미국 각 대학 교수 9명, 홍콩 중문대학 교수 1명, 일본 동양문고 교수 1명, 프랑스 파리 국립과학 연구센터 연구원이 1명으로 대다수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었다. 집필자 중 특히 눈에 띄는 사람은 이치코 주조(市古宙三)이다. 미국인도 중국인도 아닌 그가 집필진에 포함된 까닭은 신해혁명이 보수적 신사층의 자기 보신을 위한 왕조 혁명에 불과했다는 독특한 학설 때문이었던 것 같다. 집필진의 분포로 보아 본권은 구미 학계라기보다는 미국 학계의 중국 근대사 연구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서술의 하한인 1911년은 신해혁명과 관련하여 본권의 여러 장에서 조명하고 있으나 서술의 상한인 1800년 무렵에 대해서는 본권에서 분석한 바는 없고 전편인 10권에서 청조의 쇠퇴와 관련하여 언급되고 있다.

페어뱅크의 제자이자 10권의 집필자 중 한 사람이기도 한 폴 A.코헨은 1984년에 출간한 자신의 저서에서 미국 역사 연구자들이 중국 근대사를 연구할 때 취했던 세 가지 접근 방식을 소개하고 그 한계를 지적했다.¹⁾ 세 가지 방식이란 1950년대에서 60년대에 유행했던 충격과 대응(impact-response approach), 전통과 근대(tradition-modernity approach) 접근법과 60년대 후반에 출현한 제국주의(imperialism approach) 접근법을 의미한다. 코헨은 세 가지 접근법은 모두 서구 중

1)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폴 A. 코헨의 견해에 대해서는 두 종류의 한국어 번역본에 근거하여 정리한다. 폴 A. 코헨 지음, 장의식 외 옮김,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 고려원 1995; 폴 A. 코헨 지음, 이남희 옮김, 『학문의 제국주의-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 산해, 2003.(코헨의 2010년 재간행본에 대한 이남희의 한국어 개정판은 2013년 순천향대학교출판부에서 간행되었다. 2010년 본은 서문을 새로 썼다).

심주의 관점에서 중국의 역사적 실체를 심각하게 왜곡했다고 비판했다.

충격과 대응 접근법은 근현대 중국에서 발생한 사건들 가운데 서양에 대한 반응이라고 할 수 없는 사건들조차도 서양의 도전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하려 했던 경향을 의미한다. 이런 접근법은 서양의 역할이 뚜렷하지 않은 사건은 중요하지 않다고 평가절하했고 또 서양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 나타난 사건만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다는 판단을 내리도록 했다는 것이다.

전통과 근대 접근법은 중국은 변화하지 않고 정지된 사회라거나 영원히 잠에 빠진 사회라는 19세기 서구인의 중국관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프랑스의 철학자이자 수학자 콩도르세, 독일의 역사가 랑케,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 미국의 사상가 랄프 월도 애머슨 등은 중국 정체론을 주장했던 대표적인 인물이었다. 이런 견해들은 유럽이 경험했던 사회적 변화를 역사 발전의 표준으로 인식하고 유럽의 표준을 중국에 직접 적용하고 비교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했다. 반대로 중국의 고유한 내재적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게 했다. 중국은 서양처럼 근대과학이나 산업혁명을 자생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는가? 그럴 수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종류의 물음이 서양의 변화를 필연적이고 당연한 표준으로 전제한 대표적인 질문이라고 한다.

제국주의 접근법은 중국 역사가 정상적인 발전 경로를 걷고 있었는데 서구와 일본 제국주의가 발전 경로를 방해했다고 생각하거나 정체된 중국 사회에는 외부의 자극이 필요했고 서구가 그 자극을 제공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코헨에 따르면 미국의 중국 근대사 학계에서는 이런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1970년대부터 중국 중심 접근법 (China-centered approach)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중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중국 중심 접근법의 특징을 네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서구의 기준이 아니라 중국사의 관점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하고 결정한다. 둘째, 중국을 대권역이나 省, 주, 현 단위로 나누어 지역사나 지방사 연구를 지향한다. 셋째, 중국 사회의 기층 사회 연구를 중시한다. 넷째, 사회과학을 비롯한 인접 학문의 이론이나 방법론을 수용하여 역사 분석의 틀을 확장한다.

중국 중심 접근법이 유행한 지 10년가량이 지난 1980년에 출간된 본권에서는 직접적으로 중국 중심 접근법을 표방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로 수록된 각 장의 논문들 대부분은 그런 관점에서 서술되었다. 뒤에서 언급하듯이 중국학계도 본권을 중국 중심 접근법에 입각한 연구라고 평가하고 있다.

본권의 전체 윤곽이 소개된 서문에서는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 중심 주제가 제국주의와 근대화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서문에 따르면 중국 사람들은 제국주의의 침략 특히 전쟁과 포함외교, 조약을 통한 권리 획득과 강요, 외세 침투를 주목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권의 집필자들은 경제적 측면에서 제국주의의 실체를 밝히는 작업에 치중했다. 예컨대 면방직 분야에서 영국의 공장제 면제품이 수입되었으나 중국의 면직물 수공업업을 철저히 파괴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의 부족으로 계량화를 통한 제국주의의 경제적 실체를 밝히는 작업은 그다지 성과를 거두

지 못했다. 반면에 근대 사상의 조류나 중국인의 대외 인식 방면에서 제국주의는 민족주의 출현을 촉진한 매개로 작용했고 이런 측면 때문에 제국주의는 중국 근대사에서 점점 중요한 연구주제가 되었다.

근대화 문제는 좀 더 복잡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편집자들은 근대화의 개념을 규정하는 일은 논리적으로는 만족감을 줄 수 있을지 모르나 역사 연구가 다양화할수록 그런 시도는 실질적인 의미를 찾기가 매우 어려워지리라고 전망했다. 그 대안으로 편집자들은 근대화라는 말 대신에 정치나 경제 등 각 방면의 새로운 변화를 의미하는 ‘근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그래서인지 각 장의 집필자들 가운데 근대화의 개념이나 의미를 추적한 거시적 담론자는 없다. 대신에 정치, 경제, 군사, 대외관계 등에서 드러난 개별적인 근대적 양상을 추적했다. 근대적 양상을 밝히는 방법으로서 청말에 중국이 서양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문제보다 중국이 자신의 과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코헨처럼 표현하자면 각 장 집필자들은 중국 중심 접근법으로 자신의 주제에 접근하여 서술했다.

2. 근대적 양상에 대한 탐색

본권 각 장 제목을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청 말의 경제 동향(1870~1911년), ② 청 말의 대외관계(1866~1905년), ③ 서구와의 관계에 대한 중국인의 인식 변화(1840~1895년), ④ 군사적 도전 : 서북지역과 연해 지방, ⑤ 사상의 변화와 개혁 운동(1890~1898), ⑥ 신해혁명과 일본, ⑦ 정치.제도 개혁(1901~1911년), ⑧ 신해혁명 전의 정부, 상인, 공업, ⑨ 공화 혁명 운동, ⑩ 사회 변화의 추세. 이하에서는 가능한 각 장의 제목은 번호로 대신한다. 매우 다양하여 한눈에 파악하기 어렵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 열 편의 글들은 네 범주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로는 개혁이나 혁명을 주제로 한 정치 방면의 글이다. ⑤, ⑥, ⑦, ⑨이 여기에 속한다. 청말의 복잡한 사회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주목할만한 역사적 사실은 개혁이나 혁명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인식 때문일 터이다. 이천년에 걸친 황제 중심의 전제군주정이 공화정으로 전환되는 시기였던 만큼 근대적인 것의 양상을 정치적 측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 찾는 작업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⑤, ⑦은 공통적으로 개혁을 주제로 한 글이지만 각각의 개혁은 주체가 달랐고 개혁의 목표도 매우 달랐다. ⑤는 대승 불교와 기독교 사상 등중국과 서구의 다양한 사상을 접한 강유위가 서구 열강의 침략에 맞서 부국강병과 입헌군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적 개혁을 추진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반면 ⑦에서는 청조가 주도한 광서신정의 교육, 군사, 입헌 준비, 재정 방면 개혁을 분석했다. 각 방면의 개혁에는 근대적 요소들이 포함되었지만 광서신정의 목표는 청조 보위였다. 개혁의 방법은 근대적이었으나 개혁의 목표가 전통 왕조 체제의 유지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광서신정의 한계는 공화 혁명운동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공화 혁명운동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는 ⑨에서 서술했다. 이 글은 혁명운동 기간에 나타났던 전통적인 혈연과 지연, 계급적 동질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결합이나 동맹 관계들이 출현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새로운 인간관계는 전통적인 인간관계의 테두리를 초월하여 국가나 민족의 테두리 속에서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는 토대를 마련해주었다는 점에서 근대적이었다. 필자는 새로운 결합의 절정은 신해혁명 과정에서 신군과 혁명파, 입헌파 간의 대연합이 출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대연합의 실체에 대해서는 모호하게 남겨두었다. 혁명파와 입헌파는 혁명 전야에 대연합이 아니라 대립 관계에 놓여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실상에 더 가까울 것이다. 물론 양측의 대립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정권 장악을 위한 방법론상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는 단서를 붙여야 하겠지만.

⑤, ⑦, ⑨가 중국 입장에서 개혁과 혁명을 분석한 글이라면 ⑥은 신해혁명과 일본의 관계를 주목했다는 점에서 세 편의 글과는 관점이 다르다. ⑥의 저자 매리어스 켄슨은 중국사 연구자가 아니라 일본 근현대사 연구자라는 사실도 이채롭다. 일본 근현대사 전공자가 집필진에 포함된 까닭은 편집자들이 근대 동아시아의 ‘모범생’으로서 일본의 역할에 주목했기 때문이었다. ⑥에서는 ‘모범생’ 일본의 역할을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다. 광서신정 군사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한 신세대 장교 양성 프로그램에는 유럽인 교관보다 더 많은 일본인 교관이 참여했다. 일본의 군사학교에서 연수한 중국인 사관생도도 늘어났다. 민간인들도 청일전쟁 이후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떠났다. 장지동과 같은 개혁적인 총독이나 강유위 양계초와 같은 개혁 운동의 지도자들도 일본 유학을 장려했다. 일본은 중국 혁명 운동의 요람이었다는 등의 언급들이 그러하다.

이처럼 ⑥은 ‘모범생’ 일본이 근대 중국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는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고노에 아쓰마로(近衛篤磨)가 이끈 동아동문서원의 활동이나 흑룡강성에 일본의 근거지를 건설하기 위해 분주하던 우익단체 흑룡회의 활동에 대한 서술도 그런 종류에 속한다. 그러나 고노에는 일본이 청과 연합이나 합작할 것을 제안했지만 그 목적은 일본의 국익을 추구하는 것이었다. 흑룡회 지도자 우치다 료헤이가 중국 혁명과 공화제를 지지한 까닭도 중국에서 일본 세력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는 신해혁명 시기에 쓴 「중국개조론」에서 일본은 열국(列國)을 지도하여 중국을 개조하는 주도권을 장악해야 하고, 공화 정치 건설을 찬성하여 중국이 과분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범생’이 어떤 의도로 청과의 연합이나 협력을 주장했는지를 심층적으로 분석했다더라면 ‘모범생’의 활동에 담긴 빛과 그림자를 함께 포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두 번째로 경제와 사회를 주제로 삼은 글이 세 편(①, ⑧, ⑩)이다. ①은 청말의 농업과 수공업, 근대공업, 대내외 교역, 재정 제도를 분석한 경제 분야의 총론이다. 이 글에는 중국은 근대적 경제 성장을 이룰만한 내부 동력이 부족했다는 일종의 중국 사회 정체론이 포함되어 있다. 정체론을 극복하려고 중국학계에서는 1950년대 이래 명말청초 자본주의 맹아 연구에 집중했다. 그러나 ‘맹아’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그쳤고 자본주의 사회의 존재를 입증할 수는 없었다. 오늘날에는 중국의 저명한 학자조차도 자본주

의 맹아는 일종의 ‘강박관념’이며 중국 스스로는 유럽과 같은 자본주의 경제를 출현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는 형편이다.²⁾ 그러나 중국 학자의 견해는 정체론을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사회의 발전 경로가 유럽 사회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글에는 사실 인식의 오류가 발견된다. 첫째는 중국 경제 발달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9세기의 상업 체계는 전통적으로 높은 수준의 발전을 보이고는 있었으나 여전히 근대적 시장 경제는 아니었다. 몇몇 고가의 상품이 수로를 전국으로 운반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상품을 예로 들어 전국적인 시장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내용이 그러하다. 그의 논리에 따르면 전국적 시장은 근대의 산물이지 전통시대에는 출현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중국 학계의 인식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 중국 학계에 따르면 송대 이래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었으며 명청시대에는 전국적 시장이 더욱 조밀하게 그물망처럼 연결되었고 그 속에서 휘주상인이나 산서상인 같은 대상인집단이 활동했다고 한다. 이런 내용은 선언적 주장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이미 논증했다. 근대적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와는 상관없이 중국에서는 이미 전통 시대에 전국적 시장이 형성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둘째는 중국 稅制史상의 기초적 사실을 오해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1712(강희 51)년에 단행된 성세자생인정을 ‘제국의 가장 중요한 수입인 地稅의 공식 세액이 영구히 고정된’ 조치라고 서술했다. 그러나 성세자생인정은 인두세를 동결한 것이지 지세를 동결한 것은 아니었다. 강희제는 1711년(강희 50)년을 기준으로 인두세(丁稅) 총액을 고정하고 이후에 출생하는 丁男은 성세자생인정이라고 부르고 인두세를 징수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⑧은 경제 분야의 각론에 해당하는 글로서 특히 정부와 상인, 공업의 상호 관계와 실태를 분석했다. 이들 분야에서 근대적 발전을 이룰 수 없었던 까닭에 주목한다는 점에서는 ①과 관점을 공유하고 있다. 1911년 무렵 중국에는 방직, 광산, 제철, 항운, 철도 분야에 근대적인 기업들이 있었으나 각처에 분산되었으며 서로 경쟁하는 경우도 많아 발전하기가 어려웠다고 한다. 또 국가가 강력한 추진력으로 국영 기업을 발전시켜 민간에게 넘긴 일본과는 달리 중국은 정부의 강력한 추진력도 없었고 관료들은 기업에 간여하면서 사리사욕을 채우기에 급급하여 근대적 산업을 발전시킬 수 없었다고 한다.

근대적 경제 발전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새로운 사회 계층이 출현하면서 사회 변화를 일으켰다고 주장한 글이 ⑩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 계층을 특권 계층(privileged classes)과 일반 평민(commom people)으로 나누고 있다. 특권 계층을 지배계층(ruling class)이라고도 불렀는데 태평천국 이전까지 전통적인 지배계층에는 관료와 신사층 및 그들의 확대 가족이, 省 단위에서는 대상인과 錢莊 주인이, 하급단위에서는 부유한 지주와 상인들이 포함되었다고 주장한다. 19세기 후반에는 신군 장교, 번역가나 매판, 수출업상인 등과 같은 서양과의 교섭 담당자, 신사상가, 직업 정치가와 혁명가, 紳商 등과 같은

2) 리보중 지음, 이화승 옮김, 『중국 경제사 연구의 새로운 모색』, 책세상, 2006.

새로운 존재들이 지배계층에 포함되어 근대 중국 사회를 이끌었다고 한다.

그러나 전통적인 지배계층 속에 대상인과 전장, 지주와 상인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아편전쟁 이전까지 자산이 많은 적든 지주나 상인은 지배계층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에게는 평민을 지배할 수 있는 합법적인 권한이나 국가로부터 부여 받은 특권이 없었다. 자신의 재산조차 지키기 어려워 신사나 관원과 사돈을 맺거나 재정을 후원하여 보호자로 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글의 필자 스스로도 상인과 지주의 가족들은 연남이나 과거를 통해 학위나 관직을 취득해야만 상층계층(upper class)으로 진입할 수 있었다고 언급했다. 지주나 상인이라는 신분으로는 지배계층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필자가 말하는 지배계층과 상층계층이 어떤 개념인지 모호하지만 지주나 상인을 전통적인 지배계층에 포함하는 것은 중국의 실상과는 거리가 멀다. 청대의 지주나 상인에게서 유럽의 부르주아를 연상한 듯하다.

세 번째는 대외관계를 서술한 것으로 두 편의 글(②, ③)이 여기에 속한다. ②는 동아시아 국가들이 열강의 침략을 받고 청과의 조공 관계를 단절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서술했다. ③은 중국인들의 서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추적했다. ②에서는 일본의 조선 침략을 비교적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뒤에서 별도로 언급하도록 한다. ②에서는 청이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질서가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제국주의 침략을 당한 피해자인 것처럼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성과는 19세기 말에 청이 자국 이익을 확보하려고 조선에 대해 제국주의 열강처럼 행세했다는 사실을 밝혀 놓았다. 청은 열강의 수법을 모방하여 조선에서 상업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 조청상민수륙무역장정(1882)을 체결했고, 군사적 영향력을 증대하기 위해 청군을 주둔시켰으며,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선 정부에 고문관을 파견했다고 한다.³⁾

네 번째로 서북지역과 동남 연해 지방에서의 군사적 움직임을 분석한 글이 한 편(④)이다. 이 글은 대내외적으로 군사적 도전에 직면한 청이 군대 조직과 운영, 무기 방면에서 근대적 요소를 도입하려고 노력했고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으나 청일전쟁에서 패배하면서 일련의 노력은 총체적인 실패로 끝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글은 내용상의 문제점보다는 구성상의 문제점이 두드러져 보인다. 이 글은 청 말의 대외관계를 조명한 글(②)과 합치는 것이 나올 것 같다. 필자들은 열강과의 군사 충돌은 ④에서, 군사 충돌의 귀결인 조약 체결에 대해서는 ②에서 별도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어느 한쪽의 글만 읽었을 때는 해당 사건의 발생과 전개, 귀결에 이르는 전모를 파악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려고 본권에서는 청불전쟁, 청일전쟁, 신강 수복과 이리 사태 등에 대해서는 ④와 ②에서 모두 중복하여 서술했다. 그러나 군사 동향 위주로 서술한 ④에서는 조약 관련 내용이 소략해서, 대외관계를 집중적으로 조명한 ②에서는 외교적 접촉을 불러오게 한 계기인 군사 충돌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서 독

3) 윌리엄 T. 로 지음, 기세찬 옮김, 『하버드 중국사 청 중국 최후의 제국』, 너머북스, 2014, pp.398-399.

자들이 어느 한쪽의 글만 읽어서는 사건 전모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렵다. 편집자나 필자들은 ④와 ②를 따로 서술하면 좀 더 풍부한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판단한 듯하나 독자로서는 분리 서술의 유익함보다 불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

3. 중국학계의 반응

캠브리지 중국사 11권의 중국어 번역본(『劍橋中國晚清史』 下)은 10권의 중국어 번역본(『劍橋中國晚清史』, 上)과 함께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85에 간행되었다. 조사해본 바로는 번역본 간행 후부터 현재까지 중국에서는 『劍橋中國晚清史』상하권에 대한 14편의 소개글이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은 서평 형식으로 간행되었다. 그 가운데 절반인 7편은 본서가 번역된 직후인 1980년대 후반에 발표되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2천년대에 들어와서도 많지는 않으나 꾸준히 서평이 발표되고 있으며 올해 2020년에도 한편이 발표되었다. 번역본 발간 직후에 연구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았고 그 후에는 열기가 좀 식었지만 그래도 지속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서평에 나타난 중국 연구자들의 본권에 대한 인식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인식은 본서가 서구의 충격과 중국의 대응이라는 관점에서 저술되었다고 파악하는 것이다. 양측의 충돌과정에서 紳商과 같은 새로운 사회 계층들이 출현하기도 하고(⑧) 최종적으로는 전체 사회구조에 변화가 발생했다고 한다(⑩). 충돌은 또 중국인의 관념에 변화를 일으켜 우선 중국인의 서구와의 관계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고(③) 나아가 서구를 학습하려는 지향을 생기게 하여 정치 제도상의 개혁이 출현하게 하였다고 한다(⑤). 무술변법의 실패 후에는 중국을 改造하려는 움직임이 분화하여 입헌과 공화의 두 가지 흐름이 발생했는데 입헌 주장은 청 왕조의 통치를 지속하려는 광서신정에 계승되었으나 결국에는 실패하였으므로(⑦) 공화 혁명이 발생했다고 한다(⑥, ⑨).

둘째는 코헨이 언급했던 중국 중심의 접근법이 이 책을 관통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본권에서 나타난 중국 중심 접근법을 다음 네 가지로 정리했다. ㉑ 중국의 내부 요소를 중시. 이러한 관점은 본권의 편집자인 페에뱅크가 서문에서 “외부로부터의 이 모든 충격들은 중국 민중의 일상적인 생활에서는 조그마한 한 부분에 지나지 않았다.....중국의 경제나 군사조직들 역시 오래되었지만 정체와는 거리가 멀고 전통사회의 내부적인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다.....청말에 중국이 서양에 어떻게 대응했는가 하는 주제는 이제 부차적인 것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반면에 서양을 포함한 새로운 상황을 맞아 중국이 자국의 과거에 어떻게 대응해 왔는지가 중요한 역사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라고 한 지적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난다고 한다. ㉒ 지역사나 지방사 연구. 이런 연구 방식은 중국 전체를 동일한 하나의 단위로 파악하는 오류를 극복했다고 한다. 본권에 포함된 만주, 몽골, 신강, 回部에 대한 연구라든가 광주, 상해, 광서 산악지대, 화북 평원, 호남 등지에 대한 연구가 이런 경향을 반영하고 있다.(①, ④) 이는 스키너의 대권역 이론

을 비롯한 미국 학계의 중국 지방사 연구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서술한 결과라는 것이다. ㉓ 사회구조 상의 연구 특별히 중하층 계층 연구를 진행(㉓). ㉔ 사회과학의 다양한 연구 방법론을 도입. 예컨대 심리학의 연구방법론을 도입하여 강유위의 강렬한 도덕적 사명감과 대승불교의 교리를 결합하여 그의 심리상태를 묘사한 부분(㉕), 경제학적 방법론을 도입하여 대량의 통계 수치를 모아서 분석한 부분(㉖), 문화인류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여 섬서와 감숙 회민들이 살던 자연환경, 종교와 민속, 사회의 기본구조 등을 분석한 부분(㉗)이 그러하다고 한다.⁴⁾

세 번째는 서구 제국주의 침략을 옹호하는 입장이 담겨있다는 비판이다. 본권의 전반에 흐르는 기조는 제국주의 침략이 올바르지 못하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침략을 당한 국가는 저항하면 안되는데 그 까닭은 오히려 저항하면 더욱 큰 손실을 당할 수 있고 심지어 저항의 참가자나 지도자들이 중국 근대화 의 노정에 퇴보를 가져왔다고 인식하는 경향도 있다고 한다. 러시아와의 투쟁이나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부분적으로 거둔 승리를 우연적 요소 때문이라고 하거나, 임칙서의 抗英 투쟁에서의 성과나 삼원리 항영투쟁의 승리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거나, 주전파를 추악하게 묘사한 것이 그런 사례라고 한다. 반대로 이홍장과 같은 양무파나 주화파의 태도는 긍정적으로 보고 칭송했다고 한다.⁵⁾ 그러나 실제로 본권을 읽어보면 이런 평가는 각 장 필자들의 저술 의도나 서술 내용에 근거한 것이라기보다는 ‘애국심’의 과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네 번째는 사료 특히 당안 사료의 이용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본권을 저술할 당시에 외국인 학자들이 중국제일역사당안관의 원시 당안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었지만 당시 이미 간행된 당안 자료들은 충분히 이용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예컨대 ㉘의 의화단운동을 서술하는 부분에서 영문 저술이나 한문 사료들을 이용하면서도 국가당안국 명칭당안관에서 1959년에 간행한 『義和團檔案史料』(중화서국)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무술개혁에 관해 서술한 ㉙에서 19세기 90년대의 변법운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진척되지 않아 중문 저작만으로는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서술을 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국가당안국 명칭당안관에서 1958년에 간행한 『戊戌變法檔案史料』(중화서국)에는 전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런 자료들을 참조하지 않았으므로 의화단이나 무술개혁을 언급할 때 이미 다른 연구성과들에서 모두 지적한 사실들을 다시 언급하고 있을 뿐 새로운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혹은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⁶⁾

4) 이러한 관점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글이 葉哲銘, 「在“西方中心”與“中國中心”之間 - 論《劍橋中國晚清史》中費正清的史學研究模式」, 『杭州師範學院學報』(社會科學版), 2005-6이다. 葉哲銘의 서평에 인용되지는 않았으나 아마도 그의 관점을 정리하는데 참고가 되었을 수도 있는 이전의 연구성과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高鍾, 「當代西方史學方法之集錦 - 《劍橋中國晚清史》史學方法的借鑒意義」, 『湖北社會科學』1987-7; 李華興, 「它山之石可以攻玉 - 評《劍橋中國晚清史》」, 『歷史研究』1988-2; 朱福枝, 「《劍橋中國晚清史》評介」, 『咸寧師專學報』, 16-1, 1996.

5) 趙清明, 「簡評《劍橋中國晚清史》」, 『呂梁高等專科學校學報』25-4, 2009, p.85.

6) 孔祥吉, 「檔案利用與晚清史研究-評《劍橋中國晚清史》」, 『歷史研究』1988-3, p.188.

다섯 번째는 신해혁명을 비롯한 근대사의 주요 사건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비판했다. 예컨대 신해혁명 서술에서 자본주의 경제나 정치적 요소를 ‘경시’했을 뿐만 아니라 농민 운동의 사상적 수준을 ‘저평가’하고 부르주아 계급이 주도한 혁명임을 ‘어느 정도’ 부정하거나 사회혁명으로 칭하기는 어렵다고 했으므로 이러한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⁷⁾ 중국 학계에서는 신해혁명을 손문이나 동맹회 등의 부르주아 혁명파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한 부르주아 민주주의 혁명으로 파악하고 있다.⁸⁾ 따라서 중국 학계의 비판은 어느 면에서는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한편으로 중국 학자들이 말한 ‘경시’라든가 ‘저평가’ 혹은 ‘어느 정도’라는 말의 의미도 모호하므로 본권에서 관련 사항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본주의 경제와 관련하여 문제로 삼은 본권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04년에서 1908년 사이에 정부에 등기된 기업은 약 272개였고 수권 자본의 총액은 거의 1억 냥에 달했다. 그러나 이런 숫자는 과장된 것이었다. 아마도 실제로 납입된 액수는 수권 자본의 절반이거나 혹은 그 이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 또한 모두 근대 기업은 아니었다. 272개 회사 중 44개 기업은 전통적인 1인 소유의 전당포, 전장, 한약방, 기타 도소매상이었다. 272개 기업 중 대다수인 153개 기업은 모두 근대적인 유한회사였다. 1908년이 되면 이들이 사실상 중국의 근대화된 기업 전부였다(⑧)”. 본권에서 이렇게 서술한 근거는 1909년과 1910년 농공상부통계처에서 출간한 『農工商部統計表』제1차 6책과 제2차 5책이었다. 통계상의 한계를 고려하더라도 청 정부의 공식 통계에 입각하여 제시한 수치가 당시 중국의 자본주의 경제를 ‘경시’했다고 비판하려면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하지만 어떤 통계나 자료도 제시하지 않은 채 ‘경시’했다고만 지적하고 있다.⁹⁾

물론 비판 중에는 분명한 근거를 제시한 것도 있다. ⑦의 내용 중에 1909년 제정된 「資政院院章」의 내용을 소개한 부분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그러하다. 본권에서는 자정원에서 토론할 수 있는 주제 중에 법령의 수정과 폐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서술했으나 이는 새로 제정하는 법전 및 사후 수정에 관한 토론을 할 수 있으며 헌법은 제외된다는 내용을 잘못 소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자정원과 행정당국의 관계에 대해서 각 부 혹은 기타 고위 행정기구의 대신들은 자정원 의결사항에 불만이 있으면 재심을 명령(order)할 수 있었다고 서술했으나 원문에는 재심하도록 공문을 보낸다(咨送)고 되어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본권에서는 내각 혹은 정무처 결정 사항에 의문이 있으면 자정원은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고 서술했으나 실제로는 청조가 1906년에 정무처를 회의정무처로 고치고 1907년에는 회의정무처를 내각에 통합하여 내각회의정무처라고 불렀으므로 1909년에 내각과 정무처라는 별개의 기구가 있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¹⁰⁾

7) 劉望齡·唐文權·羅福惠, 「新視覺下的得與失 — 評《劍橋中國晚清史》有關辛亥革命部分」, 『歷史研究』 1989-1, pp.105-106.
 8) 김형중, 「신해혁명의 전개」, 『강좌중국사VI - 개혁과 혁명』, 지식산업사, 1989, p.121.
 9) 劉望齡·唐文權·羅福惠, 「新視覺下的得與失 — 評《劍橋中國晚清史》有關辛亥革命部分」, 『歷史研究』 1989-1, pp.103-106.
 10) 楊小川, 「評《劍橋中國晚清史》—以“清末立憲”記述爲例」, 『鹽城師專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93-2, p.65

4. 일본의 조선 침략에 관한 서술과 한계

한국사와 관련한 서술은 중국사의 입장에서는 대외관계에 속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② 청 말의 대외관계(1866~1905년)에 ‘일본의 조선 침략’이라는 소재목하에 배치되어 있다. 제목이 시사하듯이 조선 관계 기술은 일본의 조선 침략에 초점을 맞추되 특히 청과 일본의 조선에 대한 영향을 제고를 위한 경쟁과 각축을 중심을 서술하고 있다. 전통시대 청과 조공관계를 맺고 있던 조선을 일본이 청일전쟁에서 승리하여 청과의 조공 관계를 해소하고 자신의 영향권에 두었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이다. 논지 상으로 특별히 주목할만한 부분은 없으나 본문에 할당된 시간 하한선이 1905년인데 실제 서술 내용은 1895년의 청일전쟁 마무리를 위한 시모노세키 조약까지만 포함하고 있다. 향후 조선의 운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1905년의 을사늑약은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 부분을 서술하는데 참고한 한국 학계의 연구성과는 조공 관계에 대한 영어 논문 1편에 불과하다.¹¹⁾

‘일본의 조선 침략’은 다시 몇 개의 하위 제목으로 구성되었다. 그것은 ㉑ 조선의 문호 개방, ㉒ 조선의 국내 반란과 국제 정치, ㉓ 청일전쟁의 발발, 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을 통한 강화의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 각 하위 제목들에서 서술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㉑ 조선의 문호 개방에서는 청의 총리아문의 역할이 집중적으로 조명되고 있다는 사실이 눈에 띈다. 총리아문은 흥선대원군이 집권하여 쇄국정책을 고수하던 조선을 일본으로부터 방어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1867년 서구에 대한 문호개방을 권유했다고 한다. 한국 학계에서 조선이 개항하게 된 계기를 운요호 사건에서부터 찾고 있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다.

1875년에는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고 조선의 연안 포대를 파괴한 다음에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총리아문의 소극적 역할이 일본의 발호를 부추겼다고 서술했다. 운요호 사건 후에 청의 반응을 떠보려고 북경으로 간 특사 모리 아리노리(森有禮)는 당시 마거리 사건으로 분주하던 총리아문에게서 조선은 청의 조공국이지만 항상 내정과 외교 문제에서는 완전한 자유를 누려왔다는 답변을 들었다. 청의 소극적 태도에 자신감을 얻은 일본은 조선에 문호개방을 강요했고 청조는 충돌을 피하고자 조선에 협상하라고 권유했다. 1876년 2월에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었는데 이때 청은 조선에 대해 중주권을 제대로 주장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㉒ 조선의 국내 반란과 국제 정치에서는 임오군란과 갑신정변 당시 군사 충돌을 피하려는 청조의 소극적 태도에 맞서 일본은 외교적 공세를 펼치면서 조선에서 군사적 권리를 확보해나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흥선대원군은 1882년 임오군란을 계기로 재집

11) Chun, Hae-jong, "Sino-Korean tributary relations in the Ch'ing period, in Fairbank, John K., ed. *The Chinese World Order :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8.

권했으나 군란을 조사하러 온 청의 해군 제독 정여창과 마건충은 일본의 보복을 막기 위해 대원군을 청으로 압송해 가는 한편 고종에게 조언하여 일본에 55만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하고 사과사절단을 파견하며 일본군의 공사관 주둔을 허용하게 했다. 일본은 소규모이고 국지적이지만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확보함으로써 외교상 중대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서술했다.

1884년 12월의 갑신정변은 조선에서 일본이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또 하나의 계기로 작용했다고 한다. 갑신정변이 실패하자 일본 정부는 즉각 군대와 특사 이노우에 가오루(井上馨)를 조선으로 파견하고 보상금과 사과 표명 공사관 수축비용 부담을 요구했다. 이토 히로부미도 특사 자격으로 청에 가서 이홍장을 만났다. 청불전쟁을 치르고 있던 이홍장은 즉각 타협안에 동의해 1885년 4월 일본과 천진조약을 체결했다. 이 조약은 조선을 청과 일본의 공동 보호국으로 전략시켜 청의 배타적인 종주권을 소멸시켰으며 일본은 청과 대등한 조건에서 조선에 대한 파병권을 획득했다고 서술했다.

◎ 청일전쟁의 발발에서는 ‘동학난’(The Tonghak Insurrection)의 진압을 위해 청일 양국 군대가 출병하면서 전쟁이 발발하고 육지와 바다의 전투에서 청군이 패배하는 과정을 간략하게 서술하면서 이 전쟁은 30여년간 근대화를 추진해온 두 나라의 실력대결이라고 의의를 부여하였다. 청일전쟁이 발생하기 전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했던 청과 조선에서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호전적인 자세를 취했던 일본의 입장을 대비하여 서술하고 있다. ‘동학란’이라는 명칭은 이미 한국에서는 제2차 교육과정 시기(1963~1974)에 국사 교과서에서는 ‘동학 혁명 (운동)’으로 변경되었다. 이후의 교육과정에서도 동학운동, 동학농민운동 등으로 규정했지 ‘동학난’이라고 규정하지는 않았다.¹²⁾ 교과서상의 명칭은 역사학계의 동학 연구의 시각과 정부의 입장이 절충된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의 저자가 동학혁명이든 동학운동이든 동학농민운동이든 이들 가운데 어떤 용어를 사용하든 무방하지만 최소한 ‘동학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말아야 했다. 또 동학농민운동에서 반봉건과 반침략성을 제거한 채로 청일전쟁과 일본의 내정개혁을 초래한 원인으로만 지적하고 있다. 물론 ‘동학난’의 서술 분량이 극히 적어서 이런 내용을 모두 서술하기 어려웠겠지만 기본적으로 동학을 조정에 의해 邪學으로 단죄된 종파로서만 이해한 필자의 입장에서 동학의 혁명성을 찾아내기란 어려웠을 것이다.

또한 ‘동학의 조직 해산 명령을 받은 직후 동학교도들은 일본인 비밀결사 현양사의 도움을 얻어 각종 폐단에 항의하는 집회를 이용해 반란을 일으켰다.’고 서술하고 있다. 요컨대 동학혁명이 일본의 국수주의 단체인 玄洋社의 지원을 받아서 일어난 것으로 기술했는데 이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명백한 오류이다. 현양사에는 15명으로 구성된 천우협이라는 전위대가 있었는데 『玄洋社社史』(玄洋社社史編纂會, 東京, 1917)에 따르면 이들은 전봉준과 만나 그의 軍師로 동학군 유격대의 대장으로 각 방면군의 대장으로 활동하였다고 한다.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필자는 아마도 『玄洋社社

12) 金泰雄, 「해방 후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에서 1894년 농민전쟁 서술의 변천」, 『歷史教育』 133, 2015.

史』나 이것을 자료로 활용한 연구의 논지를 따라 현양사가 동학혁명에 깊숙이 관여한 것처럼 서술한 듯하다. 그러나 현양사 浪人들이 동학군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는 시간과 장소는 동학혁명군의 실제 행동 시간과 장소와는 전혀 일치하지 않은 허구에 불과하다.¹³⁾

④ 시모노세키 조약을 통한 강화에서는 조약의 주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한 뒤에 청일전쟁에서 청이 패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열거하였다. 그런데 정작 언급해야 할 시모노세키 조약이 일본의 조선 침략 과정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가 있었는지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청일전쟁에 임했던 청나라 입장을 지나치게 주목하다 보니 논리적인 흐름을 무시하고 엉뚱한 결말을 지었다. 이 글은 외국인 학자가 한국사 자체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중국 대외관계사의 일환으로 한국사를 서술할 때 범할 수 있는 오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13) 趙恒來, 「日本 國粹主義團體「玄洋社」의 韓國侵略行跡」, 『한일관계사연구』 1, 1993, pp.157-162.

5세션

『케임브리지 중국사』 12권, 중화민국사

김승욱 교수(충북대)

캠브리지 중국사 13권
중화민국사(1912-1949) 하권 내용 검토

발
표

박장배(동북아역사재단)

『케임브리지 중국사』 14권 중화인민공화국사

박상수 교수 (고려대)

『케임브리지 중국사』 중화인민공화국사

채준형 교수(인천대)

토
론

윤희탁 교수(한경대), 강진아 교수(한양대)

중화민국사를 통한 충격-대응론의 시각 조정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John K. Fairbank, ed.,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002P.)

김승욱(충북대)

1

캠브리지 중국사(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는 캠브리지대학출판부(Cambridge Univ. Prss)가 1978년부터 2020년까지 20여년에 걸쳐 출간한 방대한 분량의 중국사 개설 시리즈다. 이 시리즈는 1966년 당초 6권으로 기획되었던 것으로, 이후 기획을 수정하며 총 16권으로 확대되었다.¹⁾ 총편집을 맡은 페어뱅크(John K. Fairbank), 트위체트(Denis Twitchett)는 머리말에서, 그것이 그 사이에 서구 학계에서 확장된 새로운 연구 영역, 방법론을 반영한 것으로 중국 연구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 증가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저작물은 냉전 시기부터 세계 질서 속에서 그 비중이 제고되어왔던 중국에 대한 서구의 강렬한(compelling) 관심을 보여준다.

이 가운데 12권은 1983년에 출간되었다. 이것은 1912~49년 중화민국 시기의 전반을 다룬 것으로 그 후반을 다룬 13권은 3년 뒤인 1986년에 출판되었다. 이 책의 참여 필진은 페어뱅크를 비롯해 포에르베커(Albert Feuerwerker), 영(Ernest P. Young), 네이션(Andrew J. Nathan), 셰리던(James E. Sheridan), 퍼스(Charlotte Furth), 슈워츠(Benjamin I. Schwartz), 리 오우판(Leo Ou-fan Lee), 첸(Jerome Ch'en), 윌버(C. Martin Wilbur), 베르제르(Marie-claire Bergère) 등이다. 이들은 1976년 8월 캠브리지에서 사회과학 연구 협의회(Social Science Research Council)의 지원 하에 기획 회의를 개최했다. 출판 경비는 포드재단(Ford Foundation)과 미국학술단체협의회(American Council of Learned Societies) 산하 국립인문재단(National Endowment for the Humanities)으로부터 지원을 받았다.

개설이라고 해도 이 책이 일관된 논지에 따라 구성, 저술된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당시 공동 작업으로 저술된 많은 개설서들이 그랬던 것처럼 논문집의 형식을 띠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연구의 축적과 인식 공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당시의 연구 성과를 총

1) 총 16권 가운데 수당 2권 중 1권이 미출간되었고 송조, 청 전기는 2책으로 나뉘었다.

실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그것을 평가하는 데 제한된 입장을 갖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논자들은 그들이 처했던 구미 학계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으며 이 책의 기획 의도나 문제의식에 대해 공유했겠지만, 평자의 입장에서 이를 분석할 때 각 논문의 구체적인 논지들 간에 느슨한 정도의 연결성을 기대하며 볼 수밖에 없다.

수록 논문들의 서술 시기는 대체로,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출범한 1912년부터 장개석의 국민정부가 건립되는 1928년까지의 기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기간은 원세개의 집권에서 시작되어 북벌로 붕괴하는 이른바 북경정부의 통치 시기다. 이 책에서는 우선 1912~16년간의 원세개 통치(4장), 1916~28년간 북경정부의 집권(5장) 및 군벌주의와 군벌정치(6장)를 개괄하고, 이어 그에 대한 대책 지대에서 전개된 개혁운동에서 오사운동에 이르는 지적 변화(7장), 오사운동과 그 여파(8장), 문예사조에서 나타난 근대성의 추구(9장), 제1차 국공합작으로 종결된 초기 공산주의운동(10장) 등을 차례로 서술하고, 그 뒤에 1928년 남경 국민정부의 수립으로 귀결되는 국민혁명의 전개(11장)를 기술한다. 이는 입헌공화(constitutional republic)의 불안과 재건이라는 중화민국 시기 전반의 역사를 일련의 흐름으로 구성한다. 서술 시기에서 예외적인 장도 있다. 경제적 추세와 외국 세력의 존재를 다룬 2,3장은 1912~49년 기간을 포괄한다. 이 두 장은 13권을 포함한 중화민국사 전체에 대한 배경 서술이다. 중국 부르조아에 관해 서술한 12장은 남경 국민정부가 당국가 체제를 확립하고 중일전쟁을 맞는 1937년까지 서술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지식인의 지적 변동을 다룬 퍼스와 리오우판의 7,9장은 1895년을 서술 시점(始點)으로 삼고 있다.

1	Introduction: Maritime and continental in China's history	John K. Fairbank	Harvard University
2	Economic trends, 1912-49	Albert feuerwerker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3	The foreign presence in China	Albert feuerwerker	
4	Politics in the aftermath of revolution: the era of Yuan Shih-k'ai, 1912-16	Ernest P. Young	University of Michigan
5	A constitutional republic: the Peking government, 1916-28	Andrew J. Nathan	Columbia University
6	The warlord era: politics and militarism under the Peking government, 1916-28	James E. Sheridan	Northwestern University
7	Intellectual change: from the Reform movement to the May Fourth movement, 1895-1920	Charlotte Furth	California State University at Long Beach
8	Themes in intellectual history: May Fourth and after	Benjamin I. Schwartz	Harvard University
9	Literary trends I: the quest for modernity, 1895-1927	Leo Ou-Fan Lee	University of Chicago
10	The Chinese Communist Movement to 1927	Jerome Ch'en	York University, Toronto
11	The Nationalist Revolution: from Canton to Nanking, 1923-28	C. Martin Wilbur	Columbia University
12	The Chinese bourgeoisie, 1911-37	Marie-claire Bergère	Université de Paris III

우선 각 장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장 「서론: 중국사에서 해양과 대륙」은 총편집자인 페어뱅크가 중화민국사에 대한 서론 격으로 구성한 글이다. 그는 중화민국사 시기가 그 이전의 청조, 이후의 중화인민공화국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앙정부의 안정성을 취약했지만 외국 세력의 영향은 매우 강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국-외국 간의 관계가 중요한 축이 된다고 설명한다. 이때 그는 우선 중국 제국의 주류 전통이 중원과 초원의 대륙을 무대로 농업-관료적(agrarian-bureaucratic) 성격을 형성해왔다고 전제하면서 그러한 “대륙 중국(continental China)”에 대비되는 동남해안과 해양을 무대로 한 상업-군사적(commercial-military) 성격의 하위 전통으로의 해양 중국(maritime China)에 주목한다. 이어 그는 이 하위 전통이 외국과의 관계에서 긴밀히 연관을 맺으면서 양자의 상호 관계 속에서 중국의 혁신, 개혁 기반이 마련되었다고 인식했다. 이때 그는 개항장을 중국-외국(Sino-foreign)이 공동지배(synarchic) 공간 파악하고 그러한 개항장의 질서가 중화민국사의 진행에서 변화의 추동력이 되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그의 서론은 매우 개괄적으로 쓰여져, 기존 논의에서 그리 주목되지 못했던 듯하다. 그렇지만 12권의 구성과 내용을 이해할 때 중요한 틀임으로 그 의미에 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관해서는 뒤에 상론한다.

2장 「경제적 추세, 1912~49」, 3장 「중국에서 외국(외래)의 존재」의 집필자는 포에르베커다. 이는 12,13권을 포괄한 중화민국사에 대한 배경 서술이다. 포에르베커는 1958년 성선회의 양무 기업을 주제로 한 박사논문을 하버드대학에서 출판한 이후, 냉전 시기 미국의 중국 근현대사 가운데 경제사 분야의 연구를 이끌었던 학자였다. 당시 그는 미시간대학에서 중국연구센터(Center for Chinese Studies)를 중심으로 중국연구를 주도하고 있었다. 이 두 장은 각기 1977년, 1976년에 Michigan Papers라는 별도의 책자로 출간된 것을²⁾ 수정해 재수록한 것이다. 이에 대해 페어뱅크는 ‘이 책이 잉태되는 기간에 초기 버전이 개별 책자로 발간되었지만 이제 다시 태어났다’고 소개한다.

그는 우선 2장에서 중국의 인구, 국민 소득, 산업, 농업, 교통, 정부와 경제, 국외 무역과 투자 등 각 부문의 경제적 추세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국가, 정부 차원의 통계들을 중심으로 한 그의 분석은 다소 표피적이고 건조하다고 평해지기도 했으며, 다른 장들과 연관해서 각 지역, 계층에 추가적인 분석의 필요성이 지적되기도 했다. 단 그가 본문에서 명시적인 결론을 제시하고 있지 않더라도 그 분석이 의미하는 바는 분명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농촌을 기반으로 한 중국 경제가 전통적인 구조에 고착되어 있어 개항장 경제와 긴밀히 결합하여 질적인 도약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경제적 차원에서 이 시기의 근대화는 전반적으로 주변적이고 제한적으로 진행되었을 뿐이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근대화 모델에 근거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2) Albert Feuerwerker, *Economic trends in the Republic of China, 1912-1949*. (Michigan Papers in Chinese Studies 31),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Ann Arbor, 1977; *The Foreign Establishment in Chin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nn Arbor (Michigan), 1976

이어 포에르베커는 3장에서 중국에서 외국인 집단과 활동에 대해 네트워크, 외교관, 선교사, 중국인 정부 대리자, 경제적 이해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했다. 그는 외국 세력이 중국에서 향유했던 특권적 지위와 예외성을 강조하면서, 한편으로 제조업, 교역, 운송 등 근대적 경제 부문에서 외국 자본이 지배적인 역할을 수행했고 그것이 중국 경제에 절대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러한 서술에 대해 외국 세력에 대해 현상적 기술에 국한했다는 평가를 하는 논자도 있지만, 외국 자본이 중국의 자본, 노동력을 착취했으며 그것이 중국 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다고 보는 중국 대륙의 학자들과 충돌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 논지는 명확히 엿보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외국(외래)의 존재가 갖는 의미는 이 장의 서술 자체보다는, 페어뱅크가 1장에서 제시한 외국 세력의 복잡성과 연관해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어네스트 영의 4장 「혁명의 여파 속의 정치: 원세개 시기(1912-16)」은 대체로 그가 1977년 발표한 전문에 기반을 두고 있다.³⁾ 그는 1912~1916년 간의 기간을 정치적 통합의 와해, 군벌주의의 부상 또는 “중국 민족주의의 첫 번째 시도가 논리적으로 귀결된 결과”라는 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고 파악한다. 이때 그는 많은 관련 서술들이 전자의 측면을 부각하고 있지만, 후자의 측면에서 원세개 집권의 논리적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고 여긴다. 그에 따르면 신해혁명은 청조를 종식시켰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회적으로는 구 지배층이 온전히 다시 부상하는 보수주의적 국면으로 이어져 원세개가 국민당을 누르고 권력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존재했다. 이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 즉 구심력과 원심력이라는 이해 틀을 통해 청조 시기에서 원세개 시기로의 이행을 연속적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게 해주었다. 또한 이러한 원세개 집권의 붕괴는 중앙집권에 대한 반대 흐름의 극단적 표현으로서 분열과 군벌 할거의 국면으로 귀결되었다.

이어지는 네이션의 5장 「입헌공화: 북경정부, 1916~28」, 쉐리던의 6장 「군벌 시기: 북경정부 하의 정치와 군사주의, 1916~28」은 원 사후부터 국민당정부가 수립되기 이전까지의 정치사를 각기 입헌주의, 군벌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네이션의 글은 1976년 출판된 그의 저서를 재정리해 수록한 것이며,⁴⁾ 쉐리던의 글도 1975년 기간 개설서의 3장 부분을 순서를 바꾸어 재수록한 것이다.⁵⁾

네이션은 신해혁명 전,후 입헌주의(constitutionalism)의 전개를 추적하면서 직업적 정치가의 출현을 비중있게 파악했다. 교통계는 정치 파벌 가운데 가장 일찍 출현해 큰 영향력을 발휘했던 경우였다. 또한 이러한 정치가들은 군벌이 부상하는 가운데 점차 주요한 군사적 파벌에 종속적이 되어갔는데, 단기서의 안복계는 전형적인 예였다. 파벌주의(factionalism)는 조곤의 회선(賄選)으로 대표되는 부패로 이어져, 결국 입헌주의를 파괴

3) Ernest P. Young, *The Presidency of Yuan Shih-k'ai: Liberalism and Dictatorship in Early Republican Chin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4) Andrew J. Nathan, *Peking Politics 1918-23: Factionalism and the Failure of Constitu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5) James E. Sheridan, *China in Disintegration: The Republican Era in Chinese History, 1912-1949*, The Free Press, 1975

시키는 데 이르렀다. 그의 논지는, 이 시기의 정치를 입헌주의, 파벌주의라는 공식, 비공식의 두 차원의 체제가 기능적으로 상호작용한다는 틀에서 설명함으로써, 군벌의 지배 체제가 존속할 수 있었던 근거와 그것이 붕괴하게 된 이유를 함께 설명할 수 있게 해주었다는 점에서 그 논리적 유용성을 인정할 수 있다.

쉐리던은 각 지역, 국가 차원에서 진행된 군벌 정치와 군사적 분쟁을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아울러 그것이 중국 사회에 미친 영향을 정리했다. 그는 끊임없는 권력 투쟁과 군사적 분쟁 속에서 주요 군벌의 행동을 개괄하고 각 지역, 시기에 군벌이 끼친 영향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한편 그는 각 군벌과 열강의 관계도 분석하면서 중국의 반식민지로서의 위상도 아울러 드러내어주었다. 또한 그의 글은 군벌의 파괴성, 분열성, 종속성 등이 중국 사회에 끼친 직간접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그에 덧붙여 중국 정치의 군사주의로의 진행에 미친 영향을 설명함으로써 이후 등장하는 1927~37년의 국민당 지배의 선행 맥락을 구성했다.

퍼스의 7장 「지적 변화: 개혁운동에서 오사운동, 1985~1920」은 정말 개혁운동에서 오사운동에 이르기까지 주요 사상가들의 사고를 간추리면서 중국 지식계의 변화 추세를 정리한 글이다. 그녀는 강유위, 담사동, 엄복 등 주요 개혁운동 인사들의 철학관에서부터 진독수, 이대조 등의 막시즘 수용까지의 일련의 지적 변화를 개관했다. 이때 그녀의 문제 인식은 “서구의 충격과 중국의 대응”이라는 논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 시각을 모색하는데 놓여 있었다. 그녀는 개혁운동을 “서구의 발견”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그것이 전통사상에 대해 갖는 연속성을 간과하게 되고 반면 전통사상 속에서 이단적 요소를 중시하게 되면 그 단절성을 무시하게 된다고 하면서, 연속성과 단절성 양자를 포괄하는 시각을 탐색하고 있다. 이에 그녀는 진화론적 우주관(evolutionary cosmology)이라는 관점에서 중국의 근대 사상사를 단순한 서구에 대한 대응으로 보지 않고 그를 수용한 주체의 진화를 통해서 추적하는 설명을 시도했다. 이는 후술하듯이 당시 중국/서구, 전통/근대의 이원론적인 시각을 극복하고 중국중심론으로 이행이 탐색되고 있던 서구 학계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1장에서 페어뱅크가 제시하는 문제의식에 공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8장 「지성사의 주제들: 오사와 그 뒤」에서 슈워츠는, 오사운동의 전개와 관련 사조 및 주요 논쟁을 차례로 정리했다. 그는 1951년 출간한 저서를 통해서 이미 1918~33년간 중국 공산주의 운동의 전개 과정을 정리한 바 있었는데,⁶⁾ 그의 관심은 주로 현실 정치와 내적인 연관 관계를 만들어내는 정치 사상을 분석하는 데 놓여 있었다. 그는 막시즘의 보급과 중국 공산주의의 승리는 별개의 것으로, 중국 공산주의가 대중운동의 고조 속에서 권력을 잡았지만 그것이 대중의 정치적 의지를 구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그의 중국 공산주의에 대한 시각은 이 장의 서술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단 여기서는 막시즘에 국한하지 않고 제 사조를 개괄하는 가운데, 신전통주

6) Benjamin I.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의와 같은 문화보수주의, 과학과 인생관 논쟁 등에 대해서도 고루 서술하고 있다. 이는 당시 여러 사조를 나열적으로 정리해 참신하지 못하다는 평을 받기도 했으나, 이 시기 중국 지성사의 주제들을 폭넓게 다루었다는 점에서 기존 저서와 다른 그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에 따르면 오사시기 다수 지식인의 주요 목표는 사회-정치적인 독립체로서 중국의 재생을 성취하는 데 놓여 있었다. 이를 위해 중국의 마시스트들은 대중을 새로운 정치 권력을 건설하는 정치적 자원으로 동원하는 데 적절한 이데올로기에 집중하고, 1930년대까지 오랜 사상 투쟁을 통해서 중국 지식계의 주도적 지위를 점하게 되었다.

9장 「문예사조 I: 근대성의 탐색, 1895-1927」은 청말 변법운동 이래 오사시기까지 30년 동안의 중국 현대문학이 전개된 과정을 시기별로 정리한 글이다. 저자인 리오우판은 당시 1970년 하버드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했던 신진 학자였다. 그는 근대 중국의 많은 작가들이 “도덕적 책무”에 대한 인식 속에 “애국주의적 열정”을 갖고 있었으며 그로 인해 그 문학에 “현실주의”가 우세한 특징을 갖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런 측면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는 문학 자체에 대한 관심 외에 역사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때 그는 역사적 관점에서 중국 근대문학의 특징이 형성되는 데 전통과 현대성의 대립, 국가와 사회의 경계, 사회-정치에 대한 주관주의-개인주의적 긴장 등 세 가지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의 글은 오사 시기 문학과 사조가 근대성의 추구라는 관점에서 어떤 역사적 의미를 갖는지를 추적해보는 데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10장 「1927년까지의 중국 공산주의운동」에서 제롬 첸은,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마시즘에의 개종(conversion), 중국공산당의 창당, 제1차 국공합작 속에서의 긴장을 정리했다. 그는 정치 교리의 수용에는 그 이념을 구조화하고 실행으로 이끄는 지적 과정뿐 아니라 그것에 대한 주체들의 감정적 기반이 중요하며, 그러한 감정과 지성의 상호 작용이 정치 교리에 대한 개종을 더욱 복잡하게 만든다고 인식한다. 이런 인식하에서 그는 형성 시기 중국 공산주의운동의 복잡한 면모를 실증적이고 균형감 있게 묘사했다.

마틴 윌버의 11장 「국민혁명: 광둥에서 남경까지, 1923~28」는 국민혁명 운동의 조직에서부터 북벌의 완성에 이르는 과정을 자세히 서술했다. 그의 서술은 국민혁명에서 1927년 쿠데타를 통해 국공합작의 구도를 붕괴시킨 장개석과 국민당 우파의 행동과 정책에 대해 “반혁명”개념을 적용하는 데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다. 당시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국민혁명을 중국공산당이 적극 추진하는 사회혁명의 연장에서 파악하고 그것을 종식시킨 반공 쿠데타를 그 종기(終期)로 삼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에 대해 윌버는 북벌 완성이라는 국가 통합의 과제를 사회혁명의 과제와 분리하려는 장개석 권력의 흐름에 새롭게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1925~27년 혁명 진행의 특징은 사회적 측면과 국가적 측면의 양분으로, 장개석은 전자와 거리를 두면서 후자에 무게를 두었던 것이다. 이런 가운데 양자의 목표를 지속하려는 공산당의 남창기의는 국민당의 정당성에 대한 반란(rebellion)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이었다. 아울러 윌버는 중국 공

산당과 국민당 좌파가 주도하는 반제 대중운동에 대해서도 아울러 주목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시각적 균형을 유지하려고 했다.

마지막 12장 「중국의 부르주아, 1911~37」에서 베르제르는 신해혁명 이후 남경국민정부 시기까지 중국 부르주아의 정치적 위상 변화를 추적했다. 그에 따르면 중국 부르주아는 신해혁명에서 그 역할이 제한적이었지만 이후 곧 우세한 정치적 역량을 확보했다. 그렇지만 이들의 시도는 다시 원세개 권력의 부상 하에 실패로 판명되었으며 이후 정치 영역과의 관련 여하와 무관하게 부차적인 역할을 발휘하는 데 머물렀다. 이후 1914~23년의 이른바 중국 자본주의의 황금시기를 경험하면서 이들의 정치적 열망은 크게 신장되었지만 그 역시 보람 없이 끝났다. 경제적 호황을 경과하고 혁명운동이 고조되는 가운데 부르주아는 다시 그 정치적 역량을 결집하여 장개석 정권과의 공생을 모색했지만, 결과적으로 부르주아 계층은 그들이 집권을 도운 바로 그 국가 권력의 타격을 받는 위치에 다시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베르제르의 논의는 중국 부르주아와 국가 권력의 관계에 관해 기존의 관점과 같이 단순한 결탁, 종속 등의 관계가 아니라 이들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집단으로서 정치 역량의 신장과 발휘를 모색하는 행위자였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다. 이는 이 시기 중국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향과 한계를 산업혁명과 사회혁명의 연결이라는, 서구 역사를 포함하는 보다 보편적인 역사 진행의 맥락 속에서 평가하려는 시도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었다고 할 수 있었다.

이 책의 참여 필진들은 모두 당시 이미 학술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던 학자들이었으며, 이 책에 수록된 논문들 가운데 상당 수는 이미 연구서로 기간되어 해당 분야의 연구자들에게 수용되고 있었다. 때문에 이 책은 오늘날까지도 비영어권 국가에 번역되어 교재로 활용되는 등 학술적 영향력을 유지하고 있다.

2

이 책의 형식상, 비록 논문들이 기획 의도와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해도 그 속에서 일관된 논지를 발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책이 출간되었을 때 이를 비중 있게 주목하면서도 개별 논문이 아니라 그 전반적인 논지에 대해 평가하는 글은 많지 않았다. 한국 학계의 경우 출간 직후 발표된 한 서평은 “일관된 문제의식이나 방향을 찾아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하면서 “서론”에 대한 논급은 거의 생략한 채로 각 논문들에 대한 실증적이고 세밀한 평가를 내렸을 뿐이었다. 당시 80년대는 중화민국사 연구에서 혁명사, 정통사관 등의 연구 시각으로부터의 전환이 적극적으로 모색되던 시점이었다. 중국 대륙에서도 민국 시대를 제명으로 한 개설서가 출간되기 시작했는데, 李新 總編의 『中華民國史』 第1篇 “중화민국의 창립(상,하)”가 1981,82년에 차례로 출판되었다.⁷⁾ 이런 가운데

7) 중화민국사의 편찬 사업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 이후 50년대부터 제기되었지만, 본격적인 편사

1983년 출간된 이 책에 대한 시선은 같은 시점에 출현한 다른 개설서와 비교되는 분위기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책의 기획 과정과 구성, 체계 등을 볼 때 이 책의 의의는 나름대로 분명한 지향점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특히 당시 서구 학계에서 진행되고 있던 중국 연구를 둘러싼 시각 전환의 움직임과 관련해서 주목할만한 측면들이 적지 않다.

페어뱅크는 1장(서론)에서 이 책이 “서구의 충격과 대응”이라는 관점과 그것을 둘러싼 논쟁적 주제들에 대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그는 「외국(외래)적 영향의 문제(The problem of foreign influence)」, 「하위 전통으로서 해양 중국(Maritime China as a minor tradition)」, 「개항장 혼합체(The treaty-port mixture)」의 세 절을 통해 이에 관해 차례로 설명했다. 우선 1절에서 그는 외국(외래)의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의 문제를 중화민국사의 중요한 주제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근대 중국이 적응해야 했던 문제는 지배적이고 다수를 점했던 문명이 갑작스레 자신이 세계 속에서 소수의 지위에 처해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으로 이때부터 중국은 외부의 ‘근대’방식을 수용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설명하고, 중화민국 시기는 바로 그 외국(외부)의 영향이 그 전후에 존재했던 청조,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인 중앙정부의 시기에 비해 놀랄만한 정도로 컸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그에 따르면 외부 대 내부(outer versus inner)의 문제를 어떻게 규정하고 분석해야 하는지는, 중화민국 시기를 분석할 때 가장 첨예한 과제였다.

주지하듯이 페어뱅크는 미국 중국학의 기반을 조성했고 조직, 연구자, 어젠다 등에 두루 큰 영향을 발휘했던 핵심 인물이었다. 또한 충격-대응 논리는 그가 중국 역사를 이해하는 주요한 이론 틀이었다. 그는 2차대전 이전부터 중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중국 전문가로서 미 정부의 정책에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다. 그런 이유로 1950년대 맥카시즘 속에서는 친공분자로 지목되어 공격을 받으며 “중국 상실”의 책임을 추궁당하기도 했다.⁸⁾ 그런데 그의 중국 역사,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은 편면성이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는데, 그는 유교로 대표되는 중국 문화는 폐쇄적으로 중국사회를 정체로 이끌었으며, 단지 서구의 충격으로만 비로소 본래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현대화의 노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인식했다. 그는 1954,55년에 잇따라 출간한 저작들에서 19세기 이래 중국 역사의 변화를 이끈 근본 동력은 바로 서구의 중국에 대한 충격과 그에 대한 중국의 반응이라고 주장했다.⁹⁾ 또한 이러한 충격-반응론은 1960년 출간한 동아시아사 개설

사업은 문화대혁명이 종식된 뒤 1978년 『民國人物傳』 제1권이 출판된 것이 시작이었다. 『中華民國史』는 1981년 제1권(상)이 출판된 것을 시작으로 2011년 신해혁명 1백주년까지 총12권 36책으로 완료되었다. 그 가운데 正編은 12권 16책이고 그 외 大事記 12책, 人物傳 8책으로 구성되었다.

8) John K.Fairbank, *Chinabound: A Fifty Year Memoir*, Harpercollins, 1982

9) John K.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John K.Fairbank, Masataka Banno, *Japanese Studies of Modern China: a Bibliographical Guide to Historical and Social-Science Research o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Harvard-Yenching Institute Studies, 26)*,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서에도 그대로 반영되었다.¹⁰⁾

그런데 60~70년대 서구 학계에서는 점차 서구중심적 시각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비서구 국가, 지역의 독자성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었다. 베트남전쟁 등은 미국의 선도 역량과 서구 가치관에 의문을 갖게 했고, 반동회의 등 제3세계의 흥기는 세계 체제의 재편을 전망하게 했다. 이런 가운데 서구 외의 다른 국가, 민족의 독자적인 발전에 대해 주목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종족우월론, 유럽중심론에 대한 반대는 이 시기 서구의 역사 학계의 주요한 추세였다.¹¹⁾ 페어뱅크의 경우는 1968년 관련 권위자들을 모아 비서구 세계의 독자적 질서의 하나로 중국적 세계 질서(Chinese World Order)를 해명하는 공동 작업을 진행했다.¹²⁾

본서가 출간된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미국 학계에서는 이미 내재적 동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부상했다. 예를 들어 필립 쿤(Philip A. Kuhn)이 1970년 출간한 태평천국에 관한 저작은 서구의 충격에 대한 중국의 대응이 아니라 서구가 도래하기 전 중국 사회 내부에서 발생한 변화로 그 문제인식과 관심을 전화했다는 점에서 미국의 중국사 연구자들에 큰 영향을 끼쳤다.¹³⁾ 많은 학자들이 중국 역사의 내재적 동인을 중시해야 한다는 흐름에 동조하고 있었다.¹⁴⁾ 주지하듯이 폴 코헨(Paul A. Cohen)은 그러한 흐름에 분명한 전기를 만드는 책을 발표하게 되는데, 그는 1984년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를 통해 그의 스승인 페어뱅크 등 미국 학자들이 취해온 충격-반응, 전통과 현대 등의 패러다임이 중국을 수동적인 입장에 위치하게 하고 서구의 충격이 없이 변화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했다고 비판하면서 중국중심의 중국사(China-centered history of China)를 주장했다.¹⁵⁾

코헨의 문제 제기는 명백히 페어뱅크를 핵심으로 한 전 세대 학자들에 대한 것이었으므로, 그 전 해 페어뱅크의 주편으로 출간된 이 책은 자연스럽게 그러한 대비 속에서 수용되는 측면이 있었다. 이런 가운데 페어뱅크가 위의 서론에서 중화민국사의 가장 첨예한 과제를 “외부 대 내부”의 문제라고 제시한 것은 이 책이 충격-대응론의 문제를 정면으로

10) Edwin O. Reischauer, John K. Fairbank, Albert M. Craig, *A Hist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Boston: Houghton Mifflin, 1960. (revised as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1989)

11) Geoffrey Barraclough, *Main Trends in History*, Holmes and Meier, 1979

12) John K. 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1968

13) Philip A. Kuhn, *Rebellion and Its Enemies in Late Imperial China: Militarization and Social Structure, 1796-186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14) John Winthrop Haeger, *Crisis and Prosperity in Sung Chi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75; Frederic Wakeman Jr., Carolyn Grant, eds., *Conflict and Control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G. William Skinner,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Jonathan D. Spence, John E. Wills Jr.,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China*, Yale Univ. Press, 1981

15)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다루고 있다는 점을 표명한 셈이었다. 이 점에서 이 책은 그와 그의 동료 그룹들이 그 간에 서구 학계에서 진행되어온 시각 전환의 움직임에 대응해서 그 충격-대응론의 이해 틀에 어떤 조정을 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이었다.

페어뱅크는 “외부 대 내부”의 이원적 대립 구도와 관련해, 1절 「외국(외래)적 영향의 문제」의 나머지 부분에서 “Foreign”개념에 대해 검토한다. 그는 “foreign”개념은 매우 모호해서 불필요한 논쟁에 빠지게 하며 그에 대해 신중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중국에서 “외국의 영향”은 매우 다양한 양상으로 존재했으므로 그것을 간단히 규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이에 대해 그는 그에 접근하는 새로운 규정(distinction)과 조건(proposition)으로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① 중국을 정치적 구별을 넘어 독자적 문화체로 보는 관점은 “외국(외래) 세력”이라는 개념을 대비적으로 과장하게 된다. ② 외국(외래) 세력은 다양한 부류의 집단으로 그것은 단일한 세력이 아니라 그 속에 독자적인 하위문화를 가진 집단이 존재했다. 심지어 그 가운데는 혁명의 조력자도 있었다. ③ 중국 역사는 중국의 언어, 문자 체제와 연결되어 중국인 자신과의 연관성이 있을 때 비로소 역사로서 의미를 가진다. ④ 외국(외래)의 영향은 그것이 중국인에 영향을 끼치려면 중국의 언어, 기록 체제를 통과하며 소화되어야 한다. ⑤ 외국(외래)의 영향은 기본적으로 중국인 개인들의 행위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작동하는 것으로, 중국인 주체(actor)의 역할을 통해서 작용한다. ⑥ 중국인은 외국(외래)의 자극에 대응해서 그들의 언어 또는 행위 속에 있는 중국적 요소를 가지고 근대적 방식을 만들어내야 했다. 이에 따르면 근대 중국에서 외국 세력은 단순히 “외부 대 내부”의 대립 구도의 일방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었으며 그것의 중국 역사에 대한 작용 여부나 방식은 중국인 주체의 선택을 통해 결정되는 것이었다. 이는 충격-대응론이 반드시 외부와 내부를 이원적인 대립 구도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한 것이며, 적어도 그 이원 구도의 극복 필요성에 대한 비판에 대한 수용을 엿볼 수 있게 한다.

이어 그는 2절 「하위 전통으로서 해양 중국」에서, 주류 전통인 “대륙 중국”에 상대되는 하위 전통으로서 “해양 중국”이라는 존재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중국에 농업-관료적 성격의 주류 전통이 중원을 무대로 자리잡고 있는 동안 그 주변에는 그와 대비되는 하위 전통들이 존재했으며, 그 가운데 동남해안과 해양을 무대로 성장한 상업-군사적 성격의 하위 전통은 근대에 접어들어 외국(외래) 세력과 긴밀한 연관을 맺으면서 중국의 근대적 혁신, 개혁의 기반을 형성했다. 하위전통으로서 해양 중국은, 그가 1968년 『중국적 세계 질서』에서 중국의 전통 질서를 개념화할 때까지만 해도 언급되지 않았던 것으로, 이후 내적 동인에 주목하기 시작한 서구 학계의 흐름을 반영해 덧붙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는 3절 「개항장 혼합체」에서 중국의 근대 경험을 잘 반영하는 공간으로서 개항장에 주목한다. 그에 따르면, 개항장은 중국, 외국의 동기가 함께 작용한 가운데 출현한 것으로, 그 안에서 외국인도 종래 중국인 관료-지식인이 누렸던 것과 같은 특권을 향유함으로써 그 공동 지배적(synarchic) 권력 구조에 진입했다. 이곳은 행정적으로 외

국인이 관리했지만 주민 면에서 중국인이 다수를 점했는데, 그것은 외국 세력의 확장과 해양 중국의 성장이 합류하는 일종의 “잡종 중국(hybrid China)”였다. 이에 따라 이곳에서 진행된 경제 활동은 식민주의의 일방적인 착취가 아니라 그 경제적 성장의 성과를 중국 기업도 함께 향유하는 중국-외국의 공동 성취(Sino-foreign achievement)였으며, 이곳에서 발전한 새로운 사고는 외국, 중국 어느 일방에 전적으로 기원하지 않은 것이었다. 이렇게 그는 중국-외국 공동의 장으로서 개항장을 무대로 성장한 해양 중국을, 중국의 근대 역사로의 변화를 여는 통로로 설정했다.

페어뱅크는 이상과 같이 외국(외래) 개념에 대한 재규정과 이원론의 해체, 하위 전통으로서 해양 세계에 대한 주목, 중국-외국 공동의 장으로서 개항장 등의 논의를 통해서 중화민국사를 이해하는 실마리를 제시했다. 이때 그는 한편으로 이러한 개념들이 분석적 수단이 아니라 추상적인 수사이며, 사회혁명(Social Revolution)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그것은 그것이 시작하지 못한 모종의 변화의 시작일 뿐이라고 그 의미를 제한한다. 원세개 집권, 군벌 할거로 이어지는 중화민국의 역사는 바로 그 사회혁명의 지체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며, 사회혁명의 측면에서 더 중요하고 복잡한 변화는 해양 중국보다 대륙 중국에서 전개된 것이었다.(그는 이를 추후 과제로 설정한다.) 그는 20세기 역사의 난제인 산업혁명과 사회혁명의 관계의 문제가, 중국의 경우 독특하게도 해양 중국과 대륙 중국의 경계선 위에 놓여 있다고 서론을 마무리하고 있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책이 충격-대응론에 대한 시각 조정의 시도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책의 발간 직후에 출간된 코헨의 문제제기가 강력했던 까닭에 이 책의 의미에 주목하는 논의가 흥미를 끌지 못했던 측면이 있지만, 그들이 이 책을 통해서 충격-대응론의 “외부 대 내부”의 틀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중국 역사에 대한 중국인의 주체성과 그 역사의 연속성을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던 점은 주목해볼 가치가 있다. 이 책이 충격-대응론을 축으로 새로운 논의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다른 한편에서는 개혁 개방 시기 다시 협력 상대가 된 중국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는 현실적 측면도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가운데 제시된 이 책의 논지들은 페어뱅크를 비롯한 서구 학계의 주류가 내부의 비판 논의에 대응해서 그들의 충격-대응론에 어떤 조정을 가하고 있었는지 볼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학술사적으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羅弦洙, 白永瑞, 『John K. Fairbank, ed.,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1002P』, 『東洋史學研究』 20, 1984.12
- Albert Feuerwerker, *Economic trends in the Republic of China, 1912-1949*, (Michigan Papers in Chinese Studies 31),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Ann Arbor, 1977
- Albert Feuerwerker, *The Foreign Establishment in China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University of Michigan. Center for Chinese Studies, Ann Arbor, 1976

- Andrew J. Nathan, *Peking Politics 1918~23: Factionalism and the Failure of Constitutional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6
- Benjamin I. Schwartz, *Chinese Communism and the Rise of Mao*,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1
- E.B. Vermeer, Reviewed Work(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by John K. Fairbank, *T'oung Pao*, 1988, Second Series, Vol.74, Livr.1/3(1988)
- Edwin O.Reischauer, John K.Fairbank, Albert M.Craig, A History of East Asian Civilization (Boston : Houghton Mifflin, 1960). revised as *East Asia: Tradition and Transformation* (1989)
- Ernest P. Young, *The Presidency of Yuan Shih-k'ai: Liberalism and Dictatorship in Early Republican China*,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1977
- Frederic Wakeman Jr., Carolyn Grant, eds., *Conflict and Control in Late Imperial China*,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5
- G.William Skinner, *The City in Late Imperial Chin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77
- Geoffrey Barraclough, *Main Trends in History*, Holmes and Meier, 1979
- James E. Sheridan, *China in Disintegration: The Republican Era in Chinese History, 1912~1949*, The Free Press, 1975
- Jerome B. Grieder, Reviews of Book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by John K. Fairbank, *American Historical Review* 93-1, 1988
- John K.Fairbank, *Chinabound: A Fifty Year Memoir*, Harpercollins, 1982
- John K.Fairbank, *China's Response to the West: A Documentary Survey, 1839-1923*,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54
- John K.Fairbank, Masataka Banno, *Japanese Studies of Modern China: a Bibliographical Guide to Historical and Social-Science Research on the 19th and 20th Centuries*(*Harvard-Yenching Institute Studies*, 26),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 John K.Fairbank,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1968
- John Winthrop Haeger, *Crisis and Prosperity in Sung China*, University of Arizona Press, 1975
- Jonathan D. Spence, John E. Wills Jr., From Ming to Ch'ing: Conquest, Region, and Continuity in Seventeenth-Century China, Yale Univ. Press, 1981
- Paul A. Cohe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84
- Philip A. Kuhn, *Rebellion and Its Enemies in Late Imperial China: Militarization and Social Structure, 1796-1864*,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70
- R.F. Ash, Reviewed Work(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1 by John K. Fairbank,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University of London, Vol.48, No.3, 1985
- S.A.M. Adshead, Reviewed Work(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 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I, by John K. Fairbank, *Pacific Affairs*, Vol.57, No.2, Summer, 1984
- Witold Rodzinski, Reviewed Work(s):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12.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1 by John K. Fairbank, *The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1985, No.2, 1985

캠브리지 중국사 13권 중화민국사(1912-1949) 하권 내용 검토

박장배(동북아역사재단)

1. 캠브리지 중국사 출간 배경

총편집자 서문에 지적되었듯이, 캠브리지 시리즈는 1902~1912년에 액튼 경의 기획으로 출간된 <캠브리지 근대사>(16권)를 출발점으로 한다. 1966년 처음에 6권으로 기획된 <캠브리지> 중국사는 “역사를 읽는 서구의 독자들에게 규범적인 가치 있는 저작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책의 총편집자는 데이스 트위체트(Denis Twitchett)와 페어뱅크(John K. Fairbank)인데, 캠브리지 중국사 13권(중화민국사 하권)의 편집자는 페어뱅크와 앨버트 포이어워커(Albert Feuerwerker)다. 페어뱅크는 12권의 제1장 도론에 이어 13권에서도 도론을 집필했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도 공동저술 방식으로 집필, 출간되었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상권은 1983년에, 하권은 1986년에 출간되었다. 기본적으로 1980년대 중반 이전 서방의 중화민국사 연구가 도달한 수준을 대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캠브리지 중국사는 냉전이 최고조에 달한 1960년대에 기획되었는데, 당시는 또한 중소분쟁도 최고조에 달한 시기였다. 실제로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가 나온 것은 중미 수교가 이루어진 1970년대 이후였다. 중국이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미국이 중국의 세계시장 참여를 권장하는 상황에서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가 선을 보였다는 점은 이 시리즈의 현실적 의미가 적지 않음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하권이 출간된 지 이미 34년이 지났다. 1980년대에는 외부의 충격과 중국의 반응 논리가 반성의 대상이 된 시기였다. 그 이후 중국 근대사 연구의 패러다임도 몇 차례의 혁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근대사 시리즈의 원점으로서 여전히 살펴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캠브리지 중국사, 특히 근현대사의 출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하는 점은 여기에서는 분석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여기에서는 제13권 중화민국사 하권의 주요 내용, 서구학계와 중국학계의 인식 차이, 그리고 한중관계사와 한국사에 대한 서술 내용을 검토하여 이 권의 특징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2. 캠브리지 13권의 중화민국사 이해

캠브리지 12권 중화민국사 상권은 제1장 “도론: 중국 역사의 연해와 대륙”, 제2장 “경제추세(1912-1949년)”, 제3장 “중국에서의 외국의 존재”, 제4장 “혁명 후의 정치풍운: 위안스카이 시기(1912-1916년)”, 제5장 “입헌공화국: 베이징정부(1916-1928년)”, 제6장 “군벌시대: 베이징정부 하의 정치투쟁과 무력주의”, 제7장 “사상의 전변: 개량운동에서 오사운동으로(1895-1920년)”, 제8장 “사상사 측면의 논제 : 오사 및 그 후”, 제9장 “문학의 추세1: 현대성에 대한 추구(1895-1927년)”, 제10장 “1927년 전의 중국공산주의 운동”, 제11장 “국민혁명: 광저우에서 난징까지(1923-1928년)”, 제12장 “중국의 자본가 계급(1911-1937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캠브리지 13권 중화민국사 하권의 장 제목과 집필진은 다음과 같다. ㉠ 총편집자 서문은 존 K. 페어뱅크가 썼다. ① 제1장 “도론 : 중국 근대사의 투시”는 메어리 B. 란킨(Mary B. Rankin, 워싱턴 DC), 존 K. 페어뱅크(하버드대 명예역사교수), 앨버트 포이어워커(미시간대 역사교수, 앤 아버)가 집필했다. ② 제2장 “1911-1931년 중국의 국제관계”는 에토 신키치(아오야마 가쿠인 대학 국제관계 교수, 도쿄)가 집필했다. ③ 제3장 “1927-1937년 난징 10년 시기의 국민당 중국”은 로이드 E. 이스트맨(Lloyd E. Eastman, 일리노이대 역사교수, 어배너)이 집필했다. ④ 제4장 “1927-1937년의 공산주의운동”은 제롬 천(요크대 역사교수, 토론토)이 집필했다. ⑤ 제5장 “토지제도”는 레이먼 H. 마이어스(Ramon H. Myers, 전쟁·혁명과 평화에 관한 후버 연구소, 팰로앨토)가 집필했다. ⑥ 제6장 “농민운동”은 루시앙 비앙코(Lucien Bianco, 파리 고등사회과학연구소 교수)가 집필(번역: 자넷 로이드)했다. ⑦ 제7장 “지방정부의 발전”은 필립 A. 쿤(Philip A. Khun, 역사와 동아시아 언어와 문명 교수, 하버드대)이 집필했다. ⑧ 제8장 “학술계의 성장, 1912-1949년”은 쑨전 이투(E-TU ZEN SUN, 중국사 교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가 집필했다. ⑨ 제9장 “문학 추세: 혁명으로 통으로 길 1927-1949”는 리 레오 어우-판(Leo Ou-Fan Lee, 시카고대, 중국문학 교수)이 집필했다. ⑩ 제10장 “일본의 침입과 중국의 국제지위 1931-1949년”은 이리예 아키라(Akira Iriye, 시카고대 역사교수)가 집필했다. ⑪ 제11장 “중일전쟁 시기의 국민당 중국, 1937-1945년”은 로이드 E. 이스트맨이 집필했다. ⑫ 제12장 “중일전쟁 시기의 중국공산주의운동, 1937-1945년”은 라이만 반 슬라이크(Lyman van Slyke, 스탠포드대 역사교수)가 집필했다. ⑬ 제13장 “1945-1949년의 국공 충돌”은 수잔 페퍼(Suzanne Pepper, 대학 서비스센터, 홍콩)가 집필했다. ⑭ 제14장 “1949년 이전의 마오쩌둥 사상”은 스투어트 슈람(Stuart Schram, 정치학교수, 런던대, 동양 및 아프리카 연구학교)이 집필했다.

집필진의 특징은 우선 문화 배경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미국연구자, 일본연구자, 대만연구자, 프랑스연구자까지 매우 다양한 문화개병을 가지고 있지만, 대체로 일본과 대만의 연구 성과를 대거 이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들 각국의 대표적인 중화민국사

연구자들이 필진으로 참여하고 있고 많은 업적은 낸 연구자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자들도 있다. 집필자들의 지적 배경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제1장 “도론 : 중국 근대사의 투시”는 세부항목이 ① 변혁과 연속성 : 분기, ② 중국경제의 성장과 변혁, ③ 사회구조와 사회행위의 변화, ④ 혁명과정 중의 국가와 사회로 구성되어 있다. 이 장에서 처음 주목한 것은 변화와 연속성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국 근대사는 혁명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기술할 수 있지만, 혁명이나 부흥, 근대 개혁과 같은 몇 마디로 개괄하기 어렵다. 또한 중국을 하나의 단일한 실체로 개괄하기 어렵지만, 12권 1장의 ‘해양중국’과 ‘대륙중국’의 구별은 유용할 것이다. 20세기의 중국 혁명은 인구규모가 크고 직면한 변혁이 더욱 광범위하다는 측면에서 다른 나라의 혁명과 구별될 수 있다.

농민생활의 변화는 매우 완만했다. 중국 구질서의 구조는 매우 견고하지만, 최종적으로 공업주의와 민족주의 근대운동, 과학과 민주에 적응해 왔다. 근대중국의 변혁에 대한 이해는 선형 모델 해석과 순환 모델 해석이라는 두 역사학과 사이의 논쟁의 문제다. 선형 관점은 근대 성장의 영향이 인구와 경제 측면만이 아니라 생산기술, 정치민족주의와 과학사상 측면에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근대화는 전면혁명이었다. 순환 관점은 중앙 정권의 쇠락, 내전과 외국 침입, 보편적인 혼란과 빈곤, 중앙정권의 군사부흥, 도생의 길의 회복과 발전 등 여러 측면의 반복을 본다. 저자들이 보기에 이 양측면은 서로 용납하는 것이다. 1800년에서 1949년까지 중국문화의 차이성은 감소했지만 여전히 완강하게 존속하고 있다.

변혁과 연속성: 시기구분. 연속성이 많더라도 중국은 1800년에서 1949년까지 종종 거대한 변화를 겪었다. 정치제도, 특히 국가와 사회의 관계는 결정적으로 개변했다. 아편전쟁이 결정적인 서방 충격시기였다는 것에 근거하여 중국 근대사가 1840년에 시작되었다고 하면, 그것은 변혁의 국내원인과 서로 대립하는 국외의 원인을 지나치게 강조하게 될 것이다. 저자들은 오히려 1800년을 18세기의 변영, 확장, 자신감이 중화제국과 19세기 분열과 혼란의 중국 사이의 분계선으로 보려고 한다. 저자들은 이 시기를 네 개의 시기, 즉 1800-1864년, 1865-1911년, 1912-1930년, 1931-1949년으로 구별한다.

첫 번째 시기(1800-1864년). 19세기의 주요 반란이 1860년대 평정되었지만 왕조 몰락의 전통적인 징조가 술하게 나타났다. 수운체계와 하천방어체계가 무너져 일부에서는 관리하는 이가 없어졌다. 18세기에 후난 중부의 호수를 둘러싸고 과도한 제방이 수축되었다. 부단한 인구 증가로 더 많은 농토가 필요했다. 이것은 하천 운항을 제한했다. 장강 각지에서 관리와 향신의 이해가 충돌하여 제방의 관리와 수축을 막았다. 1853년의 황하 수로 변경은 그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 대도시 관리의 부패는 18세기말에 이미 정점에 달했다. 반란은 청조 전복의 징조를 보여주었다. 변경 소수민족도 반란을 일으켰다. 해적도 연해에서 출몰했다. 서방국가들은 연해도시들을 습격하기 시작했고 정치와 경제

의 특권을 강요했다. 이러한 문제에 직면하여 정부는 연약하고 무능했다. 정부와 군대는 반란을 진압하지 못했고 세수는 반란진압 비용을 충당하지 못했다. 19세기의 여러 황제는 선배들에 비해 나약하고 무능했다. 새로 조직된 지방군대가 대규모의 반란을 진압했고 권력 분산이 바야흐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왕조순환의 내리막길이라는 추세의 관례는 이 역사 시기의 두 가지 측면을 포괄할 수 없다. 우선 인구증가는 전례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중국의 인구는 1750년 2-2.5억이었는데 1850년에는 4.1-4.3억에 이르렀다. 또 공업기술과 서방자본주의 경제 확장에서 힘을 얻은 제국주의 서방은 전에 유목민족이 중국에 침입한 것보다 더 근본적인 도전을 불러왔다. 변화는 순환모델을 초월했다.

두 번째 시기(1865-1911년). 발전과 혁신은 쇠퇴와 몰락보다 더 두드러졌다. 물론 쇠퇴와 몰락도 소실되지 않았다. 왕조 쇠퇴의 여러 현상은 20세기의 새로운 발전을 수반했다. 제국주의 군사 위협은 중국인들을 격동시켜 서방식 공업화와 군사 현대화의 노력을 불러일으켰다. 새로운 관료기업가와 교육받은 장교가 출현했다. 1880년대에는 조약항에서 신문이 전파한 여론은 하나의 정치요소로 변했다. 19세기 중반의 주요 반란은 변경과 빈곤 지역에서 기원했지만, 19세말과 20세기초의 주요 정치활동은 부유한 경제중심지역에서 출현했다. 청조의 최후 10년간 중앙정부의 관료 수령과 지방에 근거를 둔 사회명류의 경쟁은 중국 정치에 새로운 고도에 도달했다.

세 번째 시기(1912-1930년). 신해혁명은 농촌의 사회관계를 거의 변화시키지 못했다. 정치활동과 정치조직은 여전히 도시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러나 한족의 민족주의는 황제에 왕조에 대한 충성심을 대체했다. 왕조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군권은 더욱 중요한 정치요소가 되었다. 군권이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전국에 대한 통제를 하기 어려웠다. 신해혁명 이후 정치급진주의는 유가권력주의의 가정속박을 반대하였다. 오사운동 기간에 급진주의는 계급의 설법으로 혁명을 주창했다. 1927년 중국공산당과 그 동맹자인 국민당 좌파와 국민당 우파의 결렬은 양자의 목표상의 모순을 드러냈다.

네 번째 시기(1931-1949). 1930년대초에 세 가지 사건이 중국역사의 진행에 심각한 영향을 주었다. 1931년 경제불황은 중국에 타격을 주었다. 일본인은 1931년 9월 선양을 점령하고 만주를 침략하여 괴뢰정부를 세우고 허베이를 통제하였고 1937년에는 전면적인 중국침략 전쟁을 일으켰다. 중국공산당은 1931년초에 장시에 소비에트 정부를 세우고 장정을 통해 섬서로 도주한 뒤 마오쩌둥 영도 하에 옌안에 새로운 정권을 세웠다. 중국공산당은 농업지역을 기초로 한 혁명운동을 수립하였다. 이러한 혁명은 최후로 1949년에 농촌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캠브리지 13권 중화민국사 하권의 토론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혁명사'적 시각으로만 중국 근대사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캠브리지 13권의 시기구분은 혁명사적 시각, 서구충격-중국반응 논리를 극복하는 시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다. 중화민국사를 1930년을 기준으로 시기 구분한 것은 내부의 변화와 외부의 영향을 동시에 고려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경제의 성장과 변혁 항목에는 중화제국 말기의 전자본주의 상품화, 경제정체,

외부요소 : 대외무역과 제국주의, 1911년 이후의 연속성이라는 소절이 있다. 경제 부문만 보면, 정치적 격변과 외래요소의 충격 속에서도 19세기 말에도 중화민국 시기에도 경제 성장은 지속되었다. 특히 도시경제의 성장은 1949년 이후의 경제발전의 기반이 되었다.

사회구조와 사회행위의 변화 항목에는 수평사회구조와 수직사회구조, 사회 불안정의 극렬화, 전통명류의 융합과 분열, 농촌조직과 민중운동, 노동운동 및 그 농촌 유대라는 소절이 있다. 토론의 관심은 유교사상의 지속과 새로운 사회운동의 격화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혁명과정 중의 국가와 사회 항목에는 청대 권력기구의 평형 상실, 명류의 적극정신의 흥기, 청말의 신정과 혁명, 민국정치의 동향이라는 소절이 있다. 이것은 중국 정치생활 속의 인민, 곧 명류와 각종 보통사람들의 작용문제, 한마디로 ‘문제’ 문제와 관련된다.

요컨대 토론은 13권 중화민국사 하권의 총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통 사회의 연속성 문제, 서구의 충격과 영향 문제, 서구적 기준의 중국 사회 평가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이하에서는 토론 이후의 실제 내용의 구성을 살펴본다.

제2장 “1911-1931년 중국의 국제관계”는 ① 기원 : 동아시아 지역질서로서의 청제국의 쇠락과 멸망, ② 일본의 만주에서의 세력 확장, ③ 일본의 21개조, ④ 일본의 영향과 중국의 제1차 세계대전 참전, ⑤ 워싱턴 회의와 중국, ⑥ 모스크바와 중국의 이중 접근, ⑦ 중국의 국민혁명과 열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3장 “1927-1937년 난징 10년 시기의 국민당 중국”은 ① 권력의 초보적 공고화, ② 각 성의 투쟁, ③ 장제스 정치통치를 돕는 요소들, ④ 난징정권의 의식형태, 구조와 기능의 행사, ⑤ 국민당의 파벌들, ⑥ 국민당정권의 성취, ⑦ 중국의 새로운 심태, 1936-1937년, ⑧ 난징 10년 시기 국민당 통치에 대한 평가로 구성되어 있다.

제4장 “1927-1937년의 공산주의운동”은 ① 당의 재건과 영도, ② 농촌 소비에트의 창건, ③ 하나의 전략을 찾아서, ④ 소비에트의 철폐, ⑤ ‘백색구역’의 지하 공작, ⑥ 제2차 통일전선의 준비로 구성되어 있다.

제5장 “토지제도”는 ① 토지제도의 상황 : 상품시장과 생산요소시장, 토지와 노동력, 촌장(村庄)과 농호(農戶), 농촌의 상층인물, 분할계승, 가(家)와 그 수입, 가의 합작형식, ② 농업의 상업화 : 증강되는 자원전문화, 새로 출현한 농촌경제, ③ 농업위기 : 위기의 확정과 서술, 1920년대, 난징 10년, 전쟁 연대로 구성되어 있다.

제6장 “농민운동”은 ① 자발적인 항조항세(抗租抗稅) : 소작농과 지주 사이의 분규, 항세 소동, 아편세 저지, ② 자발적인 농민소요-유형과 특징 : 소작료와 세금과 무관한 소요와 그 유형, 특징, ③ 농민과 공산당원 : 대등하지 않은 동맹, 평파이(澎湃)와 하이루평(海陸豐) 농민(1922-1928), 외지와 이후로 구성되어 있다.

제7장 “지방정부의 발전”은 ① 사회명류의 지방정부에서의 작용 : 의사회와 ‘신정(新政)’, 구역정체, 산시(山西)계획, ② 난징정부의 지방행정에 대한 초기 정책 : 지방정부의 관료주의화, ③ 향촌건설운동 : 참여와 관료정치-역사의 진행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8장 “학술계의 성장, 1912-1949년”은 ① 현대교육기구의 출현, 1898-1928년 : 인원-해외에서 배양한 엘리트, 대학-기구의 건립, 과학과 연구의 개시, 기금 제공과 미국의 영향-칭화, ② 난징 10년 기간의 고등교육과 국가건설 : 중앙정부의 리더십, 고급 연구, 연구 지원, ③ 전시와 전후의 변화, 1937-1949년 : 전시의 고등교육과 연구, 전후의 변화로 구성되어 있다.

제9장 “문학 추세: 혁명으로 통으로 길 1927-1949년”은 ① 30년대 문학, 1927-1937년 : 문학혁명에서 혁명문학으로, ② 좌익작가연맹과 문학에 관한 논전 : 서막-루쉰과 신월파(新月派)의 경합, ‘민족주의 문학’ 문제, “자유인”과 “제삼 범주”의 작가들, “대중어”와 “라틴화”의 논쟁, ‘두 구호’의 전투, ③ 문학창작과 사회위기 : 수필[잡문], 소설, 시가, 희극, ④ 전쟁과 혁명, 1937-1949년 : “민족항전”의 영웅전, “애국철혈”문학, ⑤ 옌안 좌담회 : 옌안 문학, ⑥ 혁명 전야, 1945-1949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0장 “일본의 침입과 중국의 국제지위 1931-1949년”은 ① 세계경제위기-중국의 주변적 지위, ② 만주사변-일본개혁파의 군국주의, 1931-1932년, ③ 국제주의의 와해, ④ 지역협력을 얻기 위한 일본의 기도, 1933-1937년, ⑤ 중일전쟁 기간의 강국 형상 (power configuration), 1937-1941년, ⑥ 제2차 세계대전 중의 중국과 일본, 1941-1945년, ⑦ 중국의 전후 쇠락, 1945-1949년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1장 “중일전쟁 시기의 국민당 중국, 1937-1945년”은 ① 최초의 전역(戰役, campaigns)과 전략, 1937-1939년, ② 중국의 전쟁 동원, ③ 1939-1945년의 악화: 군사, ④ 외국 군사 원조, ⑤ 1944년 일본의 1호 작전, ⑥ 통화 팽창 재난, ⑦ 공업부문, ⑧ 정치상의 허약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2장 “중일전쟁 시기의 중국공산주의운동, 1937-1945년”은 ① 전쟁 초기(1937-1938년) : 국민당의 태도-통일전선, 군사전략과 전술, 지도자와 리더십, 조직 기구와 활동, 일본의 침입과 중국의 최초 반응, 근거지의 건립, 근거지 건설 과정, ② 전쟁 중기 (1939-1943년) : 국민당과의 ‘마찰’, 신사군 사변, 일본의 치안 강화, 허베이 치안 강화, 백단대전(百團大戰), 백단대전 후의 소탕전(1941-1943년), 일본군의 화북에서의 치안 강화, 중공의 대책-생존과 신정 : 섬감녕(陝甘寧)의 신정책, 일본 전선 배후의 근거지의 신정책, ③ 전쟁의 최후 두 해(1944-1945년) : 1호 작전 및 그 결과, 정치와 군사의 발전, 미국과 중국공산당원, 제7차 대표대회, 중국공산당과 소련, 전망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3장 “1945-1949년의 국공 충돌”은 ① 협상과 미국의 개입 : 혈리 사절단 (1944-1945년), 마셜 사절단(1946년), 마셜 사절단의 실패와 이것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갖는 의미, ② 국민당 역할의 쇠락 : 일본 점령지의 접수, 경제상의 무능-통화팽창의 금융정책, 1947에서 1948년까지의 응급 개혁, 정치상의 무능-평화운동에 대한 대처 실패, ③ 공산당 역량의 성장, ④ 내전(1946-1949년) : 첫 해인 1946-1947년 퇴각, 둘째 해인 1947-1948년 반격, 셋째 해인 1948-1949년 승리, ⑤ 국민당정부의 종말과 미국정책의 실패로 구성되어 있다.

제14장 “1949년 이전의 마오쩌둥 사상”은 ① 학생운동에서 농민운동까지

(1917-1927년), ② 당, 군인과 대중(1927-1937년), ③ 민족모순과 사회모순(1937-1940년), ④ 마오쩌둥 사상의 승리(1941-1949년)로 구성되어 있다.

위의 13개 장의 전체적인 구성을 보자면 국제관계와 1949년 이전의 마오쩌둥 사상을 예외로 한다면, 그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공양당 경합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국민당의 패배와 공산당의 승리 구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실제 중국공산당의 역할이 부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륙을 장악한 중국공산당에 대한 관심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에 이것은 미국의 중국정책을 왜실패했는가를 은연중에 상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론에서도 그러했지만 13개의 장 중에서도 경제문제를 다룬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서구 학계에서 중국경제 부문에 대한 관심이 지대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할 것이다. 또한 중국혁명의 동력으로 농민혁명의 사회경제적 기초를 이해하고자 하는 측면도 반영되어 있을 것이다.

3. 서구학계와 중국학계의 중화민국사 이해의 접점

중국학계에서는 일찍부터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거의 전체 권권을 번역하였다. 13권의 역자주는 주로 류징쿤劉敬坤이 붙였고 문자 체례를 통일한 것도 류징쿤이었다. 본서의 역자는 1장 류징쿤, 2장 가오스화高士華, 3장 리바오홍李寶鴻, 4장은 류징쿤과 자오리장趙麗江, 5장은 자오리장과 리치자李啓家, 6장은 리치자와 자오리장, 7장은 당위렌丁于廉, 8장은 가오스화와 동후이董卉, 9장은 판레이范磊, 10장은 저우주시周祖義, 11장은 쩡칭총曾景忠, 12장 1부분은 왕자오광汪朝光, 2와 3부분은 리쉐통李學通, 13장은 마샤오광馬曉光, 14장은 예종이葉宗勳, 지도는 장옌張言이다.

중화민국사에 관한 것만은 아니지만 미국학계의 중국근대사 연구에 관심을 가진 논고들은 대략 다음과 같다.

仇华飞: 李婷婷, 美国学者中国近代史研究的多维视角, 近代中国 2013-02-28

陶季邑, 美国学者研究中国近代史的新成果——简评《乱世中的信任》, Journal of Hunan city University 2004-01-30

刘广京, 三十年来美国研究中国近代史的趋势, Modern Chinese History Studies 1983-03-02

保罗·阿·科恩, 美国的中国近代史研究, Historical Research 1980-04-15

徐有威, 魏斐德: 以国际视野研究中国近代史 中国图书商报 2008-08-22

王能应, “西方中心论”与“中国中心观”:美国学者研究中国近代史文献述评 Journal of Hubei Administration Institute 2008-06-01

王小甫, 《剑桥大学中国学的历史与现状》一文的补正 中国史研究动态 1995-10-25

尹飞舟, 美国研究中国近代史的新趋向, HUNAN SOCIAL SCIENCES 1998-04-30

张刚, 剑桥大学中国学的历史与现状, 传统文化与现代化 1995-06-15

张朋园: 黄克武, 两岸与美国:中国近代史研究的相关比较 Cultural Heritage Studies 2013-07-31

钱小明, 黄宗智谈美国研究中国近代史和近代经济史情况, Social Sciences Shanghai China 1980-04-30

陈芑, 中国近代史 四一二政变与美国对华政策, 中国历史学年鉴 1986-01-01

WANG Jian, Presentation and Analysis of Perspectives of History of Modern China in America: Discussion Based on Discovering History in China, Journal of Zhejiang University(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001-06-25

이들 논고를 살펴보면, 중국학계에서는 캠브리지 중국사를 놓고 학술회의를 개최하여 중국학계 나름의 평가를 시도해 보기도 했다. 이들은 시각이 서구중심적이라는 점, 구체적인 사실의 오류가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서방 역사연구자들이 중국근대사를 보는 시각은 대체로 이렇게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1960년대 말부터 미국의 경제사가들은 유럽중심론의 사조를 반대하여, 충격-반응 모델, 전통과 현대의 완전 대립을 비판하였다. 유럽중심론은 충격-반응 모델, 전통-현대 모델, 제국주의 모델 등 세 가지 모델을 갖고 있었다.¹⁾ 이것들은 서구 충격론과 역사유산론, 내부동력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1964년에서 1974년까지 베트남전쟁과 1972년의 수문 사건(Watergate scandal), 1980년대 이후 중국 경제의 신속한 발전을 배경으로 하여 근대사학자들은 중국 내부의 발전요소를 중심으로 중국근대사를 재평가하기 시작했다. ‘유럽중심론’자의 근본적 착오는 지리환경 결정론과 종족문화 우열론이었다.²⁾ 이것은 문명충돌론을 전제로 한 접근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각은 한국학계에 폴 A. 코헨의 저작을 통해 전해졌다.³⁾ 또 월러스틴의 세계체제론적인 시각도 동아시아 학계에 일정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궁극적으로 서구의 충격과 중국의 반응 이론과 같은 것은 서구와 중국이라는 거대 주체를 내세워 서구 내부의 여러 시각과 중국과 서구 사이에 있는 다양한 주변의 시각을 소외시킨다는 점에서 영국과 러시아의 그레이트 게임의 논리와 유사한 함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은 ‘충격-반응’ 이론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나 실제로 서구중심적, 중국 중심적 논리의 한계를 극복하였는지는 구체적인 내용 분석을 통해 파악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王能应, “西方中心论”与“中国中心观”:美国学者研究中国近代史文献述评, Journal of Hubei Administration Institute, 2008.6.1. 91쪽.

2) 같은 논문, 95쪽.

3) ① 폴 A.코헨 지음, 장의식 옮김, 『미국의 중국 근대사 연구』, 고려원, 1995. ② 폴 A.코헨 지음, 이남희 옮김, 『학문의 제국주의: 오리엔탈리즘과 중국사(Discovering history in China : American historical writing on the recent Chinese past)』, 순천향대학교출판부, 2013

한편 13권 중화민국사에 관한 중국학계의 언급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郭德宏, 一种别开生面的论述——评《剑桥中华民国史》下卷抗日战争部分, 安徽史学 1995-07-15

郭绪印, 国民党派系斗争史之我见——评《剑桥中华民国史》第二部第三章中之《国民党派系斗争》, 学术月刊 1999(01)

董国强, 评《剑桥中华民国史》中关于毛泽东思想研究的两个问题, 毛泽东思想论坛 1997-10-30

杜桂剑, 《剑桥中华民国史》(下)第四章中若干史实错误 湘潮(下半月) 2015-12-25

马建标; 徐畅, 旁观者未必清楚——评《剑桥中国晚清史》《剑桥中华民国史》 Historical Review 2020-01-01

马晓光, 中国史 剑桥中华民国史 中国图书年鉴 1995/01/01

文一, 《剑桥中华民国史》(中译本)由社科出版社出版 民国档案 1994-11-15

王剑, 美国中国近代史观的展现及其他——关于柯文《在中国发现历史》的思考, 浙江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1(03)

汪朝光, 一种研究框架中的民国对外关系——评《剑桥中国史》第13卷第2章, 近代史研究 1993-10-28

王俊义, 从“冲击—反应论”到“中国中心观”的历史转变——《剑桥中国清代前中期史》述评, 社会科学战线 2010(12)

张廷友; 唐纯良, 对《剑桥中华民国史》一则“史料”的订正, Journal of Chinese Communist Party History Studies 1999-09-25

朱华, 《剑桥中华民国史》书评会在沪召开 ARCHIVES AND HISTORY 1998-08-15

朱华, 《剑桥中华民国史》学术书评会综述, 上海党史研究 1998(04)

朱华, 专题研讨信息 本市学者评析《剑桥中华民国史》——市党史学会举行学术书评会, 上海社联年鉴 1997-05-23

曾琦珣, 试析《剑桥中华民国史》中的新诗观 Huazhong Humanity Forum 2012-06-15

陈景拴, 《剑桥中华民国史》(上卷) 三则史事正误, Tribune of Social Sciences, 2018.11.10.

陈雁, 大国形象的塑造与中国国际地位的变迁——读《剑桥中华民国史》, 探索与争鸣 1998(10)

叶哲铭, 在“西方中心”与“中国中心”之间——论《剑桥中国晚清史》中费正清的史学研究模式, 杭州师范学院学报(社会科学版) 2005(06)

여기에서 중국학자들은 서방중심주의의 문제 외에 공통적으로 사실 오류문제를 들고 있다. 주화에 의하면,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연구는 “연구하는 시야가 비교적 넓어 많은

영역을 다루고 있으며, 이론적인 분석을 중시하고 있다.” 또 “연구방법이 참신하여 각 장마다 독특한 시각과 분석개념이 있다.” ‘충격과 반응’ 양식은 서방중심주의 사관의 색채가 있고 중국민족의 주동성을 경시했지만 외래요소의 영향에 대해 생각할 바가 있다.⁴⁾ 중화민국사 하권 4장을 검토한 두구이젠에 의하면, 몇 가지 분명한 사실 오류가 보인다. 1934년 국민당경찰이 코민테른의 연락거점을 파괴한 후 1937년까지 중국공산당과 코민테른은 연계를 상실했다. 1936년 봄 연계를 회복했다. 그 이전인 1935년 11월 중순 코민테른 7차 대회에 참석한 린위잉(林育英, 林彪의 사촌형[堂兄])도 코민테른의 반파시스트 통일전선 결성에 관한 지시와 암호를 가지고 외몽골을 거쳐서 섬서북부에 도착했다.⁵⁾

4.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하권의 한중관계사 서술

13권 중화민국사 하권의 한중관계사 서술이나 한국사 관련 내용은 매우 소략하다. 참고문헌에 실린 논저에도 한국역사가의 기여는 거의 없다. 거기에는 주로 미국, 일본, 대만 학계의 연구성과가 망라되어 있다. 캠브리지 13권의 경우 한국학계가 전적으로 소외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하권에 한국 관련 내용은 일차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용어색인(Glossary-Index)에는 일곱 번 내외로 한국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파악된다. Chientao area 間島 90, 497쪽. Korea 82, 532; Japanese primacy in 87; and Chientao 90; and Wanpaoshan incident 114; settlers from Manchuria in 497; postwar status of 532, 534쪽. 몽골과 비슷한 빈도로 등장한다. 한국관련 내용이 등장하는 대목은 러일전쟁 이후 1907년 7월 30일 러일조약과 관련하여 남만주에서 세력권을 확정하고 한국에서의 우월권을 상호 인정한 부분이다. 이어서 간도문제와 대한제국인의 간도 이주문제를 언급했다. 일본은 한국을 장악한 이후 만주로 세력을 확대했다. 다음으로 한국이 등장하는 대목은 1931년 만보산 사건과 관련한 것이다.

간도문제, 만보산 사건, 만주 정착, 전후 지위 등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등장하는 한국 관련 내용은 국제질서에서 주체적인 모습을 보인다거나 모종의 국제적 역할을 하는 존재로 등장하지는 않는다. 기본적으로 비주체적인 대상으로 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당시의 실제 모습일 수도 있지만 동시에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집필자들의 한국 이해도가 낮았던 점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를 본다면, 서구에서도 중국사를 다루면서 한국과 같은 주변국을 놓치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 또한 서구 중심주의의 일환일 것이다. 역으로 중국 중심주의도 또 하나의 편향이라고 할 수 있다. 배경한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 중심주의, 즉 중화주의의 극복이라는 하는 것”이 여전히 현재의 과제라고 한다.⁶⁾

4) 朱华, 《剑桥中华民国史》书评会在沪召开, ARCHIVES AND HISTORY, 1998.8.15., 80쪽.

5) 杜桂剑, 《剑桥中华民国史》(下)第四章中若干史实错误, 湘潮(下半月), 2015.12.25., 81쪽.

5. 맺음말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하권은 도론에서 “1949년 이전의 마오쩌둥 사상”까지 14개의 장으로 이루어졌다. 이것은 국공양당의 경합 속에서 어떻게 공산당이 승리하고 국민당이 패퇴했는가, 문화개방정책의 수호자였던 미국은 어떤 측면에서 중국정책을 그르쳤는가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중국근대사의 기초에는 사회경제적 모순이 있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충격-반응’ 논리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은 기본적으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서구에서 중국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은 역으로 중국에서 서구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과도 연결된다. 이 문제는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중국학계의 다양한 논의를 보면 개략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중국학계에서는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를 접하면서 세부사항의 미흡함을 지적하면서도 ‘반제국주의’론이나 ‘계급사관’과 같은 단선적인 논의를 넘어설 필요성을 자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책의 번역자 중의 하나인 왕자오광은 ‘주변으로부터의 시각’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관점을 제기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중관계사나 한국사 관련 부분은 소략하다 못해 거의 존재감이 없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서술의 기초가 강대국 중심의 서술 기초를 유지하고 있는 점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하권에서 주역은 당시 중국사를 만든 주역이었던 국민당과 공산당, 그리고 문화계와 농민운동까지 다양한 성분이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일본, 러시아(소련), 미국 등이 크게 부각되어 있다. 이것은 당시 열강이 국제질서를 좌지우지했던 사정과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또한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하권의 관심사가 주변세력에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던 데서도 기인할 것이다. 결국 한중관계사와 한국사에 관한 내용은 ‘캠브리지 한국사’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6) 배경환, 『중국과 아시아: 근현대 중국의 아시아 인식과 아시아주의』, 파주시: 한울아카데미, 2016, 218쪽.

최근의 중화인민공화국사 연구 동향에 비추어 본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4권(1949-1965)의 연구 시각 검토

박상수(고려대)

1. 서론

『케임브리지 중국사』(CHOC) 제14권과 제15권은 중화인민공화국 시기를 개혁 개방 초기까지 다루고 있다. 두 권 모두 1983년 1월 하버드대학 페어뱅크 센터에서 개최된 집필자 워크숍 등 준비기간을 거쳐 1987년과 1991년에 각각 출간되었다. 본고의 검토 대상인 제14권(이하 본서)은 마오쩌둥 통치 시기 전기(1949-1965)를 대상으로, 주로 “정책 결정자들(policymakers)의 시각”에서 정치, 경제, 외교, 교육, 지식인 등의 주제를 폭넓게 다루고 있다. “중국 인민(people of China)의 시각”에서 중국 혁명이 갖는 의미를 다룬 2개의 장¹⁾은 제15권의 마지막 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본서는 “덩샤오핑의 실험이 첫 번째 주요 성과를 보인 1980년대 초기,”²⁾ 즉 지금으로부터 약 30여년 전에 집필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중화인민공화국사 연구의 초심자들에게 추천할만한 ‘고전’과 같은 위상을 갖고 있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다만, 당시까지의 중화인민공화국사 연구는 그 연구 조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었다. 본서의 말미에 수록된 마이클 옥센버그의 ‘연구 동향’ 정리가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중국 연구는 “많은 심각한 제약(many serious constrains)”이 존재했다.³⁾ 따라서 본서의 위상은 페어뱅크가 서문을 통해 의식하고 있듯이 그러한 제약 속에서 시도된 하나의 “잠정적인 평가”(interim judgement)라고 할 수 있다(xiv쪽).

중국 연구의 제약은 무엇보다도 이용 자료의 한계에서 연유하는 것이었다. 옥센버그의 언급대로, 비록 중국의 개혁 개방 정책의 개시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이 중국에 체류할 수 있게 되었고, 중국의 연구 기관과 연계하여 현지 조사와 인터뷰 자료에 기초하여 새로운 성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매우 개별적인 것이었다. 일부 현지 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마저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거나 널리 공유되지 못했다(572-573쪽).

1980년대 초 여전한 압도적인 냉전문화가 초래한 연구 시각의 편향이 연구를 제약

1) CHOC, Vol. 15, “Preface to Volume 15,” p. xxii 참조. 두 장의 내용은 각각 ‘농촌과 ‘도시’의 실태를 조명하고 있다.

2) “Preface to Volume 15,” p. xxi.

3) Michel Oksenberg, “Politics takes command: An essay on the study of Post-1949 China”, CHOC, Vol. 14, p. 543.

했다. 주지하듯이 공산당 통치 체제에 대한 구미 학계의 과도한 부정적 시각은 전체주의(totalitarian) 중국관을 벗어나지 못했다. 비록 문혁시기 표출된 권력 투쟁과 파벌 대립에 착안하여 단일한 전체주의 모델 대신 다원주의/이익집단/파벌 경쟁 등의 새로운 시각이 제시되긴 했지만,⁴⁾ 사회 전반에 대한 당-국가 권력의 강력한 ‘통제(control)’ 프레임은 여전히 학계의 주된 연구 시각이었다.

본서의 출간 이후 약 30여년 이래 마오시대에 관한 연구 조건은 획기적으로 변화하였고, 그에 따라 수많은 연구 성과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 주된 특징들을 일별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연구의 脫정치화를 들 수 있다. 중국의 개혁개방, 뒤이은 냉전의 종식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친 脫마오쩌둥화 경향에 발맞추어 마오 중심의 ‘革命 敍事’는 크게 퇴조하였고, 연구자들은 다양한 시각을 통해 마오시대를 조명하기 시작했다. 연구 주제에서도 중앙 수준의 노선 대립, 권력 투쟁, 엘리트 정치, 공식 제도 및 조직의 수준을 넘어 지방적 차원의 다양성, 사회 관습, 개인의 사고와 행위, 국가 권력의 한계, 기층 수준의 국가-사회 관계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⁵⁾

둘째, 분과 학문의 경계를 넘는 연구 경향이다. 1949년을 경계로 그 이전은 역사학이, 그 이후는 사회과학이 연구해 오던 기존의 분업적 연구 경향은 문혁을 포함한 1949년 이후를 ‘역사로서’ 접근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역사학이든 사회과학 연구이든 ‘마오시대’는 더 이상 ‘현실 이슈’가 아닌 역사가 되었다.⁶⁾

셋째, 이용 가능한 자료의 확대이다. 1980년대 이래 각종 자료집을 비롯한 공식 출판물의 폭발적 증가 이외에도, 지방 檔案館이 1960년대 전반까지의 당-정의 공식 문서들을 점진적으로 개방하고 있다. 또한 당국의 통제를 거의 받지 않는 자유로운 외국 연구자들의 장기 체류와 현지 인터뷰가 가능하게 되면서 자료적 한계는 더 이상 마오시대 연구의 장애가 될 수 없게 되었다. 연구자들은 새롭고 풍부한 자료를 통해 선행 연구들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성과를 생산해 내고 있다.

본서 각장의 내용은 마오시대 전기를 대상으로, 신정권의 공고화 과정과 대약진이 야기한 지도부의 분열, 신질서 구축을 위한 교육 개혁 과정, 중공과 지식인의 관계 양상, 경제의 회복과 침체, 한국전쟁 및 중소대립을 포함한 외교 관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개설적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장별 내용을 각개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최근 연구 관심과 성과에 의거하여 세 주제로 나누어 검토한다. <1949년 전후: 연속인가, 단절인가?>, <대중운동과 정권의 공고화>, <마오시대의 국가-사회 관계>, 그

4) Harry Harding, "The Study of Chinese Politics: Toward a Third Generation of Scholarship." *World Politics* Vol. 36, No. 2 (January 1984).
 5) Jeremy Brown & Paul G. Pickowicz, eds., *Dilemmas of Victory: The Earl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arvard University Press, 2007).
 6) Joseph W. Esherick, Paul G. Pickowicz, Andrew G. Walder, eds.,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as History*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6); Julia Strauss, ed., *The History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49-1976*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7).

리고 글을 맺으면서 다루게 될 <이용 자료의 한계> 문제가 그것이다. 우선 이 주제들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을 비교적 상세히 제시한 후 그에 비추어 본서의 연구 시각이 갖는 특징을 논평하는 방식을 취한다.

2. 1949년 전후: 연속인가, 단절인가?

중화인민공화국 초기 역사를 다루는 연구자들에게 1949년 중국공산당의 집권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이 근현대사 전개 과정에서 차지하는 위상 문제는 중요한 연구 관심이 되어왔다. 특히 최근 20여년 이래에는 이른바 ‘新中國’으로의 전환 시점인 1949년 ‘단절’론보다는 그 전후의 ‘연속성’에 주목하는 새로운 관점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단절과 연속 두 관점의 몇 가지 인식론적 배경에 주목해 보자.

1949년을 단절로 보는 인식은 무엇보다도 중국공산당의 ‘혁명 서사’에서 비롯된다. 이에 따르면 공산주의 혁명을 통해 오랜 국내적 분열과 제국주의 간섭을 극복하고 통일되고 독립된 ‘解放’된 중국이 새롭게 탄생하게 되었다. 혁명 서사는 1949년 이후 ‘새로운 중국’[新中國]의 국가, 제도, 사회가 ‘낡은 중국’[舊中國]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음을 주장한다. 이는 중국공산당의 공식 사관으로서 폭넓게 교육되었고, 주류 서사로서 중국을 넘어 외부 세계에도 유력한 담론으로 전파되었다.

1949년 단절의 서사는 세계적 차원에서 보면 冷戰 프레임의 하나였다. 공산주의 세계를 ‘악마화’했던 냉전의 영향 속에서 1949년은 중국이 ‘악의 괴물’이 된 시점이었다. ‘냉전 전사들(Cold Warriors)’은 ‘공산’ 세계와 ‘자유’ 세계 간의 차이를 거칠게 신화화하면서 1949년을 ‘소련의 음모’에 의한 급격한 중단으로 간주함으로써 또 다른 기득권을 만들어 내고자 했다.⁷⁾ 공산당과의 경쟁에서 패퇴하고 대만으로 건너간 국민당이 광명의 ‘自由中國’과 암흑의 ‘共產[共匪]中國’을 극명히 대조했던 서사 방식도 1949년 단절론에 힘을 실었다. 거의 모든 연구자들이 압도적 냉전의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기 어려웠다는 점에서 ‘1949년 단절’은 유력한 담론의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다.

1949년 단절론은 1980년대 초 이래 연속성론에 의해 심각한 도전을 받게 된다. 인식상의 변화를 이끈 것은 무엇보다도 개혁-개방 정책에 따른 중국 자체의 새로운 변화였다. 1949년 이후 사라졌다고 간주되던 각종 관행의 부활, 마오가 창조하고자 했던 “새로운 인간” 대신 “낡은 인간”의 귀환, 자율적 사회 영역의 성장 가능성 등이 주목을 끌었다.⁸⁾ 연구자들은 그러한 새로운 변화들 속에서 1949년 전후를 관통하는 어떤 공통성과 연속성을 발견해내고자 했다.

개혁-개방은 또한 탈정치화의 경향을 추동함으로써 주류 ‘혁명 서사’가 퇴조하고 ‘근

7) Paul A. Cohen, "Reflections on A Watershed Date: The 1949 Divide in Chinese History", Jeffrey N. Wasserstrom ed., *Twentieth-century China: New Approaches* (Routledge, 2003), p. 34.

8) Marie-Claire Bergère, "Après Mao. Le retour du vieil homme", *Vingtième Siècle. Revue d'histoire* No. 1 (janvier 1984).

대화 서사'가 등장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근대화 서사는 1949년 이후의 마오시대를 19세기 이래 중국이 근대화(modern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연속적인 과정 속에 위치시킨다. 이에 따르면 1949년 이후 성취된 국가 주권의 회복, 통일된 중앙 권력의 수립, 사회 통합과 국민 경제 질서의 확립 등은 淸末의 개혁가와 국민당 정권의 공통된 목표이기도 했다. '근대화'는 정치적 권력의 변화와 관계없이 "중국인들의 공유된 과제(consensual Chinese agenda)"였다.⁹⁾

1949년 전후의 연속성에 대한 주목은 '역사 해석'의 차원을 넘어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접근한 성과들로 이어졌다. 윌리엄 커비는 국민당의 관료자본이 남긴 막대한 국가 부문(state sector)의 유산을 넘어 국민정부 國家資源委員會 계획가들이 대륙에 남아 1950년대 말까지 국가 산업화 계획의 수립에 기여했음을 밝혀낸다.¹⁰⁾ 엘리자베스 페리는 사회세력으로서의 노동계의 문제들을 천착하면서, 노동자들의 투쟁성(militancy)의 원천으로서의 노동계의 분절(지역출신별, 젠더별, 숙련도별), 국민당과 공산당 권력의 노동계에 대한 정책(노동자의 계급적 이해를 국가 건설에 종속시키는 태도), 지식인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파업의 향배(총파업과 파동적 파업) 등 1949년 전후를 가로지르는 노동계의 연속성을 강조한다.¹¹⁾ 도시 사회의 핵심 조직으로서 1950년대 말 이래 확립된 '單位' 제도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은 신정권의 새로운 통제 프레임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중화민국 시기 이래의 노동자들의 저항의 유산, 노동운동 지도자들의 노동자 복지에 대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고찰한다.¹²⁾

최근의 연구 경향들을 볼 때 1949년의 分期를 뛰어 넘는 연속성에 대한 주목은 당분간 학계의 주요 관심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시각상의 탈정치화, 학제적 연구, 다양한 자료에 기초한 사례 연구들을 통해 연구자들은 각종 제도·관습·문화, 사회 집단과 개인의 사고와 행위 등의 측면에서 1949년을 가로지르는 연속성을 발견해 내고 있다.¹³⁾

*

본서의 편집자인 존 페어뱅크는 비록 1949년 이후의 국가 통일과 신정권에 의한 새로운 사회 개혁 '실험'에 주목하고, 그것이 세계적으로 전대미문의 것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1949년 이후의 역사를 중화제국의 유산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방면의

9) Paul A. Cohen, op. cit., pp. 30-31.

10) William C. Kirby, "Continuity and Change in Modern China: Chinese Economic Planning on the Mainland and on Taiwan, 1943-1958", *Australian Journal of Chinese Affairs* 24 (July, 1990). 산업의 국유화와 국가주의적 접근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의 유사성을 찾는 연구는 Mark W. Frazier, *The Making of the Chinese Industrial Workplace: State, Revolution and Labor Manage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2) 참조.

11) Elizabeth J. Perry, *Shanghai on Strike: The Politics of Chinese Labor*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5), 특히 pp. 254-258; "Shanghai's Strike Wave of 1957", *The China Quarterly* No. 137 (March, 1994); "Masters of the Country? Shanghai Workers in the Early People's Republic", in Jeremy Brown & Paul G. Pickowicz, eds., op. cit.; Elizabeth J. Perry & Li Xun, *Proletarian Power: Shanghai in the Cultural Revolution* (Westview Press, 1997).

12) Xiaobo Lu & Elizabeth J. Perry, *Danwei: The Changing Chinese Workplace in Historical and Comparative Perspective* (M.E. Sharpe, 1997).

13) 일본 학계의 접근은 久保亨 編著, 『1949年前後の中國』(汲古書院, 2006) 참조.

전반적인 근대화 과정 속에서 파악한다(xiii쪽). 보다 구체적으로는 제1장을 통해 마오를 중화제국 왕조의 창건자인 진시황, 수문제, 명태조 등에 견주어 그 유사성(resemblances)에 주목하거나, 마오의 독재와 권력관을 새로운 수명 ‘천자’의 관점으로 설명함으로써 새로운 통치자 마오를 오랜 중국 역사의 연속성 속에서 위치시킨다(31-32쪽). 그는 1949년 이후 새로운 ‘혁명’ 사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인의 생활 방식이 보여주는 연속성, 유구한 대일통 관념의 지속, 그리고 근대 시기 이래의 모든 새로운 변화의 축적의 결과로서 1949년의 신정권을 평가한다(33-34쪽). 중국의 혁명가들은 외부로부터 온 마르크스주의라는 근대적 형식을 취하면서도 중화제국 이래의 오랜 단일 통치체제, 관료제, 정통론 등의 유산을 새로운 정권의 시스템과 결합시켰다(38쪽).¹⁴⁾

페어뱅크식의 역사적 연속성에 대한 주목은 사실 역사가에게 흔한 시각이지만, 그 입론이 주로 ‘유사성’ 비교에 입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은 커 보이지 않는다. 그의 접근 방식이 갖는 한계는 ‘정치 문화’의 시각에서 중화제국 시기와 1949년 이후의 연속성을 논하는 정치학자 루시안 파이의 저작이 보여주는 결점과 다르지 않다.¹⁵⁾ 연속성에 대한 탐구는 시대를 격하여 관찰되는 유사성에 주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역사 과정’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제시될 때 더욱 큰 설득력을 갖는다.

본서의 5장과 10장에서 멀 골드만(Merle Goldman)의 ‘중공과 지식인’의 관계를 다룬 글은 구체적인 지식인 인물 및 집단이 청말 이래 어떠한 ‘과정’을 거쳐 1949년 이후 신정권과 관계하게 되었는지 분석함으로써 지식인과 권력과의 관계에서 드러나는 연속성을 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저자에 의하면, 중화인민공화국 체제하의 지식인은 전통 시대의 유교 지식인처럼 체제의 성공을 위한 정치적 비판자 역할을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5.4 시기의 지식인과 같이 체제로부터 자유로운 독립성의 소유자이자 동시에 적극적 정치 참여자이기도 했다. 이러한 두 전통의 계승자로서 마오시대 지식인들의 존재 방식은 1930년대 루쉰 및 그와 함께한 작가 그룹 左翼作家聯盟(좌련)의 성립과 중공과의 갈등으로 거슬러 올라가 분석된다. 중공의 지식인 통제와 그에 반발하는 자율적/독립적 지식인의 활동, 혁명 사업에의 복종을 요구하는 당과 창작의 자유를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갈등은 연안시기와 내전시기에도 지속되었고,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후에는 사상 개조와 반우파 투쟁, 그리고 1960년대 전반의 지식인 저항으로 이어졌다. 특히 저자는 저우양(周揚)과 같은 5.4 지식인이자 당 관료 지식인의 개인적 역정과 당과의 관계 방식의 변화를 1930년대부터 1960년대 중반에 이르는 ‘역사 과정’ 속에서 조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1949년 전후의 연속성의 측면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1949년의 의미를 둘러싸고 단절과 연속을 아우르는 절충적 시각은 긴요한 것으로 보

14) 중화제국의 정치구조와 1949년 이후의 공산주의 체제의 유사성에 관한 그의 논의는 John K. Fairbank, *The United States and China*, 4th Revised & enlarged edition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 p. 359 참조.

15) Lucian Pye, *The Mandarin and the Cadre: China's Political Cultures*, Center for Chinese Studies (University of Michigan, 1988). 전통 사상과 마오이즘을 연결시켜 설명하는 초기의 시각은 Karl Wittfogel, "The legend of 'Maoism'," *The China Quarterly* 1 (January and April 1960) 참조.

인다. 19세기 이래 모든 중국인에게 공유되어 온 ‘근대화’ 아젠다를 주장한다고 해도 1949년 중공의 집권이 근대화 실현을 가능케 (혹은 그 실현을 위한 토대를 구축) 했다는 점을 간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또한 국가 권력의 성격과 그 건설 방식에서 보이는 1949년 이전과의 ‘형태상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1949년 이후 도입된 ‘내용상의 차이점’을 놓쳐서도 아니 될 것이다. 과거의 제도와 관습의 ‘부활’ 또는 현재와 과거와의 ‘유사성’이 과거로의 단순한 회귀나 재연이 아니라면, 그것이 가능하게 된 새로운 맥락(context)의 중요성이 더 깊이 천착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1949년’은 단순히 ‘부정’되어야 할 시점이라기보다는 끊임없는 ‘재평가’의 잣대를 제공하는 기준점의 의미를 갖는다.

2. 대중운동과 정권의 공고화

마오시대의 큰 특징들 중의 하나는 전국적 혹은 지방적 차원에서 수많은 ‘운동’들이 전개되었다는 점이다. 통상적인 권위주의 정권들이 국가 관료제의 엄격한 통제 아래 매우 제한적인 범위에서 대중을 동원하고자 했던 것과 달리, 신정권은 광범한 대중의 ‘발동’, ‘동원’, ‘참여’를 독려했다. 대중은 목종, 도피, 냉소, 거부를 넘어 적극적으로 권력의 의도에 호응했다. 건국 직후의 토지개혁과 반혁명진압(鎮反)을 비롯하여 抗美援朝, 三反·五反, 사상개조, 합작화(집체화), 백화제방, 반우파, 사회주의 교육, 문화대혁명 등 전국을 뒤흔든 거대한 운동들로부터 지방적 차원(또는 기층 차원)의 각종 소규모 운동에 이르기까지 국가의 거의 모든 정책의 집행은 대중동원을 통해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¹⁶⁾

일찍부터 연구자들은 대중운동의 구조, 방식, 효과를 둘러싸고 다양한 관점들을 제시해 왔다. 특히 대중운동이 1949년 이전의 혁명 투쟁의 승리와 1949년 이후 ‘정권의 공고화’를 가능케 한 유력한 수단이었다는 점은 통설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¹⁷⁾ 대중운동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운동의 성공적 측면에 대한 더욱 분석적인 성과를 산출하면서도 운동이 내포하고 있던 부정적 효과를 조명함으로써 다면적 시각을 보여준다.

줄리아 스트라우스는 건국 초기(1949-1956) 대중 참여와 도덕적 정당성이 결합된 대중운동이야말로 정권 강화, 국가 제도의 수립, 사회주의 개조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는데 핵심적 요소였다는 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표적이 된 사람들에게 대해 가해진 잔

16) ‘운동(campaigns)’의 유형 분석은 Charles P. Cell, *Revolution at Work: Mobilization Campaigns in China* (Academic Press, 1977); Gordon Bennett, Yundong: *Mass Campaigns in Chinese Communist Leadership* (Institute of East Asian Studies, 1976) 참조. 운동의 구체적인 리스트는 F. T. C. Yu, “Campaigns, Communications and Development in Communist China”, in D. Lerner and W. Schrim, eds., *Communication and Change in Developing Countries* (East-West Center Press, 1967), pp. 199-201 참조.

17) Ilpyong J. Kim, “Mass Mobilization Policies and Techniques Developed in the Period of the Chinese Soviet Republic”; Mark Selden, “The Yen-an Legacy: The Mass Line”; John Gardner, “The Wu-fan Campaign in Shanghai: A Study in the Consolidation of Urban Control”, in A. Doak Barnett, ed., *Chinese Communist Politics in Action* (University of Washington Press, 1969), pp. 78, 150-151, 477-478.

인하고도 강압적인 폭력의 문제를 강조한다. 그녀는 더 나아가 초기의 대중운동의 방법은 너무나 효과적이어서, 정치적 사회적 환경이 바뀐 이후에도 정권은 끊임없이 그러한 운동의 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으로써 결국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낳게 되었다고 본다. 대중운동을 통해 자신감과 도덕성을 획득할 수 있었던 “성공의 교훈이 후일의 실패를 초래하는” 아이러니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⁸⁾

土地改革, 鎮反運動, 三反運動에 관한 楊奎松의 일련의 연구들은 이들 운동이 내포한 성격을 분명히 보여준다. 그에 따르면, 토지개혁 운동에서 당의 관심은 단순한 “토지재산 분배가 아니라 농민 균등을 발동시켜 구세력을 일소하고 신정권의 통치 권위를 세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구체적인 제도적 규정보다는 “가난한 농민들의 구세력에 대한 원한을 극단적으로 폭발”시킴으로써 과도한 폭력과 부농에 대한 획일적인 타격이 발생했다고 지적한다. 신정권의 국가 기구 내의 부패를 척결하고자 했던 三反運動에 분석을 통해 저자는 그것이 일시적인 효과를 보았지만, 성숙한 법 체계를 통해 권력을 견제하는 제도적 방식이 아니라 오로지 균등운동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많은 왜곡이 발생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이를 수 없었다고 지적한다.¹⁹⁾

거의 모든 정책들을 대중운동을 통해 실행하고자 했던 신정권의 ‘작동 방식’이 갖는 문제점은 李里峰의 토지개혁에 관한 일련의 연구가 더욱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그는 그러한 작동 방식을 “運動式 治理”라고 명명하고, 그것이 국가 행정의 정규화(常規化)와 ‘제도화’에 장애로 작용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토지개혁을 비롯한 모든 대중운동은 자원의 재분배, 권력의 조정, 엘리트에 대한 통제, 민중의 동원 등을 수반하는 정치적 행위로서 국가 권력의 사회 침투, 정치적 정당성의 강화, 당면 목표의 신속한 달성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운동을 통해 얻은 성과가 정규 제도를 통해 안정화, 공고화되기 어렵다는 점, 장기적인 정치 발전을 불가능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한다.²⁰⁾ 이상의 논의들을 통하여 중공 정권의 성장, 성공, 그리고 ‘실패’의 과정들이 그 고유의 대중운동 방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이 분명해진다.

*

사실, 대중동원을 혁명의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에 대한 장애물로 간주하는 관점 그 자체는 그리 새로운 것은 아니다. 류샤오치(劉少奇) 등의 안정적인 제도적 발전 지향(관료제 정치)과 대비되는 마오의 끊임없는 대중을 동원한 관료제(주의) 비판(동원의 정치)은 중국 정치 과정의 문제점으로 흔히 지적되어 왔다.²¹⁾ 이에 비추어 보면 본서 제2장의 1950년대 정권 공고화 과정에 관한 서술은 양자간의 관계 방식의 절충점을 찾고자

18) Julia Strauss, "Morality, Coercion and State Building by Campaign in the Early PRC: Regime Consolidation and after, 1949-1956", *The China Quarterly*, No. 188, *The History of the PRC (1949-1976)* (December, 2006), p. 912.

19) 楊奎松, 「新中國土改背景下的地主富農問題」; 「新中國鎮反運動始末」; 「毛澤東與“三反”運動」, 楊奎松 著, 『中華人民共和國建國史研究』 1 (江西人民出版社, 2009).

20) 李里峰, 「運動式治理: 一項關於土改的政治學分析」, 『福建論壇』 (2010年 第4期).

21) 에컨대, Lowell Dittmer, *Liu Shao-chi and the Chinese Cultural Revolution: the Politics of Mass Criticism*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4) 참조.

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 프레데릭 테이베스는 대약진 이전까지 신정권의 정권 공고화 과정이 “매우 성공적”(remarkably successful)“(142쪽)이었다고 평가하면서 그것이 가능했던 다양한 요소를 들고 있다. 선명한 발전 목표를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소련 모델, 정책 추진에 헌신하는 지도부의 단결, 규율있는 당 기구 등을 통해 국가 발전과 변혁을 꾀할 수 있는 정권 역량의 강화가 그것이다. 특히 중공 정권은 다양한 권력의 기교(설득, 강제, 호소를 결합하여 인민의 복종을 이끌어 낸 것)를 통해 당의 권위를 높이고 인민의 지지를 확보해 갈 수 있었다(142-143쪽). 도시와 농촌을 불문하고 광범하게 전개된 전술한 모든 대중운동은 신정부에 대한 저항 세력을 제거하거나, 당-국가 이외의 일체의 권위(영향력)를 붕괴시키고, 정권 내부의 부정부패 관료들 정돈함으로써 정권 공고화에 기여했다(83-92쪽).

주목되는 것은 저자가 이러한 대중운동을 혁명의 제도화와 대립적인 것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대중운동과 제도화는 양자 모두 사회주의 목표를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되었다. 대중운동은 사회 변혁에 필요한 주요한 노력이었고, 강한 제도는 계획적인 발전을 지도하고 사회주의 사회를 관리해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143쪽). 이러한 시각은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양자를 상호 배제적인 것이 아니라 양립 가능한 상보적 관계로 파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저자의 절충적 관점은 마오시기 대중운동과 제도화의 통상적인 이항 대립적 관점을 넘어 양자의 관계를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차원으로 재음미할 수 있도록 이끈다. 첫째, 운동이 제도화를 방해했다기보다는 그것을 추동했다는 점이다. 1950년대는 제도적 측면에서 당-국가의 관료제 조직은 아직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었다. 당-정 기구는 사회의 저변에까지 확장되지 못했고, 그 기구를 담당할 간부인력(국가 에이전트)도 충분하지 못했다. 대중운동의 발동은 그러한 제도화의 취약성을 신속히 보완하고 후일 더욱 온전한 제도화로 나아가기 위한 조건을 마련하는데 기여했다. 둘째, 운동이 신정권이 사회와 연계하는 중요한 ‘제도적’ 역할을 담당했다는 점이다. 대중운동은 대중조직[群衆組織]과 그 조직을 담당하던 지역사회의 ‘적극분자’(열성분자)를 통하지 않고서는 전개되기 어려웠다. 사회를 직접적으로 파악(장악)하기 위해 국가가 보유한 자원은 제한적이었고, 대중의 ‘적극적’ 호응 없이는 사회를 운용하기 어려웠다. 마오시대 전반을 통하여 끊임없이 전개된 대중운동은 사회의 자원을 최대한 동원하기 위한 하나의 제도적 장치로서 이해될 수 있다.

4. 마오시대의 國家-社會 관계

1949년 집권에 성공한 중국공산당의 당-국가 권력이 국가 조직과 그 운용의 면에서 중국 역사상 전대미문의 사회 침투를 달성했다는 사실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신정권은

가정의 일상사로부터 개인의 사고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거의 모든 면에 간여 및 개조하고자 했던 개입주의적 속성을 지닌 권력이었다. 1950년대의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당-국가가 새롭게 도입한 엄밀한 조직 구조와 통제 기제는 중요한 연구 주제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전체주의 모델(totalitarian model)에 따라 국가에 의한 사회의 전면적인 재편, 권력에 의한 사회의 균질화와 표준화(standardization), 사회에 의한 국가 개입의 완전한 수용 혹은 복종의 측면에 주목하여,²²⁾ 당-국가 권력이 사회의 저변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고도 촘촘한 지배에 성공했다고 간주해 왔으며, 이러한 시각은 여전히 많은 마오시대 연구자들에게 채택되고 있다.

한편, 당-국가 체제의 통제 기제, 국가의 완전한 사회 침투, 사회의 균질화 등의 관점은 몇몇 연구들에 의해 도전받아 왔다. 예컨대, 비비엔 슈는 국가 권력과 촌락의 기간부들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당-국가 권력이 자신의 힘을 “벌집의 작은 방들(cell of honeycomb)”과 같은 촌락 사회에 제대로 투사하지 못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으며,²³⁾ 페리는 1957년의 노동자 파업에 대한 연구를 통해 1950년대 후반 그리고 그 이후에도 노동계의 분절, “사회-경제적 균열”(socioeconomic cleavage)이 엄존하고 있었음을 밝혀 내었다.²⁴⁾ 보다 넓은 문맥에서 필립 황은 국가와 사회 사이에 존재하던 ‘準공식적 영역’의 중요성에 주목하여 마오시대의 국가를 ‘중앙집권적 최소주의’ 권력으로 파악하고자 했다.²⁵⁾

이상의 서로 다른 관점들을 균형 있게 이해해 본다면, 마오시대 당-국가 권력은 강력한 사회 통제 의도와 전체주의적 사고 속에서 강압적 제도와 폭력적 수단을 통해 사회를 재편해 갔지만, 그 정도 면에서 권력의 의도에 온전히 부합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 권력의 사회 침투는 사안에 따라, 지역에 따라, 집단에 따라, 시기에 따라 서로 다른 층차를 보였다. 중공 국가 권력의 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투사력은 그 이전 권력들과의 비교의 관점에서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었고, 사회에 대한 국가 권력의 문안 그대로의 완전한 침투와 재편이 일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국가의 사회 침투의 정도와 성공 여부를 이상과 같이 이해한다고 해도, 그것이 국가-사회 관계의 전체상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국가의 침투와 사회의 대응을 논하는 연구들은 거의 예외 없이 국가-사회를 대립적 이분법으로 접근함으로써, 국가-사회 ‘상호 중첩’과 ‘상호 협력’이라는 양자 관계의 또 다른 측면을 조명해 주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

22) W. W. Rostow, *The Prospects for Communist China* (Technology Press of MIT, 1954); Richard L. Walker, *China under Communism: The First Five Years* (Yale University Press, 1955); Franz Schurmann,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new, enlarged edi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68); Martin King Whyte, “State and Society in the Mao Era”, in Kenneth Liberthal et al., eds., *Perspectives on Modern China: Four Anniversaries* (M. E. Sharpe, 1991).

23) Vivienne Shue, *The Reach of the State: Sketches of the Chinese Body Politics*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8) pp. 17, 70, 130.

24) Elizabeth J. Perry, “Shanghai’s Strike Wave of 1957”, *The China Quarterly*, No. 137 (March, 1994).

25) Philip C.C. Huang, “Centralized Minimalism: Semiformal Governance by Quasi Officials and Dispute Resolution in China”, *Modern China*, Vol. 14, No. 1 (2008).

고 있다. 이분법의 패러다임에서는 국가의 제도적 장치와 행위들이 단순히 국가 권력의 사회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뿐, 그것들이 국가 영역과 사회 영역을 동시에 체현하는 이중적 속성을 통해 국가-사회의 협력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주목하지 못한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직접 대면하는 기층 수준(grassroots level)의 제도적 장치와 실천들은 국가-사회의 중첩과 협력의 측면을 벗어나서는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다.

*

본서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국가-사회 관계의 다면적 접근은 찾아보기 어렵다. 1980년대 중반의 연구 조건과 그때까지의 연구의 제약으로 시각상의 편면성을 넘어서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서양의 역사 경험으로부터 도출된 국가-사회 이분법 패러다임은 역사 해석의 기본 관점이었다. 본서 전체에도 이분법 패러다임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이에 따르면,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국가의 사회 침투”(state’s penetration of society), 공산당 권력의 “사회 속으로의 깊은 파급”(reaching deep into society) (68쪽)은 강요와 설득을 포함한 다양한 수단을 통해 관철되었다. 총공회를 비롯한 각종 대중 조직들은 당의 의지와 정책의 “전달벨트(transmission belt)”에 불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도시 기층 주민 조직이나 도시 노동자의 단위 조직들도 당-국가의 사회, 정치적 통제를 확장하기 위한 장치로 파악된다. 이에 따르면, 국가는 경제 계획을 통해 삶의 모든 측면을 규제(regularization)할 수 있었다(94-96쪽). 중국공산당은 선전부를 통해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분야에서 당의 공식 견해와 다른 독립적 사고와 행동을 반혁명으로 몰아 제거했다(241쪽).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이러한 일면적인 이해 방식은 전체주의 모델에 따른 통제 프레임으로 중국 사회를 보던 1980년대까지의 연구 동향의 자연스러운 반영이었다. 또한 후술하듯이 이용 자료 면에서, 당안을 비롯한 기층의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자료의 입수가 불가능했던 당시의 연구 조건이 시각상의 제한을 뛰어 넘지 못하게 만들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국가의 힘의 한계에 대한 주목은 1980년대 중반 이래 새롭게 제시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국가-사회 관계 패러다임의 중국 적용이 초래하는 문제에 대한 성찰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국가-사회의 중첩과 협력의 측면 외에도, ‘국가’나 ‘사회’를 단일한 존재로 보는 시각을 넘어 시기와 사안에 따라 다르게 발현되는 ‘국가’의 양상들, 그리고 사회를 이루는 다양한 집단과 개인이 국가와 맺는 관계 양상의 다양성에 대한 관심들,²⁶⁾ 그리고 국가의 ‘통제’ 프레임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지역 사회 고유의 ‘공동체주의(communalism)’의 존재²⁷⁾ 등 국가-사회 관계에 관한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고 있다.

5. 결어

26) 최근의 국가-사회 관계에 대한 이론적 접근은 줄고, 「중국 근현대 국가-사회 관계의 함수」 『동양사학연구』 145집, 2018 참조.

27) Huaiyin Li, “Everyday Power Relations in State Firms in Socialist China: A Reexamination”, *Modern China*, Vol. 43, No. 3 (2017).

- 이용 자료의 한계가 초래한 문제 -

본서를 구성하는 각 장의 내용은 일반 연구논문에서 흔히 발견되는 쟁점 중심의 접근 이라기 보다는 그 각각의 주제에 관한 기존 연구 성과를 매우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방식으로 담아내면서 가능한 한 균형있는 시각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본서는 중국사 연구자들에게 해당 시기에 관한 전문지식을 포괄적으로 전달하고 그로부터 새로운 연구의 진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안내자의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본서의 말미에 수록된 연구동향 정리와 각장 관련 연구문헌 목록 및 그에 대한 코멘트는 각 주제에 접근해가는 연구자들에게 매우 유용한 선행 연구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오늘의 연구 상황에 비추어 보면 본서의 한계는 자명하다. 이는 무엇보다도 당시의 제한적인 자료 이용의 조건과 밀접히 관련된다. 본서가 집필되던 1980년대 중반까지 연구자들이 주로 의존했던 자료는 검열을 거쳐 중국 당국이 승인한 공식 간행물, 당 기관지(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인민일보> 이외에도 각 성시의 신문(일보) 역시 공산당지방위원회의 기관지이다), 대륙 라디오 방송 청취, 홍콩 등지의 망명자 인터뷰, 문혁시기 정치 투쟁을 위한 홍위병 간행물, 출처를 알 수 없는 반공적 성향의 정보 파일들(주로 대만 소장), 통제하의 현지 견문 등이었다. 이 자료들은 대부분 정치적 편향이 농후했다는 점에서 마오시대의 중국에 대한 다면적 접근을 방해했다.

중국 당국의 공식 출판물과 기관지 등의 자료는 당-국가의 의도와 이데올로기, 전체적인 제도적 윤곽, 전국적인 국가 구조를 밝혀내기에는 유용했지만, 국가의 의도의 관철 여부,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들, 국가 권력에 대한 사회의 반응, 기층 사회의 삶을 균형 있게 조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많은 연구자들이 마오시대의 중국을 당-국가의 압도적인 힘이 사회의 저변에까지 관철되는 ‘전체주의’ 모델, ‘통제’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제한적 자료에서 연유한다.

국내의 동란을 피해 홍콩 등지로 빠져나간 망명자들에 대한 인터뷰가 인민의 일상적인 삶과 권력에 대한 반응을 엿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지만, 이 또한 정치적 편향을 벗어나지 못했다.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서 견디지 못하고 떠난 일부 사람들에게 대한 인터뷰는 마오시대의 강압적 통치 구조와 방식에 대한 편면적 이해를 더욱 심화시켰다. 예컨대, 마오시대 도시 주민의 삶을 조명한 제15권 제10장 마틴 화이트의 글은 주로 망명자 인터뷰에 근거하여 접근함으로써 마오시대 도시 거민위원회를 포함한 모든 조직적 구조를 “인민에 대한 고도의 조직화와 통제”(a higher degree of regimentation and control over the population)의 프레임으로 접근하도록 만들었다.²⁸⁾

1990년대 이래 가속화한 중국의 개혁-개방과 탈정치화 경향은 자료 접근의 가능성을

28) Martin King Whyte, "Urban Life in the People's Republic", *CHOC*, Vol. 15, p. 697.

획기적으로 개선시켰다. 외국의 연구자들도 지방 檔案館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고, 당국의 아무런 통제 없이 현지 조사와 주민 인터뷰를 진행할 수 있게 되었다. 개인의 회고록들이 공개 출판되거나 소규모 印刷廠을 통한 개인적 인쇄물의 형태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더 이상 자료의 한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그러한 풍부한 자료들의 활용 방식은 여전히 도전적인 과제이다. 개인의 구술이나 회고록의 ‘기억’의 문제는 차지하고라도 가장 객관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당안 자료의 이용에도 주의가 필요하다. 당안은 어디까지나 당-정의 ‘통치’를 위해 작성된 것으로 ‘피통치자’의 견해와 반응을 반영하는 데는 고유한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통치’의 목적을 위해 생산된 자료는 엄밀한 사료 비판이 전제될 때 ‘객관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수정주의적 해석의 가능성 탐색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회의

캠브리지 중국사 제15권 중화인민공화국 제2부

채준형(인천대)

1. 들어가며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과 전개를 다루는 캠브리지 중국사의 14권과 15권은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 중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여전히 지속 중인 중화인민공화국을 어느 범위까지 역사화 할 수 있을 것이냐의 고민이 저자들의 서술에 관통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5권은 문화대혁명(이하 문혁으로 약칭함)부터 대략 1980년대 초까지의 시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이 1991년에 출간되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편집자와 저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적잖은 부담을 느꼈으리라 생각된다. 캠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다른 편과는 달리 정치학, 사회학, 문학 등 역사 이외의 분야의 전문가들, 대학뿐만 아니라 외부 싱크탱크에서 중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들이 역사학적 방법을 충실히 사용하여 서술에 임하고 있어 역사학 전공자들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 냈다고 평할 수 있다.¹⁾

1000페이지에 가까운 방대한 분량으로 중화인민공화국의 60-70년대를 다루고 있는 15권은 마오쩌둥 사상에 대한 스투어트 슈람의 개략적인 해설을 시작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를 폭 넓게 다루고 있다. 총 12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960년대 초 문혁의 기원부터 덩샤오핑 정권의 등장까지를 하한으로 하는 정치-외교 중심의 4개의 장과 마오쩌둥 사상을 다루고 있는 첫 번째 장을 포함하면 5개의 장이 1960-70년대 중화인민공화국의 정치를 다루고 있다. 정치-외교 분야 외에 도시와 농촌을 중심으로 한 사회 분야를 분석하는 두 개의 장과 문화, 예술을 개략적으로 소개하는 두 개의 장 그리고 경제, 교육, 타이완을 다루는 각 1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구성이 정치에 편

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두 장-해리 하딩과 로드릭 맥파커-이 *The Politics of China: Sixty Years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Third Edition)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11)에 그대로 실렸다는 점을 상기하면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사실과 관점이 학계에서 널리 받아들여질 수 있는 주류적 해석임을 입증한다. 위의 책은 한국어로도 번역되었다(로드릭 맥파커 엮음, 김재관, 정해용 옮김, 중국 현대정치사: 건국에서 세계화의 수용까지, 1949-2009, 푸른길, 2012.).

중된 감이 없지 않으나 본서의 출판 시기를 고려하면 정치-외교 이외의 다른 분야에 대한 정리가 생각보다 여의치 않았을 것이다.

필자는 15권의 기본적인 서술 방향이 크게 두 갈래로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보수적인 관점 속에서의 수정주의적 해석의 가능성 모색과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회의적 입장 견지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우선 15권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치-외교, 경제, 사회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각 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여 제시하고, 각 분야에서 저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관점들이 필자가 제시한 두 갈래의 방향으로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이 두 가지 관점 이외에도 세부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토론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된다.

2. 국가 권력의 파괴적인 자기 분열과 그것의 극복

15권에 수록된 논문들의 상당수는 정치의 범주로 묶일 수 있다. 시기적으로는 대략 문혁부터 덩샤오핑 집권 직전까지 다루고 있다. 버지니아대 정치학과 교수인 해리 하딩(1946-)은 문화대혁명 발생한 1966년부터 혼란이 최고조에 달했던 1969년까지 중심으로 문혁의 성격과 결과를 논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문혁은 1960년대 중국 사회에 대한 마오의 인식, 소련과의 관계 재설정, 권력 이양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했다.

우선 문혁은 궁극적으로 마오의 1960년대 중국 사회에 대한 진단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중국 사회와 당-국가는 모두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마오는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가 문혁이라는 것이다. 마오는 1959년 루산 회의에서는 아닐지 몰라도 적어도 1962년 1월 8기 10중전회에서는 확실히 당내 계급 투쟁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또한 마오는 1950대 후반-1960년대 초반의 소련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소련이 중국의 외교정책을 왜곡하고 경제를 조종하려 시도한다는 증거를 마주하고 소련에서 불평등과 침체가 점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마오는 이를 소비니즘과 수정주의로 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이 중국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그리하여 스탈린의 후계자들을 수정주의자로 규정하며 소련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고자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문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마오는 권력 이양과정에서 나타날지도 모르는 수정주의의 발호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를 염려하였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당원들과 중국의 젊은 세대를 혁명이라는 열정의 시험대에 밀어 올렸다는 것이다.

문혁은 기본적으로 도시 혁명이었고 문화와 교육 측면에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특히 학자, 문인, 지식인들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1980년 후야오방은 유고슬라비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우파투쟁, 문혁 등 마오이스트 군중으로 인해 도시 엘리트층을 중심으로 약 1억 명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추측했다. 이러한 재난적인 정치적 동란에도 불구하고 문혁은 경제적인 측면에는 거의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문혁으로 파편화된 중앙 권력

은 1980년대 중반까지 중국에 두 가지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나는 정부 부처, 산업-상무 부문, 그리고 당 내에 깊이 자리잡은 분파주의이며 또다른 하나는 젊은 세대의 정치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다. 문혁의 대혼란이 마오 이후의 시대의 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건이 되었지만, 문혁의 장기적 결과는 여전히 확실하지 않다. 문혁이 또다른 권력 투쟁의 선례로 작용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관건은 마오 이후의 시대의 개혁이 제도화된 정치, 경제적 변형, 사회 안정 그리고 문화적 현대화를 만들어 내서 문혁과 같은 사건이 중국 인민들에게 더 이상 어필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일 것이다.

하딩의 주장에서 흥미로운 점은 문혁이라는 동란을 만들어낸 것은 마오이지만 중국 공산당에도 일정 정도 책임을 묻고 있다는 점이다. 즉 마오는 문혁을 일으키면서 적어도 당의 이름을 빌어서 추진하였다는 것이다. 하딩은 만약 당권파 또는 당 중앙의 다수가 푹푹 뭉쳐서 마오와 조반파에 저항했다면 마오가 문혁이라는 방식으로 당과 당권파를 공격하기는 어려웠으리라고 진단한다. 마오가 문혁에서 당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투쟁의 방식은 집단지도체제와 당내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원칙에 위배되는 당의 입장에서 매우 비정통적인 권력 투쟁 방식이었다는 것인데 당이 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마오는 문혁의 필요조건이기는 하지만 충분조건은 아니라는 것이다.²⁾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문혁에 대한 해석이 중국에서의 평가와 구미의 평가가 비슷한 궤적을 그리고 있다는 것이다. 사인방을 체포한 화궈핑 집권기까지만 해도 문혁에 대해 긍정적이었던 문혁에 대한 중국의 공식 평가는 1979년을 기점으로 ‘재난’여겨지기 시작했고, 1981년 채택된 당의 역사 결의는 문화대혁명이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이래 가장 심각한 퇴보와 엄중한 희생을 야기함으로써 당과 국가 그리고 인민을 힘들게 한 사건”이었다고 규정하였다. 이러한 문혁의 재평가는 서구 사회에서도 되풀이 되었다. 문혁의 시작은 관료주의와 국가주의로부터 인민을 지키려고 하는 마오의 ‘숭고한 이상’에서 시작되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1970년대에 서구 사회가 가지고 있던 문혁에 대한 평가였다. 그러나 중국에서 문혁이 평가절하 되면서 서구에서도 문혁에 대한 재평가가 시작되어, 결국은 문혁이 1960년대 중반 중국의 정치-사회적 문제에 대한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기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³⁾

3장과 5장은 1960-70년대 중국의 대 소련, 대 미국 관계, 즉 중국, 소련, 미국 사이의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논의이다. 미국 기업연구소(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AEI)의 중국 연구실장이었던 토마스 로빈슨(1935-2006)은 문혁이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2) Harry Harding, “The Chinese state in crisis,” in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204-206.

3) Harry Harding, “The Chinese state in crisis,” in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200-201;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었겠지만 60년대 중후반부터 서구 사회에서 일어나 일련의 진보적 정치 운동, 특히 서유럽에서의 68운동, 미국의 공민권 운동이 마오이즘과 문혁에 대한 긍정적 해석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성격이 무엇인지를 상기시켜 준다. 그는 문혁 과정에서 뚜렷이 나타나는 민족주의적, 고립주의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문혁의 원인 중에는 국제적인 성격을 지닌 것들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문혁의 발동과 전개가 중화인민공화국 외부에서 있었던 사건들로 인해 영향을 받았으며 문혁의 결과는 주변국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문혁 자체 역시도 1969년의 전쟁 위기로 인하여 그 경로가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1965년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은 중국 지도부 내부에 미국, 소련과의 관계를 둘러싼 전략적 논쟁을 촉발시켰고 이 논쟁은 당내의 반문혁파와 조반파 사이의 대립의 한 축을 형성하였다. 또한 1968년 소련의 체코슬로바키아 침공과 브레즈네프 독트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을 심대하게 위협하는 것이었고 중-소 국경지대에서의 소련의 병력 증강은 중국 지도부를 긴장시켰다. 이른바 진보도 사건으로 인한 양국의 긴장,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예상치 못한 소련의 대중 강경노선으로 인해 문혁의 ‘동란적 국면’은 종언을 고한다.

토마스 로빈슨의 논의가 흥미로운 것은 그가 문혁기 중국의 외교에 대한 수정주의적 시각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서사-즉 이 시기에 중국이 외교적으로 고립되었고 외부와의 교류가 철저히 단절되었다는 사실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는 어떤 측면에서는 베이징의 대외 정책이 생각보다 매우 역동적이었으며 적극적이었다고 볼 수 있음을 지적한다.⁴⁾ 소련과의 국경지대에서 중국은 매우 적극적으로 행동했으며 미국과도 베트남 문제 그리고 전략적 삼각관계를 둘러싼 지속적인 접촉이 있었다. 미국과의 무역, 원조, 고위층의 방문 역시 비록 제한적인 수준이기는 했지만 지속되었다. 요컨대 중국의 자발적인 고립의 시기는 생각보다 짧았을 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관계 단절 속에서도 중국 당시의 국제적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었다는 것이다.⁵⁾

문혁 시기 가장 중요한 전략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중-미 관계의 복원은 문혁 시기 중국이 대외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고립적이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 있다. 조나단 폴락(c.1948-)의 상세한 논의는 한국전쟁 이후 경색에 들어간 양국의 관계를 역전시킨 중미 관계 개선은 아시아 지역의 국제관계를 재정립하게 되었음을 잘 보여준다.

4) Thomas Robinson, “China confronts the Soviet Union: warfare and diplomacy on China’s Inner Asian frontiers,” in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 219.

5) 이와 같은 수정주의적인 시각을 구체화시킨 최근의 연구는 Jian Chen, *Mao’s China and the Cold War*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01) Jeremy S. Friedman, *Shadow Cold War: the Sino-Soviet competition for the Third World* (Chapel Hill, NC: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2015); Sigrid Schmalzer, *Red Revolution, Green Revolution: Scientific farming in socialist Chin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6); Odd Arne Westad, *The Cold War: A World History* (New York, NY: Basic Books, 2017); Covell F. Meyskens, *Mao’s Third Frontier: the militarization of Cold War China* (New York,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20) 등을 들 수 있다.

물론 중미 양국의 관계가 1972년의 이벤트 직후 급속도로 개선되지는 않았다. 양국 지도부는 국제정치적 전략적 전환을 고려하며 만났지만 만남이 끝난 후에는 정치적 생존을 고려해야 했다. 특히 중국에서는 미국과의 국교 정상화 가능성이 저우언라이와 덩샤오핑에 대한 정치적 공격을 방어해주는 기제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미 관계 개선에 대한 마오의 지속적인 지지도 보장해 주지 못했다. 마오의 전략적 결단은 오랜 기간에 걸친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의한 것이었다. 미국으로의 접근은 소련의 위협을 상쇄하는 안보에 대한 고려 때문이었다. 여전히 소련과의 관계 또는 소련으로부터의 안보위협이 주된 관심사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마오는 권력이양 문제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은 1970년대 말까지 미완인 채로 남게 되었고 마오는 죽을 때까지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했다. 그는 미국을 레버리지로 경제적, 기술적 진보를 이룩하기 위한 새로운 길을 여는 것에는 무관심했다. 결국 1970년대를 마감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으로 인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중국의 정치적, 경제적 고립은 끝이 나게 되는데 그 변화를 더욱 실감했던 쪽은 중국이었다. 베이징은 이러한 미국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보 전략적 협력을 뛰어 넘는 정치적, 경제적, 제도적 관계의 다양한 조합을 통한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결론 내렸다.⁶⁾

2. 1960-1980년대 중국 경제와 동아시아 경제 발전 모델

1966부터 1969년까지 가장 혼란스러웠던 3년을 제외하고 문혁시기에 중국 경제는 견조한 성장을 이어왔다. 따라서 문혁시기에 중국에 경제 정책이 없었다 또는 문혁시기에 경제가 후퇴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자력갱생 또는 외국 수입품과 기술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한다는 1966-76년의 수사는 1950년대 자력갱생 정책이나 소련의 1930년대 외국 무역에 대한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즉 드와이트 퍼킨스(1934-)의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중국 경제에 대한 논의에서 문혁으로 대표되는 ‘정치’는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는다. 퍼킨스의 기본 입장은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경제부문에 있어서 스탈린식 계획 경제 모델이 형식적으로는 지속되었지만 그 작동에 있어서는 이전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1967-68년을 제외하고 자본과 에너지 투입이 계속되는 한 성장-이 성장이 인민 개개인의 생활수준 향상에 효과적이지는 않았다는 계속되었다는 것이다. 주의해야 할 것은 산업 부문에서 그렇다는 것이고 농업 부문의 정책에서는 스탈린 모델의 유산이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작동하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약 20년 간의 실질 임금의 정체로 인해 노동 규율이 무너지

6) Jonathan D. Pollack, "The opening to America," in Roderick MacFarquhar and John K. Fairbank eds.,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469-471; 폴락의 이러한 관점은 동아시아 지역 내의 행위자를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으로 한정짓는 전형적인 대국중심주의적인 인식을 저변에 깔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고 다칭을 비롯한 유전들의 생산이 정점을 찍고 감소하기 시작했다. 투자율은 계속 오르고 있었기 때문에 자본 대비 산출 비율이 훨씬 빠르게 오를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인력과 자원의 방만한 운용에 기반한 성장의 시대는 주자파든 조반파든 누가 정치권력을 잡느냐에 관계없이 끝나가고 있었다. 1977-78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는데 산업 부문을 자극하기 위해 외국 기술을 수입하고 보너스를 부활시키고 농산물 매수가를 인상하고 총임금을 보전하는 조치 등을 취하게 되면서 문혁 시기의 경제 기초에서 탈피하였다.

1978년 말과 1979년 초에 이르러 중국의 계획경제론자들은 마침내 스탈린식 경제에서 벗어났다. 국내에서의 소비와 외국과의 무역을 위한 소비재가 생산재보다 처음으로 우선 순위를 차지하였다. 중국의 경제 개발 전략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었던 패턴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러나 개혁의 첫 국면에서 보이는 특징은 오래 가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성장률을 낮춰서 경제 구조를 '조정'하려는 노력은 산업 부문과 농업 부문의 성장률이 충격을 받은 1981년까지였다. 중공업 부문의 비중 축소 역시 잠정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982-1986년에 이르는 시기에 중공업 대 경공업의 비중은 문혁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그렇지만 중국이 채택한 섹터별 발전 전략이 이전의 경제 개발 패턴을 완전히 뒤바꾸지는 못했다. 외형상으로는 수출 증대, 해외 차입, 외국인 직접 투자를 강조하는 변화가 계속되었고 또 증가하였다. 농업 생산의 급증은 높아지는 임금과 인센티브에 발맞춰 소비재가 대응할 수 있었음을 의미했다.

그러나 수출은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만큼 중국의 개발 전략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았다. 이는 중국이 한국에 비해 큰 규모의 경제를 지니고 있었고 무역이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중국처럼 큰 나라에서는 전형적으로 작게 나타나기 때문이기도 했다(한국과 같은 작은 나라와는 다르다). 중국의 무역 비중은 한국이나 타이완 보다 훨씬 작았는데 1960년대 일본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과 비슷했다. 국가 경제에서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을 동아시아 다른 작은 나라들과 비교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중국이 왜 초기 경제 개발의 국면에서 중공업의 성장에 더 집중할 수 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 준다. 한국의 경우는 경제 개발 초기 경공업에 집중하면서 중공업 수요를 수입으로 충당했다.

일찍이 1977년부터 해외 무역에 대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통제가 느슨해지는 것을 틈타 기업들이 과도한 수입 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하면서 중앙의 통제가 부활되어야만 했다. 1980년대 초에 생산책임제가 도입되고 1983년에는 농업 집단화가 폐기 되었다. 1979-1983년에 이르는 5년 동안 중국 농업은 중앙의 엄격한 통제를 받는 농업에서 개별 농가가 시장 메카니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조절 받는 농업으로 전환하였다. 물론 몇몇 할당은 남아있었지만 1980년대 중반이 되면 할당도 소멸한다.

산업 부문에서 스탈린식 계획과 경영을 일소하는 것은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는데 농업 부문보다 상황이 더 복잡했기 때문이었다. 산업 시스템에 대한 실험은 1979년부터 시작된다. 처음에는 소비에트 스타일의 관료적 통제 시스템이 좀 더 잘 작동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혁의 실험이 시도되었다. 변화는 관료가 아닌 기업 조직 내부에 의해 책임 경

영되는 방향으로, 지역 시장에 대한 독점적 점유에서 시장에서의 경쟁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시작되었다. 관료적 통제는 느슨해졌으며 계획에 의해 생산량을 강조하는 경영 목표 설정에서 탈피하여 효율성에 기반하여 경영 목표를 설정하도록 변화가 만들어져 갔다.

1984년까지 농촌 개혁에서의 극적인 성공에 고무된 당은 산업 부문에서도 훨씬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1987년까지 중앙집권화된 관료적 시스템을 시장 경제적 자율 통제와 중요한 섹터에 대한 계속적인 관료적 통제를 일정 정도 결합시키는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목표는 1960년대 일본 또는 한국에서 발견되는 시장과 국가가 혼합된 통제의 사회주의적 버전이었다. 그러나 1987년 말의 중국은 소위 동아시아 모델의 거대한 복사본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중국의 개혁론자들이 시장을 더 중요시하고 이용하도록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중국 경제 시스템은 동아시아 여러 나라들에서 보이는 사적 소유에 기반한 계획과 시장 시스템이 혼합되는 시스템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다. 중국은 또 여전히 여타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발견되는 도시화에 기반한 경제적 번영과는 여전히 거리를 두고 있었다. 그러나 중국은 1980년대 말까지 수 천년 간 존재했었고 1970년대 초까지도 여전히 변형된 형태로 존재하던 가난으로 상징되는 농촌 소농 경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거대한 발걸음을 떼 셈이었다.⁷⁾

3. 농촌과 도시 생활의 사회학적 분석

농촌과 도시 사회를 다루고 있는 두 개의 장은 일반 인민의 삶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중국 사회주의를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지를 특히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캘리포니아 대학 샌디에고 캠퍼스의 사회학자 리처드 매드슨(1941-)은 사회주의 중국의 농촌 사회에 대한 논의를 마오의 1927년 후난농민운동고찰보고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유명한 에세이에서 마오는 당시 중국 농민을 움아매고 있는 네 가지 질곡을 지적한 바 있다. 그것은 1) 정치(정치적 권위) 2) 종족(종족적 권위) 3) 미신(종교적, 초자연적 권위) 4) 가부장(남성의 권위)였는데 매드슨의 중국 농촌 사회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사회주의 혁명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권력 침투가 중국 농민들을 이 질곡으로부터 해방시켰느냐에 모아진다.

중화인민공화국의 농촌의 상황은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1960년대부터 1980년대 초에 이르는 시기에 정치 영역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이 어떤 성과를 얼마나 냈는지를 논하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의 성취와 과오를 논하는 것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이다. 그렇지만 중국 농민들은 1930-40년대와는 달리 지역 사회의 토호, 토비 그리고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것과 같은 일을 걱정할 필요는 없어졌다. 중화인민공화국의 공산당 정권은 농민들에게 적어도 1930-40년대보다는 훨씬 안정적인 사회 질서를 이룩하였다.

7) Dwight H. Perkins, "China's economic policy and performance," in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pp. 538-539.

토지개혁 기간 중 중국 공산당은 빈농, 고농을 중심으로 군중 운동을 조직하여 지역 사회의 착취계급을 타도하였다. 이들 농민 군중 조직의 힘은 점차 약화되었지만 공산당은 지역 사회의 중요 사안들이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 조직된 빈농 및 중하층 농민들과 논의를 지속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이 결코 민주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도 빈농과 중하층 농민들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 공식적으로 참여할 수는 있었다.

더욱이 생산조나 생산대를 책임지고 있던 기층의 간부들은 거의 모두가 같은 마을 출신이었기 때문에 기층 간부들은 같은 마을 출신 농민들과의 수많은 비공식적인 사회적 통제를 속에 놓여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일종의 느슨함으로 때문에 마을의 농민들은 이전보다 훨씬 책임감 있고 정직한 농촌 지도자를 가지게 되었다고 느꼈으며, 이로 인해 농민들은 자신의 일상에 개입하는 집단적 통제를 의식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혁명 이전과는 다른 점이였다.

중화인민공화국이라는 국가는 선전활동을 통하여 농민들이 그들의 지역 공동체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근시안적 행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회주의적” 농민으로 재탄생하기를 희망했다. 그러나 농민 대다수는 국가의 정책에 미심쩍어하는 소농적 멘탈리티를 유지하였고 자신의 가족, 마을의 삶에 집중하였다. 물론 어떤 농민들, 예를 들어 지역의 하급 당 간부 또는 제대한 병사 같은 경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을 접해본 경험이 다른 농민들보다 많았고 이것이 국가 체제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약간의 이해로 귀결되기도 했다. 6년 동안의 기본적인 교육을 받은 젊은 농민들은 윗세대 보다 정부의 이데올로기를 더 잘 이해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조차 당시의 정치경제적 시스템 하에서는 마을을 떠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었고 좀 더 넓은 공적인 일에 참여할 수도 없었기 때문에 촌락 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더욱 집중하였다.

중앙 정부는 촌락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미심쩍지만 강력한 존재로 각인되어 있었다. 1949년부터 1970년대 말에 이르는 대략 3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인민공화국 정부는 빈농과 중하층 농민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자비로운 존재였다. 1960년대 중반 수많은 농민들이 마오를 신과 같은 존재로 존경하였다. 그러나 문혁과 그 이후 이어진 파괴적인 정책들로 인해 농민들은 중앙정부에 대한 환상에서 깨어나게 되었다. 1970년대 중반에 이르면 농민들은 중앙정부를 위협하고, 이질적이면서 간섭하기 좋아하는 힘으로 생각하게 된다. 반면 1950년대 후반에 정부는 촌락 생활에 개입함으로써 모험주의적인 대약진 운동의 여러 정책을 추진할 수 있었던 열정의 짧았던 분출을 만들어 내기도 했고 70년대 후반에는 농촌지역 경제에 대한 타이트한 통제를 거두어들임으로써 군중의 열정을 또 한번 만들어 냈다.

사회적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에 대한 농민들의 평가는 정치적인 삶의 방식, 경제적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변화 대한 평가에서 나타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평가의 대립과는 다르다. 왜냐하면 결국 이들의 사회적 삶은 이들의 정치-경제만큼 철저히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산당이 전통적 사회적 삶의 방식의 기본 패턴을 흔들기 위해 고급 합작사를 조직하고 인민공사를 운영했을 때에도 그 결과는 극도의 경제적, 정치적

혼란이었다. 그래서 결국 공산당은 이러한 패턴을 더 이상 건드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전통적인 가족은 여전히 한 개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덕적, 감정적, 경제적 존재로 남았다.

1920년대 마오가 중국 농민과 농촌을 움아매고 있는 밧줄로 지적인 네 요소 중 세 가지—정치, 종족, 젠더—는 여전히 농촌과 농민을 움아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종교(미신)의 경우는 어떨까? 서구 학계의 종교(미신)에 대한 연구는 빈약하다. 그렇지만 구시대의 신들, 관료제적으로 정비된 정치 질서의 상징들이 지녔던 권위는 이미 죽었다. 거대한 사원(타이완의 농촌에서는 너무나도 흔한)은 없어졌다. 신성한 존재들을 기리는 사치스러운 축제도 사라졌다. 문혁 전야에 정부는 전통적인 신들의 숭배를 마오에 대한 숭배로 대체하려 하였다. 그러나 마오 컬트는 실패하였다. 정부에서 추진한 이러한 정치적 숭배는 농촌 지역 인민들의 감정적 반항을 일으키지 못했다. 문혁에 의해 파괴되거나 숨겨졌던 조상의 위패는 현재 다시 만들어지고 있거나 다시 나타나고 있다. 농민들은 여전히 조상을 기억하고 가족의 초월적인 단합을 기리는 페스티벌을 여전히 열고 있다. 무당과 점쟁이들은 탄압받았지만 1970년대 말 정부가 인정하였듯이 이들은 여전히 “봉건적 미신”을 섬기고 있다.⁸⁾

위와 같은 매드슨의 중국 농촌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은 사실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정권의 국가 권력 침투가 중국 농촌에는 의미있는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패했다는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매드슨의 분석은 서구중심주의적인 시각, 사회주의 혁명의 한계를 전제한 분석이라고 볼 수 있다. 마오가 지적인 정치적, 종족적, 가부장적, 종교적 권위는 어느 시대, 어느 사회의 농촌, 아니 인간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권위에 일정 정도 얽매이게 마련 아닌가? 매드슨의 중화인민공화국 농촌에 대한 분석과 유사한 관점—사회주의 혁명으로 성립된 국가 권력의 기층 침투는 매우 어려웠다는 관점—에서 하버드대의 사회학자였던 마틴 킹 화이트 역시 인민공화국 하의 도시 생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고 있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고도로 조직되고 평등을 지향하면서 전투적이며 생산적인 도시 공동체를 조직하고자 했던 공산당의 노력은 실패로 판명되었고, 그 결과 도시 거주민의 모습은 정부에서 바랬던 사회주의 정권과 교감하고 정권을 옹위하는 균질한 인민이라는 바람직한 거주민像과는 거리가 멀었다. 수 년간에 걸친 극적인 사건들과 정책의 전환으로 인한 세대 간의 상이한 경험의 차이가 도시 생활의 여러 국면에서 나타났다. 60세 이상 세대 특히 은퇴자의 경우 자신들의 전성기는 끝났다고 생각했다. 어떤 이들은 부유

8) 이에 대한 최근 관련 연구는 Thomas DuBois, *The Sacred Village: social change and religious life in rural north China* (Honolulu, HI: University of Hawaii Press, 2005); David A. Palmer, *Qigong Fever: Body, Science, and Utopia in China* (New York,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David Ownby, *Falun Gong and the Future of China*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Vincent Goossaert and David Palmer, *The Religious Question in Modern China*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2) 등이 있다.

하고 결실있는 삶은 누렸고, 어떤 이들은 자신의 재능이 새로운 사회에서 낭비되고 있다고 생각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은 시련을 견뎌내고 있었다. 그러나 1980년대의 4대 현대화로 대표되는 정부의 미래에 대한 약속은 이 세대들에게는 더 이상 크게 어필하지 못했다. 사회의 연장자 그룹으로서 이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통해 일상생활 속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하고자 하였다. 수많은 예외가 있겠지만 도시의 60세 은퇴자 세대는 1980년대 현재 다른 젊은 세대보다는 자신의 생활에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다.

1980년대를 40-50세에 시작한 세대는 이들은 1949년 직후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한 이들로 신중국에 대한 낙관적 전망에 가장 사로잡혀 있던 세대였다. 이들은 정부가 무자비하고 쉽게 만족하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좀 더 나은 사회 그리고 풍요로운 삶으로 이끄는 수단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이들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가에 대한 기대를 접기 시작했다. 이들이 지금 살고 있는 사회는 자신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고 싶어했던 사회와는 달랐다. 여기에 불만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국가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나고자하는 용기는 없었다. 그래서 이 연령대의 구성원들은 1980년대의 사회적 트렌드와 정치적이고 공적인 선언에 대하여 냉소적이었고 모든 것들이 다시 옛날처럼 제자리로 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하는 일종의 노스텔지어에 사로잡혀 있었다.

30대 연령 그룹은 다른 세대와 매우 다른 미래에 대한 전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특히 홍위병 경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러했다. 이들도 원래는 낙관적이고 열정적인 환경 속에서 성장했지만 문혁과 그 이후 시기에 격한 경쟁을 경험하였다. 사회주의에 대한 낙관과 이를 위해 정부에 헌신했기 때문에 1966년 이후 경험한 그들의 삶의 궤적은 더욱 비극적이고 파괴적이었다-파벌 간의 폭력, 하방, 교육과 물질적 실망 그리고 도시의 저급한 일자리 등은 이들을 절망하도록 만드는 요인이었다. 이러한 것들로 인해 이 세대는 자신들이 국가 시스템으로부터 속고 있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연령 그룹보다 국가-사회 시스템에 대하여 가장 냉소적, 비판적이었다.

1970년대와 1980년대 초에 학교를 졸업한 세대 역시 다른 그림을 가지고 있었다. 망가진 교육 시스템과 계속해서 일어나는 정치 캠페인이 이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오히려 계속 바뀌는 기준과 이 당시의 어떤 불확실성은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경쟁자를 제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다. 이들이 체제에 걸고 있던 믿음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과 분노도 다른 세대에 비하면 높지 않았다. 다만 이들이 정치에 귀를 막은 대신 물질적 소비에 열중하거나 기성 세대와는 다른 라이프 스타일을 영위하는데 관심을 기울였다. 198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던 가장 젊은 세대들이 사회-정치적 개혁을 피하는 정부와 어떤 관계를 맺게 될 것인지, 정부 정책이 이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화이트와 매드슨의 중국 도시, 농촌 거주민들의 생활과 의식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1960년대 중반부터 1980년대 중반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회

주의 신중국의 기층 민중으로의 침투는 지연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도시 거주민의 경우 국가 권력 내부로부터의 파괴적 분열로 인한 상처로 사회주의 신중국의 시스템과 국가 권력의 본질에 상이한 전망을 하게 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농촌에 대한 분석에서도 1920년대 말에 마오에 의해 제시된 사회주의 혁명의 목표는 1980년대 중후반 현재 그 달성이 여전히 요원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4. 나가며

부 록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대한 학계의 書評 소개

조용준(중국인민대학교 역사학원)

-「先秦史」편과 「秦漢史」편에 대한 書評을 위주로

이동훈(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캠브리지중국사> 중세사파트 한국사 관련 서술과
인식 분석

김종건(대구한의대)

중국학계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평가 분석
-명청시대를 중심으로-

손성욱(선문대)

『케임브리지 중국사』에 대한 학계의 書評 소개

- 「先秦史」 편과 「秦漢史」 편에 대한 書評을 위주로

조용준*1)

목 차

- I. 서론
- II. 先秦史 편에 대한 학계의 書評
 - 1. 서구 학자의 書評
 - 2. 중국 학계의 書評
- III. 秦漢史 편에 대한 학계의 書評
 - 1. 서구 학자의 書評
 - 2. 중국 학계의 書評
- IV. 결론

I. 서론

『케임브리지 중국사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는 총 15권으로 (현재까지 모두 13권이 출판됨),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John K. Fairbank 교수와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Denis Twitchett 교수가 1960년 말에 저술을 계획하였고, 중국사 전반을 기원전 3세기 秦帝國부터 현대 중국 毛澤東의 사망까지의 시기를 각각의 斷代史로 구분하여 시리즈물로 집필한 책이다. 그 중 제1권인 秦漢史 편은 1986년에 정식으로 출판되어 나왔다.¹⁾

그리고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Michael Loewe 교수와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Edward

* 中國人民大學校 歷史學院 歷史系, 助教授, choyongjun@126.com.

1)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 ~ AD 220)』,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12. 그리고 이 책에 대한 중국어 번역판도 최근에 출판되어 나왔다. (英)崔瑞德, 魯惟一 著 / 楊品泉, 張書生 譯, 『劍橋中國秦漢史 (公元前221年至公元220年)』,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년.

Shaughnessy 교수가 공동 기획하여, 기원전 1500년경부터 기원전 221년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모두 14명의 학자가 집필에 참여하여 1999년에 정식으로 출판되어 나왔다.²⁾

이 책들이 출판되고 나서 전 세계 중국학 연구자들의 뜨거운 관심과 비평이 쏟아졌고, 또한 그에 대한 수많은书评들도 각종 출판물에 등재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의 Edward Shaughnessy 교수가 이러한 서평들을 모아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的編撰與反響』이라는 서평 모음집을 출판하기에 이르렀다.³⁾ 이 책에 실린 토론의 핵심은 초기 중국사 연구에서 王國維가 제창했던 ‘二重證據法’⁴⁾의 방법을 채택할 것이냐에 대한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논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로스앤젤레스 분교(UCLA)의 David Schaberg 교수는 『左傳』 등의 전통적인 전래문헌의 고고학 유물에 대한 간섭을 일체 배제하고서, 오로지 考古學 遺物 및 그에 관련된 해독만이 정확한 역사인식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여기고 있다.⁵⁾ 그에 반해 中國社會科學院의 唐際根 교수는 ‘二重證據法’의 과학성과 유효성을 여전히 중시하고 있다.⁶⁾

이에 본고에서는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的編撰與反響』에 실린 내용을 중심으로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와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제1권인 秦漢史 편이 두 권에 대한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書評에 대해 아래에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Ⅱ. 先秦史 편에 대한 학계의 書評

먼저,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에 대하여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書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본고에서는 先秦史 편에 대한 書評의 주요 내용을 인용문의 형식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서구 학자의 書評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에 대한 서구 학자의 서

2) Michael Loewe and Edward Shaughnessy,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03. 그리고 이 책의 중국어 번역판에 대해서는 중국 清華大學校의 李學勤 교수가 기획은 하였으나 아직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고 있다.

3)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的編撰與反響』, 北京: 三聯書店, 2020년.

4) ‘二重證據法’이란 甲骨文, 青銅器 銘文, 簡牘資料, 帛書資料와 같은 지하에서 출토된 고고학적出土文獻 자료와 『左傳』, 『史記』, 『漢書』 등의 傳統文獻의 내용을 서로 대조하고 오류를 교정하면서 중국 고대사의 진실을 파악하려는 노력으로 民國時代의 王國維에 의해 제창된 중국 고대사 연구방법의 하나임.

5) (美)史嘉柏 著 / 張瀚墨 譯, 「文本與文物 -- 《劍橋中國上古史》書評」, 『國學學刊』, 2017年, 第2期, pp.5~42.

6) 唐際根, 「考古學·證史傾向·民族主義 -- 《劍橋中國史·商代考古》提出的問題」, 『三代考古(一)』, 2004年, pp.1~8.

평으로는 Edward L. Shaughnessy 교수와 Michael Loewe 교수, 그리고 David Schaberg 교수 등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1) Edward L. Shaughnessy 교수와 Michael Loewe 교수의 書評

먼저, Edward L. Shaughnessy 교수와 Michael Loewe 교수는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의 「序言」 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서는 1986년에 출판된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제1권인 秦漢史 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던 중국 先秦史 편의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서구의 중국학 연구자들이 여러 가지 기본적인 연구 조건이 충분히 성숙된 이후에 秦帝國 이전의 중국사 연구 분야를 집필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책의 출판은 서구 중국학 연구자들의 중국 先秦史 연구 성과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또한 이 분야 연구에 있어서 서구의 중국학 연구자들이 어느 정도의 自信感을 표출한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은 최근의 考古學的 발굴과 또는 기타 방식의 발견으로 획득한 최신 자료에 대한 분석과 연구를 기반으로, 대부분의 서구 학자들은 중국의 전통적인 역사연구 방법을 反省하게 되었고, 이것은 최근에 발견된 遺物 자료를 통해 중국 고대 考古學的 文明의 재구성과 상이한 文明 간의 관계를 구축하는 방면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그래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시기는 중국에서 발견된 최초의 歷史文獻 기록 시기인 商나라(기원전 1570년 ~ 기원전 1045년)에서부터 秦나라가 六國을 통일한 기원전 221년까지의 천여 년의 각 역사 단계를 서술하고 있다.⁷⁾

따라서 이 책의 기본적인 구성은 傳說的인 시기인 三皇五帝에 대한 내용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으며, 중국 국내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중국의 첫 번째 왕조라고 여겨지고 있는 夏나라에 대해서도 제1장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張光直 교수가 쓴 「歷史時期 前夜의 중국 (China on the Eve of the Historical Period)」(pp.37~73)에서 간략히 그에 대한 몇 가지 문제 제기를 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리고 甲骨文 등의 考古學的 遺物이 출토되어 정식적인 '歷史' 시기로 진입한 商나라 시기를 시작으로 중국 先秦史를 기술하고 있다. 더욱이 이 책의 제4장을 집필한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David N. Keightley 교수는 「商나라 -- 중국의 첫 번째 歷史王朝 (The Shang: China's First Historical Dynasty)」(pp.232~291)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2) Edward L. Shaughnessy 교수의 書評

그리고 Edward L. Shaughnessy 교수는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 編撰與反響』의 「後記」 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7) (英)魯惟一, (美)夏含夷, 「西方漢學的古史研究 -- 《劍橋中國上古史》序言」, 『中華文史論叢』, 2007年, 總第86輯, pp.1~19.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라는 책은 출판된 지 이미 20여 년이 흘렀지만, 이 책은 당시 서구 중국학 학계의 최상의 학술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 발견된 驚天動地할 각종 商周시대 고고학적 유물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중국 先秦史에 대한 再집필의 요구도 한층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책이 지니고 있는 학술적 가치는 조금도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이 책이 원래의 기획 구상에 따라 考古學과 歷史學을 수평적인 위치에 올려놓으려는 학문적 연구를 시도하여, 중국 先秦史의 각 단계를 考古學的 각도뿐만 아니라 文字學 자료인 歷史學도 이와 동등한 입장에서 관찰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서구 역사학계에서 내린 엄격한 定義에 따라 중국 고대사에서 ‘歷史’ 시기의 시작을 甲骨文 등의 文字學 자료가 출현하는 商나라 後期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傳說的인 시기는 고사하고 夏나라에 대해서도 張光直 교수가 간단히 언급한 외에, 서구 학자 중에서는 오직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Robert Bagley 교수가 「商나라 고고학 (Shang Archaeology)」(pp.124~231)에서 현재까지 ‘夏’라는 문자학 자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夏나라의 역사적 진실성에 대한 토론은 단순히 空論에 지나지 않는다고 언급하였을 따름이다.

그리고 최근 20여 년간의 괄목할 만한 考古學的 발견으로 내용상에서 약간의 增補는 할 수 있겠지만, 이 책의 기본적인 입장을 바꿀 만한 중대한 고고학적 발견은 아직까지 없었다. 예를 들어, 商나라 수도인 安陽의 고고학 발굴에서 涇北商城을 발견하는 등의 커다란 성과를 이루었고, 또한 周나라의 출토문헌인 郭店竹簡, 上博竹簡, 清華竹簡 등이 중국 고대 學術史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새로운 발견들이 단지 중국 先秦史의 분량만 증가시킬 뿐이지 이 책이 지닌 기본적 구상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리고 다만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인구의 增減에 따른 당시 사회 下層의 생활 상태, 도자기와 비단의 과학적인 기능, 天文學과 數學 등의 과학 발전, 중국 南方文化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 책에서 언급되지 못한 부분은 장차 後學들의 연구 성과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⁸⁾

위에서 소개한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Edward L. Shaughnessy 교수는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가 출판되고 나서 이미 20여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이 책의 가치는 전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David Schaberg 교수의 書評

그 외에 David Schaberg 교수는 중국어로 6만여 자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文本與文物 -- 《劍橋中國上古史》書評」에서 아래와 같이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도 중국 先史時代 연구방법에 대한 그의 書評을 중심으로 간단히 소개하고자 한다.

8) (美)夏含夷, 「後記」,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的編撰與反響』.

몇몇 중국 태생의 저명한 先史時代 연구자가 기초로 잡고 있는 독특한 중국 民族主義的 전통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이 분야의 연구에 있어서 否定的인 영향을 초래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다. 더욱이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학문적인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중국 先史時代 연구자의 연구와 중국의 歷史文獻이 서방과 중국학자들 사이에서 일치된 公認을 얻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미 懷疑的인 단계에까지 이르렀고, 이번에 출판된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를 통해서 그 논쟁에 더욱 불을 지피게 되었다.

중국 先史時代의 傳說的인 시기에 대한 중국의 ‘傳統史學’의 방법이란 『左傳』, 『史記』 등과 같은 傳統文獻에 대한 절대적인 依存을 의미하고, 이렇게 단순히 傳統文獻에만 依存하는 것으로는 하나의 학문적 분과를 구성할 수가 없다. 그래서 중국 先史時代 연구자가 얻어내는 지식은 바로 考古學者가 얻어내는 지식이어야 하며, 또한 마찬가지로 충분한 證據와 그 證據를 어떻게 연구하느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중국 先史時代 연구에서 이용되는 證據의 성질로 보자면, 가장 엄밀한 학문적 방법으로도 단지 孤立的이고 不完全한 초기 중국의 ‘歷史’에 지나지 않으며, 자료가 풍부한 후대 歷史時代의 연구 성과와는 전혀 비교가 되지 못한다.

이러한 입장에서 위의 책은 교묘한 副題를 달고 있고 내용에서도 완전하지 못한 歷史 부분을 수록하고 있는데, 비록 의미 있는 考古學的 성과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중국 先史時代 연구가 하나의 정식적인 歷史學 분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머나먼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⁹⁾

위에서 소개한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David Schaberg 교수는 중국 先史時代의 연구에 있어서 傳統文獻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考古學的인 出土 遺物의 證據에 근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 중국 학계의 書評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에 대한 중국 학계의 書評으로는 謝維揚 교수, 唐際根 교수, 그리고 林澐 교수 등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1) 謝維揚 교수의 書評

먼저, 중국 上海大學校의 謝維揚 교수는 「誰識廬山眞面目? -- 《劍橋中國上古史》讀後」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9) (美)史嘉柏 著 / 張瀚墨 譯, 「文本與文物 -- 《劍橋中國上古史》書評」, 『國學學刊』, 2017年, 第2期, pp.5~42.

본서는 중국 先秦史 연구에 있어서 대표성을 띠는 14명의 서구 학자들이 가장 최근에 발표한 新作으로, 중국 先秦史 연구에 대한 서구 학자들의 최고 수준의 역량이 잘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본서가 출판되고 나서 중국 先秦史 연구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있어서 중국학자들의 깊은 우려를 자아낸 것도 또한 사실이다.

『케임브리지 중국사』의 제1권인 秦漢史 편을 출판할 적에 이 총서에서 중국 先秦史 부분이 누락된 데에 대해 John K. Fairbank 교수와 Denis Twitchett 교수는 “최근에 발견된 새로운 자료가 중국 先秦史 연구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러한 새로운 증거와 文字學的 자료에 대해 보편적인 公認에 이르지 못했다.”¹⁰⁾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라는 책이 이미 출판이 되었고, 당연히 15년이 지난 현재의 입장에서는 이 책이 당시에 ‘보편적인 公認’에 도달하였다는 충분한 자신감이 있었기에 출판하였으리라 여긴다.

그런데 나는 이 책을 읽고 나서부터 과연 이 책에서 서술하고 토론하고 있는 내용이 ‘보편적인 公認’에 도달하였을까? 라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가 없었다. 그것은 최근 몇 십 년 이래로 중국 先秦史에 대한 연구가 커다란 발전을 이루어왔고, 또한 중국 국내 학계에서도 이러한 重且大한 기초적 문제와 연구방법의 原則에 대해서 長足の 성장이 있었지만, 文字學 資料와 實物 證據의 涵意가 지니고 있는 ‘보편적인 公認’의 단계에까지는 아직 요원한 편이었다. 그러다보니 당연히 중국 학계와 서구 학계 사이에서도 더더욱 이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가 없었다.

현재 중국 국내에서의 先秦史 연구의 커다란 흐름은, 이러한 重且大한 기초적 문제와 연구방법의 原則에 대해 수많은 토론과 未來指向的 연구를 통해 ‘보편적인 公認’을 획득하는 방향으로 중요한 突破口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보자면, 중국 국내의 이런 노력에 대해 본서의 몇몇 저자는 留保的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심지어 어떤 학자는 이것을 否定的으로 판단하기도 하였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본서는 최근 중국 국내 先秦史 학계와 考古學 학계가 진행해 온 방대한 작업들에 대해 제대로 된 이해를 못하였고, 또한 중국 국내 학계와는 상당한 거리감이 존재하였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본서는 중국 先秦時代 각 역사 단계에 대한 전체 구성의 처리에 있어서 위에서 언급한 몇 가지 重且大한 문제의 토론에 대해 문을 완전히 닫아걸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이러한 重且大한 문제에 대한 未來指向的 연구의 흐름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하였고, 또한 未來指向的인 개방성도 부족하였다. 따라서 머잖은 미래에 몇몇 기본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서구 학자들의 이러한 방대한 규모의 작업이 완전히 시대에 뒤쳐진 관점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¹¹⁾

10) John K. Fairbank and Denis Twitchett, 'GENERAL EDITORS' PREFACE,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 ~ AD 220)』, pp. v~vii.

11) 謝維揚, 「誰識廬山真面目? -- 《劍橋中國上古史》讀後」, 『文滙報』, 2017年4月7日, ‘學林’.

그리고 「古書成書情況與古史史料學問題」에서는 중국의 古代史 文獻資料를 대하는 입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앞에서 소개한 「誰識廬山眞面目? -- 《劍橋中國上古史》讀後」의 書評과 함께 그 주요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에 지하에서 새로이 出土되는 중국 고대 出土文獻들의 의미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학자들 사이에 중국 古代史 文獻資料에 대한 인식에 뚜렷한 차이가 두드러지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몇 해 전에 출판된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文明的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라는 책이라고 할 수 있다. 본서는 서구 학자들의 중국 先秦史 연구의 대표적인 力作인데, 집필 과정에서 중국 古代史 文獻資料들인 出土文獻과 傳統文獻을 ‘二元論的’인 매우 보기 드문 방법으로 정리한 것이 우리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에 대해 우리가 받은 인상은, 아마도 서구 학자들은 이러한 ‘二元論的’인 방법을 통해서 지하에서 出土되는 자료만을 근거로 중국 先秦史를 토론하는 것이 중국 古代史 史料學의 正統的인 관념임을 알리고자 하였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傳統文獻의 지위는 결과적으로 ‘依存的’인 상태에만 머물게 되고 만다. 비록 직설적으로 傳統文獻을 무시해야 한다는 말까지는 안 했지만, 서구 학자들의 문장을 읽으면 傳統文獻이 차지하고 있던 독립적인 중국 古代史 史料의 지위가 무척 애매해짐을 느낀다. 심지어 기본적으로 독립성조차도 전혀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傳統文獻에 근거하여 중국 先秦史를 토론하는 일은 학문적 기초가 부족한 것으로 치부되었다.

그래서 각종 傳統文獻에 보이는 夏나라에 대한 記述은 우리가 이미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본서에서는 고집스레 夏나라에 대한 부분은 끝내 집필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구 학자들의 이러한 중국 古代史 史料에 대한 관점은 아마도 현재의 대부분 학자들이 同意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史記·夏本紀』에 보이는 夏나라 諸王의 世系 記述이 『史記·殷本紀』와 그 성질상에서 비교하자면 서로 다른 점이 별로 없는데, 만약 갑골문이라는 ‘확고한 證據’의 발견이 아직 없었던 150년 전으로 되돌아간다면 본서의 집필 입장에서는 商나라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가장 단순한 논리적 추론에서 출발하여, 확고한 證據가 있어야 公認을 하는 방법론으로 『史記·夏本紀』의 記述을 배척하는 일은 지나칠 정도로 獨斷的이라고 할 수 있다.¹²⁾

그리고 중국 先秦時代의 역사는 길고도 길지만 古代史에 대한 文獻資料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玉石이 서로 뒤섞여 있어서, 現代의 연구 방법론을 익힌 학자들은 漢나라 司馬遷의 『史記』 부류의 저작들과 商周시대의 傳統文獻인 『尙書』, 『詩經』, 『左傳』 등에 언급된 중국 古代史의 記述을 가볍게 여기곤 하였다. 지난 1920년, 30년대에 활동한 ‘古史辨’ 계열의 학자들이 이러한 정서를 특히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경향은 서구의 학술 規範에 따라 훈련을 받은 서구의 학자들도 그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나 近代에 형성된 이러한 연구방법으로 중국 고대 文獻資料의 眞僞라든지 혹은 年代의 문제를 판단하는 일은 현재 다시 돌아보면 오류가 많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과거 古史辨 계열 학자들의 주장처럼 고대인들이 古代史를 僞造했을 거

12) 謝維揚, 「古書成書情況與古史史料學問題」, 吉林大學古籍研究所編, 『金景芳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2002年.

라는 일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었고, 또한 과거에 가볍게 ‘僞書’로 판단했던 대부분의 고대 傳統文獻들이 그보다 더 이른 起源에 근거를 두고 있음이 현재 확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고대 傳統文獻들에 보이는 수많은 역사적 사실도 또한 각각의 독자적인 根據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先秦時代의 수많은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각종 傳統文獻들에 總體적으로 반영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¹³⁾

위에서 소개한 두 편의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謝維揚 교수는 중국 先秦史 연구에 있어서 傳統文獻의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2) 唐際根 교수의 書評

中國社會科學院의 唐際根 교수는 「考古學·證史傾向·民族主義 --《劍橋中國史·商代考古》提出的問題」에서 중국 考古學의 성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저명학자인 Robert Bagley 교수가 집필한 「商나라 考古學 (Shang Archaeology)」(pp.124~231)에 대해서 약간의 評論을 하고자 한다. 중국 考古學의 탄생은 지난 세기 초엽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1926年の 山西省 夏縣 西陰村 발굴이든 1928年の 河南省 安陽市 殷墟의 발굴에서 시작하건, 지금까지 최소한 100여 년의 시간이 흘렀다.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의 중국 考古學 연구가 연구자의 民族主義的 경향을 포함하는 주관적 판단으로 대부분 치우쳐져 있을까, 아니면 학술적이고 科學的인 규범에 부합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서구 학술지에서 중국 考古學 연구에 보이는 ‘民族主義的’ 경향에 대해 토론한 논문이 1990년 이후로 5편이나 되고, Robert Bagley 교수의 「商나라 考古學 (Shang Archaeology)」에도 여러 곳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Robert Bagley 교수와 같은 서구 학자들의 눈에는 중국 考古學의 ‘民族主義的’ 경향이 매우 엄중할 뿐만 아니라,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는 보편성까지 띠고 있다고 여긴다. 실제로 초기의 중국 考古學 연구자들은 傳統文獻의 신뢰도를 증명하는 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하고, 더 나아가 중국 文明의 탄생을 外部의 자극에서 시작되었다는 結論에서 탈피해야 했으며, 더욱이 중국 考古學의 최고의 임무가 당시의 강력한 民族主義的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었음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러나 과거의 중국 考古學 연구자들의 작업이 모두 民族主義的 요구에만 부응하는 것이었다는 견해에 대해서 나는 同意를 할 수가 없다. 張忠培 교수와 夏鼐 교수를 필두로 하여 1980년대 이후로 대부분의 중국학자는 考古學의 자료를 해석할 적에 모두 고고학적 記錄에 근거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民族主義的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이와는 반대로 현재 학술계의 主流인 서구의 관념을 잣대로 전세계의 표준을 삼으려는 ‘西歐 至上主義’적 사고가 오히려 새로운 형식의 ‘民族主義’는 아닐까 의심이 된다.

13) 謝維揚, 「誰識廬山眞面目? -- 《劍橋中國上古史》讀後」, 『文滙報』, 2017年4月7日, ‘學林’.

그리고 Robert Bagley 교수는 가혹할 정도로 考古學과 歷史文獻의 관련성을 끊어 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지하에서 出土되는 자료가 어떤 경우에는 論理的인 해석이 불가능할 수도 있고, 반대로 論理的인 해석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歷史文獻의 기록과 서로 비교해보면 이러한 考古學 자료의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곤 한다. 더욱이 중국의 考古學者가 考古學 자료와 歷史文獻의 기록을 결합하여 연구를 진행할 적에는 考古學 자료를 통해 歷史文獻 기록의 오류를 矯正하거나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王國維가 제창했던 ‘二重證據法’의 방법으로 考古學 자료를 통해 歷史文獻 기록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Robert Bagley 교수는 文字學的 자료로 증명이 안 된다는 이유를 들어 安陽 殷墟보다 시기적으로 이른 鄭州商城에 대해서 商나라의 유적지인지 대해 매우 회의적인 의견을 제시하며, ‘二里崗帝國’이라고 稱하고 있다. 그러면서 商나라 청동기의 분포 지역을 이 ‘二里崗帝國’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우 위험한 주장으로 보인다. 연구에 따르면, 청동기의 분포는 단지 ‘禮器文化圈’에 불과하지 ‘帝國’과는 완전히 동일한 개념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商나라 문명을 제대로 연구하기 위해서는 유적의 분포, 陶器, 청동기 등 최소한 이 세 가지 요소에 기초를 하거나, 또는 더 많은 요소들을 통하여 보다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하다.¹⁴⁾

위에서 소개한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唐際根 교수는 중국 先秦史 연구에 있어서 王國維가 제창했던 ‘二重證據法’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林澧 교수의 書評

중국 吉林大學校의 林澧 교수는 「柯斯莫《中國前帝國時期的北部邊疆》述評」에서 중국 北方邊方地域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書評을 하고 있다.

미국 하버드 대학교의 Nicola Di Cosmo 교수가 집필한 제13장 「帝國前 시기의 중국 北方地域 (The Northern Frontier in Pre-Imperial China)」(pp.885~966)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관점에서는 나도 충분히 동의를 한다. 첫째, 유라시아 대륙의 遊牧文化가 기원전 8세기 무렵부터 형성되었다는 배경적 인식 아래 중국 북방지역의 遊牧民 출현을 고찰하였다. 둘째, 牧羊業과 農業을 겸하는 사회 민중들이 中原과 유목지역 사이에서 ‘緩衝器’의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의 文獻資料에는 기원전 4세기에 이르러서야 이러한 遊牧民에 대한 기록이 보이기 시작한다. 셋째, 중국 北方地域은 여러 考古學 문화의 발상지이자 수많은 種族들의 거주지였고, 그들의 遊牧化는 오랜 시간에 걸친 역사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으로는 Nicola Di Cosmo 교수가 정의한 중국 ‘北方地域’의 구체적인 범위와 시대구분 기준에 대해서 나는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14) 唐際根, 「考古學·證史傾向·民族主義 -- 《劍橋中國史·商代考古》提出的問題」, 『三代考古(一)』, 2004年, pp.1~8.

Nicola Di Cosmo 교수가 정한 중국 ‘北方地域’의 구체적인 범위로는, 東北地域을 배제하고 동쪽의 黑龍江, 吉林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는 우루무치 沙漠과 草原 및 산림지대로 끝없이 이어진다고 보았다. 그러나 나는 동쪽의 西遼河 유역에서 시작하여 燕山, 陰山, 賀蘭山을 지나고, 서쪽으로는 滄水 유역과 河西走廊에 이른다고 보는데, 대체로 지금의 內蒙古 東南部, 河北省 北部, 山西省 北部, 陝西省 北部, 內蒙古 中南部, 寧夏, 甘肅省과 青海省의 東北部 지역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狄人和 戎人이 이러한 중국 北方地域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대규모 交替가 이루어졌다는 臆測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석이 결여되면 ‘최초의 匈奴式’ 유적지로 誤判을 하게 되고, 또한 戰國時代 이전에 중국 北方地域의 주된 거주민이 동아시아 蒙古人種이었음에 대한 不注意 등의 견해는 내가 찬성하기 어렵다. 그 중에서 기원전 650년 이후에 한 차례의 대규모 종족 이동이 있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러한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었다.

그 외에도 ① 戰國時代 이전의 諸戎의 역사는 連續的이었고, ② 중국 北方地域에서 戎狄의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③ 중국 北方地域에서 경제 구조의 변환 문제, ④ ‘緩衝器’ 민족의 人種問題, ⑤ 戎狄의 행방, ⑥ Nicola Di Cosmo 교수가 러시아 극동의 자바이칼 지역과 蒙古 東部の 독특한 문화에 대한 主意 부족으로 단지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문화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는 것은 일방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등등에 대한 의견도 제시하였다.¹⁵⁾

위에서 소개한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林滢 교수는 중국 北方 邊方地域의 구체적인 범위에 東北地域까지 모두 포괄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것은 이 지역에 거주하던 모든 북방 민족들을 中國史의 큰 範圍 안에서 보려는 의도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Ⅲ. 秦漢史에 대한 학계의 書評

다음으로,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인 秦漢史 편에 대하여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書評을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본고에서는 앞의 先秦史 편과 같이 이 秦漢史 편에서도 書評의 주요 내용을 인용문의 형식으로 간단히 요약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서구 학자의 書評

Michael Loewe 교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인 秦漢史 편의 「序言」 중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15) 林滢, 「柯斯莫《中國前帝國時期的北部邊疆》述評」,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3年, 第3期, pp.79~85.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인 秦漢史 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은 秦, 前漢(西漢), 新, 後漢(東漢) 등으로 불리는 중국 최초의 몇몇 통일 帝國들에 대한 역사이다. 즉, 기원전 221년의 秦帝國의 건립에서 漢나라의 마지막 황제가 퇴위한 서기 220년까지를 다루고 있는데, 다만 콜레주 드 프랑스의 PAUL DEMIEVILLE 교수가 집필한 제 16장 「漢나라에서 隋나라까지의 철학과 종교 (Philosophy and religion from Han to Sui)」(pp.808~872)의 思想史 부분에서는 佛敎와 道敎의 철학과 종교에 대한 토론이 서기 581년에 건립된 隋나라까지 다루어졌다.

그리고 이 시기를 연구하는 본서 집필 역사학자들은 당연히 『史記』, 『漢書』, 『後漢書』 등의 正史 형식을 갖춘 史料에 거의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특별한 경우에만 正史의 편찬자가 근거로 둔 기타 文獻資料의 도움을 받았고, 또한 正史 史料를 통해 이 文獻資料들에 기재된 내용의 正確性和 信賴度를 점검하곤 하였다.

본서의 원래 목적은 1차 史料에 보이는 모든 내용을 概括하고자 하였지만,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로 봤을 때 前漢시기의 연구가 後漢시기보다 많은 예에서처럼 秦漢時代 각 방면에 均等한 배분이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그 외에도 氣候變化와 그 예상되는 결과, 중국 科學技術의 발전, 文學과 藝術 분야 등은 전반적인 내용을 概括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른 감이 있어서 본서에서는 미처 언급을 하지 못하였다.¹⁶⁾

위에서 소개한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Michael Loewe 교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 1권인 秦漢史 편 의 기본 범위와 특징, 敘述方式을 소개하면서 자체적인 評價도 곁들이고 있다.

2. 중국 학계의 書評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인 秦漢史 편에 대한 중국 학계의 書評으로는 程鋼 교수와 王曉衛 교수 등의 견해를 대표적으로 소개할 수 있다.

(1) 程鋼 교수의 書評

먼저, 중국 清華大學校의 程鋼 교수는 「《劍橋中國秦漢史》的幾點啓示」에서 思想史 方면의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書評을 하고 있다.

본서는 秦漢 帝國의 中央集權 정치체제의 건립과 鞏固化 과정에 대해 政治, 社會, 思想文化 등의 세 가지 주요 方면에서 ‘共感的 理解’를 바탕으로 집필이 되었고, 고대 역사발전의 脈絡에 따라 각 저자의 해석이 첨가되었다. 이러한 ‘共感的 理解’라는 관념

16) Michael Loewe, 「Introduction」,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 ~ AD 220)』, pp.1~19.

의 틀에서 본서의 저자들은 秦漢 帝國의 권위를 세우는 과정 중에서 精神生活의 역할을 매우 중시하였고, 그런 까닭으로 본서에서는 思想史가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중국 清華大學校의 李學勤 교수는 중국어 번역판의 「《劍橋中國秦漢史》序」에서 “思想 文化史가 전체 분량에서 1/3의 비중을 차지했다는 것은 서구 학술계가 思想文化 연구의 방법을 강조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는데, 중국에서 저술된 주요 通史들의 형식과는 매우 다른 현상이다.”¹⁷⁾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으로는 본서의 기본적인 編輯構想과 중국의 전통적인 史書編纂 형식과의 관계성인데, 수많은 평론과 단정 중에서 특히 본서의 제3장 「王莽, 漢나라의 中興, 그리고 後漢 (Wang Mang, the restoration of the Han dynasty, and Later Han)」(pp.223~290)에서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의 HANS BIELENSTEIN 교수는 班固의 『漢書』 記述에 反駁하며 黃河의 水路 변경이 王莽의 멸망을 초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견해는 이미 50년대에 余英時 교수의 비판을 받았다.

그 외에 Michael Loewe 교수가 언급한 “漢나라의 황제들은 神意의 각도에서 道德과 知성의 근거를 찾으면서 자신들의 통치를 合法化시켰는데, 이러한 결과는 두 세기에 걸친 宗教, 思想, 經濟 등의 문제를 論爭하는 과정에서 획득한 것이었다. 이 논쟁은 新派와 改造派의 두 가지 태도의 대립으로 표출되기는 하였지만, 당시에 일컫던 ‘法家’와 ‘儒家’와 같은 그런 학파는 아니었다.”와 미국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의 명예교수인 Derk Bodde 교수가 언급한 瑯琊 碑文 중에 “奇妙함으로 가득 찬 法家와 儒家의 思想적 결합”이라는 표현 등은 모두 國際 중국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고대 思想學派의 歸屬問題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반드시 具體적인 상황에서 具體적인 증거로 證明을 해나가야지, 단지 몇 마디의 말로써 簡便한 論斷을 내려서는 안 된다.¹⁸⁾

위에서 소개한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程鋼 교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인 秦漢史 편 의 思想史 방면에서 중국학계와 관점이 다른 서구 학자들의 견해에 대해 反論을 펼치고 있다.

(2) 王曉衛 교수의 書評

다음으로, 중국 貴州大學校의 王曉衛 교수는 「《劍橋中國秦漢史》指瑕」에서 다음과 같이 書評을 하고 있다.

본서의 서술에서는 개별적인 論點이나 結論에 嚴密성이 떨어지거나 역사적 사실과 어긋나는 경우가 간혹 보인다. 예를 들어, 본서의 제15장을 집필한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교 산타바바라 캠퍼스의 陳啓雲 교수는 「後漢의 儒家, 法家, 道家 (Confucian,

17) 李學勤, 「《劍橋中國秦漢史》序」, (英)崔瑞德, 魯惟一 著 / 楊品泉, 張書生 譯, 『劍橋中國秦漢史 (公元前221年至公元220年)』, p.3.

18) 程鋼, 「《劍橋中國秦漢史》的幾點啓示」, 『華夏文化』, 1995年, 第3期, pp.9~10.

Legalist, and Taoist thought in Later Han)」(pp.766~807)에서 “秦나라 때나 漢나라가 갓 개국이 되었을 무렵에는 대체로 주의력이 東方 仙境에 집중되어 있었다가, 王莽 시대에는 적절한 護符 형식이 宇宙에 대한 사고에 더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략 서기 100년부터는 그들의 注意力이 西王母와 그 仙境의 방면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적어도 前漢 武帝 시기부터 文人和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朝廷과 지방 정부도 모두 西王母와 그 仙境의 전설에 대해 익히 알고 있었고, 또한 ‘西方樂土’에 대해서도 이미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으며, 그리고 崑崙山 仙境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히 崇拜를 하였다. 따라서 저자의 西王母와 그 仙境에 대한 서술은 매우 부정확하고, 이에 따라 얻어진 結論도 완전히 틀리게 되었다.

그리고 개별적인 부분에서도 역사적 사실의 記述이 부정확함이 간혹 보인다. 예를 들어, 본서의 제8장을 집필한 HANS BIELENSTEIN 교수는 「後漢의 制度 (The institutions of Later Han)」(pp.491~519)에서 “더욱 흔히 보이는 것은 비교적 일상적인 업무의 직책을 책임지던 將軍을 左將軍이나 右將軍이라고 불렀다.”라고 하였다. 실제로 『漢書』나 『後漢書』에는 左右 將軍이라는 표현의 출현빈도가 前後 將軍이라는 표현보다 약간 더 많이 나타나는데, 아마도 저자가 이것을 근거로 하여 이렇게 서술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당시의 制度를 자세히 연구해보면 이러한 표현은 정확하지 않음을 알 수가 있다.

그 외에 史料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誤謬로 인해 본서의 전체 학술수준과는 어울리지 않는 경우도 간혹 있다. 예를 들어, 본서의 제3장을 집필한 HANS BIELENSTEIN 교수는 「王莽, 漢나라의 中興, 그리고 後漢 (Wang Mang, the restoration of the Han dynasty, and Later Han)」(pp.223~290)에서 “劉秀는 비록 大臣級인 太常에 올랐지만, 軍中에서는 여전히 下級의 副將을 맡고 있었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劉玄 更始元년에 발생한 일을 가리키는데, 九卿의 으뜸인 太常의 높은 자리에 오른 劉秀가 어떻게 동시에 軍中의 下級 副將을 맡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은 아마도 저자가 ‘太常 偏將軍’을 誤讀하여 두 가지 官名으로 해석한데다가 ‘偏將軍’을 ‘副將’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텐데, 그 바람에 句讀와 의미 해석이 모두 틀려버렸다.¹⁹⁾

위에서 소개한 書評에서도 알 수 있듯이, 王曉衛 교수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제1권인 秦漢史 편에 보이는 몇 가지 誤謬에 대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IV. 결론

본고에서는 Michael Loewe 교수와 Edward Shaughnessy 교수가 主編을 맡아 1999년에 출판한 『케임브리지 중국 先秦史 -- 문명의 기원에서 기원전 221년까지』와 John K. Fairbank 교수와 Denis Twitchett 교수가 主編을 맡아 1986년에 출판한 『케임브리지 중국

19) 王曉衛, 「《劍橋中國秦漢史》指瑕」, 『貴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1993年, 第3期, pp.90~93.

사』 제1권인 秦漢史 편에 대하여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書評을 간단히 소개하였다.

본문에서 소개한 書評들을 통해서 우리는 중국 古代史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시각에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見解에 서로 많은 차이가 있음을 엿볼 수 있었다. 그러나 서구 학자와 중국 학계의 대표적인 書評資料 수집의 한계와 필자 개인의 專攻知識 부족으로 좀 더 체계적인 정리와 더 많은 소개를 하지 못한 점은 많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소개된 몇 편의 書評들은 서구와 중국의 대표적인 학자들의 見解인 만큼 나름의 參考價値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여긴다.

참고문헌

1. 先秦史 편

- Michael Loewe and Edward Shaughnessy, 『The Cambridge History of Ancient China -- From the Origins of Civilization to 221 B.C.』,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03.
-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北京: 三聯書店, 2020년.
- (英)魯惟一, (美)夏含夷, 「西方漢學的古史研究 -- 《劍橋中國上古史》序言」, 『中華文史論叢』, 2007年, 總第86輯.
- (美)夏含夷, 「後記」,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 (美)夏含夷, 「《劍橋中國上古史》의讀者反響」,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 (美)夏含夷, 「證2 + 證3 = 證5 = 證 = 一 (二重證據法加三重證據法等於五重證據法當且僅當終應歸一的證據) -- 再論中國古代學術證據法」,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 (美)史嘉柏 著 / 張瀚墨 譯, 「文本與文物 -- 《劍橋中國上古史》書評」, 『國學學刊』, 2017年, 第2期.
- (美)史嘉柏, 「近十年西方漢學界關於中國歷史的若干爭論問題」,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 王志平, 「鮑則岳《劍橋中國先秦史》“語言文字”章評述」,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 李海榮, 「《中國前帝國時期的北部邊疆》一文介評」, 『北方文物』, 2002年, 第2期.
- 林 灃, 「柯斯莫《中國前帝國時期的北部邊疆》述評」,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2003年, 第3期.
- 唐際根, 「考古學·證史傾向·民族主義 -- 《劍橋中國史·商代考古》提出的問題」, 『三代考古(一)』, 2004年.
- 張瀚墨, 「關於中國上古史研究的史料構成問題」, (美)夏含夷 編, 『古史新聲 -- 《劍橋中國上古史》의編撰與反響』.
- 賀 晨, 「歷史敘述的深層話語空間 -- 基于對《史記》和《劍橋中國史》中“商鞅變法”話語構建的對比分析」, 『寧波廣播電視大學學報』, 2012年, 第10卷, 第1期.
- 謝維揚, 「誰識廬山真面目? -- 《劍橋中國上古史》讀後」, 『文匯報』, 2017年4月7日, ‘學林’.
- 謝維揚, 「古書成書情況與古史史料學問題」, 吉林大學古籍研究所編, 『金景芳教授百年誕辰紀念文集』, 長春: 吉林大學出版社, 2002年.

2. 秦漢史 편

- Denis Twitchett and Michael Loewe,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 1: The Ch'in and Han Empires, 221 BC ~ AD 220)』,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12. 이 책의 중국어 번역판은 (英)崔瑞德, 魯惟一 著 / 楊品泉, 張書生 譯, 『劍橋中國秦漢史 (公元前221年至公元220年)』,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0년.

王曉衛, 「《劍橋中國秦漢史》指瑕」, 『貴州大學學報 (社會科學版)』, 1993年, 第3期.

李學勤, 「《劍橋中國秦漢史》序」, (英)崔瑞德, 魯惟一 著 / 楊品泉, 張書生 譯, 『劍橋中國秦漢史 (公元前221年至公元220年)』.

李學勤, 「西方秦漢史研究的集大成之作 -- 《劍橋中國史》第1卷簡介」, 『史學情報』, 1988年, 第4期.

周 群, 「世界歷史進程中的西方漢學研究 -- 以魯惟一爲個案的考察」, 『東嶽論叢』, 2016年, 第7期.

郝常見, 『當代中西歷史編撰比較研究 -- 以《中國通史·秦漢時期》和《劍橋中國秦漢史》爲中心』, 碩士學位論文, 河北: 河北大學歷史學院, 2020년.

問永寧, 「《劍橋中國秦漢史》第12~16章讀後」, 『人文論叢』, 2001年.

程 鋼, 「《劍橋中國秦漢史》的幾點啓示」, 『華夏文化』, 1995年, 第3期.

彭 衛, 「評《劍橋秦漢史》」, 『燕京學報輯刊』, 2004年, 第17輯.

3. 기 타

胡志宏, 「西方漢學的重要成果 -- 讀《劍橋中國史》有感」, 『中國史動態研究』, 1994年, 第11期.

魏校稷, 「漢學主義範式的空間結構 -- 以《哈佛中國史》爲中心的考察」, 『全球史評論』, 2017年, 第2期.

龔 傑, 「讀《劍橋中國史》」, 『華夏文化』, 1995年, 第1期.

<캠브리지중국사> 중세사파트 한국사 관련 서술과 인식 분석

이동훈(고려대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1. 들어가며

<캠브리지중국사>는 총 15권 분량으로 출판 계획되었고 현재까지 4권을 제외하고 모두 출간되었다. 이 중 본고에서 분석을 맡은 부분은 제2권 육조시대, 제3권 수당사, 제5권 송사, 제6권 요서하금원사지만, 5권은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잠시 분석대상에서 제외했다. 해당부분은 자료가 확보되면 추후에 보완할 계획이다. <캠브리지중국사>에서 한국사 부분은 주로 각 권의 대외관계부분에 집중되어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의 특정 왕조의 역사나 문화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한국사와 관련된 서술이 간간이 눈에 띈다. 대부분 스쳐가듯이 언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서양인의 한국사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해당부분은 간단히 넘어갈 수 없다. <캠브리지중국사>는 중국사 서술에 있어서 사실관계와 인명 지명 등의 기술이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는데¹⁾, 주제와 거리가 먼 한국사 관련 서술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본론에서는 관련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 참고로 본고는 영문 원서 『The Cambridge history of china』 volume2· volume3· volume6를 기본 텍스트로 삼았으며, 중역본은 참조로 하였다. 기술된 페이지는 원문을 기준으로 한 것이다.

2. 한국사 관련 서술

<캠브리지중국사>는 중국사를 서술하면서도 한국사와 관련된 표현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다. 대부분 전문적으로 다루기보다는 지나가듯이 가볍게 서술하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중국 역사전개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비교적 자세하게 다루었다. 대표적인 것이 수당제국과 고구려와의 전쟁, 거란요제국과 고려와의 전쟁, 몽골의 고려 침공 등이다. 그리고 발해의 멸망이후 발해지역에 대한 지배도 요금의 이중지배방식과 더불어 군데군데에서 자주 언급되고 있다. (표1/2참조) 대체로 중국에 건립된 왕조들의 대외관계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언급되었기 때문에 한반도 자체의 역사에 관한 체계적인 서술은 결핍되어 있지만, 산발적으로 흩어진 자료를 조합하면 한국의 역사에 관한 본서의 입장을 대략적이거나 이해할 수 있다. <캠브리지중국사>의 한국사 관련 서술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1)

때 대체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표현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몇몇 부분에서는 기존에 접할 수 없었던 분석을 시도하여 신선하다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고수전쟁의 배경의 하나로서 “멀리 서쪽에 수도가 있었던 수나라 조정이 북제시대부터 분리주의 정서가 죽지 않았던 하북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강한 고구려의 가능한 영향을 두려워했다는 가설”을 소개하거나, 612년에 수나라의 원정이 시작된 것은 중국의 심장지역과 북경의 대운하를 연결하는 주 운하인 영제거가 완공된 것과 연관되었을 것이라고 한 점이 관심을 끈다. 또한 당태종 고구려 원정의 동기에 대한 해석이 이채로운데, 중국의 이익에 저촉되는 고구려에 의한 한반도 통일의 가능성의 차단과 고구려와 말갈과 일본의 연맹 방지를 위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었다고 분석한 것은 지나친 감이 없지 않지만, 과감한 가설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volume3, pp.233~234.) 그 밖에 태종의 고구려 원정의 동기의 하나로 태종의 아들 간의 왕위계승분쟁 이후 갖게 된 정신적인 무력증을 든 것은(volume3, p.239.) 당태종이 정치적으로 처한 개인적 상황과 정신분석학적으로 접근한 참신한 발상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사실과 위배되는 기술도 적지 않아 이에 관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1)고수전쟁 전개 과정에 관한 설명. 수양제의 고구려 침입을 설명하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도 있다. 주지하듯이 수양제는 고구려의 고구려 원정은 612년, 613년, 614년 총 3차례 전개되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살수대첩이 있었던 612년 제1차 원정이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살수대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제1차 원정의 원래 계획은 신속하게 고구려 수도를 압박하는 것이었지만, 요하 동안(東岸)의 제성들이 완강히 저항하고, 늦은 여름에 큰 비가 내려 군사작전의 수행이 어려웠기 때문에 철수한 것으로 기술했다. 그리고 614년 제3차 원정에 대해서는 수나라 군대가 평양의 근교까지 침입하였다면서 고구려왕이 사자를 보내 항복을 청하고, 고구려에 항복한 수나라 장군을 송환하자, 당시 수나라 선봉대가 평양을 공파하고 고구려왕을 사로잡으려고 했음에도, 수양제가 군대를 소환시켰다고 한다. 그런데 실제 614년의 상황을 보면 내호아가 이끄는 수군이 비사성을 공격하여 고구려군 1000명을 죽이는 등 약간의 전과를 거두긴 하였지만, 수양제는 회원진에 이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연이은 전쟁으로 인해 국력이 피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대결보다는 외교적 해결책을 모색하였다. 그 결과 613년 양현감의 난에 연루될까 두려워 고구려에 망명했던 병부시랑 곡사정을 수에 송환하면서 항복을 요청하였고, 국내적 위기가 가중되던 시점에 있었던 수양제는 고구려의 항복요청을 받아들여 철군을 결정하였던 것이다. <캠브리지중국사>의 수양제의 고구려원정에 관한 서술은 사실과 어긋났다고 할 수 있다.

(2)천리장성의 축조기간에 대한 기술. 본문에는 “게다가 620년대에 고구려는 중국이 그들의 영토를 다시 침공할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조심스레 요강 서안을 따라 대규모 요새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이 방어선은 완성하는데 약 10년이 걸렸다.”(volume3, p.231.)라고 했다. 이 기사는 10년이라는 공사 기간이 소요된 것으로 보아 천리장성의 축조를 지

칭한 듯하다. 그런데 천리장성은 631년 중국의 사신이 고구려에 와서 경관을 허물어버린 것을 계기로 하여 중국의 침략을 대비하기 위해 축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대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

(3)고수전쟁 당시 남부의 신라와 백제가 고구려 땅을 빼앗았다는 기사. 본문은 “고구려 측은 중국과의 지속적인 평화기간을 수의 침략에 대한 방어에 몰두하던 때에 한반도 남부 이웃 신라와 백제에게 빼앗긴 영토를 수복하는 데에 사용하고 싶어 했다.”(volume3, p.232.)고 한다. 그렇지만, 고수전쟁 당시 백제는 수나라를 돕겠다고 약속했지만,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는 양국이 싸운 기록이 없다. 고수전쟁 때 신라가 고구려 남쪽의 땅을 빼앗았다는 기사는 연개소문의 말에 등장하지만, 진흥왕대의 한강유역확보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그러므로 본서에서 적어도 신라가 아닌 백제가 고구려 땅을 빼앗았다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다.

(4) 연개소문의 중국 사신 억류 시기. 본문은 “태종의 연개소문 처벌의 실패는 후자를 더욱 중국인에 대해 거만하게 만들었다. 그는 당 사신을 억류하기 시작했고, 신라에 대한 침략을 재개했다.”(volume3, p.234.)고 한다. 그런데 연개소문은 태종의 원정 이전인 644년 당 사신 장엄(蔣儼)을 억류한 적이 있지만, 645년 이후에는 없었다. 사실의 선후관계가 잘못 되었다.

(5) 고려 천리장성 축조와 관련된 기술. 본문은 “재건된 수도 개경은 1029년에 더 강력한 외성을 갖게 되었고, 1033년부터 1044년까지 압록강 입구에서 동해(일본해)의 연포까지 국경 전체를 따라 방어용 성이 건설되었다.”(volume6, p.112.) 라고 하였다. 그런데 원문에서는 동해를 ‘east sea’가 아니라 한국어 발음을 그대로 옮긴 ‘Tonghae’로 기술하였다. 그리고 중역본은 원문의 ‘Tonghae’를 ‘通海’라고 번역했는데, ‘hae’를 海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한국어 독음에 맞는 한자로 음역했다기보다는 의도적으로 ‘동해’ 대신 ‘통해’로 번역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동중국해’를 이미 ‘동해’로 표기하면서 한국의 ‘동해’표기에 반대하는 중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 같다.

이와 같이 영문 원서와 중역본을 비교하면 번역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백제부흥운동의 지도자의 이름을 원문에서는 ‘복신(boksin)’이라고 했는데 (volume3.p. 282), ‘牟岑’(중역본3권, p.286)으로 잘못 번역했다. ‘모잠’ 즉 검모잠은 주지 하듯이 고구려부흥운동의 지도자이다. 또한 당나라가 발해를 견제하기 위해서 적당한 협력자를 모색하다가 흑수말갈을 선택하는데, 본서에서는 그 배경으로서 “발해왕들은 그들의 이웃인 아무르 유역의 말갈족에게 심하게 거절을 당한 적이 있었다(volume3, p.441)”고 한다. 그런데 중역본은 “발해의 몇 대 국왕은 이전에 북부의 이웃인 헤이룽강 유역의 말갈족에게 크게 패한 적이 있었다. (중역본 3권, p.449)라고 오역을 했다. 『신당서』 발해전에 의하면 ”대조영 사후 아들 대무예가 즉위하여 영토를 크게 확장하자, 동북의 모든 오랑캐들이 겁을 먹고 그를 섬겼다“고 한다. 원서에서 제시하는 상황도 문헌으로는 직접적으로

입증되지는 않지만, 정황상으로 볼 때 초기 발해와 흑수말갈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미루어 짐작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신당서의 기록과 비교해보면 적어도 발해가 초기에 몇 대의 국왕에 걸쳐 말갈족과의 전쟁에서 패했다는 중역본의 서술은 완전히 믿을 수 없다. 그 밖에 연개소문의 이름을 원문은 'Yon Kae-so-mun'(3-282) 이라고 했는데, 중역본은 '泉蓋蘇文'이라고 했다. 연개소문의 이름은 중국문헌에는 천개소문으로 기록되어 있음으로 이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는 있지만, '연개소문'을 천개소문으로 번역할 때에는 주석을 통해서 이유를 밝혔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렇게 본서는 한국사에 관련된 서술이 그다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구려 역사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 서술에서 잘못된 부분이 적지 않다고 하겠다.

다음은 부가적으로 지도에 대해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한국사와 관련된 지도는 대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잘 표시되었다. 다만 volume6의 <요동과 산동의 반란>(p.263)에는 금나라의 영역과 더불어 대진국과 고려의 영역도 표시되어 있는데, 대진국에 대해서는 1233년 고려 침입을 준비하던 몽골군에게 공파당했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지도에서는 고려의 영역을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지역으로 표시했다. 포선만노가 세운 대진국의 세력 범위는 그 전성기 때 서남쪽으로는 오늘날 요녕성 단동의 九連城 부근이고, 남쪽으로는 함경남도 도련포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런데 고려는 금나라와 대체로 압록강을 경계로 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20은 통일신라와 발해국과의 경계선을 이용하여 대진국과 고려의 경계선으로 표시하고, 압록강 이남에서 대동강 이북의 지역을 대진국의 영역으로 표시하는 우를 범했다. 이 지도는 다음 수정판이 나오면 수정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여기서 중역판 지도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volume6에 수록된 '지도1 거란과 북중국 A.D 908년' 지도는 발해를 'POHAI'로 표시하고, 한반도 지역은 발해와 접경부근에 후고구려(later KOGURYŎ)라고 표시했는데,(volume6,p.55) 중역본(중역본6권 p.55)은 '후고구려'라는 글자를 한반도 전역에 걸쳐 표시하여 후백제, 신라의 존재를 망각하게 하여 마치 후고구려가 당시 한반도에 유일하게 존재했던 왕조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게 하였다. 번역본을 제작해야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이다.

<표1> 한국사 관련 서술 부분(통일신라 이전)

번호	한국왕조	분류	상대부족·국가	기사내용	출처
1	고구려	국가성격		정주인구를 가진 안정되고 잘 조직된 국가	3-37
2	고구려	국가성격		수대 중국의 유일한 정주인구와 안정적인 제도를 가진 이웃국가	06-04
3	고구려	대외관계	서진	최자의 고구려망명	2-131
4	고구려	대외관계	모용정권	수도 함락과 포로의 이주 및 종속국가 전략	2-131하너더
5	고구려	대외관계	후연	고구려후예의 후연왕 즉위 및 피살	2-143
6	고구려	모용역사	북위	모용인과 고구려인의 탁발수도 이주	
7	고구려	북위역사	북위	고구려출신인 북위황제의 모친과 그 오빠	

8	고구려	고구려역사	복위	고구려의 영역	
9	고구려	고구려사	복위	고구려의 영역 범위와 고구려에 속한 말갈	3
10	고구려	대외관계	모용선비	마구의 전파	
11	고구려	대외관계	모용선비	선비식 기병갑옷의 전파	
12	고구려	대외관계	손오	고구려와 관계를 수립하여 위를 협공하려고 함	2-305
13	고구려	대외관계	모용	마구세트	2-400
14	고구려	대외관계	모용	왕관의 장식은 중앙아시아에서 영향	2-401-77
15	고구려	대외관계	거란	고구려에 거란 신속	6-47
16	고구려	대외관계	거란	당의 고구려 침공 때 거란 참전	6-47
17	고구려	대외관계	X	고구려 환인현 소재 무덤벽화	
18	고구려	대외관계	수	고구려와 대수당전쟁	3-32
19	고구려	대외관계	수	612년 수의 고구려 침공은 영제거 개통과 연관	3-144~146
20	고구려	대외관계	수	고수전쟁에서 수의 고구려 침공 동기	3-145~147, 3-6~7
21	고구려	대외관계	수	고수전쟁에서 수의 패인	3-144, 146, 147
22	고구려	대외관계	수	고수전쟁에서 고구려가 강했던 이유	3-144
23	고구려	대외관계	수	수멸망의 원인은 고구려원정의 실패	중문3-7
24	고구려	대외관계	수당	한 통치하의 영토회복이 고구려침공원인	3-32
25	고구려	대외관계	수	고수전쟁 당시 백제와 신라의 고구려 남부 영역 공취	3-232
26	고구려	대외관계	당	연개소문의 중국사신 억류와 신라침공재계	3-234
27	고구려	대외관계	당	천리장성 축조	3-231
28	고구려	대외관계	당	당태종의 고구려 침공 동기	3-233-234, 239
29	고구려	대외관계	당	당의 고구려 원정 성공	3-284~285
30	고구려/백제대외관계	대외관계	당	고구려 백제 부흥운동	3-284~285
31	고구려	고구려유민	당	고구려멸망후 고구려인의 항방	3
32	고구려	고구려유민	당	고선지의 길기트 원정	3-433, 465
33	고구려	고구려유민	당	당후기 절도사 이남	3-505
34	신라	대외관계	당	신라의 백제고지 및 고구려 남부지역 병합	3-284~285
35	신라	대외관계	당	당군의 철수	3-284~285
36	백제	대외관계	동진	작위수여	
37	백제	대외관계	유송	작위수여	
38	백제	대외관계	유송	작위수여	
39	백제	한국역사	남조	남조와의 문화교류	
40	백제	대외관계	일본	고구려에 대항하여 백제와 일본관계	

41	신라	신라사		신라는 당양식을 모방한 안정적인고 잘 조직된 국가	3-32
42	신라	한국역사		가장 출발이 늦었던 신라의 발전과 통일	
43	신라	대외관계	북위	신라 천마총 출토 장식품과 북위 비교	2-397-64
44	고구려/백제	대외관계	유송	작위수여	
45	고구려/신라/가야/부여	대외관계	모용	황금머리장식	2-401
46	/고구려/신라	대외관계	모용	명문벨트의 부여에서의 모방과 고구려 신라에서의 진화	2-400
47	삼국	한국역사	x	국가발전단계	
48	부여	대외관계	공손씨정권	고구려에 대응 위한 부여와의 통혼	
49	부여	대외관계	모용	무덤 부장품	2-400 그림
50	부여	대외관계	모용	금관장식	2-400
51	한국	대외관계	중국	중국문화의 전파	
52	한국	대외관계	일본	한반도일부통치가 아니라 군사보조원으로 활동	
53	한국	한국역사	x	초기철공법	
54	한국	한국역사	중국	한국의 왕국의 출현은 중국 모델의 자극 결과	
55	한국	대외관계	일본	한국을 통한 중국문화의 전파	/3-32~33,3-139
56	한국	대외관계	수	유리제품 제조기술의 전파	2-395
57	한국	대외관계	중국	고대한국의 중국식 관료정치 수용	06-02

<표2> 한국사 관련 서술 부분(발해 고려 부분)

연번	왕조	분류	상대국가 부족	기사내용	출처
1	소고구려	국가		소고구려의 존재와 위치	3-
2	발해	국가성격	당	당양식을 모방한 안정적인고 잘 조직된 왕국	3-32
3	발해	국가성격		750년 기준 안정적인 국가중의 하나	06-11
4	발해	국가성격	당	당의 위성정권	06-03
5	발해	국가성격		중국모델의 모방	06-03
6	발해	건국배경		당의 한국정복시도의 좌절과 진국의 출현	6-48
7	발해	건국주체		발해 전신 진국의 건국 주체는 고구려의 잔여	
8	발해	건국주체		예맥과 고구려말갈족출신, 고구려장군대조영	
9	발해	대외관계	돌궐	진은 돌궐의 부용	3-364, 하나 더
10	발해	대외관계	돌궐	거란 공격을 위한 돌궐의 연맹 제의와 거절	3-446
11	발해	대외관계	돌궐	강하고 안정된 국가 발해의 동북 안정 기여	3-446

12	발해	대외관계	당	대조영을 발해왕으로 승인	
13	발해	대외관계	당	발해의 변영(중국식행정제도의 발전 등)	06-03
14	발해	대외관계	당	대무예시기의 외교와 당 공격	
15	발해	대외관계	거란	아보기의 발해 정벌 계획	6-53
16	발해	대외관계	거란	거란의 발해정복의 의미	06-03
17	발해	대외관계	거란	발해멸망과 발해국의 체제 및 동단국	6-66
18	발해	대외관계	거란	거란의 정벌과정에서 피해가 가장 컸던 나라	6-37
19	발해	대외관계	요	요의 건축에 미친 발해의 영향	6-39
20	발해	대외관계	신라	신라 발해의 동북방 네트워크 형성	06-05
21	발해	대외관계	오월	오월의 거란과의 외교목적은 발해 고려와 무역	6-72
22	발해	대외관계	말갈	발해의 신민·말갈과 여진과의 관계	6-227
23	발해	대외관계	여진	거란에 병합되기 전 발해국의 일부분	06-11
24	발해	대외관계	여진	발해의 멸망과 여진인 출현 관계	6-227
25	발해	대외관계	요	발해인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 행사	6-78
26	발해	대외관계	요	발해인의 반독립적인 지위	6-98
27	발해	발해유민	요	요의 이중 지배체제하의 발해인 관리방식	6-77-78
28	발해	발해유민	요	요성종 통치기간 발해인의 반란	6-91
29	발해	대외관계	요	1029년 발해왕실 후에 대연림의 반란	6-112~113
30	발해	대외관계	요	1029년 발해인의 반란이후 대우 개선	6-116~117
31	발해	발해유민	여진	아골타반란진압에 요의 군대와 발해파견대 동원6-141	
32	발해	발해유민	여진	발해국 출신 양복의 칭제건원 건의	6-230~231
33	발해	발해유민	요	발해관리 고영창의 난	6-144
34	발해	발해후예	금	금 세종의 모친은 발해인의 후대	6-251
35	발해	발해후예	금	상서성의 좌승상 역임 16명 중 2명은 발해인	6-276
36	발해	발해후예	금	맹안모극제와 발해인	6-282
37	발해	발해후예	금	금치하에서 발해인의 문자생활	6-282
37	발해	발해후예	금	금세종의 거란반란진압과 발해인의 지지	6-238
39	발해	발해후예	금	금의 잡호와 발해인	6-286
40	발해	발해후예	금	금치하에서 발해인의 혼인풍습	6-288
41	고려	발해유민	요	1029년 발해인의 내투	6-113
42	고려	발해유민	금	금 치하에서 발해인의 문자사용	6-31
43	고려	대외관계	발해	발해멸망이후 발해와 고려관계	6-102
44	고려	대외관계	요	태조의 복진정책	6-100
45	고려	대외관계	요	요 치하 발해인의 반란과 고려의 관계	6-103

46	고려	대외관계	요	요와 고려의 무역	6-110
47	고려	대외관계	요	요성종 초기 요와의 외교 교착	6-91-93
48	고려	대외관계	요	제1차 여요전쟁이후 명목상의 속국이 됨	
49	고려	대외관계	요	여요전쟁 종식 후 요와 고려의 우호관계수립	6-112
50	고려	대외관계	요	여요전쟁 종식 후 고려의 방어강화	6-111
51	고려	대외관계	요	거란의 군대훈련과 군종	6-120
52	고려	대외관계	요	중경에 마련된 고려사신숙소	6-98
53	고려	대외관계	요	요 흥종시기 우호관계 지속	6-120
54	고려	대외관계	요	요 도종시기 우호관계 지속	6-122
55	고려	대외관계	요	고려왕의 압록강 동쪽 영토 양보 요청 거절	6-137~138
56	고려	대외관계	요	요 천조제 초기 우호관계 지속	6-140
57	고려	대외관계	거란	거란과의 전쟁으로 피해	6-37
58	고려	대외관계	요	여요전쟁에서 요의 피해	6-38~39
59	고려	대외관계	여진	여진과 고려의 경계	6-141
60	고려	대외관계	여진	10세기 고려와 요에 문제 야기	6-141
61	고려	대외관계	여진	금 개국이전 고려에 종속	6-228
62	고려	대외관계	여진	금 개국직전 고려와의 경계	6-228~229
63	고려	대외관계	여진	천자문의 여진문번역본 존재	6-35
64	고려	대외관계	송	허상에 그친 군사연합	6-11.102
65	고려	대외관계	금	고려와의 외교서신에 한자사용	6-282
66	고려	대외관계	금	고려의 여진어 교습	6-282
67	고려	대외관계	금	1117년 금과 요 외교협상에서 고려와의 관계 언급	6-232
68	고려	대외관계	금	1124년 금의 고려에 대한 방어	6-235
69	고려	대외관계	금	1126년 금과 고려의 군신관계 성립	6-238
70	고려	대외관계	금	고려와 금의 무역	6-299
71	고려	대외관계	동진국	포선만노의 동진국건립과 멸망, 고려 침입	5-266
72	고려	대외관계	몽골	몽골의 고려침략	6-403.405
73	고려	대외관계	몽골	1251년 한국에 대한 전쟁 계획	6-403
74	고려	대외관계	몽골	몽케의 남송공격 때 몽골군대에 한국인 포함	6-403
75	고려	대외관계	몽골	쿠빌라이의 남송원정군 중 고려 수군 포함	6-431
76	고려	대외관계	몽골	쿠빌라이의 해군의 구성	6-631
77	고려	대외관계	몽골	몽골의 민족차별정책과 고려인의 위치	6-440
78				몽골정복하의 피정복민과 발해인, 한국인	6-631
79	고려	대외관계	원	쿠빌라이 이후 한몽관계	쿠빌라이 6-448~450

80	고려	대외관계 원	몽골의 제1차 일본침공과 고려의 역할	6-437~442
81	고려	대외관계 원	몽골의 제2차 일본침공과 고려의 역할	6-482~484
82	고려	대외관계 원	원순제 토곤테무르의 유년시절 고려 유배	6-567
83	고려	대외관계 원	바이엔 통치하의 외족통치강화정책과 한국인	6-570
84	고려	대외관계 원	아유시리다라의 황태자 책봉과 한국인 모친	6-580
85	고려	대외관계 원	정동행성	6-598
86	고려	대외관계 원	몽골군대 중에서 漢軍에 예속된 고려인	6-601

3. 서양인의 한국사 인식

본서에 대해 중국학자들은 연구방법의 참신함과 더불어 본서를 통해 다양한 서양학자들의 중국사에 대한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문으로 쓰여진 원문 활용의 저조, 중국학계의 연구 성과의 누락, 정치사위주의 편중된 서술 등을 지적하는데 특히 민족관계의 서술에 문제가 있다고 비판한다. <검교중국요서하금원사> 중역본 서문은 본서의 특징과 가치를 평가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그 중의 하나가 “토번과 발해 등의 지역을 일본과 신라 등의 지역과 성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한데 섞어 논했다”는 것이다.(前言 p.10.) 이 점은 <캠브리지중국사>에 대해 서평을 남긴 중국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문제인데, 예를 들어 한 중국학자는 <검교중국요서하금원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평했다.

“10~14세기 중국 강역 상의 각 정권 사이의 관계를 본서는 국제관계로 상승시켜, 송, 요, 서하, 금, 원, 및 토번, 대리 사이의 通使, 通貢, 조약을 모두 외교관계로 보았는데 이것이 본서의 또 다른 큰 특징이다. …… 이 점은 중국의 사학자들의 이야기와 다르다. 국내 사학자들은 송, 요, 금, 서하, 원 및 토번, 대리와 의 관계를 국내 각 정권, 각 민족 사이의 관계로 보고, 그들과 일본, 고려, 동남아제국 및 중앙아시아, 서아시아, 유럽 각국의 관계를 외교관계로 보고 있다. 또한 국제관계라는 표현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다.”²⁾

통일적다민족국가론에 기초한 이러한 중국사학자들의 역사인식은 우리나라에도 큰 충격을 주었는데, 본서는 중국 중심적인 역사관에 의해서 주변민족관계를 처리하는 것을 단호하게 배격한다. 이러한 논조 하에 한국사에 대해서도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접근하는데,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문장은 주목할 만하다.

외국 민족을 다루는 중국 전통 사학의 문제점 중 하나는 변하지 않는 이론과 끊임없

2) 李錫厚, 『劍橋中國史』(第6卷)遼史的基本觀點平述」

이 진화하는 현실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오복제’라는 고대의 이상은 하늘의 위임통치자인 중국 혹은 그 통치 왕조가 정치적, 문화적, 도덕적 권위를 동시에 지닌, 유일한 합법적인 의심할 수 없는 권위의 소유자라는 세계를 그려내었다. 주변 민족들, 중국문화에 완전히 참여하지 않았던 ‘야만인’들은 이 이상적 모델에서 자발적으로 황제에게 복종하여 그의 신하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는 황제의 도덕적 권위 아래에서, 그러나 그의 실제 통제를 넘어 민간인 직접 행정 영역 밖에서 일종의 외부 경계가 되어야 했다. 수세기 동안 실제 외부 세계와의 접촉에도 불구하고, 이 모델은 중국 엘리트들이 상상했던 것처럼 세계의 상징으로 지속되었다. 중국인과 야만인 사이에 극명하게 분열된 상상의 세계에 바탕을 둔 이러한 태도의 잔재들은 이 권으로 다루어진 기간이 지난 후에도 수세기 동안 다른 민족과 중국의 관계를 계속 악화시켰다. 이것은 중국이 다소 낮은 수준의 문화발전과 느슨하고 비합리적인 정치조직을 가진 민족들에 의해 사방에 포위되어 있을 때, 먼 옛날에는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었을지도 모르는 이론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당나라 동안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수대에는 한반도 북부와 만주 서남부에 있는 고구려만이 정주민구와 안정적인 체도를 가진 국가라고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중국의 이웃 국가였다.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중 어떤 민족도 고구려를 제외하고는 서면 문자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고구려는 중국의 문자를 사용했다. ……750년을 지나 이러한 상황은 완전히 변했다. 후기의 당은 안정적인 국가들로 둘러싸였다. ……만주의 발해, 한국의 신라 …… 이들 모든 국가들은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엘리트들이 있었다. 어떤 국가는 문자언어로서 중국어를 사용하고, 어떤 국가들은 그들 자신의 문자시스템을 사용했다.(volume6, p.4.)

중국의 주변국가에서도 유독 한국의 발전수준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수당사> 서술에서도 다시 확인 된다

581년 중국은 정주 인구를 가진 안정되고 잘 조직된 국가로 묘사될 수 있는 유일한 이웃으로 고구려를 마주하고 있었다. 그 외에는 중국은 느슨하게 조직된, 문화발전단계에서 중국보다 현저히 떨어지는 대부분의 유목적이고 문맹인 부족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었다. (volume3, p 37)

발해가 일어난 후 당왕조는 동북에서 새로운 형세에 직면했다. 신라와 발해는 중국보다 현저하게 낮은 발달수준의 부족 민족도 아니고, 완전히 이질적인 삶의 스타일과 사회조직을 가진 유목제국도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 자체와 마찬가지로 중앙집권적 관료왕국으로 조직화된 정주사회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당왕조는 과거의 어떠한 이웃의 경우보다 훨씬 더 큰 수준의 평등과 공동문화를 받아들이는 새로운 유형의 관계를 고안해야 했다. (volume3, p.443.)

사실 한반도에서 고대국가의 성립 시기는 중국의 다른 주변국가에 비해 이른 편이다. 생태학적으로 판이한 유목제국은 그 자체의 발전 규율이 있어 정주국가와 단순 비교하기는 어

렵지만, 안정적인 중앙집권적 국가로 발전된 시기는 고대 한국에 미치지 못한다. 본서는 수나라 초기에는 이미 중국의 중앙집권적인 체제를 구축한 나라로 고구려를 예시했지만, 한반도에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가 등장한 시기를 구체적으로 4세기로 보는 것 같다.

volume3에서는 “고구려의 통치자는 빠르면 32년에 중국식 칭호 '왕'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국의 원'삼국'의 나머지 두 왕조(남서쪽 백제, 남동쪽 신라)는 아마 실제로는 4세기에 이르러서야 조직화된 국가들(organized states)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한다. 또한 “한국의 역사적 발전은 4세기에 불교가 도입되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volume3, pp.44~45. 주19) 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삼국의 불교 도입 시기는 고구려와 백제는 4세기, 신라는 아도 또는 목호자에 의해 전래되었다가, 6세기 법흥왕 대에 이르러 공인된 것으로 전해진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적 고대국가는 고구려는 소수림왕(4세기), 백제는 근초고왕(4세기), 신라는 법흥왕대(6세기)에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대체로 불교의 도입시기와 일치한다. 불교가 사상사적인 측면에서 중앙집권국가 형성에 일정한 공헌을 했기 때문이다. 4세기가 한국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은 분명한데, 본서에 반영된 서양학자들의 인식도 한국사의 보편적 인식과 궤도를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2) 고구려와 발해에 대한 인식(부, 임나일본부설)

동북공정과 맞물려 국가귀속문제를 거론하고 있는 일부 중국학계의 주장과는 달리 본문은 고구려와 발해의 역사와 관련하여 한국역사에 귀속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하고 있다. 고구려에 관한 입장은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쪽의 비중국계인 선비와 동쪽의 원시한국 고구려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최초의 공손씨 군벌은 선비와 고구려 사이에 있던 만주 중부 유역의 송화강에 위치한 또 다른 비중국계 공동체인 부여의 족장과 딸을 결혼시켰다.”, “모용에 입양되었던 원시한국 고구려 왕실의 후예가 연의 차기 천왕에 즉위했다…… 새로 즉위한 (원시한국) 천왕이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살해된 후……”(volume2,p.143.)

본문 곳곳에서 등장하는 고구려 앞에 특별히 부여한 ‘proto korean’ 이르는 수식어는 예사롭지 않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서양학계에서 최근 고구려 역사 귀속문제를 둘러싼 한중간의 대립을 의식한 것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여기서 잠시 중역본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3권을 비교해보면 중역본은 원문의 ‘proto-korean state Koguryō’나 ‘native kingdom, Koguryō)을 간단히 ‘高麗’로 번역하였는데, 정치적 의도가 담겨있는 것 같다. 발해에 관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표현을 통해서 본서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다.

“전 고구려 장군 대조영이 지휘 아래 지금의 길림성 송화강 유역 상류에 피신하였다. 그곳에서 그는 진국(중국어로는 천)의 왕을 자처하고, 돌궐 카파한의 신하가 되었다.”

“奚와 契丹인은 돌궐의 원조를 받아 신흥 진국(나중의 발해가 됨. 남만주의 고구려 잔당이 조직)처럼 돌궐의 부용이 되었다.”

“남만주 고구려 잔당들에 의해 형성된 신흥국 진(후의 발해)과 마찬가지로 돌궐의 신하가 되었다.(volume3, p.364)

이와 같이 본서는 발해건국자 대조영이 전 고구려 장군이고, 그가 세운 진은 고구려의 남은 무리들에 의해 건국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영문 표기에 있어서도 한국어 발음인 ‘parhae’를 사용했다. 다만 그 다음에 중국어로는 ‘pohai’라고 한다고 설명을 덧붙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6권의 발해의 영문 표기는 3권과 달리 ‘pohai’라고 하고, 한국어 발음으로는 ‘parhae’라고 한다고 설명을 곁들이는 식으로 서술했는데, 고구려가 본문에 ‘gaogouli’라는 중국어 발음 표기가 전혀 보이지 않고, 일률적으로 ‘Koguryŏ’라고 표현한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발해에 관해서는 한국의 견해를 우선하면서도 중국의 견해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렇지만 발해의 역사를 한국과 결부시킨 것이 본서의 기본적인 논조라고 할 수 있는데, 발해 멸망이후 고려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다음의 표현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980년대까지 거란의 한국과의 관계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 926년 거란이 발해를 정복한 결정적인 시기에 갈등이 예상되었지만, 한국에서 정치적으로 분열된 시기와 일치했다. …… 926년에 한국은 삼국으로 분열되어 있어, 발해를 지키고 싶어도 발해 방어에 나설 수 없었다. ……926년에 이전의 모든 영역이 요나라에 편입된 것은 아니었고, 모든 발해인이 요나라의 통치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다. 발해관료집단의 상당수가 고려에 피신했다. 발해 그 자체는 잔류한 고구려통치엘리트에 의해 세워졌으므로 북방을 지향하는 고려 왕조를 먼 친척이나 잠재적 동맹으로 간주했다. …… 자칭 고대 고구려의 후계자로서 그들(역주.고려)의 통치자들은 대동강 북쪽의 압록 계곡을 향해 영토를 재정복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volume6, p.100)

본문 중 ‘발해를 지키고 싶어도 발해 방어에 나설 수 없었다.’라는 서술은 발해와 한반도 후삼국의 혈연적 유대를 중요시한 것으로, 몽골계 선주민인 거란의 침입에 대항하여 발해와 동일한 족적연원과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한반도의 국가들이 협력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내포하고 있는 표현이라고 하겠다. 이것은 발해가 확실히 한국의 역사에 귀속된다는 본서의 논조가 은근히 표현된 것으로 이해된다.

발해의 역사와 관련하여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발해 멸망 이후 발해유민이나 발해영역에 관한 이해 방식이다. 1029년 발해왕실의 후예 대연림이 지휘했던 발해유민의 저항운동에 대하여 본서는 요의 대외관계에 포함하고, 요와 송, 요와 고려 다음에 서술한 것이 특징이다. 본서에서는 발해가 요에 정복된 이후에도 상당 기간 동안 반독립적인 국가로 존재했고, 따라서 발해인은 신민으로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속국으로서 공물을 납부했다고 한다. 따라서 요에 멸망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발해를 요에 완전히 편입되지 않는 국가로 취급하였는데, 본서는 이러한 논조 하에 서술되었다. 이것은 <지도7 요 제국, 1045> 지도에도 충분히 반영되

었는데, 대략 오늘날 요녕성 지역에 속하는 동경도의 외곽은 요제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volume6, p.119.) 현재의 중국강역을 기준으로 편찬된 <중국역사지도집> 등 현행 중국의 역사지도는 만주지역 전체를 요의 강역으로 표시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역사상의 만주지역의 동부지역은 대체적으로 중국의 강역에 포함되지 않았다. 후대의 청의 柳條邊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한 것이다. 본서도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에 근거하여 강역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편 고대 일본과 한국에 관한 본서의 입장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문은 전근대적인 중국의 조공체계에 의한 중국의 공식직함의 획득이 지역 강자들에 의해 그들을 정당화하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입증되었다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사례를 들었다. 이러한 교류가 일본 통치자의 국내에서의 위신을 높여주었고, 현재 한반도에 대한 부분적 지배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지지하기 위해 추구되었다는 것이다. 육조시기 일본이 남조로부터 획득한 도독제군사의 官號 같은 중국식 직함은 임나일본부설의 유력한 증거 중의 하나로 제시되는데, 본서는 “실제로 일본인은 한반도의 일부를 통치했기보다는, 그곳에서 아마도 대개 군사보조원 (military auxiliaries)으로서만 활동했을 것이다.”라고 하여 임나일본부설을 배척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중국학계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평가 분석 -명청시대를 중심으로-

김종건(대구한의대)

목 차

- I. 서언
- II. 명대사에 대한 평가
- III. 청대사에 대한 평가
- IV. 결언

I. 서언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는 전체 16권의 방대한 편성을 과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필진이 분담 집필하면서 출간 시기도 장기간에 걸쳐 간행된 서구 학계의 중국사 연구 성과의 총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이 시리즈가 처음 기획되었던 1966년 당시 서방에서의 중국사 연구가 극히 미약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사 연구자를 대표하던 페어뱅크(John K. Fairbank)와 트위철티(Denis C. Twitchett) 등이 총주편이 되어 각권 주편도 당시 해당 시기 중국사 연구를 대표하던 권위자들로 세우고 각권의 각 장의 집필자도 각 영역에서 특출한 연구 성과를 내고 있던 인물들로 선정하여 각 권이 하나씩 출간되어 나오게 됨으로써 서양에서의 중국사 연구의 수준과 동향을 대표하면서 각국 독자들이 중국사를 연구함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 도서가 되었다는 의미를 높이 평가하고 있다.

중화 의식을 아직도 온전히 계승하고 있는 중국학계에서 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

리즈에 대한 관심은 대단히 높아서 영어판에 대한 중역본 번역 간행도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시리즈의 1978년, 1980년에 간행된 제10,11권인 『劍橋中國晚清史』는 1985년 2월에 중문으로 번역 간행되었다.¹⁾ 1988년 2월과 1998년 1월에 출간된 제7,8권 『劍橋中國明代史』(상),(하)는 1992년 2월과 2006년 12월에 중문으로 번역 간행된 바 있다. 2002년에 출간된 제9권(상)은 『劍橋中國清代前中期史』(上)으로 2020년 4월에 중문으로 번역 간행되었으나, 2016년 5월에 간행된 제9권(하)는 아직 중문판이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²⁾ 이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서평과 논평도 다양하게 발표되고 있다.

이러한 논평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서방의 중국사 연구에 대한 중국에서의 인식이 어떠한지 파악할 수 있으며, 서방 역사학계의 중국 역사학계의 관심과 인식의 차이와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명대사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인 논평을 시도한 것으로는 張德信의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의 득과 실(《劍橋中國明代史》的得與失)」³⁾ 등이 있고, 특정 주제나 번역상의 문제에 대한 논평으로는 和建偉의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에서 주원장의 모습(《劍橋中國明代史》中的朱元璋形象)」,⁴⁾ 劉國防의 「명초의 하미와 그 왕족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 관련 부분 평을 겸함(明初的哈密及其王族 -兼評《劍橋中國明代史》的相關部分)」,⁵⁾ 肖慶仕의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 오류 검토(《劍橋中國明代史》勘誤)」⁶⁾ 萬德敬의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에서 인명 오류 (《劍橋中國明代史》中的一處人名訛誤 -輯考《元史》之外同名異人的李羅帖木兒)」⁷⁾ 등이 있다. 청대사에 대해 다른 논평으로는 王俊義의 「“충격-반응론”으로부터 “중국중심관”의 역사적 전변 -『케임브리지 중국청대전중기사』 술평(从“冲击-反应论”到“中国中心观”的历史转变 -《劍橋中國清代前中期史》述評)」,⁸⁾ 趙清明的 「케임브리지 중국만청사 간평(簡評《劍橋中國晚清史》)」⁹⁾ 등이 있다.

- 1) 이 두 책은 한국어 번역본도 2007년에 각 권 2권씩 모두 4권으로 분권되어 간행된 바 있다. 김한식·김종건 외 역, 『캠브리지 중국사 10: 청 제국 말 1부 (상)』 (서울: 새물결, 2007.8); 『캠브리지 중국사 10: 청 제국 말 1부 (하)』 (서울: 새물결, 2007.8); 『캠브리지 중국사 11: 청 제국 말 2부 (상)』 (서울: 새물결, 2007.9); 『캠브리지 중국사 11: 청 제국 말 2부 (하)』 (서울: 새물결, 2007.8).
- 2) 중국사회과학출판사에서 1985년부터 각권에 대한 번역본이 속속 출간된 이래 현재 12권이 번역 간행되고 있다.
- 3) 張德信, 「《劍橋中國明代史》的得與失」 『中國社會科學』 1994年 第4期 (北京: 中國社會科學院, 1994), pp.147-161.
- 4) 和建偉, 「《劍橋中國明代史》中的朱元璋形象」 『安康學院學報』 第26卷 第1期 (安徽 鳳陽, 安徽科技學院, 2014.2), pp.116-120.
- 5) 劉國防, 「明初的哈密及其王族 -兼評《劍橋中國明代史》的相關部分」 『西域研究』 1999年 第2期 (新疆社會科學院, 1999.2), pp.29-34.
- 6) 肖慶仕, 「《劍橋中國明代史》勘誤」 『皖西學院學報』 第35卷 第1期 (安徽 合肥, 安徽大學 歷史系, 2019.2), pp.132-139.
- 7) 萬德敬, 「《劍橋中國明代史》中的一處人名訛誤 -輯考《元史》之外同名異人的李羅帖木亞」 『運城學院學報』 總第37卷 2 (山西運城: 運城學院中文系, 2019.6), pp.28-32.
- 8) 王俊義, 「从“冲击-反应论”到“中国中心观”的历史转变 -《劍橋中國清代前中期史》述評」 『社會科學戰線』 2010年 第12期 (吉林省社會科學院, 2010.12), pp.95-102.
- 9) 趙清明, 「簡評《劍橋中國晚清史》」 『日梁高等專科學校學報』 第25卷 第4期 (山西 離石: 日梁高等專

본고에서는 특히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명청시대 부분에 대한 중국학계의 논평들과 기타 본 시리즈에 대한 대표적인 논평들¹⁰⁾을 검토함으로써 서구 학계의 중국사 정리에 대한 중국 학계의 평가와 의미 부여의 면모를 살펴보고, 특히 쟁점으로 지적하는 부분들이 가지는 배경과 성격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중국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분석 과정에서 한국사 관련된 부분은 특별히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II. 명대사에 대한 평가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의 구성은 제7권은 전체 12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元나라 말기 명조의 흥기로부터 명나라가 붕괴된 이후 南明 정권까지를 다루고 있다. 제8권은 明代의 행정, 재정, 법률, 대외관계, 경제, 교통통신, 사상, 종교 등의 내용으로 편성되었다.

중국학계에서는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 2책의 출판이 기본적으로 서방 학자들의 중국사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인식되고 있으며, 아울러 중국의 독자들이 서방 학자들의 중국사 연구의 현황을 볼 수 있는 매개가 된다는 점도 크게 주목하고 있다. 특히 그들의 사고 방식, 관찰, 연구 시각, 연구 방법 및 표현상의 특징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이나 인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제시되는 견해와 정연하게 서술되는 내용 표현에서도 깊은 인상을 얻을 수 있다는 의의를 찾고 있다.¹¹⁾

그러면서도 각각의 전문가들이 각 편을 집필한 다음 주편자가 이를 아울러 각 권을 완성하는 체제를 취하고 있음에 따라 역사적 전개를 체계적으로 연계하여 편성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현하고 있다. 특히 내용상 중복, 오류, 누락 및 동일 사항에 대한 서로 다른 내용도 있다는 약점이 있음도 주목하였다.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의 권과 장 구성에 대해서 특히 아쉬움을 피력하고 있다. 제7권에서의 각 황제의 치세 순으로 내용을 편성하면서 장절 구성에서 명 태조 연간 관련 내용을 전체 12장 가운데 3개 장이나 편성하면서 필연적으로 서술의 중복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¹²⁾ 그리고 기타 장절 구성에 있어서도 기간의 장단 또는 내용의 많고 적음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는 등 치세의 장별 구분에 무리가 있음이 거론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성격이 다른 成化帝와 弘治帝의 치세가 하나의 장으로 구성될 것이 아니라 나뉘어 서술되어야 마땅하다는 견해도 보이고 있다.¹³⁾ 아울러 제7권의 마지막 장으로 편성된 「時代的歷史著述」

科学校, 2009.12), pp.82-87.

10) 胡志宏, 「西方汉学的重要成果 -读《剑桥中国史》有感《剑桥中国史》」 『中国史研究动态』(北京: 中国社会科学院 历史研究所, 1994年 第11期), pp.27-31 등 참조.

11) 张德信, pp.147-148.

12) 한편, 和建偉는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에서 주원장에 대한 서술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충실하게 정리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하고 있다. 和建偉, pp.116-120 참조.

은 문화를 다루고 있는 제8권으로 편성해야 마땅하며, 제8권에 편성되어 있는 국토, 인구, 국경 등 내용은 제7권으로 편성되어야 내용상의 중복을 피할 수 있었음도 지적하고 있다.¹⁴⁾ 『케임브리지 중국명대사』의 각 장과 장, 장과 절에서의 중복이 있음과 각 장의 절의 표제도 중복이 많은 것도 아쉬운 점으로 거론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내용상의 중복과 일탈이 생겨나게 되었다고 평하고 있다. 그런 원인으로는 전체 주편자와 각 장의 집필자 사이에서의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지나치게 각 장 편찬자의 책임과 독립성을 지켜 준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중국에서의 총서 편찬의 경우 주편자의 주도하게 체계적인 통일과 안배를 지향하고 있는 것과 차이가 크다는 점을 특히 주목하고 있다.

내용상의 중복에 대한 지적도 많다.

제7권 제1장과 제2장에서 명 태조 주원장의 초기 경력과 명 왕조 건설로 나아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많이 중복되고 있는 점, 永樂帝 때 신설된 內閣에 대해서 제7권 제4장의 영락제 치세 설명 중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6장에서 「內閣的地位」라는 절을 다시 구성하여 서술하고 있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명대에 극심했던 宦官들의 폐해에 대하여 마땅히 중요시하고 상세히 서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王振, 汪直 등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중복하여 설명하고 있는 한편, 훨씬 더 국정을 농단했던 劉謹이나 魏忠賢 등의 폐해에 대해서는 서술이 미진한 점, 그 외에도 명대의 군사제도나 內書堂 등 관제, 正德帝의 사망 원인 및 大禮의 議 등에 대한 내용이 특히 중복됨이 지적되고 있다.

사실에 대한 잘못된 접근이나 내용 서술상의 오류에 대한 부분도 많이 거론하고 있다.

제7권 제2장에서 명대의 군사제도인 衛所制가 1364년에 건립되었다고 한 것은 1364년에 朱元璋이 17衛를 편성하였으나 위소제의 확립은 1374년에 이르러 확립되는 것을 잘못 서술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으며, 1380년에 都衛를 都指揮使司로 개명하였으나 직능에 변동이 없다고 서술한 것 역시 그 개편 이후 관할 범위와 직능 영역에 변화가 있었음을 잘못 설명한 것이라 지적하고 있다.¹⁵⁾

제7권 제3장에서 1395년에 洪武帝가 『祖訓錄』의 수정본을 관원들에게 배포했다고 한 것은 1369년에 편찬된 『조훈록』의 수정본인 『皇明祖訓』을 각 분봉 제왕들에게 배포한 것을 잘못 설명한 것임도 지적하고 있다.¹⁶⁾

제7권 제3장에서 1382년에 황제가 翰林院에서 4명의 大學士를 선발했다고 한 것은 그 중 1명만 한림원에서 선발되고 나머지는 예부와 기타 부서에서 선임된 사실과 부합하지 않으며, 그 대학사들이 각 殿閣에 분산되어 있어서 황제의 의지에 힘을 모아 도전할 수 없었다고 한 것도 각 대학사의 직함 앞에 붙여진 殿閣 명칭이 직급 구별에 불과할 뿐 모두 文淵閣에 모여 황제에게 자문을 하였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설명임이 지적하고 있다.¹⁷⁾

13) 张德信, pp.149-150.

14) 张德信, p.150.

15) 张德信, pp.152-153.

16) 张德信, pp.153-154.

제7권 제4장에서 永樂帝가 북방 원정으로부터 南京으로 복귀한 것을 1420년 8월 중순이라 한 것도 8월에 북경으로 돌아와서 4개월 뒤인 12월에 남경으로 복귀한 사실을 잘못 설명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¹⁸⁾

그리고 제7권 제2장에서 원나라에 충성을 다하다가 명태조에게 죽음을 당한 陳友定이 명태조에게 투항했다고 한 서술,¹⁹⁾ 제8권 제4장에서 亂軍에 의해 피살된 것으로 보이는 환관 王振이 원정 중 선봉에 섰다가 전사하고 英宗이 포로로 잡히게 되었고 한 서술 등도 오류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⁰⁾

또, 제7권에서 황후의 부친 李羅帖木兒를 川系 군벌 李羅帖木兒와 혼동한 오류에 대한 지적도 있다.²¹⁾

그리고 명조와 哈密 지역과의 관계, 哈密 忠順王의 왕족과 그 유래, 그들의 신앙 등에 관한 서술에 있어서 사료상의 보완과 교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²²⁾

동일한 문제에 대한 상호 모순된 설명이 병존하고 있음도 거론하고 있다.

제7권 제4장에서 宣宗이 1435년 36세에 사망하였다 하면서 영종의 즉위를 설명할 때에 8세로 제위를 이었다 하고 있으나, 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재위가 11년이며 38세까지 살았고, 또 영종이 1427년생 이므로 즉위시의 나이가 9세여야 하는 것을 잘못 서술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²³⁾

제7권 제5장에서 土木堡의 變을 설명하는 표현도 ‘事變’, ‘災’, ‘事件’, ‘危機’, ‘災禍’, ‘變’ 등 너무 다양하게 쓰고 있으며, 특히 오이라트에 대한 출정에서 英宗이 피랍되고 패전한 사건인데 그 결과를 과도하게 위기로 표현한 것 등은 사실과 거리가 먼 표현이라는 지적도 있다.²⁴⁾

타당하지 않은 주장들도 거론하고 있다.

제7권 제2장에서 朱元璋이 1356년 集慶으로 들어가면서 자신의 정권을 ‘明’이라 하였고, 이후 1368년에 정식 國號로 삼았다고 하는 주장은 1364년에 겨우 吳王을 칭하고 아직 稱帝하지 않고 있다가 2년후 小明王이 죽은 이듬해에 비로소 吳 원년으로 바꾼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설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²⁵⁾

제7권 제2장에서 명 왕조의 군사 활동과 관련하여 1372년 복진하여 제압했다는 기록은 1388년경 북벌이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어긋난다는 점, 1882년 서남 지역 원정의 군사 활동

17) 张德信, pp.154-155.

18) 张德信, p.155.

19) 肖庆仕, pp.132-133.

20) 肖庆仕, p.133.

21) 万德敬, pp.28-32.

22) 刘国防, pp.29-34.

23) 张德信, pp.155-156. 관련 자료는 『明宣宗實錄』 卷115, 宣德10年 正月 乙亥條, 丁酉條; 『明史』 卷95 「宣宗本紀」에 근거함.

24) 张德信, p.156.

25) 张德信, pp.157-158.

이 마무리 된다고 한 기록은 1382년에 가서야 서남 지역 평정이 완료된다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²⁶⁾

참고도서와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사료나 자료들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그러나 2차 사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한편 1차 사료의 활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 1차 사료보다 2차 사료를 더 중시하고 있는 듯한 각주 서술 방식, 중국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보다 서방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고 있다.

Ⅲ. 청대사에 대한 평가

『케임브리지 중국사』 청대 부분은 제9권이 中國清代前中期史, 제10권과 제11권이 中國晚淸史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시리즈의 19세기 이후 청말까지를 다룬 제10권과 제11권은 1978년과 1980년에 각각 간행되었고, 이 두 책은 바로 중문 번역이 시도되어 『劍橋中國晚淸史』(상)(하)로 中國社會科學出版社에서 1985년 2월에 간행되었다. 그런 한편, 제9권은 훨씬 늦은 2002년에 상편이 간행되고, 2016년에 하편이 간행되어, 상편의 중문 번역본이 2020년 4월에 출간되고, 하편에 대한 중문 번역판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7,8권 명대사(상), (하)권도 1992년과 2006년에 각각 출간되어 시간적 편차가 상당히 크지만, 청대사 4개 부분은 집필 과정과 편찬과정이 30년이나 차이가 나는 어려운 간행 과정의 산물이었다. 이 시리즈의 기획이 1966년에 이루어졌음을 근거하면 청대사 마지막 간행은 50년이라는 세월을 거친 결과물인 셈이다.

중국 학계에서는 케임브리지 청대사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시간적 편차에 근거하여 변화상이 보이는 것에 대하여 기본적인 주목을 하고 있다.

우선 중국사 연구의 관점에 있어서 기본적인 차이점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빨리 집필 작업이 시작된 『케임브리지 中國晚淸史』 경우는 20세기 서양에서의 중국사 연구의 1세대라고 할 수 있는 존 K. 페어뱅크(Fairbank)가 주편을 맡았고, 20세기 중엽의 중국사 연구의 전형적인 접근 방식인 페어뱅크가 제시한 “충격-반응론”이나 조셉 R. 레빈슨(Joseph Richmond Levenson)이 제시한 “전통-근대” 모델 등 서구중심적 시각이 깊이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뒤늦게 집필 간행된 『케임브리지 中國清代前中期史』는, 기존의 서구중심적 시각을 벗어나 중국 중심적 시각에서 중국을 연구하려는 폴 코헨(Paul A. Cohen) 등이 시도한 새로운 경향이 상대적으로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하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다.²⁷⁾

26) 张德信, pp.158-159.

27) 王俊义, pp.99-101

그리고 연구 방식에 있어서도 상당히 뚜렷한 차이점이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中國晚淸史』 경우는 집필이 이루어질 당시 중국에서 이른바 ‘文革’의 영향으로 중국 내 역사학이 위축되어 있었고, 중국과의 학술 교류도 극히 적었을 뿐만 아니라 방대한 檔案 자료나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를 서방에서 쉽게 접근하지 못하던 한계 상황속에서 집필되어 서구에서의 연구 성과에 주로 근거하여 정리될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런 한편 결과 상대적으로 뒤늦게 집필 간행된 『케임브리지 中國清代前中期史』는 주요 집필자들의 면모도 보여 주고 있듯이 중국의 개혁 개방 이후 중국내 역사학이 왕성한 성과를 내고, 중국 내 檔案 자료들이 대거 공개되고, 중국 대외 학술 교류가 왕성해진 변화된 환경 속에서 중국 내 1차 사료와 중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들을 폭넓게 접근한 바탕 위에서 정리 서술되었다는 차이점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케임브리지 中國晚淸史』가 간행될 당시에는 서방 학자들의 필요와 의무에 의한 집필의 성격이 강하였던 한편, 『케임브리지 中國清代前中期史』가 간행되는 시기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중요성이 전보다 놀랄 정도로 높아지고, 세계가 글로벌화 정보화의 길로 깊이 진입한 결과 세계가 중국을 연구하고 중국을 인식할 필요성이 확연히 높아진 배경 속에서 집필되었던 결과 편제와 접근 시각과 서술상 주목하는 내용상의 변화가 뚜렷이 부각되게 되었음도 주목하였다.

중국 학계에서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청대사 특히 만청사 부분의 경우 연구 분야가 다양하고, 여러 계층에 대하여 객관적이면서도 미시적 분석이 시도되고 있으며, 계량적 분석이 돋보이며, 중국사의 대외적 요소를 중시하며 다양한 접근이 돋보인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다양한 연구 분야의 사례로는 인구 문제와 관련하여 구체적이 수치와 변화상을 근거하여 인구 문제가 청말 사회 변화에서 차지하는 의미가 대단히 큼을 서술한 것 등을 들고 있다.

여러 계층에 주목하고 있음과 관련해서는 자료가 풍부한 지배 계층이나 관료 학자들 뿐만 아니라 피지배층이나 다양한 직업군에 대하여 사상, 문화, 관습, 사회 심리 등 다양한 면모를 살피고 있음이 의미가 깊다고 평하고 있다.

계량적 분석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학문 영역에서 청말 사회 경제에 대하여 연구한 성과와 통계 자료들을 계량적으로 정리함으로써 내실을 증진하고 있다고 주목하고 있다.

중국사의 대외적 요소와 관련해서는 서양 문화가 근대 중국에 미친 영향을 깊이 다루고 있음을 특징으로 뽑고 있다.

그러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청대사 특히 만청사 부분에서 아쉬운 면모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서양의 제국주의적 중국 침략과 중국에서의 서구 문화 수용에 적극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교적 우호적 서술을 하고 있는 반면 중국에서 서양에 대하여 항거하고 반대한 모습에 대해서는 충실한 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다.

농민운동이나 의화단운동을 비롯한 서양 기독교 반대운동과 관련하여 근대화를 후퇴시킨 것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민중운동이 어느 정도 사회 혼란을 야기하고 발전을 저해한 면모가 있지만 제국주의의 중국 분할을 막았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음을 반론

으로 내세우고 있다.

중국 혁명에 대한 서술에서 쑨원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음도 거론하면서 신해혁명이 부르조아 계급이 주도한 결과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계급적 한계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결여되어 있음에 대해서도 문제점이라 거론하고 있다.

중국 근대화 과정에서 서양 문화가 중국에 기여한 면모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중국의 근대화 과정에서 작용하게 되는 중국의 내재적 요소도 함께 중시되어야 한다는 점도 주목하여야 할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²⁸⁾

IV. 결론

중국 학계에서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연구 성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높이 평가하고 있다. 서방 학자들이 중국사 연구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있으며, 그 시대적 변화상도 어떠한 지를 잘 보여주는 자료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중국 학계의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 대한 논평, 특히 명청대 관련 논평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부각된다.

우선 중국 학계의 현재적 중국사 연구 방법론을 지나치게 우선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1차 사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중국 학계의 연구 방법론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 본 시리즈의 집필이 서구 학자들의 분담에 의해 오래 전에 집필이 시작되었으므로 중국 쪽 1차 사료를 보다 긴밀하게 활용하기 어려운 시대적 외교적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음을 고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중국 학계의 현재적 관점에서 비롯된 다분히 과도한 지적이라고 여겨진다.

중국 전형의 중화주의가 여전히 기능하고 있다는 점이 확연히 보인다.

인용 자료와 관련하여 중국 학자들의 연구 성과가 서방 학자들의 연구 성과보다 덜 인용되고 있는 점 등에 대한 지적이 많다. 서방 학자들이 중국 쪽 연구 성과를 모두 참고하여 연구 성과를 정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임을 염두에 넣지 않은 평이라고 할 수 있다. 중국 역사 연구는 중국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리는 분명 존중되어야 하겠지만 중국에서의 연구 성과가 제대로 나오기 전인 반세기 전에 시작된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의 초기 집필분에게까지 이런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과연 합당한 관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든다. 그리고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리즈에서는 중국사 외에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변 지역사에 대한 서술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청시대사에 대한 논평에서 중국 주변 지역사에 대한 주목이 거의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면모는 전형적인 중국중심주의적 지적으로 판단된다.

28) 이상 趙淸明, pp.86-87 참조.

중국학계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 인식

손성욱(선문대)

중국학계에서 《캠브리지 중국사》시리즈는 서구학계를 대표하는 중국사 연구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당대 문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는 출판 이래 중국학계의 큰 관심을 받았다. 1983, 1986년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1, 2부¹⁾는 각각 1991, 1992년 상해인민출판사(上海人民出版社)에서 번역 출판되었으며, 1994년에는 북경에 소재한 중국사회과학출판사(中國社會科學出版社)에서 다른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1987, 1991년 출판된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1, 2부²⁾는 각각 1990, 1992년 상해인민출판사와 사회과학출판사에서 각기 다른 번역자들에 의해 번역되어 출판되었다. 해남출판사(海南出版社)에서도 1992년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2부를 출판하였다. 여러 지역의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다는 것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당시 중국학계의 관심이 상당히 높았음을 보여주며, 이 두 책과 관련한 글만 해도 30편 가까이 발표됐다. 그리고 현 복旦大學 역사학계 교수인 동귀창(董国强)은 1996~1998년 국가사회기금청년 프로젝트(國家社科基金青年項目)로 《캠브리지 중국사》중 중국 공산당사와 관련된 내용을 분석 및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했으며,³⁾ 中共中央黨校 교수 진춘밍(金春明)이 이끈 연구팀은 국가철학사회과학연구(國家哲學社會科學研究) '95 계획(九五規畫)'으로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를 평가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고는 바로 중국학계의 큰 반응을 이끌었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두 책의 중국어 번역본이 나온 지 30년 가까이 되고, 현재 중국학계에서 중요하게 인용되지 않기에 중국학계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필자 역시 본고에 착수하기 전 그런 의문을 다소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업은 상당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중국역사연구원(中國歷史研究院)에서 2020년 창간한 《역사평론(歷史評論)》잡지를 보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1)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1 (edited by Fairbank and Twitchett),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Republican China, 1912-1949, Part 2 (edited by Fairbank and Albert Feuerwerker),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6.

2) The People's Republic, Part 1: Emergence of Revolutionary China, 1949-1965 (edited by Roderick MacFarquhar and Fairban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The People's Republic, Part 2: Revolutions Within the Chinese Revolution, 1966-1982 (edited by MacFarquhar and Fairbank), New York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1

3) <https://baike.baidu.com/item/%E8%91%A3%E5%9B%BD%E5%BC%BA/5450244?fr=aladdin> (검색일 : 2020.12.2)

중국역사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2019년 1월 3일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역사 관련 기관을 분리시켜 출범시킨 역사연구 기관으로, 산하 연구소로 고고연구소(考古研究所), 고대사연구소(古代史研究所), 근대사연구소(近代史研究所), 세계역사연구소(世界歷史研究所), 중국변강연구소(中國邊疆研究所), 역사이론연구소(歷史理論研究所)가 있다. 연구원 산하의 역사연구잡지사(歷史研究雜誌社)는 기존에 발행하던 중국 역사학계 최고 권위지인 《역사연구(歷史研究)》이외에 《중국역사연구원집간(中國歷史研究院集刊)》이라는 학술지와 《역사평론》이라는 역사 대중지를 창간하였다. 이와 같은 개편 작업은 중국 정부가 역사 연구와 보급을 얼마나 중시해 주는지 잘 보여준다.

특히 대중지인 《역사평론》은 중국 관방이 발행하는 잡지로 대중적 역사 담론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눈여겨 볼만하다. 창간호에 실린 장하오(張皓)의 <신중국 탄생의 세계사 의의(新中國誕生的世界歷史意義)>, 양화(楊華)의 <누가 중화문명은 연속성이 없다고 하는가? (誰說中華文明沒有連續性?)>, 리귀창(李國強)의 <“일대일로”는 절대 역사상 조공관계를 복원하려는 것이 아니다(“一帶一路”倡議絕非恢復歷史上的朝貢關係)>, 멩칭룽(孟慶龍)의 <침략과 이용 : 미국 쫓기 중 대중국 정책의 축(侵略和利用 : 美國崛起中的對華政策之軸)> 등과 같은 글만 봐도 그 성격을 잘 알 수 있다. 그런데 창간호에 《캠브리지 1800년까지 청대사》와 《캠브리지 청대 후기사, 1800-1911》·《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대한 서평 두 편이 실렸다. 청대 중기까지를 다룬 부분에 대한 서평은 청제국의 중국 왕조로서의 연속성과 신청사 문제에 관련해 중국학계의 입장을 보여주며, 청대 후기와 중화민국 부분은 중국의 근대적 전환을 ‘충격(impact)’과 ‘반응(response)’으로 이해할 수 있는가에 대해 논하며, 서양 중심적인 중국사 인식에 대해 비판적 목소리를 내고 있다.⁴⁾ 《역사평론》창간호에서는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는 다루고 있지 않지만, 중국에서 발표된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관련 논저를 보면 《역사평론》창간호에 실린 서평들과 비슷한 맥락에서 비평하고 있다. 그렇기에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학계의 서양학계의 중국사 연구를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그것의 기본적인 맥락은 무엇인지를 이해하는데 일조할 것이다.

1.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인식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는 1992년 번역 출판되어 중국학계에 소개되었지만, 출판 이래 5년 동안 중국 학술저널에 관련 글이 발표된 것은 귀더홍(郭德宏)의 <어떤 별개생면(別開生面)의 논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하권 항일전쟁 부분을 평하다(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⁵⁾와 동귀창(董國強)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중 마오쩌둥

4) 馬子木, <這是什麼樣的“中國中心觀”? ——《劍橋中國清代前中期史》讀後>, 《歷史評論》, 2020年 1期; 馬建標·徐暢, <旁觀者未必清楚——評《劍橋中國晚清史》>, 《劍橋中華民國史》, 《歷史評論》, 2020年 1期.

5)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安徽史學》, 1995年 3期;

사상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⁶⁾ 2편에 불과하며, 상하이시 중공당사학회(中共黨史學會)가 1998년 5월 30일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서평회를 개최⁷⁾한 이후에서나 여러 편의 글이 나왔다. 이는 당시 중국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이면서도, 비교적 '민감'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평가를 자제해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학계에서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대한 최초의 글인 귀더홍의 <어떤 별개생면(別開生面)의 논설: 《캠브리지 중화민국사》하권 항일전쟁 부분을 평하다>는 항일전쟁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지만, 중국학자들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전반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세 가지 특징을 제시했는데,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일반적인 역사 서술의 방식을 택하지 않고, 저자마다 각기 다른 주장과 방법론이 두드러지며 깊이 있는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평했다. 두 번째로 당시 중국학계는 항일전쟁 연구에 있어 戰線, 戰略, 전시정책 등에 관심을 보인데 반해,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는 중국학계가 관심을 보이지 않던, 사회문제, 군중심리, 정치시스템, 군대 자질 등 다양한 방면의 문제를 다루었다. 세 번째로 이 책은 문제의식이 두드러지며, 새로운 관점이 많고 분석과 평론이 비교적 공정하다고 평했다.⁸⁾ 그가 제시한 특징은 중국학계가 기본적으로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립 구도에서 상반된 역사관과 서술에 익숙한 상황에서, '비교적 공정'하다는 평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귀더홍도 지적하고 있지만, 《캠브리지 중화민국사》가 일본 제국주의 침략을 인정하고 남경대학살이나 일본이 항일근거지에서 펼쳤던 '삼광(三光)' 정책을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공산당과 국민당의 평가에서도, 일부 중국학계와 다른 관점을 보이지만, 비교적 객관적으로 서술되어 있다고 하면서, 《캠브리지 중화민국사》가 항일전쟁 이후 국민당 정부와 군대의 정신이 피폐해지고 기율이 부패해져 1949년 공산당의 승리에 일조했다는 평가가 비교적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한다.⁹⁾ 이러한 점들로 인해 《캠브리지 중화민국사》가 당시 중국에서 번역되고, 중국학자들에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긍정적 평가와 함께, 귀더홍은 크게 세 가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기본적인 중화민국사의 흐름을 서술하는 데 있어 체계적이지 못하다. 이런 부분은 공저이다 보니 피할 수 없는 문제다. 둘째, 일부 역사적 사실의 본질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아 혼란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은 1937년 중일전쟁의 발발은 일본이 도발한 거라 보기 어렵고 일본은 이 전쟁을 할 목적이 없었으며, 당시 중국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일본은 그것으로 만족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귀더홍은 여러 가지 사실로 볼 때 일본은 일찌감치 침략 전쟁을 노리고 계획했으며, 만약 중국이 저항하지 않았다면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마지막으로 용어의 혼용과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 부분이다. 마오쩌둥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공정하나 그는 천성적으로 권력을 사랑했으며,

6) 董國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毛澤東思想論壇》, 1997年 4期.

7) 朱華, <《劍橋中華民國史》書評會在滬召開>, 《檔案與史學》1998年4期.

8)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安徽史學》, 1995年 3期, pp.59-60.

9)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p.62.

1942년 옌안 정풍운동을 통해 자신을 신격화시켰다는 서술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고의로 깎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¹⁰⁾

사실 귀더홍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대한 평가는 중국학계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준다. 1997년에 발표된 동귀창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중 마오쩌둥 사상연구와 관련된 두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는 중국학계가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는 《캠브리지 중화민국사》 2부에 스투어트 슈람(Stuart R. Schram)이 쓴 <1949년 이전 마오쩌둥 사상>이라는 글을 맹렬히 비판했다. 슈람은 마오쩌둥을 보수적 민족주의자로 보고, 마오쩌둥의 신민주주의혁명 이론을 중국 전통의 보수적 요소와 마르크스주의의 실용적 요소가 결합한 산물이라고 설명하며, 마르크스주의 시각에서 볼 때 비정통과 이단의 요소가 명확하게 드러난다고 결론 내린다. 동귀창은 이러한 결론은 중국 혁명과 중국 공산정권, 사회주의 제도를 부정하는 이론 근거라고 주장하며 맹렬히 비판한다.¹¹⁾

하지만 동귀창이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스투어트 슈람의 문장만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1998년에 이르면 中共上海市委黨校 주화(朱華)의 주도하에 1998년 5월 30일 30여 명의 연구자가 모여,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대한 서평회를 개최하였다.¹²⁾ 저자도 없이, 평자들만 30명이 넘어 토론했다는 사실은 당시 이 책이 중국학계에 갖는 의미가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 서평회의 토론을 정리한 주화의 글을 보면, 대체로 서술 방식, 연구 방법, 중국학계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각에 대해서는 대부분 동의하면서도, 중국공산당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예를 들어, 화동사범대학 부교수였던 치웨이핑(齊爲平)은 앞서 언급한 동귀창과 같이 스투어트 슈람에 관점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강변한다.¹³⁾ 다만, 슈람의 연구에서도 주의를 기울일 부분이 있는데, 마오쩌둥 사상연구에 있어 그의 사상이 전통문화의 배경 속에서 어떤 위치를 지니며, 마르크스와 레닌 등의 사상과는 어떤 차이를 갖는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슈람 등 외국인 학자의 시각이나 방법론에 동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관심을 두는 문제에 중국학계 역시 관심을 기울여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의 관점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10)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pp.62-64.

11) 董德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毛澤東思想論壇》, 1997年 4期, p.79.

12) 朱華, <《劍橋中華民國史》書評會在滬召開>, p.80.

13) 朱華, <《劍橋中華民國史》學術書評會綜述>, 《上海黨史研究》, 1998年 4期, p.30.

저자명	논문명	저널	권호	저자 소속기관
郭德宏	一種別開生面的論述——評《劍橋中華民國史》下卷抗日戰爭部分	安徽史學	1995年3期	中共中央黨史研究室
董國強	評《劍橋中華民國史》中關於毛澤東思想研究的兩個問題	毛澤東思想論壇	1997年4期	南京大學歷史系
朱華	《劍橋中華民國史》學術書評會綜述	上海黨史研究	1998年4期	中共上海市委黨校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探索與爭鳴	1998年10期	復旦大學
郭緒印	國民黨派系鬭爭史之我見——評《劍橋中華民國史》第二部第三章中之《國民黨派系鬭爭》	學術月刊	1999年1期	上海師範大學歷史系
張廷友, 唐純良	對《劍橋中華民國史》一則“史料”的訂正	中共黨史研究	1999年5期	牡丹江師範學院, 哈爾濱師範大學
史承鈞	《劍橋中華民國史》在文學史料方面的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1期	上海師範大學人文學院
曾琦琦	試析《劍橋中華民國史》中的新詩觀	華中人文論叢	2012年1期	華中師範大學文學院
杜桂劍	《劍橋中華民國史》(下)第四章中若干史實錯誤	湘潮(下半月)	2015年12期	中共中央黨校
陳景控	《劍橋中華民國史》(上卷)三則史事正誤	社會科學論壇	2018年6期	河南大學歷史文化學院
馬建標, 徐暢	評《劍橋中國晚清史》《劍橋中華民國史》	歷史評論	2020年1期	復旦大學歷史學系

이 서평회 이후 여기에 참석했던 천옌(陳雁), 귀쉬인(郭緒印), 스텡진(史承鈞) 등 학자가 논문을 발표했다. 천옌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서 쉽게 간취할 수 있는 ‘충격’과 ‘반응’ 모델을 비판하였다. 그는 충격에 따른 반응이 중국 현대화의 유일한 동력이 아니었으며, 주요 역량은 아니었다고 비판한다. 그는 어떤 의미에서 ‘충격’과 ‘반응’ 모델을 기초로 하는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의 출판은 중국근대사연구에 있어 모종의 충격이며, 그는 이에 대응해 중국학자들이 미래에 적극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주장한다.¹⁴⁾ 물론 여기서 ‘반응’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를 일일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적 맥락에서의 독자적 연구를 의미한다. 이와 함께,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는 중일관계, 중소관계, 중영관계 등 중국과 대국 관계가 국제 관계에서 중국의 지위 변화 위기 타파를 위한 주요 원인으로 설명하는데, 중국현대화는 중국 스스로의 이익에 따라 주도되었다고 강변한다.¹⁵⁾

국민당 파벌 투쟁 문제에 대해 다른 귀쉬인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가 中統과 政學界의 파벌 문제를 중심으로 1927~1937년만 다루고, 그 원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했다고

14)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探索與爭鳴》, 1998年 10期, p.47.

15) 陳雁, <大國形象的塑造與中國國際地位的變遷——讀《劍橋中華民國史》>, p.48.

비판한다. 이 문제는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파벌이 경쟁했으며, 이는 그 이전의 갈등에서 기원하여 장기적인 영향을 끼쳤기에 구체적인 사실에 기초해 서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⁶⁾ 이를 증명하기 위해 실증적인 사료를 제시하고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의 사료 오류를 지적하였다.

스청전은 주로 문학 관련 서술에 있어 기초적인 사실에 오류가 적지 않고, 사료의 오용 문제를 지적했다.¹⁷⁾ 스청전의 지적은 대부분 중국학자가 ‘캠브리지 중국사’를 비판할 때는 보이는 방식이다. 특정 서술이나 관점을 간단히 제시하고, 그것의 오류를 실증적으로 비판한다. 2010년대 이후 발표된 정치순(曾琦琿)¹⁸⁾, 두구이옌(杜桂劍)¹⁹⁾, 천징쉬안(陳景掄)²⁰⁾ 등도 사료의 오류를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주로 지적하지만, 《캠브리지 중화민국사》가 발표된 지 오래됐고, 중국학계의 중화민국사 연구도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단순한 오류 비판은 별 의미가 없다.

2.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인식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는 여러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을 정도로 큰 관심을 받았으며, 출판 직후 관련 논문이 발표됐다. 바로 1992년에 발표된 유춘(尤存)의 <해외 한학자(漢學家) 눈에 비친 현대중국 -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 1949-1965》를 읽고(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라는 글이다.²¹⁾ 이후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비판은 앞서 설명한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대한 비판과 매우 유사하다.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장점을 인정하면서도, 중국 관방에서 수용할 수 없는 관점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선을 긋고, 실증적 논거를 제시해 강하게 비판한다.

하지만 유춘의 이 글은 상당히 다르다.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가 1949~1965년을 ‘왕조순환’론의 시각으로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초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중국학자들이 신민주주의혁명-사회주의 혁명-사회주의 건설이라고 설명하는 것과 달리 현대화라는 독특한 시각으로 이 시기를 설명한다고 얘기하며, 이에 따라 이 시기를 소련모델을 모방하는 시기(1949~1957)와 중국식 모델을 모색하는 시기(1958~1965)로 구분한다고 설명한다. 게다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는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다

16) 郭緒印, <國民黨派系鬭爭史之我見——評《劍橋中華民國史》第二部第三章中之《國民黨派系鬭爭》>, 《學術月刊》, 1999年 1期, p.88

17) 史承鈞, <《劍橋中華民國史》在文學史料方面的問題>, 《上海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2年 1期.

18) 曾琦琿, <試析《劍橋中華民國史》中的新詩觀>, 《華中人文論叢》, 2012年 1期.

19) 杜桂劍, <《劍橋中華民國史》(下)第四章中若干史實錯誤>, 《湘潮(下半月)》, 2015年 12期.

20) 陳景掄, <《劍橋中華民國史》(上卷)三則史事正誤>, 《社會科學論壇》, 2018年6期.

21)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史學月刊》, 1992年2期.

르게, 중국 본연의 발전과 변천 과정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설명하며 그 의의를 높게 삼다. 이와 같은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주목할 점은 그는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의 사료의 오용과 오독,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불가피한 것으로 이것을 일일이 밝히고 반박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다. 오히려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가 심화되고 발전하면, 그 과거 역시 점차 국내의 학자로부터 전면적이고 객관적인 이해될 것이라고 설명한다.²²⁾ 이것은 이후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쏟아지는 비판과는 전혀 다르다.

유춘의 글이 발표된 이후 3년 뒤 中共中央黨校 교수인 판서우신(範守信)이 <신중국의 성립으로 보는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의 왕조순환관(從新中國的成立看《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王朝循環觀)>는 글을 발표하여, 이 책의 제1장에서 중국은 서양과 달리 제왕이 중국을 통치하는 전통적인 힘이 존재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을 새로운 왕조로 보는 시각을 강하게 비판하였다.²³⁾ 그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성립은 중국공산당 영도하의 반제반봉건의 인민대혁명이자 승리의 결과이며, 중국 역사상 인민이 처음으로 국가의 주인이 되어 새 시대를 연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 글 이후 2년 뒤 동귀창 역시 두 편의 글을 발표하여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를 강하게 비판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 그는 이미 《캠브리지 중화민국사》가 마오쩌둥이 사상을 보수적 민족주의자라는 설명을 강하게 비판한 바 있으며, 이번 두 편의 글도 바로 그 연장선에 있다. 우선 <50~60년대 중국외교의 몇 가지 문제 -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상관 관점에 대한 평가(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에서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이 소련은 강대국이고 중국은 약소국이라는 시각에서 1950년대 중소갈등을 다루고, 1958년 타이완 해협 위기와 1959 중국과 인도 변경 전쟁이 중국 외교정책 변화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주장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그는 1950~60년대 중국의 외교 정책은 일관되었으며, 평화에서 호전 기조로 전환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변경 지역에서 벌어진 일련의 문제들은 국가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주권 국가라면 당연한 것이라고 강변한다.²⁴⁾ 또 다른 문장인 <“타국을 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역사를 먼저 멸해야한다.”--《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평가(“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는 제목에서부터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명확히 제시한다. 그는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가 현실에 따른 전형적인 역사를 제거하고, 공격하기 위한 저작이라고 비평한다. 그러면서 이 책의 잘못된 관점과 반동 논조를 어떻게 무시할 수 있는가 반문한다.²⁵⁾ 이것은 앞서 살펴본 유춘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다.

하지만 동귀창의 목소리가 중국학계의 주류 목소리는 아니었다. 물론 유춘의 목소리도 주류 목소리는 아니었다. 중국학계의 주류 목소리는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반응과 비슷하다.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의 장점과 새로운 시각을 인정하면서

22)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p.65.

23)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當代中國史研究》, 1997年 2期.

24)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p.22.

25) 董國強, <“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內部文稿》, 1997年 3期, p.30.

도, 사료의 오류와 역사적 왜곡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것이었다. 이 책에 대한 반박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다. 아래 표는 중국학계에서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관련해 발표된 논저 목록인데, 저자들의 소속을 보면, 대부분 黨史 관련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이 현재 정치와도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기를 다룬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의 ‘오류’를 적극적으로 교정하여, 자신들의 정당성을 지킬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명	논문명	저널명	권호	저자 소속기관
尤存	海外漢學家眼中的現代中國——讀《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	史學月刊	1992年2期	上海華東化工學院人文社會科學研究中心
範守信	從新中國的成立看《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王朝循環觀	當代中國史研究	1995年6期	中共中央黨校
董國強	“滅人之國必先去其史”——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內部文稿	1997年3期	南京大學歷史系
董國強	關於50-60年代中國外交的幾個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觀點	當代中國史研究	1997年2期	南京大學歷史系
張志明	《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66-1982)》若干史實辨證	當代中國史研究	1998年4期	中共中央黨校黨建教研部
朱地	對建國初期知識分子思想改造學習運動的歷史考察——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一個觀點	中共黨史研究	1998年5期	中共中央黨史研究室
楊春雨	先例既開,來日方長——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朝鮮戰爭部分	軍事歷史研究	1999年3期	미상
潘正祥, 胡羨敏	中蘇友好時期的幾個是非問題——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幾個觀點	重慶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0年2期	中國科技大學哲學社會科學部
周敬青	林彪外逃中一個插曲的真相——《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有關九一三事件的一則史實辨析	黨的文獻	1999年4期	中共中央黨校
周敬青	解開林彪是否被挾持之謎——兼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的有關記述	黨的文獻	2000年4期	周敬青
劉傳利, 潘正祥	關於《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中蘇分裂問題正誤	江淮論壇	2000年6期	中國科技大學哲社部
李海燕, 潘正祥	新中國爲什麼“一邊倒”——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論點	史學月刊	2000年6期	中國科技大學社科部
朱地	也論“大躍進”的緣起——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的有關論述	中共黨史研究	2001年1期	中共中央黨史研究室
劉學申	《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1949-1965年》質疑	晉中學院學報	2009年5期	安徽師範大學政法學院

서두에서 언급했듯 中共中央黨校 교수 진춘밍(金春明)은 국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위의 표에서 보이는 朱地, 周敬青, 潘正祥, 張志明 등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이외에 그 결과물로 孫慧榮(中共中央黨校), 江英(中國軍事科學研究院), 王紅續(中共中央黨校), 陳述(中共中央黨校), 李家泉(中國社會科學院臺灣研究所), 劉新(中國社會科學院臺灣研究所), 李振霞(中共中央黨校) 등이 참여했다. 참여 연구자의 소속을 볼 수 있듯 국가 연구소의 연구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 논문을 발표했으며, 최종적으로 2001년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평가(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²⁶⁾라는 책을 출판하였다. 이 책의 서술 방식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각 장절의 서두에서 제시하고, 그것을 실증적으로 반박했다. 책의 목차만 보아도, 어떤 부분이 쟁점이 되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제1장 중화인민공화국의 역사상 지위
 - 제1절 “왕조순환”이 아니라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다
 - 제2절 공산당 승리와 국민당 실패는 어디에 있는가
 - 제3절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의의
- 제2장 중국의 사회경제제도 건설
 - 제1절 사회 개조의 창의적 실험
 - 제2절 제1차 5개년 계획의 몇 가지 문제
 - 제3절 소련 모델과 중국 현실
- 제3장 50년대 몇 차례 사상·정치 운동 평가 및 분석
 - 제1절 건국 초기 지식인 사상개조운동
 - 제2절 50년대 중반 당 간부와 지식인 상호관계의 기초
 - 제3절 지식인과 1957년 정풍(整風)
 - 제4절 마오쩌둥이 정풍(整風)에서 반우(反右)로 전환을 결정하게 된 원인
 - 제5절 “대약진”의 기원에 관하여
- 제4장 신중국 외교관계에 대한 간략한 분석
 - 제1절 신중국은 왜 “일변도(一邊倒)” 정책을 폈는가
 - 제2절 신중국은 왜 조선전쟁[한국전쟁]에 참가했는가
 - 제3절 중국은 왜 평화 5공존 원칙을 제시했는가
 - 제4절 왜 진먼(金文)을 포격했는가
 - 제5절 중국과 인도 변경 충돌은 왜 발생했는가
 - 제6절 중소 동맹은 어떻게 깨졌는가
 - 제7절 마오쩌둥이 제시한 새로운 외교이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제8절 신중국 대외관계 연구 방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제5장 “문화대혁명” 재인식

26) 金春明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湖北人民出版社, 2001.

- 제1절 “문혁”이 벌어진 원인 재고
- 제2절 마오쩌둥이 “문혁” 발동은 소위 “정치연맹”이라는 논쟁에 관하여
- 제3절 “문혁”이 가져온 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하여
- 제6장 마오쩌둥 사상의 유산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제1절 마오쩌둥 사상은 마르크스주의의 중국화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 제2절 마오쩌둥이 추구한 중국 건설의 길은 유토피아를 추구한 것인가
 - 제3절 마오쩌둥의 잘못을 저지르게 된 원인 분석
 - 제4절 기타 여러 관점
- 제7장 중국 특색 사회주의 길 건설의 시작
 - 제1절 “계승권을 위한 투쟁”은 1962-1992년 중국 역사 발전의 주제가 아니다
 - 제2절 무시된 위대한 역사성의 전환
 - 제3절 무시된 역사 주제
- 제8장 “분리된 성(省) 타이완”의 역사 진실
 - 제1절 타이완의 역사적 지위
 - 제2절 일본 점거 시기(1895-1945) 타이완 사회 발전에 대한 정확한 평가
 - 제3절 중외(中外) 인사의 “2.28 사건”에 대한 다른 이식
 - 제4절 타이완 경제, 정치의 발전
 - 제5절 타이완 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역할
- 제9장 역사관과 방법론에 관한 여러 문제
 - 제1절 역사관과 방법론의 역사학 연구에 도전
 - 제2절 역사와 논리, 주관과 객관의 일관성 문제
 - 제3절 걸출 인물과 인문 군중의 역사상의 역할에 대한 평가 문제
 - 제4절 역사관과 방법론 이해의 몇가지 오해
- 부록(1)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1966-1982)》의 여러 역사적 사실 변증
- 부록(2) 린바오(林彪)는 협박당했다는 미스터리를 풀다 --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중 “9.12” 사건의 역사적 사실 분석과 판별

이 책은 각 장절의 제문제에 대한 간략한 평가와 함께,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을 제시한 후 그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한다. 지면의 제약으로 모든 내용을 다룰 수 없지만, 최근 중국이 ‘抗美援朝’를 강조하고 있고, 한반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전쟁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4장 2절 ‘신중국은 왜 조선전쟁[한국전쟁]에 참가했는가’에서 본서는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가 비교적 객관적으로 중국의 참전 원인을 기술하고 있다고 평했다. 마오쩌둥은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고 싶어 하지 않았고, 중국의 전쟁을 선동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설명에 동조한다. 하지만 한국전쟁 전반 서술에 있어 서방의 평론가들을 인용해 중국인민해방군이 전쟁 말기에 이르러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피폐해졌고, 어떤 때는 군대라 할 수 없을 정도로 무너져 무기를 버리고 투항했다는 기술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게다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는 이 전쟁을 抗美援朝로 인한 중국의 애국주의 고조라는 긍정

적 영향보다 부정적 영향이 컸다고 평하고 있는데,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²⁷⁾

이 부분을 기술한 江英²⁸⁾은 ‘抗美援朝’를 승리로 규정하며, 역사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설명한다. 우선 ‘抗美援朝，保家爲國’의 목적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구했고, ‘조선반도’의 정세를 안정시켰으며, 중구 대륙의 안전을 지키고,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를 지켰다고 강조한다. 다음으로 미국에 엄중한 교훈을 주었고, 미국의 침략 기세를 꺾어 사람들이 국제 패권주의 세력과 싸울 수 있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으며, 중국의 국제 지위를 제고시키고, 아시아와 국제 사안에 대해 중요한 지위를 확보했다고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중국 인민의 정치적 각성을 가져와 애국주의를 고조시켜 중국의 경제 회복과 발전을 촉진했다고 평가한다.²⁹⁾ 이는 중국이 그동안 견지해온 한국전쟁에 대한 인식이자 평가이며, 최근에 중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환기시키고 있다. 시대의 필요에 따라 특정 내용이 호출되고 강조되지만, 한국전쟁을 포함해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평가》에 제시된 시각과 설명이 대부분 현재까지 견지되고 있다. 이는 중화인민공화국의 현실적 이익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

3. 맺음말

지금까지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에 대한 중국학계의 인식에 대해 살펴보았다. 직접적으로 비평한 글만을 다루었고, 여기에 참여한 적지 않은 이들이 ‘黨史’ 관련 연구자기에 본고에서 언급한 내용이 중국학계 전체를 대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그동안 많은 사료가 공刊되었고 혁명사관의 반성 속에서 적지 않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었다. 새로운 방법론이 등장하고 연구 주제도 다양해 졌다. 하지만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를 비판하며 주장했던 중국학계의 기본 관점은 크게 바뀌었는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문제는 캠브리지 중국사가 출간된 이후 출판된 일련의 중국근대사와 중화인민공화국사 通史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그렇기에 《캠브리지 중화민국사》와 《캠브리지 중화인민공화국사》가 중국학계에 소개된 지 30년이나 지났지만, 중국학계 通史³⁰⁾와 비교 대상으로 갖는 논저로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다.

27) 金春明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pp.269-270.

28) 江英이 기술했다고 책에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이 부분은 江英의 박사학위 논문인 《五十年代党的国家安全战略研究》(中共中央党校, 1999)의 일부 내용이다.

29) 金春明主編, 《評《劍橋中華人民共和國史》》, pp.284-287.

30) 張海鵬 主編, 《中國近代通史》(全十卷), 江蘇人民出版社, 2009; 張憲文, 張玉法 主編, 《中華民國專史》(全十八卷), 南京大學出版社, 2015; 劉國新 主編, 《中華人民共和國歷史長編》(全九卷), 天津人民出版社, 2010; 當代中國研究所, 《中華人民共和國史稿》(全五卷), 人民出版社, 2012; 鄭謙, 龐松 主編, 《中華人民共和國通史》(全七卷), 廣東人民出版社, 2019.